

발간 등록 번호

71-4140000-000048-01

漣川郡誌

4 권 (상)

연천의 삶과 문화

漣川郡誌編纂委員會

漣川郡誌

4 권 (상)

연천의 삶과 문화

漣川郡誌編纂委員會

| 목 차 |

제 4 권 [상]

연천의 삶과 문화

| | | | |
|---------------------------|-----------|-------------------------|-----------|
| 제1장.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 7 | 제3장. 연천의 민속과 설화 | 59 |
| I. 선사~고대의 연천 | 9 | I. 생산풍속과 생산활동 | 61 |
| II. 고려시대의 연천 | 11 | 1. 생산풍속 | 61 |
| III. 조선시대의 연천 | 13 | 2. 봄철 | 61 |
| IV. 구한말~일제강점기의 연천 | 17 | 3. 여름철 | 62 |
| V. 현대의 연천 | 22 | 4. 가을철 | 63 |
| | | 5. 겨울철 | 64 |
| 제2장.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 25 | II. 복식과 생활 | 65 |
| I. 지형과 수계 | 27 | 1. 조사개요 | 65 |
| 1. 지형 | 27 | 2. 일생의례복식 | 65 |
| 2. 수계 | 28 | 3. 일상복 | 69 |
| II. 풍수 | 29 | 4. 길쌈과 갈무리 | 71 |
| 1. 연천인의 풍수적 인식과 태도 | 29 | 5. 현대 의생활의 변화 | 72 |
| 2. 연천 고을의 풍수적 입지와 배치 | 33 | III. 음식과 생활 | 73 |
| 3. 연천 마을의 비보풍수 | 34 | 1. 전통시대의 식생활 | 73 |
| III. 성씨와 집성촌 | 37 | 2. 특산품 | 73 |
| 1. 성씨별·출산지별 구조 | 37 | 3. 향토음식 | 76 |
| 2. 주요 성씨 및 집성촌 현황 | 43 | IV. 집과 생활 | 78 |
| IV. 연천의 고지도 | 47 | 1. 집과 문화 | 78 |
| V. 교통 | 58 | 2. 집의 공간 | 78 |
| | | 3. 주거 문화 | 82 |
| | | V. 전통의례: 송의전 제향 | 83 |
| | | 1. 송의전 연혁 | 83 |
| | | 2. 대제 분정기 및 배치 | 83 |
| | | 3. 제사 행사법 | 87 |
| | | 4. 진설(陳設)·축문(祝文)·망기(望記) | 88 |
| | | 5. 제사 절차 | 89 |

| | | | |
|---------------------|------------|---------------------------|------------|
| VI. 세시풍속 | 91 | 제4장.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 129 |
| 1. 조사개요 | 91 | I. 연천 지역어의 개관 | 131 |
| 2. 열두달의 세시 | 91 | II. 연천 지역어의 자음과 모음 | 132 |
| VII. 민속놀이 | 97 | 1. 지역어의 자음 | 132 |
| 1. 개설 | 97 | 2. 지역어의 자음변화 | 134 |
| 2. 일제강점기의 민속놀이 | 97 | 3. 지역어의 모음 | 136 |
| 3. 현대의 민속놀이 | 100 | 4. 지역어의 모음 변화 | 138 |
| VIII. 민간신앙 | 103 | III. 연천 지역어의 문법 | 140 |
| 1. 마을 신앙 | 103 | 1. 지역어의 격조사 | 140 |
| 2. 가정 신앙 | 106 | 2. 지역어의 활용 어미 | 142 |
| 3. 무속신앙 | 109 | 3. 지역어의 복수 접미사'들' | 144 |
| IX. 민요와 구비설화 | 110 | IV. 연천 지역어의 어휘 | 146 |
| 1. 민요 | 110 | 1. 농사 및 음식·의복 관계 어휘 | 146 |
| 2. 속담과 수수께끼 | 123 | 2. 인체·육아·인륜·경제 관계 어휘 | 147 |
| 3. 설화 | 124 | 3. 동물·식물·자연 관계 어휘 | 149 |
| | | 4. 형식 명사 '것'의 특성 | 150 |
| | | V. 결론 | 152 |

| 목 차 |

제 4 권 (상)

연천의 삶과 문화

| | | | |
|------------------------------|------------|--------------------------------|------------|
| 제5장.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 153 | 제6장.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 197 |
| I. 고려시대 연천의 풍광과 제영 | 155 | I. 교육 | 199 |
| II. 조선 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 | 157 | 1. 연천 교육의 시작과 변천 | 199 |
| III. 조선 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 | 162 | 2. 유아교육 | 224 |
| IV. 현대 연천의 문학 | 168 | 3. 학교 교육 | 227 |
| 1. 연천출신 문인 | 168 | II. 종교 | 236 |
| 2. 연천관련 문인 | 172 | 1. 유교 | 236 |
| 3.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 | 173 | 2. 불교 | 243 |
| | | 3. 카톨릭교 | 248 |
| | | 4. 기독교 | 254 |
| | | 5. 원불교 | 263 |
| | | 6. 일제강점기 백백교의 만행과 연천 | 265 |
| | | III. 체육생활 | 267 |
| | | 1. 체육시설 | 267 |
| | | 2. 체육단체 | 268 |
| | | 3. 체육활동 | 269 |
| | | IV. 지역 문화예술 및 활동 | 272 |
| | | 1. 연천문화원 | 272 |
| | | 2.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시설 | 273 |
| | | 3. 언론 기관 | 274 |
| | | 4. 도서관 및 출판단체 | 275 |
| | | 5. 축제 | 276 |



제 1 장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 I. 선사~고대의 연천
- II. 고려시대의 연천
- III. 조선시대의 연천
- IV. 구한말~일제강점기의 연천
- V. 현대의 연천

I. 선사~고대의 연천

연천군의 연혁은 일찍이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1978년에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 유역에서 다량의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이래로 1979~1983년 6차에 걸친 발굴 조사에 의해 침두형 주먹도끼·타원형 주먹도끼·원시형 침두주먹도끼·가로날도끼·양면날찍개·외면날찍개·굵개류 등 많은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 이미 27만 년~10만 년 전 이곳에 인간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곡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전기 구석기 아슐라안(Acheulian)형 석기로 대표되는 양면핵석기와 가로날도끼 등이 출토된 점은 고고학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²⁾

전곡리 유적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석기들은 규암·석영·현무암이나 흑요석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참나무 꽃가루와 멧돼지 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석기시대인들은 타제석기를 사용하면서 식량을 주로 수렵·채집에 의존하고 동굴 생활을 하였다.³⁾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탄강 주변인 남계리·주월리·가월리·장파리·금파리·신답리 등에서 구석기 유적들이 계속 발굴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구석기 문화인들의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⁴⁾ 신석기시대 유적인 전곡읍 은대리에서 간돌도끼 1점이 발견되었고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양원리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전형적인 탁자형의 북방식 지석묘이다.⁵⁾

한편 연천 지역은 고조선 시기에 진번군의 영향 아래 있다가 기원전 82년경 한사군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한강유역에서 신흥하고 있던 백제의 세력권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백제는 부여계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국가로 한강유역의 경제성을 이용하기 위한 온조 집단과 비류 집단의 통합에 의해 형성되었고 중국 근현과 말갈과의 경계에 놓여 있던 연천 지방을 세력권에 편입하였다.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⁶⁾으로 고구려와 이 지역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에 연천 지역은 물론 한강유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1) 이 장의 내용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내용(조병로, 「시대별 행정구역 변천」,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25쪽~139쪽.)을 요약하고, 그간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편집한 것이다.

2) 배기동, 『전곡리 1986년도 발굴조사보고』,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3) 이용조 외, 『한국 선사문화의 연구』, 평민사, 1980.

4) 손보기, 『구석기유적 : 한국·만주』,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1.

강만길 외 『한국사』 1, 한길사, 1994

5)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연천군의 선사문화」, 『연천군지』, 1987.

6) 박성봉 『고구려 남진경영사의 연구』, 백산자료원, 1995.

되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고국원왕 군대를 예성강 전투에서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평양성까지 급습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그 결과 백제의 영토는 연천 지역에서 예성강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수 차례에 걸친 백제 침공과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475년(장수왕 63) 한성정벌 이후 한강 유역은 점차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본군 일대도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부르게 되었다.⁷⁾ 이것이 본군 연혁에 관한 최초의 역사상 기록이다. 백제·고구려에 이어 한강 유역을 지배하게 된 신라는 757년(경덕왕 16)에 공성현(功成縣)으로 개정하고 철성군(鐵城郡 : 현 철원)의 영현(領縣)이 되게 하였다.

한편 오늘날의 연천군은 1914년 4월 1일 연천·적성·마전·삭녕이 통합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적성·마전·삭녕에 대한 연혁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전 지역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현(麻田漢縣) 또는 나사파홀(泥沙波忽)으로 불리웠다. 신라 경덕왕 때에는 임단현(臨端縣)으로 고쳐 우봉군(牛峰郡)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초에 마전으로 바뀌었다. 적성 지역은 고구려 때에는 칠중현(七重縣). 칠중성현(七重城縣)으로 불리었으며, 때로는 탄은별(灘隱別)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때에 중성(重城)으로 개칭, 내소군(來蘇郡 : 현 양주)의 영현이 되었다. 삭녕 지역의 경우 본래 고구려 때에는 소읍두현(小邑豆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에 삭읍(朔邑)으로 개칭되어 황해도 토산군(鬼山郡)의 영현이 되었다.

7) 『三國史記』 권 5, 魏志 4, 地理 2, 鐵城郡.

II. 고려시대의 연천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는 군현제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였다.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 즉 외관이 파견되지 못한 주현—속현 체제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나, 차츰 통치 체제가 확립되면서 983년(성종 2)에는 12목이 설치되었다. 고려의 지방 제도는 1018년(현종 9) 대대적인 개편으로 5도 양계 및 4도호부, 8목, 56주군, 20개의 현으로 확립되었다.⁸⁾ 이러한 지방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연천 지역은 태조 때에 장주(漳州 또는 障州)로 개칭되었으며, 995년(성종14)에 포천과 함께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8)에 폐지하였다. 1018년 장주를 다시 동주(東州 : 현 철원)에 소속시켰다가 1175년(명종 5) 철원과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는데 승령현(僧嶺縣)의 감무가 겸임하였다.⁹⁾ 1309년(충선왕 1)에 충선왕이 왕위에 오르자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여 장주를 바꾸어 연주(漣州)로 개칭하게 되었다.

연천군은 고려 초기에 북부 지방 양계의 하나인 삭방도(朔方道)에 소속되었다가¹⁰⁾ 1069년(문종 23) 개성부에 편입되면서 경기도에 소속하게 되었다. 남쪽으로 한양(漢陽)·부원(富原)·견주(見州)·사천(沙川)·풍양(豐壤)·포주(抱州)·행주(幸州)·고봉(高峰)·교하(交河) 등의 주현과 동쪽의 영흥(永興)·삭녕(朔寧)·승령(僧嶺)·안협(安峽)·철원(鐵原) 등이 편입되면서 경기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후 1390년(공양왕 2) 경기가 경기좌우도로 개편되어 좌도에는 장단(長湍)·임강(臨江)·토산(兔山)·임진(臨津)·송림(松林)·마전(麻田)·적성(積城)·파평(坡平)·한양·남양(南陽)·인주(仁州)·안산(安山)·교하·양천(陽川)·금주(衿州)·과주(果州)·포주·서원(瑞原)·고봉 및 철원·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연주·삭녕이 속한다. 우도에는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豐)·덕수(德水)·우봉·부평(富平)·강화(江華)·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通津) 및 연안(延安)·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峽溪) 등을 편입하였다.¹¹⁾

한편 마전 지역은 태조 때에 마전현으로 개칭되었고, 1018년 장단의 영내에 속하여 상서도성의 관할 아래 있다가 1063년 개성부의 직할이 되었다. 그리고 예종 때에 적성현에 병합되었

8) 하현강,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1977; 김윤곤, 「고려 군현제의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홍연진, 「고려전기 道制의 성립과 그 성격」, 『부대사학』 17, 1993.

9) 원창애, 「고려 중·후기 監務증치와 지방제도의 변천」, 『청계사학』 1, 1984; 이인재,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監務」, 『외대사학』 3, 1990.

10) 김남규, 『고려 양계지방사연구』, 새문사, 1989.

11)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다가 1389년(공양왕 1) 다시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다. 적성 지역은 태조 때에 적성현으로 개칭되었으며, 1018년 마전 지역과 같이 장단군 영내에 속하여 상서도성의 관할 아래 있었다. 1062년(문종 16) 다시 개성부 직할로 되었다가 1106년(예종 1) 다시 분리하여 감무가 배치되기도 하였다. 삭녕 지역도 태조 때에 삭녕현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 동주에 소속되었다가 1106년 승령현에 감무를 배치할 때에 삭녕을 여기에 소속시켰다.

III. 조선시대의 연천

조선시대에 이르러 1413년(태종 13) 10월 군현을 개편할 때에 “무릇 군현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친다”는 예에 따라 연주를 연천(漣川)으로 고쳤다.¹²⁾ ‘연천’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또한 연천 현감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8월에 중앙과 지방의 쓸데 없는 관직, 즉 용관(冗官)의 도태 정책에 따라 경기·충청·전라도지역 일부 군·현의 병합되는 과정에서 연천은 마전과 병합하여 마련(麻漣)이라 하였다.¹³⁾ 이러한 합병 조치는 1416년(태종16) 7월에 마전·연천으로 다시 원상 복구되었다.¹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조선 초기 연천현의 규모를 살펴보면 4방 경계는 동쪽의영평까지 12리, 서쪽의 임강까지 15리, 남쪽의 양주까지 10리, 그리고 북쪽의 철원까지는 20리였다. 그리고 당시의 호구는 186호, 인구는 360명 정도였다. 군정으로는 시위군 23명, 선군 21명이였고, 성씨로는 토성으로 이(李)·전(全)·정(鄭)·박(朴)·송(宋)·김(金)씨가 살았으며 망성은 정(井)·최(崔)·방(房)·형(邢)·조(曹)·전(田)·손(孫)씨가 있었다. 이곳의 지리(地利)는 비교적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일찍 추워지는 관계로 논은 9분의 2에 지나지 않았다. 곡물류는 벼·조·기장·피·콩·팥·뽕나무·삼 등을 주로 재배하며, 토산품(貢物)으로는 꿀·지초·느타리버섯·싸리버섯 등이 유명했다.

한편 조선 초기에 연천·철원 지역은 임금의 행차가 매우 잦은 곳이었다. 특히 세종 때에는 연천의 가사평(加士平)과 불로지산(佛老只山)·오봉산(五峰山) 그리고 불현산(佛見山) 등이 강무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임금은 사냥물리와 군사 훈련차 자주 이 곳에 행차하게 되었으며, 주정소(晝停所 : 사냥하는 동안 낮잠에 임시 머무는 장소)의 하나였던 송절원(松折院 또는 松節院)도 들판에 악차(輿次 : 임금이 거동할 때에 쉬도록 막을 둘러친 곳)를 배설하고 종종 머물렀던 곳이었다.¹⁵⁾

강무장에의 잦은 행차는 백성들을 사냥물리꾼으로 동원하는 등 부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1427년(세종 9) 에 연천의 성황당산(城隍堂山) 일부 강무장을 혁파하고,¹⁶⁾ 1451년(문종 1) 3월에 의정부에서 각 도의 강무장 혁파를 건의하여 연천의 재궁산(齎宮

12) 『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0월 辛酉.

13) 『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辛酉.

14) 『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7월 己未.

15) 『世宗實錄』 권25, 세종 6년 9월 庚子.

16) 『世宗實錄』 권38, 세종 9년 10월 壬申.

山)·마말기(馬末歧)·아현산(牙峴山) 등도 폐지되었다.¹⁷⁾

그리고 연천은 무예를 연습하는 강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주현의 병합 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마전을 연천에 병합시키자는 여론이 높았다.¹⁸⁾ 경기감사 성개(成槩)는 “마전현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과 적성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니 마땅히 마전을 연천에 합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결국1435년(세종 17) 12월 이조의 건의에 따라 경기의 철원을 강원도에 소속시키고 그 관할인 연천과 삭녕·영평은 양주에, 마전은 장단·교하·고양(高陽)등과 함께 원평부(原平府)에 소속시켰다.¹⁹⁾

한편 세조 때에 각 도의 내지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인근 군현을 분속시키는 조치에 따라 경기의 광주도(廣州道)는 중익을 광주·이천·양근·양지로 하고, 좌익을 여흥·천녕·지평·음죽을, 우익은 안성·진위·양성·용인·죽산으로 하였다. 양주도(楊州道)에는 좌익을 삭녕·마전·영평·연천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장단·임진·임강으로 편성하여 부평도(富平道)와 함께 지방 군진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²⁰⁾ 이후 1457년(세조 3) 10월에 다시 재편하여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거진을 설치하게 되자 경기도에는 수원진(水原鎭) 관할 아래에 부평·인천·금천·안산·남양·진위·안성·양성을, 광주진 소속으로 양근·지평·천녕·여흥·음죽·죽산·이천·양지·용인을 소속시켰다. 그리고 양주진에는 연천·마전·적성·원평·교하·고양·영평·포천·가평을, 강화진에 김포·양천·통진·교동을 개성진에는 삭녕·임진·풍덕을 소속시켜 거진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²¹⁾

임진왜란으로 왜병이 영평·연천·삭녕·평강 등지에 횡행하여 무방비 상태에 이르자 1592년(선조 25) 6월 순변사 이일(李鎰)이 대탄(大灘)을 방어하면서 강원도 방어사 문몽헌(文夢軒)과 남병사 이훈(李渾)과 더불어 철원을 방어선으로 삼아 왜적을 차단하여 아군의 후방 구실을 한 철원·연천·삭녕 등의 방어책을 수립하고, 경기도·강원도·황해도 인근 고을을 경략하여 도성을 수복할 계책을 독려하였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3년(선조 26) 6월 왜적에게 침범당한 광주·여주·파주·양주 그리고 연천·적성·마전 등이 분탕을 겪었거나 점령되었다.²³⁾

1627년(인조 5) 2월 정묘호란 당시 청의 군대가 검수(劍水)까지 쳐들어오자 임진강 방어를

17) 『文宗實錄』 권6, 문종 1년 3월 丙辰.

18) 『世宗實錄』 권69, 세종 17년 7월 辛卯.

19) 『世祖實錄』 권2, 세조 1년 9월 癸未.

20) 『世祖實錄』 권9, 세조 3년 10월 庚戌.

21) 『宣祖實錄』 권27, 선조 25년 6월 乙未; 『宣祖實錄』 권32, 선조 25년 11월 壬申.

22) 『宣祖實錄』 권27, 선조 26년 6월 戊子.

23)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甲辰.

주목적으로 장단·연천·삭녕 지역은 주요 방어선이 되었으며, 연천현의 수령을 무관으로 파견하여 지키게 하기도 했다.²⁴⁾ 그러나 1662년(현종 3) 12월 연천의 이애립(李愛立)이 전패(殿牌)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여 악역을 범했다는 이유로 연천현을 혁파하고 마전군에 통합시켰다.²⁵⁾

연천현 행정 구역의 면모가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영조 때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²⁶⁾ 『여지도서』에 나타나 있는 연천현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연천현의 면·리별 호구·인구 현황〉

| 구분 | 리 명칭 | 호구 | 인구 | | |
|--------------|----------|-----|-----|-----|-----|
| | | | 남 | 여 | 합계 |
| 현내면 (縣內面) | 읍내(邑內) | 160 | 231 | 169 | 400 |
| | 지혜동(智惠洞) | 47 | 79 | 58 | 137 |
| | 동막(東幕) | 80 | 118 | 89 | 207 |
| | 무수동(無愁洞) | | 65 | 46 | 111 |
| 남면(南面) | 석현(石峴) | 57 | 89 | 94 | 183 |
| | 진상(進上) | 49 | 91 | 67 | 158 |
| | 하심곡(下深谷) | 80 | 160 | 114 | 274 |
| | 갈묘(葛墓) | 19 | 33 | 18 | 51 |
| | 상심곡(上深谷) | 28 | 45 | 30 | 75 |
| | 옥계(玉溪) | 65 | 97 | 56 | 153 |
| | 진전(榛田) | 22 | 33 | 18 | 51 |
| 동면(東面) | 상수회(上水回) | 47 | 114 | 80 | 194 |
| | 와초(瓦草) | 75 | 126 | 121 | 247 |
| | 옥산(玉山) | 57 | 108 | 100 | 208 |
| | 가척(加尺) | 16 | 41 | 31 | 72 |

24) 『顯宗實錄』 권6, 현종 3년 12월 庚申; 『顯宗實錄』 권19, 현종 12년 4월 戊戌.

25)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영인본), 1973.

26) 『世宗實錄』 권69, 세종 17년 7월 辛卯.

| | | | | | |
|--------|--------|-------|-------|-------|-------|
| 서면(西面) | 계명(雞鳴) | 22 | 50 | 29 | 79 |
| | 군영(軍營) | 27 | 47 | 38 | 85 |
| | 영전(營殿) | 34 | 70 | 36 | 106 |
| | 안월(安月) | 29 | 52 | 39 | 91 |
| | 내동(內洞) | 10 | 7 | 10 | 17 |
| | 야전(野前) | 18 | 33 | 6 | 39 |
| | 소포(小浦) | 25 | 40 | 30 | 70 |
| 북면(北面) | 수회(水回) | 27 | 52 | 37 | 89 |
| | 삼곶(三串) | 53 | 86 | 54 | 140 |
| | 횡산(橫山) | 73 | 171 | 110 | 281 |
| | 중산(中山) | 17 | 35 | 18 | 53 |
| | 사동(沙洞) | 55 | 94 | 66 | 160 |
| | 적거(赤巨) | 66 | 126 | 64 | 190 |
| | 마거(馬去) | 35 | 60 | 44 | 104 |
| 합계 | 29 | 1,293 | 2,353 | 1,672 | 4,025 |

출전 : 『여지도서』 연천읍지 방리조(기묘호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천현은 5개 면, 29개 리로 편성되어 있고, 당시 총 호구는 1,293호, 인구는 남 2,353명, 여 1,672명으로 모두 4,025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 작성 당시의 행정구역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연천현읍지』(1841)에 따르면 연천군의 행정 구역은 현내면에 읍내리·지혜동리·동막리·무수동리, 동면은 상수회리·와초리·옥산리·가척리, 서면은 계명리·군영리·영전리·안월리·내동리·야전리·소포리, 남면은 석현리·왕림리·진상리·하심곡리·갈묘리·옥계리·진전리·상심곡리, 북면은 하수회리·상삼곶리·하삼곶리·중산리·횡산리·사동리·적거리·마거리가 소속되었다. 총 호구는 1,338호이며 인구는 4,674명으로 남자 2,348명, 여자 2,326명이었다. 그후 연천군의 행정 구역은 대체적으로 1895년(고종 32)까지 존속되었다.

IV. 구한말~일제강점기의 연천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는 갑오개혁과 더불어 근대적 행정 개혁의 개편과 동시에 점차 일제 식민지 지배 강화를 위한 행정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행정 구역은 크게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 98호(1895. 5. 26 공포) 「지방제도개정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전국을 2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한성부·인천부·충주부 등 23부제를 실시하였다. 연천군은 한성군·양주군·광주군·적성군 등과 함께 한성부에, 마전군·삭녕군은 개성부의 관할 아래 소속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지방 행정 구획이었던 목·부·군·현과 부윤·목사·부사·현령·현감 등의 관명을 모두 폐지하고, 읍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였으며 관명 역시 군수로 하였다.

이후 1896년(건양 1) 8월 4일 칙령 제 36호(1896. 8. 4 공포)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개정」에 의거하여 전국 23부를 13도로 개정하여 각도에 관찰사를 설치하였다. 13도는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이다. 연천군은 경기도에 소속된 38군의 하나로 4등급에 해당했다. 군에는 군수를 파견하였다.

한편 일제 강점 이후 1907년 철원군의 일부가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 부령 제 111호(1913. 12. 29 공포)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에 의거, 연천군은 13면 111리로 편성되었다. (다음표 참조)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군·면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삭녕군의 군내면·서면·남면과 동면의 대부분, 적성군의 남면·동면과 서면 일부, 마전군의 군내면·동면·서면·강신면·북면·장신면과 하신면 일부 그리고 양주군의 영근면 일부와 장단군 고남면 일부, 황해도 토산군 일부가 편입되었다.

〈1914년도 연천군의 면·리별 현황〉

| 면 명칭 | 리 명칭 | 관할 구역 |
|--------|--------|---|
| 군내(郡內) | 와초(瓦草) | 연천군 동면(東面) 와초리(瓦草里), 철원군 신서면(新西面) 신현리(新峴里) 일부 |
| | 옥산(玉山) | 연천군 동면 옥산리(玉山里) |
| | 현가(玄加) | 연천군 동면 현가리(玄加里) 일부 |
| | 상(上) | 연천군 동면 상리(上里)·현가리, 남면(南面) 진전리(楸田里) 각 일부 |
| | 읍내(邑內) | 연천군 군내면 읍내리(邑內里), 남면 현가리 일부 |
| | 차탄(車灘) | 연천군 군내면 지혜리(知慧里)·차탄리·통현리(通峴里), 남면 현가리 각 일부 |
| | 동막(東幕) | 연천군 군내면 동막리(東幕里)·통현리 일부 |
| | 통현(通峴) | 연천군 군내면 통현리, 양주군(楊州郡) 영근면(嶺斤面) 명천리(明川里) 각 일부 |
| | 고문(古文) | 연천군 군내면 고문리(古文里)·통현리 각 일부 |
| 군남(郡南) | 옥계(玉溪) | 연천군 남면(南面) 진전리(楸田里)·옥계리(玉溪里) 각 일부 |
| | 선곡(仙谷) | 연천군 남면 세곡리(細谷里)·옥계리·하심곡리(下深谷里) 각 일부 |
| | 삼거(三巨) | 연천군 남면 상삼곡리(上深谷里)·하심곡리·진상리(進祥里) 각 일부 |
| | 진상(進祥) | 연천군 남면 차곡리(車谷里)·진상리, 마전군(麻田郡) 화진면(禾津面) 황지하리(黃地下里) 각 일부 |
| | 왕림(旺林) | 연천군 남면 왕림리(旺林里)·석현리(石峴里)·진상리·마전리(麻田里), 마전군 화진면 황지중리(黃地中里)·황지하리(黃地下里) 각 일부 |
| | 황지(黃地) | 마전군 화진면 남계리(楠溪里)·석문리(石門里)·황지상리·황지중리·황지하리 각 일부 |
| | 남계(楠溪) | 마전군 화진면 남계리·황지상리·음대리(音堡里)·석문리 각 일부 |
| 중면(中面) | 삼곶(三串) | 연천군 북면(北面) 삼곶리(三串里) |
| | 횡산(橫山) | 연천군 북면 횡산리(橫山里) |
| | 중사(中沙) | 연천군 북면 중산리(中山里)·사동리(沙洞里)·적거리(赤巨里) 일부 |
| | 적거(赤巨) | 연천군 북면 적거리 일부 |
| | 마거(馬巨) | 연천군 북면 마거리(馬巨里) |
| | 함수(合水) | 연천군 북면 상수리(上水里)·하수리(下水里) |
| 관인(官仁) | 부곡(釜谷) | 연천군 관인면(官仁面) 이하리(二下里)·중리(中里), 군내면 고문리 각 일부 |
| | 중리(中里) | 연천군 관인면 중리 일부, 중하리(中下里) |
| | 삼울(三栗) | 연천군 관인면 삼울리(三栗里) |
| | 초과(初果) | 연천군 관인면 초과리(初果里)·탄동리(炭洞里) 일부 |
| | 탄동(炭洞) | 연천군 관인면 탄동리·고령리(姑嶺里)·냉정리(冷井里) 각 일부 |
| | 냉정(冷井) | 연천군 관인면 냉정리·시영리(始嶺里) 각 일부 |
| | 사정(射亭) | 연천군 관인면 중리·탄동리 각 일부, 영평군(永平郡) 북면(北面) 월경리(越境里) |

| | | |
|--------|----------|--|
| 북면(北面) | 대사(大寺) | 삭녕군(朔寧郡) 군내면(郡內面) 대사리(大寺里) |
| | 상마산(上馬山) | 삭녕군 군내면 상마산리(上馬山里) |
| | 고마(古馬) | 삭녕군 군내면 하마산리(下馬山里) |
| | 삭녕(朔寧) | 삭녕군 군내면 동변리(東邊里)·서변리(西邊里) |
| | 여척(余尺) | 삭녕군 군내면 여척리(余尺里), 황해도(黃海道) 토산군(兔山郡) 다치면(多峙面) 외리(外里) 일부 |
| 서남(西南) | 석둔(席屯) | 삭녕군 서면(西面) 석둔리(席屯里) |
| | 솔현(率賢) | 삭녕군 서면 솔현리(率賢里) |
| | 냉정(冷井) | 삭녕군 서면 냉정리(冷井里) |
| | 가천(佳川) | 삭녕군 서면 가좌리(佳佐里)·형진리(荊川里) |
| | 장학(獐鶴) | 삭녕군 서면 장항리(障項里)·나학리(羅鶴里) |
| | 오탄(梧炭) | 삭녕군 남면(南面) 탄부리(炭釜里)·오장대리(伍莊垞里) 일부 |
| | 고장(古莊) | 삭녕군 남면 고리동리(古里洞里)·오장대리(伍莊垞里) 일부 |
| | 귀존(貴存) | 삭녕군 남면 귀존리(貴存里) |
| 동면(東面) | 적음(笛音) | 삭녕군 동면(東面) 적음리(笛音里)·어적산리(魚積山里) 일부 |
| | 진곡(辰谷) | 삭녕군 동면 진곡리(辰谷里) |
| | 어적산(魚積山) | 삭녕군 동면 어적산리 |
| | 적동산(積洞山) | 삭녕군 동면 적동산리(積洞山里)·어적산리 일부 |
| | 도연(陶淵) | 삭녕군 동면 도연리(陶淵里) |
| 남면(南面) | 신암(神巖) | 적성군(積城郡) 남면(南面) 신암리(神巖里) 일부 |
| | 매곡(梅谷) | 적성군 남면 매곡리(梅谷里), 양주군 석적면(石積面) 회촌리(檜村里) 각 일부 |
| | 구암(龜巖) | 적성군 남면 구암리(龜巖里)·사촌리(沙村里) |
| | 두곡(杜谷) | 적성군 남면 두곡리(杜谷里) |
| | 경신(庚申) | 적성군 남면 경신리(庚申里)·상수리(湘水里), 양주군 석적면 남면(南面) 이패하리(二牌下里) 각 일부 |
| | 상수(湘水) | 적성군 남면 상수리·발운리(發雲里), 양주군 석적면 향동리(項洞里) 각 일부 |
| | 입암(笠巖) | 적성군 남면 마산리(馬山里)·입암리(笠巖里) 일부 |
| | 선산(莘山) | 적성군 남면 선산리(莘山里)·신암리(神巖里) 일부 |
| | 황방(篁芳) | 적성군 남면 황방리(篁芳里) |
| | 한산(閑山) | 적성군 남면 임윤리(林潤里)·한산리(閑山里), 양주군 묵은면(默隱面) 사패리(四牌里) 각 일부 |
| 적성(積城) | 구읍(舊邑) | 적성군 동면(東面) 읍내리(邑內里) 일부· 관동리(館洞里 또는 館洞里) |
| | 가월(佳月) | 적성군 동면 가월리(佳月里)·검상리(檢詳里) 일부 |
| | 주월(舟月) | 적성군 동면 주월리(舟月里) |
| | 설마(雪馬) | 적성군 동면 설마동(雪馬洞) |

| | | |
|--------|-------------------------|---|
| 적성(積城) | 객현(客峴) | 적성군 동면 객현리(客峴里)·백운리(白雲里) |
| | 울포(栗浦) | 적성군 동면 울포리(栗浦里) |
| | 늘목(訥木) | 적성군 동면 늘목상리(訥木上里)·늘목하리(訥木下里) |
| | 장현(塲峴) | 적성군 동면 장평리(塲坪里)·송현리(松峴里)·산덕리(山德里) |
| | 어유지(魚遊池) | 적성군 동면 어유지리(魚遊池里) |
| | 적암(赤巖) | 적성군 동면 적암리(赤巖里), 양주군 영근면(嶺斤面) 하원리(下遠里) 각 일부 |
| | 두지(斗只) | 적성군 동면 두지포(斗只浦)·검상리(檢詳里) 일부 |
| | 마지(馬智) | 적성군 동면 읍내리·검상리 각 일부, 서면(西面) 마지리(馬智里) |
| | 무건(武建) | 적성군 서면 무건리(武建里) |
| | 식현(食峴) | 적성군 서면 식현리(食峴里)·도장동(道長洞), 파주군(坡州郡) 파평면(坡平面) 천천리(泉川里) 각 일부 |
| | 장파(長坡) | 적성군 서면 장파리(長坡里)·도장동(道長洞) 일부 |
| | 답곡(畓谷) | 적성군 서면 답곡리(畓谷里)·도장동 일부 |
| | 자장(紫長) | 적성군 서면 자장리(紫長里)·현석리(玄石里)·식현리 일부 |
| | 삼화(三和) | 마전군(麻田郡) 군내면(郡內面) 삼화리(三和里) |
| | 장좌(長佐) | 장단군(長湍郡) 고남면(古南面) 장좌리(長佐里) |
| 미산(帽山) | 마전(麻田) | 마전군 군내면 읍부리(邑部里)·월곡리(月谷里) |
| | 동이(東梨) | 마전군 군내면 동부리(東部里)·이동리(梨洞里) |
| | 아미(峨廟) | 마전군 군내면 아미리(峨峴里)·장양상리(長羊上里)·장양하리(長羊下里)·냉정리(冷井里) |
| | 백석(柏石) | 마전군 동면(東面) 백촌상리(柏村上里)·백촌하리(柏村下里)·백석(梧石) 분석상리(盆石上里)·분석하리(盆石下里)·유촌상리(柳村上里) 각 일부 |
| | 유촌(柳村) | 마전군 동면 유촌하리(柳村下里)·분석하리·유촌상리, 북면(北面) 무등하리(無等下里) 각 일부 |
| | 우정(牛井) | 마전군 동면 우정상리(牛井上里)·우정하리(牛井下里), 북면 무등하리 일부 |
| | 광동(廣洞) | 마전군 서면(西面) 송현(松峴)·광동리(廣洞里) |
| | 석장(石牆) | 마전군 서면 석장상리(石牆上里)·석장하리(石牆下里)·월곶리(月串里) 일부 |
| 왕징(旺澄) | 기곡(基谷) | 마전군 강신면(江新面) 기곡리(基谷里)·산점리(山店里), 장단군 대위면(大位面) 나부리(羅浮里) 각 일부 |
| | 고왕(高旺) | 마전군 강신면 고왕리(高旺里)·기석리(基石里) 일부 |
| | 고잔상(高棧上) | 마전군 강신면 고잔상리(高棧上里)·고잔중리(高棧中里) 일부 |
| | 고잔하(高棧下) | 마전군 강신면 고잔하리(高棧下里)·고잔중리 일부 |
| | 무등(無等) | 마전군 북면 무등상리·무등하리 일부 |
| | 북삼(北三) | 마전군 북면 외곡리(外谷里)·징파리(澄波里)·애동리(艾洞里), 연천군 서면 야전리(野前里) 각 일부 |
| 노동(蘆洞) | 마전군 북면 노동리(蘆洞里)·무등하리 일부 | |

| | | |
|--------|------------------|--|
| 왕징(旺澄) | 동중(東中) | 마전군 북면 중동리(中洞里)·동막리(東幕里)·애동리 일부 |
| | 작동(鵲洞) | 마전군 서면 작동상리(鵲洞上里)·작동하리(鵲洞下里)·월곶리 일부 |
| | 강서(江西) | 연천군 서면 계명리(鷄明里)·군영리(軍營里)·영정리(永貞里) |
| | 강내(江內) | 연천군 서면 안월리(安月里)·소포리(小浦里)·야전리(野前里) 일부 |
| 백학(白鶴) | 갈현(葛峴) | 마전군 장신면(長新面) 백령리(百嶺里)·갈현리(葛峴里), 장단군 대위면(大位面) 포춘리(浦春里) 각 일부 |
| | 두현(頭峴) | 마전군 장신면 두현리(頭峴里), 장단군 장현내면(長縣內面) 판부리(板浮里) 각 일부 |
| | 백령(百嶺) | 마전군 장신면 백령리(百嶺里) 일부 |
| | 두일(斗日) | 마전군 하신면(河新面) 장곡리(章谷里)·고촌리(高村里) |
| | 통구(通口) | 마전군 하신면 통구리(通口里)·맹동리(頃洞里)·호곡상리(芦谷上里) 각 일부 |
| | 노곡(蘆谷) | 마전군 하신면 호곡상리 일부·호곡중리(芦谷中里)·호곡하리(芦谷下里) |
| | 학곡(鶴谷) | 마전군 하신면 학곡리(鶴谷里) |
| | 구미(九尾) | 마전군 하신면 구미리(九尾里) |
| 영근(嶺斤) | 전동(箭洞) | 마전군 하신면 전동리(箭洞里), 장단군 고남면(古南面) 원당리(元堂里) 각 일부 |
| | 은대(隱岱) | 양주군 영근면(嶺斤面) 은대리(隱岱里)·명천리(明川里)·전곡리(全谷里) 각 일부 |
| | 전곡(全谷) | 양주군 영근면 사랑리(沙浪里)·고탄리(高灘里)·전곡리 일부 |
| | 신담(薪蕃) | 양주군 영근면 신탐리(薪蕃里) |
| | 고릉(高陵) | 양주군 영근면 능동리(陵洞里)·고산리(高山里)·하원리(下遠里) 일부 |
| | 양원(兩遠) | 양주군 영근면 상원리(上遠里)·고산리(高山里)·하원리 일부 |
| | 마포(馬浦) | 양주군 영근면 마포리(馬浦里)·하원리, 적성군 동면(東面) 적암리(赤巖里) 각 일부 |
| 간파(干坡) | 양주군 영근면 간파리(干坡里) | |

출전 : 조선총독부,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상·하, 1917(경인문화사 영인본, 1990)

V. 현대의 연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의해 항복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등 항일 독립 운동의 결과였다. 카이로회담·포츠담선언으로 연합군에 의해 독일과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였지만 남·북에는 소련과 미국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었다.

1945년 11월 3일 미군정의 실시에 따라 재조선미국육군군사령부군정청은 법령 제22호(1945. 11. 3 공포)에 의거하여 정부의 행정 및 관리를 위해 북위 38도 이남에 연접한 지역의 군·촌·면·읍·시의 관리구역을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 내의 경우 연천군을 파주군에 전곡면과 백학면을 파주군 적성면에 이전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1954.10. 21 공포)에 의하여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 지구와 동 지구의 행정 구역에 편입되는 북한 38도 이남의 지역에 대하여 수복 지구와 행정 구역을 편입하게 되었다.

당시 연천군의 행정 구역에 편입된 관할 구역은 연천면·군남면·미산면(전파주군 적성면 구역 중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전곡면·왕징면(전서남면과 전장단군 강산면의 지역을 편입)·중면(전삭녕군 지역 편입)·백학면(전장단군 대강면과 장도면·장남면 지역 중 북위 38도 이북 지역을 편입)이었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7일자로 행정권을 수복하여 8개 면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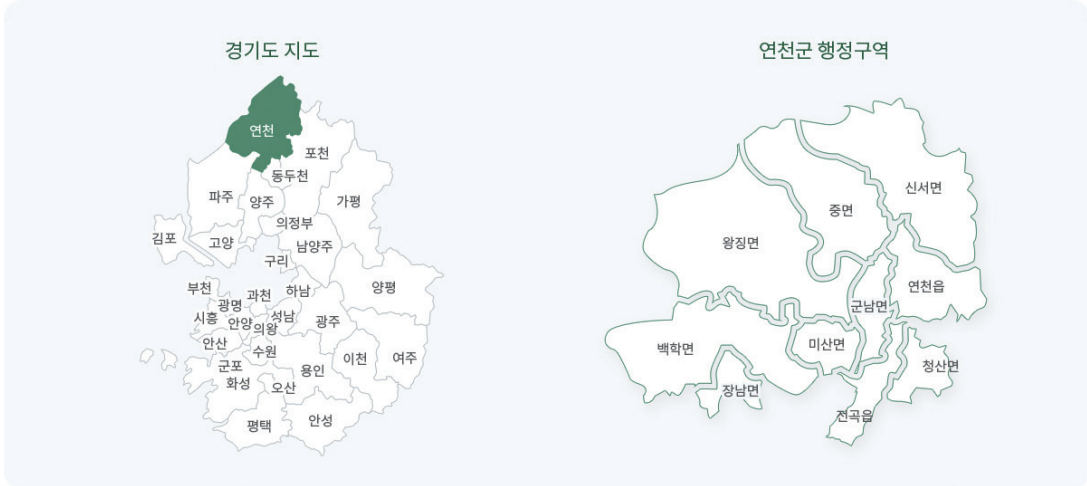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 11. 21 공포)에 따라 파주군 적성면의 늘목리를 전곡면에, 삼화리를 미산면에,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전 인북면의 지역을 편입)이 연천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군조례 제111호(1965. 4. 30 공포)에 의거하여 백학면에 원당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 9409호 「미금읍 등 53개읍 설치에 관한 규정」(1979. 4. 7 공포)에 따라 연천면을 연천읍으로 승격하였다. 그 결과 1읍 8면이 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 관할구역이 자주 바뀌는 배경에는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권역의 변동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구획 조정의 불가피, 도서 지역·접적 지역·간척 지역 등 일부 특수 지역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이다.

연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공포)에 의거, 관인면 일원을 포

27) 『美軍政廳官報』 Vol. No.1, 原主文化社, 1991.

〈연천군의 행정구역(연천군 홈페이지)〉



천군에, 포천군 청산면 초성리·대전리·장탄리·궁평리·백의리를 연천군 청산면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1985년 5월 29일 군조례 제1001호(1985. 5. 29 공포)로 연천군 연천읍 차탄 2리를 차탄 2·4리로, 군남면 삼거리를 삼거 1·2리로, 옥계 1리를 옥계 1·3리로, 남계리를 남계 1·2리로 각각 분리하였다.

1985년 9월 20일 군조례 제1019호(1985. 9. 20 공포)에 의해 연천군 중면 횡산리를 행정리로 수복하였으며,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등 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85. 10. 1 공포)에 의거, 연천군 전곡면을 전곡읍으로 승격하여, 연천군은 2읍 7개 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1986. 12. 23 공포)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를 백학면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다.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57호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88. 12. 22 공포)에 의거,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를 연천군 연천읍에 편입시켰다. 그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로의 개설, 공단 및 주택 단지의 조성 기타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행정 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의 행정 구역을 조정, 당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려는 데 있었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026호(1989. 3. 30 공포)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 원당출장소를 장남면으로 승격, 2읍 8개 면으로 편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연천군의 행정 구역과 관할 면·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20년도 연천군의 관할 행정 구역 현황〉

| 읍·면 명칭 | 세대 | 인구 | 법정리수 | 관할 법정리 | 관할 법정리(미입주) |
|--------|--------|--------|------|------------------------------------|--|
| 연천읍 | 4,010 | 8,103 | 10 | 차탄, 현가, 상, 와초, 옥산, 읍내, 동막, 통현, 고문 | 부곡 |
| 전곡읍 | 8,488 | 19,481 | 8 | 전곡, 은대, 신담, 고릉, 양원, 간파, 늘목 | 마포 |
| 군남면 | 1,750 | 3,387 | 7 | 삼거, 진상, 옥계, 왕림, 선곡, 남계, 황지 | |
| 청산면 | 2,320 | 4,346 | 5 | 초성, 대전, 장탄, 궁평, 백의 | |
| 백학면 | 1,369 | 2,810 | 21 | 두일, 백령, 전동, 노곡, 학곡, 구미, 석장, 통구, 두현 | 갈현, 포춘, 향동, 매현, 두매, 석주원, 상, 중, 하, 사시, 오음, 고읍 |
| 미산면 | 959 | 1,793 | 8 | 유촌, 아미, 백석, 동이, 마전, 우정, 삼화 | 광동 |
| 왕징면 | 567 | 1,059 | 18 | 무등, 노동, 북삼, 동중 | 고잔상, 고왕, 고잔하, 기곡, 작동, 임강, 오탄, 귀존, 고장, 장학, 가천, 냉정, 강내, 강서 |
| 신서면 | 1,706 | 2,897 | 10 | 대광, 도신, 내산, 답곡 | 마전, 승양, 도밀, 갈현, 덕산, 신현 |
| 중면 | 110 | 206 | 11 | 삼곶, 횡산 | 중사, 적거, 어적산, 마거, 합수, 적음, 진곡, 적동산, 도연 |
| 장남면 | 351 | 757 | 5 | 원당, 자작 | 판부, 고량포, 반정 |
| 합 계 | 21,630 | 44,839 | 103 | | |

출처 : 연천군 『통계연보』, 2020.



제 2 장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I. 지형과 수계

II. 풍수

III. 성씨와 집성촌

IV. 연천의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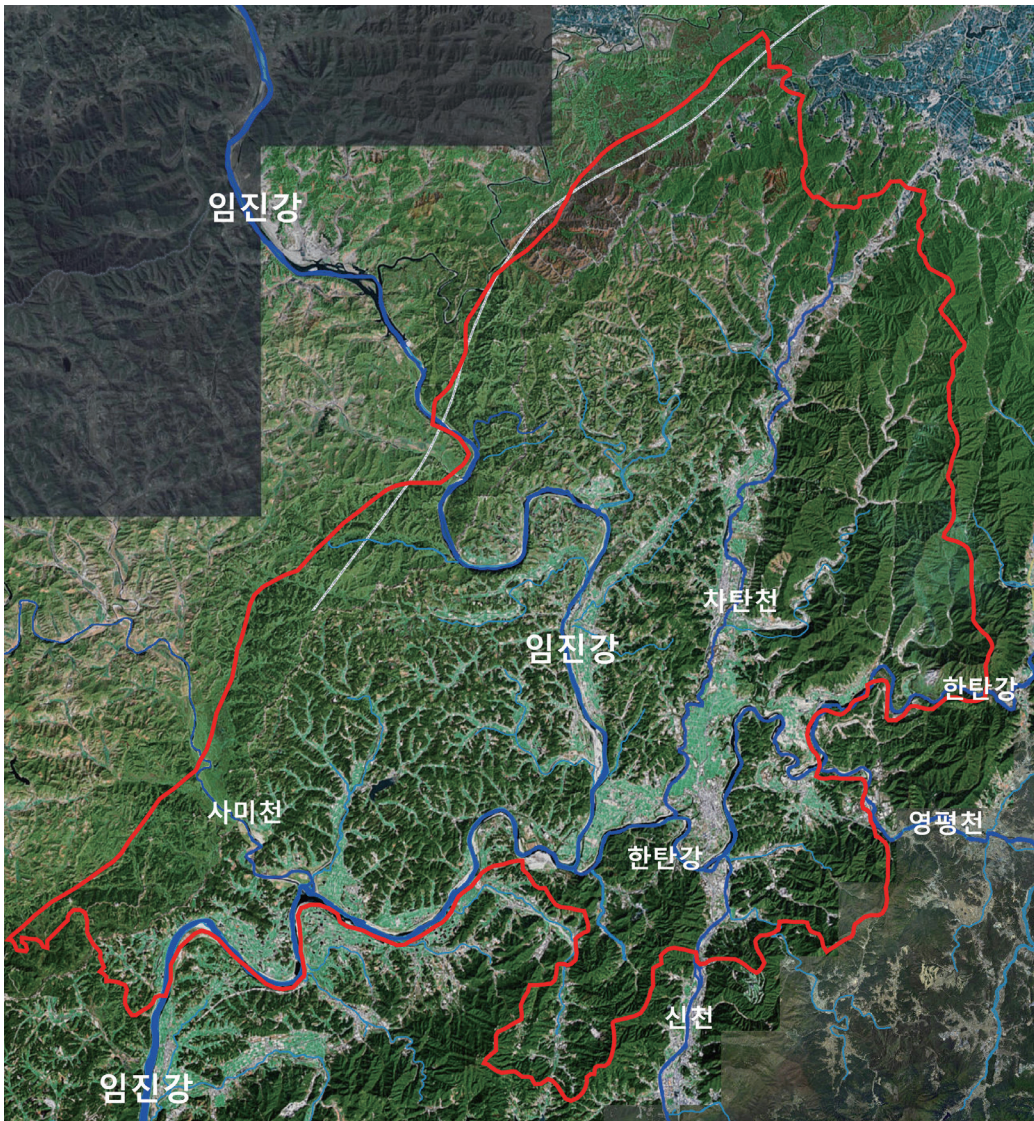
V. 교통

I. 지형과 수계

1. 지형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앙,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남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양주시·동두천시, 서쪽과 북쪽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서는 장풍군, 북은 북한의 강원도 철원군과 접한다

〈연천의 자연지리적 위치〉



연천군은 지형적으로 추가령 구조곡에 속해있으며, 군의 중심에는 현무암지역이 강원도 철원군과 평강지역에서부터 연속되어 있다. 연천군의 전체적인 지형은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에서 뿔어내린 지맥으로 형성된 해발 200m 이상의 연속된 산지로 인해 북서부와 동쪽의 고도가 높으며, 중부와 서부 지역은 비교적 표고 100m 이하의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산지로는 광주산맥의 끝자락에서 뿔어 내린 고대산(832m), 지장봉(877m), 보개산(725m), 향로봉(616m)과 마식령산맥의 지맥이 이어진 고왕산(355m) 등이 있다. 또한 연천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흘러내리는 임진강이 동남부에서 흘러오는 한탄강과 합류하고 서남으로 흘러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다. 이 두강 유역은 결정편암층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 강 양안은 대개 절벽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깨끗하고 많은 물이 급류를 이루며 흐르고 있어 유역에 평야와 관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임진강 연안은 해발 100m 이하의 완만한 평지로 구성되는데, 인해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와 신서면 대광2리 까지 포장된 3번 국도가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연천군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2. 수계

하천은 임진강을 비롯해 한탄강·마거천·차탄천·영평천·사미천·강화천 등의 하천과 다수의 지류가 연합하여 복잡한 하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한강의 제1 지류인 임진강과 그 지류천인 한탄강이 있다. 임진강은 연천군을 종단해 군을 동-서로 나누는 최대 하천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하천이다. 함경남도 문천군 두류산에서 발원한 임진강은 중면 여척리의 용소를 거쳐 연천군 내로 진입한다. 이러한 임진강은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중면 횡산리와 왕징면 강내리에서 S자형으로 곡류한 후 군남면 남계리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이 합류지점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바꿔 장남면 석포에서 파주시로 흐른다. 한탄강은 임진강의 지류로, 길이 136km 북한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에서 발원하여 철원군, 연천군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한다. 크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한, 여울 탄(灘)의 '큰 여울이 있는 강'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김정호의 대동지지를 보면 대탄강(大灘江)으로 적혀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강안에는 하곡을 따라 계단상으로 분포하는 과거 하천의 흔적인 하안단구가 발달해 있으며, 하천 유로로부터 가장 안쪽 단구면에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분포한다. 또한 현재의 임진강의 수위에 비해 상대적인 고도가 높아 현재의 하천유로 가까이 형성된 저위 하안단구는 연천군의 지형 중 중요한 지형의 하나인 층적지를 형성하고 있어 이 지역에 선사시대 이후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II. 풍수¹⁾

연천의 풍수를 살피는 일은 연천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풍수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연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었으며, 삶터를 어떻게 보다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꾸미려 했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이 된다.

옛 문헌에 나타나는 연천의 풍수적 사실(史實)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고려 숙종조(1095~1105)의 김위제가 도선의 『신지비사(神誌秘詞)』를 해석하면서 감악산에 대하여 “(한양의) 북에 감악(組嶽)이 있어서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되었으니 수덕(水德)을 상징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²⁾ 1377년(우왕 3)에 연천 천도론이 제기되었으니³⁾ 이는 왜구들의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천의 풍수는 주로 민간의 풍수적 내용을 살피고 해석하는 일이 주종이 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천인들이 환경에 대한 풍수적인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지를 풍수 지명과 설화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며, 연천 관내의 고을(연천현·삭녕현·마전군)의 풍수적 입지와 배치를 개관하여 본다. 끝으로 자연 마을에 나타나는 비보적인 요소를 각각 형태별로 축동 비보·조산 비보·장승 비보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연천인의 풍수적 인식과 태도

1) 형국지명

지역의 풍수 지명이나 설화는 지역민의 환경과의 관계 혹은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주민의 환경에 대한 풍수적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풍수 금기(禁忌)가 있다. 연천의 경우, 왕징면 고왕리의 고왕산(高旺山) 정상에 천자가 나올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투장(偷葬)을 했으나, 그 즉시 심하게 가뭄이 들고 주변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나 이 행위를 금기시 했다고 한다.⁴⁾ 또한 산의 지맥을 보호하기 위한 금기 사례도 청산면 백의리에 있다. 이 마을에는 개미산(蟻山)이 있는데 산의 형상이 개미를 닮았다고 지어진 이름이며, 주위의 마을도 개미의 허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의요동(蟻腰洞)으로 불리어진

1)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최원석, 「연천의 풍수지리」,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39쪽~155쪽)을 요약하고, 그간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편집한 것이다.

2) 『高麗史』 卷122, 列傳 第35 「金謂碑」.

3) 『高麗史節要』 辛禍 3年.

4)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집』, 1995, 318쪽.

다. 예전부터 이 산에 인위적으로 해를 가하면 마을에 재앙이 난다고 하여 마을에서 신성시하며 보호하고 있다.⁵⁾

풍수론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대어 풍수적 이치를 설명하는 형국론(形局論)은 지역 곳곳에 널리 적용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연천의 형국적 풍수 지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녀·옥녀·군자와 같이 의인화된 호칭과 (청)룡·거북 등의 신물(神物)류가 있고, 뱀·닭·소·말·쥐·고양이·까치·황새·개미·지네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부류가 있으며, 삼태기·배·빛·도가니·고무래 등의 물체 형국이 있다.

〈풍수적 산천 지명〉

| 지명 | 위치 | 풍수적 유래 |
|--------------|---------|---------------------------------|
| 옥녀봉(玉女峰) | 군남면 옥계리 | 고려 연주현(漣州縣)의 진산(鎭山) |
| 말여울[馬灘] | 군남면 황지리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갈마음수형 : 渴馬飲水形] |
| 빗접산 | 군남면 황지리 | 미녀가 머리를 풀고 앉은 형국[옥녀산발형 : 玉女散髮形] |
| 갈마산(渴馬山) | 신서면 마전리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 |
| 구수봉(龜首峰) | 미산면 아미리 | 거북머리 형상 |
| 군자산(君子山) | 연천읍 읍내리 | 조선 연천현의 주산(主山) |
| 삼태골 | 연천읍 옥산리 | 지형이 삼태기 형상 |
| 배산[舟山] | 연천읍 통현리 | 배가 물위에 떠가는 형국 |
| 까치산 | 왕징면 작동리 | 까치형국 |
| 우렁산·황새봉 | 왕징면 노동리 | 우렁이 형상과 황새 형상 |
| 용의 머리 | 왕징면 고장리 | 용의 머리 형상 |
| 용두산(龍頭山) | 왕징면 동중리 | 산의 형상이 용머리를 닮음 |
| 당산 | 증면 마거리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 |
| 주마산(徒馬山)·말뚝봉 | 장남면 원당리 | 말이 달려나가는 형국(주마형 : 走馬形) |
| 청룡부리 | 장남면 원당리 | 원당 3 리의 좌청룡에 해당 |
| 청룡부리 | 장남면 자작리 | 고읍동에 있는 성씨 묘의 좌청룡에 해당 |
| 소둔지·소목골 | 증면 중사리 | 지형이 소의 궁둥이·목과 같다하여 지어진 이름 |
| 풀무산 | 청산면 장탄리 | 도가니형 |
| 개미산 | 청산면 백의리 | 개미형국 |
| 구정산(九政山) | 청산면 초성리 | 아홉 정승이 나올 자리라 하여 호칭한 이름 |
| 쥐산·고양이산 | 청산면 초성리 | 쥐와 고양이 형국 |
| 거물개봉 | 백학면 구미리 | 고무래형상 |

출전 : 연천군, 『통계연보』, 1998

5) 연천문화원, 위의 책, 203쪽.

〈풍수적 산천 지명〉

| 마을명 | 형국명 |
|-------------------|--|
| 군남면 선곡리 선유골[仙遊] | 선녀가 춤추는 형국[선녀무수형 : 仙女舞補形] |
| 군남면 선곡리 뱀바리[蛇足洞] | 뱀형국 |
| 군남면 황지리 금계골[金鷄洞] |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금계포란형 : 金鷄抱卵形] |
| 미산면 동이리 갈매울[渴馬]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함. |
| 미산면 유촌리 풀무골[治洞] | 풀무의 형상으로 도가니에 해당함 |
| 미산면 유촌리 지네울 | 산의 형상이 지네와 닮아서 지어진 이름 |
| 백학면 구미리 구연동[龜淵洞] | 금거북이가 꼬리를 끌며 물에 들어가는 형국[금구예미형 : 金龜曳尾形] |
| 신서면 마전리 갈마동[渴馬洞]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 |
| 연천읍 자탄리 핵골[鶴洞] | 골짜기 앞 동산이 학 형국 |
| 왕정면 냉정리 청룡동[靑龍洞] | 용의 형국 |
| 왕정면 솔현리 야라울[也羅洞] | 야(也)자 형국 |
| 장남면 고랑포리 갈매울[湯馬洞] |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 |
| 전곡읍 신답리 쇠촌이 | 도가니 혈 |
| 증면 상마산리 윗말미[上馬洞] | 산의 형상이 말의 모습과 닮아서 지어진 이름 |
| 증면 적동산리 배드루[舟坪] | 배 형국 |
| 청산면 초성리 학담[鶴潭] |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

2) 단맥(斷脈) 설화

풍수 지명이 주로 산천의 형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표징이라면, 단맥 설화는 사회적 성격과 윤리성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단맥형의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단맥 설화가 이루어지는 동기는 대외적 갈등과 신분 계급 간의 갈등,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봉건 계급과의 갈등을 드러내는 용마바위와 아기장수 설화는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시대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일제시기의 것이 많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연천의 경우도 일제시기의 외세에 의한 단맥 설화가 전해지고, 계급 갈등을 나타내는 아기장수 설화 및 계층 갈등에 해당하는 사례의 설화가 있는데, 일반적인 단맥 설화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막 설화〉

| 장소 | 설화내용 | 유형분류 |
|-------------|--|-----------------------|
| 왕징면 북삼리 | <p>옛날 풍수 지리에 능통한 한 도승이 임진강 옆에 있는 병바위를 보니 고양이가 형국을 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쥐가 앉아 있는 형상의 산이 있는데, 마침 이 산에는 이씨의 조상 묘가 있었다 한다. 도승은 생각하기를, 고양이가 앞에 쥐는 기를 퍼지 못하는 법이라 이씨 집안에는 벼슬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알아보니, 과연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없고 가세마저 기울어 가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한다. 이씨 집을 찾아간 도승은 묘안을 알려 주었는데, 다름아닌 고양이의 눈에 해당하는 병바위 윗부분을 거적으로 가려 준다면 억눌려 있는 쥐산의 기운이 피어 이씨 가문이 금시 발복하게 될 것이니 11년 동안만 매년 새 거적을 덮어 둘 것을 당부하고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 한다. 이씨 집안에서 그 방법대로 행하자 3년 안에 무과에 급제하여 포도대장이 나왔다. 그러나 부러울것 없는 지위에 앉은 포도대장은 포악하고 거칠어져 주위의 노여움과 원한을 샀으며, 도승이 일러준 비방마저 지키지 않아 3년 동안만 거적을 씌웠는데, 때마침 이 대장의 방자한 행동이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는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으며 이씨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이씨 집안에서는 이 고양이바위 때문에 집안이 방했다 하여 바위를 부수니 깨진 바위에서 피가 흘러 나오고 천둥 번개가 때려 그 일족 모두가 화를 당했다고 하며, 지금도 이 바위에는 그 때의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어 바위색이 붉다고 한다.</p> | 계층 갈등 유형 |
| 왕징면 고왕리 | <p>왕징면 고왕리의 고왕산(高旺山) 정상에 명혈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산의 혈을 끊기 위해 일본인들이 무쇠 말뚝을 박았다고 한다.</p> | 외세 갈등 유형 |
| 왕징면 고잔하리 | <p>고잔하리 가마소에는 아기장수가 태어났는데 마을에서 역적이 태어났다 하여 그 아이를 죽여 버리자 장사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용마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 한다. 인근에는 장사가 놀았다는 장사바위도 있다.</p> | 계층 갈등 유형 (아기장수 설화) |
| 중면 도연리 | <p>예전에 이 말에서 장수가 태어났는데 몸에 비늘과 날개가 있어 역적이 될 운이라 하여 죽였다고 한다. 별말에서 장수가 태어나자 이 골짜기에서는 그 장수가 탈 용마가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서 장수를 죽이자 용마는 슬피 울며 북쪽에 있는 굴레방 고개에서 굴레를 벗고, 자작고개에 가서 자작 죽었다 한다.</p> | |

출전 :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집』, 1995.

2. 연천 고을의 풍수적 입지와 배치

현재의 본군 관내에는 조선조 연천군(漣川郡)·마전군(麻田郡)·삭녕군(朔寧郡)의 읍기(邑基)와 장남면 고읍동으로 이전하기 전의 장단군의 옛터가 있었다.⁶⁾

연천·마전·삭녕을 이루는 산계(山系)를 『산경표(山經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진북예성 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에 해당한다. 임진북예성남정맥은 백두대간에서 크게 두 줄기로 뻗는데, 주맥(主脈)은 두류산에서 회령으로 갈라져서 서남향하다가 개성에 이르는 큰 가지이며, 이 주맥에서 벌어지는 잔가지로서 학봉산에서 마전의 미두산(尾頭山)에 이른다. 또 하나의 맥은 두류산 아래의 분수령에서 뻗은 것으로, 철원의 소이산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주맥은 갈마현을 지나 연천의 진산인 진명산(眞明山)에 이르며 또 한 갈래는 보개산과 오봉산을 거쳐 연천 고을의 조산이 되는 주산(舟山)으로 맺는다. 이러한 분수령에서 뻗는 산계는 연천에 이르는 주맥 외에도 장망산에서 갈라져서 또 하나의 지맥을 낳는데 이 지맥이 삭녕의 진산인 봉이산(鵬耳山)까지 이른다.

연천읍 읍내리에는 연천현 관아터가 있다. 진명산의 맥에서 비롯한 군자산을 주산으로, 망곡산을 안산으로, 양금재봉을 조산으로 삼았다. 『여지도서』 및 『해동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아사(衛舍)를 중심으로 동편에 객사와 향교, 그리고 사직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단은 현 북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을의 수구막이를 위하여 숲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축동이라고 하며 현 읍내리 개전말 부근에서 효자문까지 남북으로 걸쳐 있었다. 읍내리의 지형이 동쪽에 위치한 차탄천으로 인하여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어 수구를 막는 역할의 축동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밤나무, 전나무 수종의 축동 고목들을 모두 베어 버려 지금은 아무런 자취도 남아 있지 않다. 1910년 일제 강점 후 철도가 부설되면서 차탄리 지역으로 군청사가 새로 건립되어 이곳에 있던 관아 건물은 철거되고 지금은 그 터가 농경지와 민가로 변해 있다.⁷⁾

삭녕군의 관아터는 증면 삭녕리에 있었다. 삭녕군은 1441년(세종 23) 대사리에서 이진된 뒤에 530여 년 동안 삭녕군 7개 면을 관할했던 관청으로, 객사·동헌·아사·향사당(佐卽甘堂) 등의 건물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향교와 사직단은 군의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 직후에 관아 건물은 강제로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북한지역이 되었다.

6) 연천문화원, 앞의 책, 459쪽, “현 장남면 고읍동에는 장단현 관아 옛터가 있었는데, 조선조 광해군까지 있었던 장단현 관아 건물이 현재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로 옮겨지고 이 곳의 지명이 고읍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7) 연천문화원, 앞의 책, 88쪽.

삭녕고을에도 수구막이 기능을 하는 축동이 있었는데 도깨비연당(뿔다리나무 북쪽, 326번 지방도 아래의 고목나무 군락을 일컫는 지명)에는 참나무·오리나무·웃나무로 우거져 있으며, 이 곳에서 서쪽의 여척리까지 일직선으로 된 긴 나무숲이 있어서 수구막이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베어 없어지고 도깨비연당 주위에만 고목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⁸⁾

마전군의 관아지는 현 미산면 마전리에 있었다. 『해동지도』에는 치소를 중심으로 한 풍수적인 산천 지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치소를 이루는 주맥(主脈)의 내룡(來龍) 형세는 매우 훌륭하며, 치소를 중심으로 한 주위 산의 장풍(藏風)적 조건도 잘 갖춰지고 있다. 득수(得水)상 명당수는 치소를 감돌고 흐르다가 대강(大江)에 합류한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객관·외동현·내아·관청·군기고·화약고 등 총 40칸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관아의 배치는 아사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에 향교와 객사가 자리잡고 있다. 옛 마전군 치소는 현재는 농경지로 변해 있다.

3. 연천 마을의 비보풍수

한국의 마을에서 보이는 비보적인 경관 요소는 촌락 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연천의 여러 마을에서도 이상적인 풍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비보적 경관을 이루고 있다.

비보법은 지세에 따라 다양하되 그 형태별로 보면 대체로 조산하거나 숲을 조성하거나 못을 조성하는 방법과 사탑이나 장승·숫대 등의 신앙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보 장승, 조산(돌탑) 신앙은 대체로 풍수 지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으며 전래의 서낭당 신앙이 풍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양태와 기능성을 지니면서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보 경관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유의하여 살펴 필요가 있다. 첫째는 비보물의 형태적 측면으로서 무엇으로 비보하는지(숲·조산·못 등)의 측면이다. 둘째는 비보 기능상의 문제로, 지세를 비보하는지, 흉상을 압승하는지, 수구막이를 하는지, 보허하는지 등의 문제이다.

1) 축동(築洞) 비보

축동의 사전적 의미는 '(동)독을 쌓음, 혹은 쌓은 동독(큰 독)'이라는 뜻이다. 축동 비보는 독을 쌓아 자연 지세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경기 북부 지역 마을의 경관에서 보이는 축동 비보의 일반적 형태는 독위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능상 공통적으로 보허 방

8) 연천문화원, 위의 책, 434쪽.

풍 기능과 수구막이 기능을 겸하고 있다. 축동의 위치는 수구 부위에 있으며, 현재는 모두 소멸되었다.⁹⁾

본군에도 여러 개의 축동 비보 사례가 발견된다. 연천군과 삭녕군에 있었던 축동 비보의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 왕징면 강내리와 청산면 백의리에도 축동비보를 행하고 있다. 청산면 백의리 독박골은 약 350년 전에 전주 이씨가 처음 개척하여 한국전쟁 전에는 35호가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다. 독박골[杜岩洞]의 수구막이를 위해 조성한 숲을 축동(築洞)이라 일컫는다. 현재 0 사단 사령부 정문에서 남쪽의 은판이언덕 사이에 남북으로 줄지어 있었다. 독박골 마을에서 재물이 흘러나가는 곳을 막을 목적으로 영평천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수구막이를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모두 베어 없어지고 지금은 백의리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¹⁰⁾ 왕징면 강내리에는 여목마을 바깥, 임진강변으로 있었던 큰 소나무·잣나무 고목으로 이루어진 수구막이가 한국전쟁 때 모두 없어졌다.¹¹⁾

〈마을의 축동〉

| 마을명 | 비보위치 | 비보기능 | 비고 |
|-------------|------|------|----|
| 연천읍 읍내리 | 수구 | 수구막이 | 소멸 |
| 왕징면 강내리 | | 수구막이 | 소멸 |
| 중면 삭녕리 | 수구 | 수구막이 | 소멸 |
| 청산면 백의리 독박골 | 수구 | 수구막이 | 소멸 |

2) 조산(造山)비보

조산은 인공적으로 산을 쌓아 만드는 것, 혹은 그 산을 일컫는다. 조산의 일반적 기능으로는 허한 곳을 막는 비보 기능과 마을과 들, 들과 산을 구별짓는 경계 표적 기능, 곡령(穀靈)의 성소, 혹은 곡령 신앙의 제장(祭場)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으며, 하나의 조산이 이들 기능 가운데 몇 개를 가질 수도 있으나 대체로 하나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¹²⁾ 특히 풍수 비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을 비보 조산·보허산(補虛山)·가산(假山)·풍수탑이라고 한다. 비보 조산의 넓은 범위로는 조산·돌탑·선돌·당나무(조산나무)·동수·장승·숫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흙이나 돌로 조성한 산(혹은 산의 형상, 돌탑)으로 한정할 수 있

9) 拙稿, 「경기북부의 풍수신앙」, 『경기민속지 II, 신앙편』, 경기도박물관, 1999, 422~442쪽.

10) 연천문화원, 앞의 책, 206쪽.

11) 연천문화원, 위의 책, 314쪽.

12) 이남식, 「조산지」, 『두산 김택규 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173~174쪽. 한양명, 위의 논문 97쪽에서 재인용.

다. 비보 조산의 기능으로는 허한 지세를 도와 지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저장하며, 마을의 형국을 보완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연천의 조산은 두 곳이 있었는데, 백학면 노곡리의 조산은 음택의 지세 비보를 위해 조성한 조산이며, 통구리는 조산고개라는 지명만 남아 있는데 고갯마루의 돌무더기로 추정된다.

〈연천 마을의 조산〉

| 마을명 | 비보 위치 및 지점 | 비보 동기 및 기능 |
|---------|-------------------|---|
| 백학면 노곡리 | | 조선 중기 곡산 현감을 지낸 홍석형이 세상을 떠나자 남양 홍씨 문중에서 많은 인부를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큰 산을 만든 다음 묘를 썼다하여 조산이라 이름 지음 |
| 백학면 통구리 | 원봉에서 노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 |

3) 비보장승

청산면 궁평리 마을 어귀에는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라는 이름을 한 2기의 목장승이 풀무산을 등져 막는 모습을 하고 서 있다. 풀무산이 중간말을 내려다 보며 억누르는 형상이 되어 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그 액막이로 장승을 세웠다는 것이다. 원래 마을에 있었던 장승은 한국전쟁 중에 파괴되었으며 현 장승은 1994년 2월에 주민들에 의해 2기의 목장승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¹³⁾

〈마을의 비보 장승〉

| 마을명 | 비보 형태 | 비보 지점 | 비보 기능 | 비고 |
|---------|--------|-------|-------|----|
| 청산면 궁평리 | 목장승 2기 | 마을 어귀 | 흉상 막이 | 복원 |

13) 연천문화원, 앞의 책, 1995, 201쪽.

III. 성씨와 집성촌¹⁴⁾

1. 성씨별·출신지별 구조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국가 중심문화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다. 일제시대를 거쳐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내 52개 성씨 93개 본관을 중심으로 한 집성촌이 분포하여 여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성씨별 인구구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연천군의 성씨 및 출신지별 인구구조는 크게 변화되었다.

연천군의 북부 지역이 대부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묶이고 지역 내에 수많은 격전지와 군부대가 입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집성촌은 물론 원주민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반면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지역 내 인구구성의 주축을 이루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8)에 의하면 연천군 내에 분포하는 성씨는 총 84개 성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성씨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성인 김씨로 총 2,895가구가 분포하여 1985년 연천군 가구수의 19.7%를 점유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씨 2,489가구(17.0%), 박씨 1,139가구(7.8%), 최씨 670가구(4.6%) 순이며, 그 외에도 정씨 613가구, 조씨 446가구, 윤씨 434가구, 강씨 272, 한씨 265가구, 홍씨 249가구, 장씨 248가구, 유씨 242가구 등이 분포하였다. 전체 성씨별 규모와는 달리 본관별 점유율은 전주 이씨가 1,225가구(8.4%)로 가장 높고 다음 김해김씨가 1,194가구로 8.1%, 밀양 박씨가 908가구로 6.2%를 나타냈다. 이들 대성들은 전체 가구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반면 각 성씨의 본관별 점유율은 낮으며, 이에 반해 1930년대부터 지역 내 점유율이 높았던 성씨로 파평 윤씨, 안동 권씨, 남양 홍씨, 문화 유씨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성씨 및 본관별 인구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이후 연천군의 성씨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나 오늘날 지역간의 인구가동이 빈번해 지고 지역경제가 다변화되며, 교통의 급속한 발달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1985년 당시와 비교하여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 유출로 성씨별 인구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천군의 출생지별 인구구조를 보면 전국 시부에 비하여 군부 출생자의 비가 71.7%로 월등히 우세한데 지역별로는 연천군에 인접한 경기도가 59.7%로 가장 높고 시군 단위로 나누어

14)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양보경, 「인구와 성씨」,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55쪽~173쪽)을 요약하고, 그간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편집한 것이다.

볼 때 경기도 군부 출신이 91.9%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역시 군부 출신의 비가 7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6.0%, 전라남도가 4.6%, 충청남도가 3.8%, 전라북도가 3.5%, 경상북도가 3.4%, 경상남도 와 충청북도가 각각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지역 출신이 2.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5년전 거주지별 이동구조를 보면 전국 군부에 비하여 시부에서의 이동율이 81.1%로 높아 출생지별 구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5년 전 거주지로 본 이동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35.0%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시지역에서의 이동율이 72.9%로 현저하게 높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28.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내 시부 지역의 인구압에 따른 탈도시화 및 귀농 현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공간 거리상 인접한 강원도가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전라남도가 4.0%, 경상북도가 3.9%, 경상남도가 3.6%, 전라북도가 3.1%, 광주광역시가 2.7%,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2.5% 등으로 비교적 고른 이동율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 성씨별 인구분포〉

| 성씨 | 총 인구 | 본관 및 인구 (인구) |
|------|------|--|
| 갈(葛) | 5 | 기타(5) |
| 강(姜) | 811 | 진양(53), 진주(739), 기타(19) |
| 강(康) | 78 | 곡산(13), 신천(54), 진주(8), 기타(X) |
| 경(慶) | 19 | 청주(18), 기타(X) |
| 계(桂) | 14 | 수안(14) |
| 고(高) | 368 | 개성(5), 장택(22), 장흥(30), 제주(274), 청주(6), 황성(25), 기타(6) |
| 공(孔) | 54 | 곡부(54) |
| 곽(郭) | 134 | 청주(11), 현풍(115), 기타(8) |
| 구(丘) | 5 | 기타(5) |
| 구(具) | 130 | 능성(96), 능주(22), 기타(12) |
| 국(鞠) | 9 | 담양(8), 기타(X) |
| 권(權) | 661 | 안동(651), 예천(7), 기타(X) |
| 금(琴) | 10 | 봉화(10) |
| 기(奇) | 32 | 행주(30), 기타(X) |
| 길(吉) | 30 | 선산(17), 해평(10), 기타(X) |

| | | |
|--------|------|--|
| 김(金) | 8388 | 강릉(15), 강릉(263), 개성(27), 경주(1427), 고령(5), 고성(7), 공주(15), 광산(691), 광주(15), 금녕(175), 금산(14), 금영(23), 김녕(73), 김영(8), 김해(3153), 나주(22), 낙안(5), 덕수(26), 도강(26), 밀양(19), 부안(26), 분성(11), 사천(12), 삼섭(5), 삼척(83), 상산(57), 상주(19), 서흥(10), 선산(99), 선상(8), 설성(6), 성주(8), 수원(18), 순천(54), 안동(507), 안산(38), 양근(6), 양주(7), 연양(26), 연안(126), 영광(20), 영동(6), 영산(17), 영암(8), 예안(12), 용궁(7), 우봉(103), 울산(24), 원주(6), 월성(32), 의성(211), 일선(14), 전주(84), 진위(5), 진주(21), 창원(58), 청도(59), 청주(31), 청풍(170), 충주(13), 통천(7), 파평(7), 풍산(6), 한양(5), 함녕(6), 함창(30), 해주(5), 해풍(15), 기타(271) |
| 나(羅) | 103 | 금성(41), 나주(47), 안정(5), 기타(10) |
| 남(南) | 274 | 고성(15), 선영(5), 영양(35), 의령(203), 기타(16) |
| 남궁(南宮) | 56 | 함열(56) |
| 노(盧) | 201 | 광산(14), 광주(37), 교하(81), 장연(8), 풍천(21), 해주(6), 기타(34) |
| 노(魯) | 38 | 강화(23), 함평(11), 기타(X) |
| 도(都) | 19 | 성주(19) |
| 동(董) | 8 | 광주(6), 기타(X) |
| 라(羅) | 56 | 금성(19), 나주(32), 기타(5) |
| 류(柳) | 65 | 문화(42), 서산(6), 전주(6), 기타(11) |
| 마(馬) | 29 | 장흥(23), 기타(6) |
| 맹(孟) | 16 | 신창(13), 기타(X) |
| 명(明) | 15 | 연안(10), 기타(5) |
| 모(牟) | 12 | 함평(12) |
| 목(睦) | 11 | 사천(11) |
| 문(文) | 323 | 남평(313), 기타(10) |
| 민(閔) | 144 | 여주(5), 여흥(138), 기타(X) |
| 박(朴) | 3306 | 강릉(9), 경주(16), 고령(38), 금성(6), 면성(7), 면천(10), 무안(74), 밀성(21), 밀양(2386), 반남(209), 상주(23), 순천(53), 영암(19), 영해(28), 울산(16), 월성(5), 음성(5), 의흥(6), 죽산(65), 진원(14), 창원(13), 춘천(16), 충주(22), 함양(93), 기타(152) |
| 반(潘) | 14 | 거제(10), 기타(X) |
| 방(房) | 19 | 남양(15), 기타(X) |
| 방(方) | 102 | 온양(91), 기타(11) |
| 배(裵) | 234 | 경주(14), 김해(13), 달성(19), 대구(32), 분성(16), 성산(32), 상주(75), 흥해(16), 기타(17) |
| 백(白) | 305 | 대흥(6), 수원(291), 기타(8) |
| 변(卞) | 45 | 밀양(16), 초계(26), 기타(X) |

| | | |
|--------|-----|---|
| 변(邊) | 80 | 원주(71), 황주(7), 기타(X) |
| 봉(奉) | 16 | 강화(5), 하음(5), 기타(6) |
| 사(史) | 14 | 청주(13) |
| 서(徐) | 582 | 달성(237), 대구(51), 부여(42), 연산(7), 이천(209), 장성(28), 기타(8) |
| 석(昔) | 5 | 기타(5) |
| 석(石) | 56 | 충주(29), 기타(27) |
| 선(宣) | 36 | 보성(32), 기타(x) |
| 선우(鮮于) | 5 | 태원(5) |
| 설(薛) | 33 | 순창(33) |
| 성(成) | 163 | 창녕(159), 기타(x) |
| 소(蘇) | 20 | 진주(20), 기타(x) |
| 손(孫) | 281 | 경주(41), 밀양(217), 월성(9), 기타(14) |
| 송(宋) | 576 | 야성(7), 여산(261), 연안(13), 은진(137), 진천(87), 회덕(30), 기타(41) |
| 신(愼) | 30 | 거창(29), 기타(x) |
| 신(申) | 601 | 고령(70), 아주(18), 평산(502), 기타(11) |
| 신(辛) | 147 | 영산(58), 영월(82), 기타(7) |
| 심(沈) | 326 | 삼척(7), 청송(304), 풍산(13), 기타(x) |
| 안(安) | 655 | 강진(9), 광주(18), 순흥(533), 죽산(67), 탐진(10), 기타(18) |
| 양(梁) | 346 | 남양(5), 남원(240), 제주(85), 기타(16) |
| 양(楊) | 67 | 남원(7), 청주(50), 기타(10) |
| 어(魚) | 58 | 함종(54), 기타(x) |
| 엄(嚴) | 114 | 영월(110), 기타(x) |
| 여(余) | 11 | 의령(9), 기타(x) |
| 여(呂) | 58 | 성산(7), 함양(44), 기타(7) |
| 연(延) | 28 | 곡산(22), 기타(6) |
| 염(廉) | 71 | 파주(61), 파평(6), 기타(x) |
| 예(芮) | 7 | 기타(7) |
| 오(吳) | 571 | 고창(13), 군위(7), 금성(5), 나주(18), 낙안(17), 동북(38), 보성(45), 함양(29), 해주(368), 기타(31) |
| 옥(玉) | 9 | 의령(9) |
| 왕(王) | 145 | 개성(140), 기타(5) |
| 용(龍) | 18 | 홍천(17), 기타(x) |
| 우(禹) | 187 | 단양(181), 기타(6) |

| | | |
|------|------|--|
| 원(元) | 234 | 원주(232), 기타(x) |
| 위(魏) | 18 | 장흥(17), 기타(x) |
| 유(兪) | 105 | 기계(84), 무안(5), 기타(16) |
| 유(劉) | 278 | 강릉(219), 거창(15), 백천(10), 기타(34) |
| 유(庾) | 17 | 무송(14), 기타(x) |
| 유(柳) | 602 | 고흥(40), 문화(379), 서녕(8), 서령(8), 전주(54), 진주(81), 풍산(9), 기타(23) |
| 육(陸) | 11 | 옥천(11) |
| 윤(尹) | 1093 | 남원(19), 칠원(44), 파주(15), 파평(91), 해남(28), 해평(36), 기타(40) |
| 은(殷) | 13 | 행주(11), 기타(x) |
| 이(李) | 7114 | 강양(6), 경주(997), 고부(8), 고성(122), 공산(11), 공주(266), 광산(22), 광주(150), 나주(5), 단양(17), 대흥(5), 덕수(46), 동성(5), 벽진(55), 상주(5), 삼천(11), 성산(28), 성주(88), 수안(37), 수원(11), 순천(77), 신평(39), 아산(25), 안성(23), 안악(7), 양성(62), 여주(37), 여흥(6), 연안(178), 영천(66), 예안(72), 완산(17), 용인(46), 우계(7), 우봉(38), 원주(60), 월성(67), 익산(7), 인천(50), 장수(11), 재령(16), 전의(177), 전주(3137), 정선(8), 진보(21), 진성(24), 진위(5), 진주(14), 철성(7), 청주(28), 청해(18), 충주(5), 태안(22), 평창(132), 한산(251), 함안(24), 함평(113), 함풍(23), 합천(38), 홍주(10), 홍천(5), 화산(6), 홍양(12), 기타(228) |
| 인(印) | 20 | 교동(14), 기타(6) |
| 임(任) | 461 | 곡성(223), 장흥(22), 풍천(198), 기타(18) |
| 임(林) | 585 | 금성(223), 나주(179), 부안(52), 선산(5), 안동(13), 예천(32), 울진(9), 장흥(5), 전주(11), 조양(36), 진주(5), 평택(163), 회진(8), 기타(62) |
| 장(張) | 715 | 결성(30), 구례(6), 단양(52), 덕수(11), 목천(9), 안동(30), 옥산(13), 울진(13), 인동(490), 흥덕(22), 흥성(15), 기타(24) |
| 장(蔣) | 11 | 아산(11) |
| 전(全) | 496 | 경산(10), 나주(7), 선선(5), 옥천(42), 용궁(17), 전주(17), 정선(221), 죽산(11), 천안(113), 평강(11), 기타(42) |
| 전(田) | 152 | 단양(7), 담양(118), 하음(11), 기타(16) |
| 전(錢) | 5 | 기타(5) |
| 정(丁) | 182 | 금성(12), 나주(91), 영광(25), 영성(11), 창원(29), 기타(14) |
| 정(程) | 13 | 하남(11), 기타(X) |
| 정(鄭) | 1744 | 경주(379), 광주(17), 금성(10), 나주(24), 동래(292), 봉화(19), 서산(8), 야성(5), 연백(8), 연일(238), 영일(31), 오천(5), 온양(20), 정주(5), 조천(7), 진양(35), 진주(110), 청산(10), 청주(22), 초계(87), 하동(243), 해주(53), 기타(11) |
| 제(諸) | 11 | 칠원(11) |

| | | |
|--------|------|--|
| 제갈(諸葛) | 7 | 남양(6), 기타(X) |
| 조(曹) | 253 | 창녕(234), 창령(8), 창영(9), 기타(X) |
| 조(趙) | 1130 | 김제(7), 백천(92), 순창(27), 양주(27), 옥천(28), 임천(22), 직산(14), 평양(112), 풍양(123), 한양(504), 함안(124), 함양(9), 황성(8), 기타(33) |
| 주(周) | 19 | 상주(6), 철원(5), 초계(7), 기타(X) |
| 주(朱) | 142 | 나주(7), 능성(30), 능주(10), 신안(84), 기타(11) |
| 지(智) | 9 | 봉산(9) |
| 지(池) | 170 | 충주(164), 기타(6) |
| 진(秦) | 10 | 풍기(6), 기타(X) |
| 진(陳) | 91 | 여양(63), 기타(28) |
| 차(車) | 169 | 연안(157), 기타(12) |
| 채(蔡) | 120 | 인천(27), 평강(92), 기타(X) |
| 천(千) | 114 | 영양(93), 기타(21) |
| 최(催) | 8 | 기타(8) |
| 최(崔) | 2041 | 강능(5), 강릉(173), 강화(7), 경주(730), 나주(7), 낭주(5), 동주(33), 밀양(5), 삭녕(25), 삭령(5), 수성(67), 수원(21), 영천(8), 월성(20), 전주(486), 정주(7), 진주(8), 철원(10), 초계(25), 충주(11), 탐진(58), 통천(8), 해주(201), 화순(28), 홍해(14), 기타(74) |
| 추(秋) | 31 | 추계(23), 기타(8) |
| 탁(卓) | 7 | 광산(6), 기타(X) |
| 편(片) | 5 | 기타(5) |
| 표(表) | 20 | 신창(18), 기타(X) |
| 피(皮) | 7 | 기타(7) |
| 하(河) | 132 | 진양(17), 진주(104), 기타(11) |
| 한(韓) | 844 | 곡산(6), 청주(816), 기타(22) |
| 함(咸) | 95 | 강능(6), 강릉(65), 양근(8), 기타(8) |
| 허(許) | 329 | 김해(64), 양주(8), 양천(238), 태인(6), 하양(7), 기타(6) |
| 현(玄) | 255 | 성주(15), 연주(216), 기타(24) |
| 호(扈) | 8 | 신평(7), 기타(X) |
| 홍(洪) | 621 | 남양(578), 풍산(29), 기타(14) |
| 황(黃) | 540 | 우주(22), 장수(181), 창원(176), 평해(128), 회산(6), 기타(27) |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SB&conn_path=I2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 성씨·본관별 인구 - 시군구』)

2. 주요 성씨 및 집성촌 현황¹⁵⁾

1) 김씨

김씨는 1985년 2,895세대가 분포하여 군내 최다 성씨로 자리잡고 있으나 1930년대 자료에 의하면 여타 성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성촌의 규모와 세력이 약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성인 김해 김씨는 남면 한산리(閑山里)를 중심으로 20세대가 분포하여 유의미한 집성촌으로 잡히지 않았던 것에 비해 1985년 1,194세대가 거주하여 광복 이후 유입된 대표적인 성씨로 보여진다. 또한 1930년대 본관별 점유율이 높았던 경주 김씨 (74세대)와 창원 김씨 (47세대) 등은 1985년 각각 495가구, 39가구가 분포하여 급격한 지역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내 유력한 성씨였음을 보여준 반면 소규모였으나 1930년대 집성촌의 형태를 보였던 강릉 연안 울산 김씨는 점차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무의미해 졌고, 이에 반해 광산 안동 김씨 등이 새롭게 유입,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씨

군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 이씨는 1930년대 지역 내 대표적인 집성촌을 형성하였는데 서남면 귀촌리와 고장리, 동면 도연리, 남면 신산리, 적성면 객현리와 어유지리(魚遊池里) 등을 세거지로 약 248세대가 거주하였다. 대표적인 대성답게 1985년에도 군내 1,225가구가 분포하여 전통적인 집성촌의 의미보다는 지역 내 대표적인 중심성씨로 자리잡았다. 공주 이씨는 미산면 우정리, 왕징면 무등리, 영근면 양원리 등을 세거지로 107세대가 분포하였으며, 1985년에도 현재 여전히 118세대가 남아있어서 동족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1930년대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전의·한산·연안·예안 이씨 등은 부분적으로 유지되거나 세력이 약화, 분산되었으며, 경주 이씨의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3) 박씨

1985년 1,139세대가 거주하여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며, 그 중 전국적인 대성인 밀양 박씨는 1930년대 군내면 읍내리, 관인면 사정리·냉정리·탄동리, 적성면 어유지리 등에 131세대가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1985년 현재 908세대가 거주하여 여전히 79.7%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반남 박씨가 73세대 거주하고 있다.

1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85SB&conn_path=I2 (통계청, 1985, 『인구총조사 - 행정구역(시군구)/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4) 최씨

우리나라의 대성 중 하나인 최씨는 1985년 현재 67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1930년대 동주 최씨가 적성면 울포리의 42세대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세력기반이 없었던 성씨임을 알 수 있다. 이후 경주 최씨(251세대)·전주 최씨(150세대)·해주 최씨(78세대)·강릉 최씨(75세대) 등이 새로이 유입되거나 늘어나면서 지역 내 네 번째의 성씨로 부상하였다.

5) 유씨

1930년대 경기도 내에서 최대의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문화 유씨는 백학면 노곡리를 중심으로 110세대가 거주하여 연천군이 주요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85년 현재 185세대가 분포하여 여전히 동족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1930년대 유의미한 집성촌을 보이지 않았던 진주·고흥·전주 류씨 등이 약간 분포한다.

6) 윤씨

1930년대 전주 이씨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파평 윤씨는 지역 내 유의미한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남면 오탄리와 냉정리, 왕징면 기곡리와 고왕리 등에 174세대가 거주하였으며, 1985년 조사에서도 378세대가 분포하여 현재 성씨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관별 점유율 87.1%로 여전히 집중도는 높다.

7) 정씨

1985년 해주 정씨가 도내 41세대 분포하여 경기도 내에서 0.28%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1930년대 미산면 마전리, 왕징면 동중리를 중심으로 52세대의 집성촌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주 정씨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데 비해 적성면 적암리의 32세대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하동 정씨는 109세대가 거주하여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그외 1930년대 세력이 크지 않았던 경주(133세대) 연일(91세대) 동래(84세대) 진주(41세대) 정씨 등의 가구가 늘어나면서 단일 성씨의 집중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8) 조씨

한양 조씨는 경기도 내의 대표적인 성씨로 1985년 232세대가 분포하여 52.0%의 본관별 점유율을 보이는데 1930년대 백학면 두일리를 중심으로 35세대가 거주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외 풍양·배천·평양·함안 조씨 등이 새로이 유입되거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9) 권씨

전국적 대성 중 하나인 안동 권씨는 1985년 현재 221세대가 분포하여 성씨의 본관별 점유율이 98.7%에 이른다. 이는 1930년대 중면 중사리·횡산리, 적성면 가월리를 중심으로 한 108세대의 집성촌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여지며, 단일 성씨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10) 기타 성씨

그 외 규모는 작지만 1930년대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소수 성씨로 곡성 임씨는 1985년 경기도 내에 총 162세대가 분포하는 소수 성씨로 연천군에 73세대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남양 홍씨·순흥 안씨·제주 고씨 등은 각각 249세대·220세대·121세대가 거주하여 여전히 지역 내 성씨집단으로 남아 있다. 반면 청주 경씨·능성 구씨·평강재씨·현풍곽씨 등은 규모가 축소, 분산되거나 해체되어 무의미해 졌으며, 1930년대 집성촌을 형성하지 못했던 성씨로 1985년 현재 지역 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씨로는 진주 강씨·인동 장씨·청주 한씨·이천 서씨 및 달성 서씨·장수 황씨·여산 송씨·나주 임씨·정선 전씨·밀양 손씨·청송 심씨·수원 백씨·양천 허씨·의령 남씨·원주 원씨·연주 현씨 등이다.

〈광복 이전 연천군의 집성촌 분포〉

| 성 | 본관 | 집성촌의 위치(가구) |
|---|----|---|
| 김 | 김해 | 남면 한산리(20) |
| | 강릉 | 서남면 귀촌리(18) |
| | 경주 | 적성면 답곡리(16), 영근면 양원리(34) |
| | 연안 | 북면 상마산리(31) |
| | 창원 | 미산면 동이리(47) |
| | 울산 | 적성면 구읍리(15) |
| 이 | 전주 | 서남면 귀촌리(60) 고장리(48), 동면 도연리(48), 남면 신산리(40), 적성면 객현리(28)·어유지리(24) |
| | 전의 | 중면 횡산리(31), 남면 두곡리(30) |
| | 한산 | 왕징면 노동리(34) |
| | 연안 | 적성면 마지리(23) |
| | 예안 | 군내면 차탄리(20), 군남면 왕임동(20) |
| | 공주 | 미산면 우정리(32), 왕징면 두등리(41), 영근면 양원리(34) |
| | 경주 | 군남면 죽대동(29) |
| 박 | 밀양 | 군내면 읍내리(20), 관인면 사정리(50)·냉정리(44)·탄동리, 적성면 어유지리(17) |
| | 반남 | 청산면 장탄리(21) |
| 최 | 등주 | 적성면 울포리(42) |
| 유 | 문화 | 백학면 노곡리(110) |
| 윤 | 파평 | 서남면 오탄리(40)·냉정리(44), 왕징면 기곡리(41)·고왕리(49) |
| 정 | 해주 | 미산면 마전리(30)·왕징면 동중리(22) |
| | 연일 | 미산면 마전리(20) |
| | 경주 | 미산면 백석리(28) |
| | 하동 | 적성면 적암리(32) |
| 조 | 한양 | 백학면 두일리(35) |
| 임 | 곡성 | 군내면 동막리(30) |
| 경 | 청주 | 적성면 구읍리(16) |
| 권 | 안동 | 중면 중사리(26)·횡산리(60), 적성면 가월리(22) |
| 홍 | 남양 | 중면 마거리(26)·중사리 |
| 안 | 순흥 | 적성면 장현리(16)·장파리(14) |
| 고 | 제주 | 북면 여척리(43) |
| 강 | 진양 | 적성면 적암리(15)·중부면 광지원리(29) |
| 구 | 능성 | 적성면 장현리(28) |
| 채 | 평강 | 적성면 늘목리(19) |
| 곽 | 현풍 | 적성면 답곡리(40) |

자료 : 조선총독부편, 『朝鮮の姓』, 1936; 조선총독부 중추원, 『朝鮮の聚落』, 1936.

IV. 연천의 고지도¹⁶⁾

1914년 이전에 제작된 연천의 지도는 조선 후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연천군은 조선시대의 연천현과 1914년 일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속된 마전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천현과 마전군의 옛 지도를 통해 연천의 옛 모습을 더듬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연천의 모습은 전국지도, 도별도, 군현지도(分圖) 속에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지도와 도별지도에는 군현의 이름이 표시된다. 그러나 전국지도 중 가장 큰 지도이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동여지도』를 통해 천의 위치와 도로, 하천, 산줄기의 흐름 등을 일목 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지도1) 『대동여지도』에는 임진강, 장파강, 대탄, 차탄천과 연천의 진명산, 가사평, 그리고 마전에 봉현, 분석산, 미두산, 승의리, 휴연, 종연, 유연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산천과 인문 경관이 그려져 있다. 『동여도(東輿圖)』에는 남천(南川)과 현내면, 남면, 서면, 군내면 등의 면 명이 더 표시되어 있다.

군현지도 가운데 전국 모든 군현의 지도를 수록한 전국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와 『광여도(廣輿圖)』는 18세기 중엽에 일반화되었던 지도책 속의 연천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해동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는 지도 사방의 여백에 인구, 전답, 사계(四界), 연혁, 산천, 역원, 토산, 군명 등의 연천에 관한 지지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 지역의 시각적인 모습과 함께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지도 2~4). 특히 이 지도에는 지역내의 도로를 자세하게 표시함은 물론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로 구분해 놓아 여타 지도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광여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는 18세기에 활발한 편찬을 보였던 소형 전국 군현지도집의 유형이다. 채색필사본인 이 지도의 연천현과 마전현의 내용은 위의 『해동지도』와 거의 유사하나, 이 지도에는 도로가 표시되지 않았다(지도 5~7).

1872년에 제작된 『연천현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와 『마전군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는 연천 지역의 단독으로 독립된 군현지도이다(지도 8~9). 크기에 비하여 내용은 간략하지만, 지역에서 그려 올린 지도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 지도이다. 이들은 채색 필사본 지도로서,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라는 외세의 침입을 겪은 후 중앙에서 각 지방에 읍지와 지도 편찬령을 내림에 따라 제작된 지도이다.

16)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91쪽~204쪽.)을 요약하고, 그간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편집한 것이다.

〈지도 1.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연천과 마전(대동여지도)〉



〈지도 2. 『해동지도』 중 연천현 지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역사와 민속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헌과 향토문화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지도 3. 『해동지도』 중 마전군 지도>



〈지도 4. 『해동지도』 중 삭녕현 지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통

연천의 천의

연천의 천의

연천의 천의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의 관문 향토 문화

연천의 관문 향토 문화

교육, 종교, 문예, 예술, 체육

〈지도 5. 『광여도』 중 연천현 지도〉



〈지도 6. 『광여도』 중 마전군 지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문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화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지도 7. 『광여도』 중 삭녕군 지도>



〈지도 8. 연천 일대 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면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민학과 향토문화

고려, 종교, 민화, 예술, 체육

<지도 9. 마전 일대 고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지도 10. 적성 일대 고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1872년 적성지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문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V. 교통

도로는 국도 3호선이 전곡읍·연천읍을 남북으로 지나고 있으며 국도 37호선이 서남쪽에서 임진강을 따라 동진하며 전곡읍에서 3번 국도와 만난다. 그리고 지방도 372, 78호선이 동서로 지나고 국도 3호선과 합류하고 있으며, 368호선이 동쪽 포천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철도는 서울특별시 용산역에서 시작된 경원선이 국도 1호선과 나란히 남북으로 지나고 있으며, 남한지역 내 종착역은 2012년을 기준으로 백마고지역이다. 경원선은 현재 회기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동두천역에서부터 백마고지역까지는 보통등급의 통근열차가 운행 했었다. 하지만 현재(2023년 기준)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복선노반 단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천의 교통망 (카카오맵)〉





제 3 장

연천의 민속과 설화

I. 생산풍속과 생산활동

II. 복식과 생활

III. 음식과 생활

IV. 집과 생활

V. 전통이레: 송의전 제향

VI. 세시풍속

VII. 민속놀이

VIII. 민간신앙

IX. 구비민요와 구비설화

I. 생산풍속과 생산활동¹⁾

1. 생산풍속

우리 민족은 예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석기시대를 시작으로 역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수천년간 줄곧 농경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해 왔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생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장에서는 연천 지역의 전통농경 생산풍속의 관행을 춘하추동 계절에 맞춰서 살펴보겠다.

2. 봄철

농한기가 끝나고 대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논둑, 밭둑, 그리고 주변 잡것들을 모아 태운다. 근래에 와서는 기계화로 인하여 보통 가을철 갈아둔 벧짚을 봄갈이하기 전에 태운다. 여기서 봄갈이는 봄에 논을 가는 것으로, 비슷한 경우로는 가을에 가는 '가을갈이' 또는 '말갈이'라는 것이 있다. 연천 지역은 이모작하는 경우가 없어서 봄갈이만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을 가는 것을 '갈아 엷는다/갈아 엷는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벧밥이 서로 모여서 두덕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봄갈이나 가을갈이를 해서 두덕을 지우는 것을 좋게 여겼다. 봄갈이는 물이 없는 상태와 봄비를 이용해 물을 가두어 모내기할 때, 이 두 시기에 행해진다. 그리고 봄갈이의 전후로 겨우내 약해진 논둑을 보수하는 논둑 가래질도 함께 하였다. 이는 봄갈이를 하고 논에 물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로, 평지 논일 경우 보통 가족끼리하고 지형이 험준한 곳에 논일 경우 품앗이를 통해서 하였다. 이밖에도 거름을 뒤져서 들로 내는 작업이 있다. 겨우내 소가 밟아 낸 퇴마와 봄에 해동된 인분을 섞어 논바닥에 퍼는 일로 봄갈이를 하기 전에 논바닥에 퍼놓는다. 이러한 거름 뒤적이기는 대개 음력 정월 보름이 지나면 우선으로 시작했다.

거름 장만, 봄갈이, 가래질 다음으로 하는 작업은 못자리이다.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범씨를 골라 물에 열흘 이상 담근다. 그리고 모판 할 자리를 정하고 사방으로 작은 갯둑을 만들어 물을 대고 씨레로 삶는다. 이후 모판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범씨를 뿌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닐 못자리를 하면서 모판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해서 범씨를

1)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권진숙, 「생산 풍속」, 『漣川郡誌(上)』,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2000, 713쪽~723쪽.).

치고 바로 비닐을 씌운다. 그리고 모의 성장 상태에 따라 물을 조절하며 20일 동안 비닐을 완전히 덮어 놓는다. 이후 조금씩 구멍을 내며 며칠에 걸쳐 천천히 비닐을 완전히 걷어낸다.

못자리를 이후 모내기 전까지 모가 모판에서 자라는데, 이 기간에는 모판의 물 관리와 새 쫓기, 피 뽑기 비표 치기 등을 해야 하며, 근래에는 병충해에 따른 비료와 약 치기도 신경 써야 한다. 싹이 물못자리의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새가 쪼는 것이나 물의 조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피 뽑기는 피가 벼보다 성장이 빨리하여 생기는 것으로, 벼의 성장을 위해서 빨리 제거해야 한다. 초기에는 피와 벼를 가려내기 쉬우나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모와 피를 가려내기 힘들니 주기적으로 뽑아줘야 한다. 근래에는 비닐 못자리를 하기에 비닐을 걷으며 한다.

현재는 모내기를 기계로 하기에 물못자리나 비닐 못자리처럼 범씨를 직접 뿌리지 않고 육묘상자에 파종해서 모판에 안치하고 비닐을 씌운다. 육묘상자는 적절한 습기의 흙과 함께 준비한다. 이후에는 흙 속에 범씨를 뿌리고 비닐을 덮으며 비닐 못자리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연천 지역은 보리를 주로 밭작물로 경작하며 봄과 가을 중 주로 가을에 경작하고 봄에는 보리밭을 매는 정도였다. 보리를 경작할 때는 싹이 올라오면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보리밭을 매고, 이후에는 소를 이용해서 매우며 골을 탄다. 이러한 보리골 타기는 대개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한다. 현재 연천에서는 밭농사로 보리 재배를 거의 하지 않기에 보기 힘들다. 보리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밭작물은 콩·감자·조·수수·옥수수 등이었고, 무·배추·마늘 같은 채소류는 각자 집에서 필요한 만큼 재배했다. 콩은 보리가 없는 밭에서 주로 했으며, 쟁기로 밭을 갈고 골로 다시 지운 뒤 콩씨를 넣고 흙으로 문었다. 토양이 좋은 경우는 보리와 콩을 이모작 했지만, 연천은 콩을 주로 하였으며, 그 때문에 예부터 유명했다. 연천에서 1960년대까지는 콩 다음으로는 감자를 많이 재배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보관한 씨감자를 밭을 갈며 만든 골에 심었으며, 두 번정도 김매기를 해주어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갈아엎어 주며 재배하였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수수·메밀·옥수수와 타 채소류 등의 작물에 대한 생산 활동이 있다.

3. 여름철

논농사와 관련된 여름철 생산 활동으로는 모내기·김매기·물대기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모내기가 가장 큰 일이다. 기계화 이후 모내기가 한 달 이상 빨라졌으나 여기서는 그 이전의 모내기 관행을 살펴보겠다.

우선 모내기할 논을 갈고 삶고 고르는 일을 해야 한다. 소의 쟁기질로 봄같이할 때보다 깊게 갈고 썬레질을 이용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이후 썬레번지질이라고 하여 이가 있는 기구로 흙을 부쉬 평평하게 만드는 썬레질과 다르게 넓은 널빤지로 논바닥을 더욱 평평하게 흙

손질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 모판의 모를 가져다가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할 때는 품앗이나 품삯을 주는 방법으로 일꾼을 모으고 같이 모판으로 가서 모를 찢는다. 두 포기에서 네 포기 정도를 뽑아서 씻고 모를 찢는다. 이 과정을 반복한 뒤 한 손으로 들기 벽찰 정도가 되면 짚으로 허리 부분을 묶고 모춤을 만든다. 그리고 바지계나 가마니, 거적 따위로 나르고 눈에 던져놓는다. 이후 모춤의 모를 4~5포기씩 논바닥에 꽂았다. 아주 옛날에는 별모라 하여 줄을 맞추지 않고 여기저기 꽂았으나 그 다음에는 줄모라 하여 일렬로 꽂았다. 줄모는 사방에서 줄을 맞추는 정조식과 한쪽에서만 맞추는 편조식이 있고, 현대에 쓰는 기계인 이앙기는 편조식이다.

모내기 이후 1개월 정도에는 논매기를 한다.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매우 고되기에 골짜기 마을은 품앗이, 넓은 들은 두레 논매기를 했다. 이후 열흘이 지나면 두 번째 논매기 하는데 맨손으로 논바닥을 긁어서 흙탕물을 지우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초벌 때보다 수월한 편이었다. 눈에 물을 덜 때 저수지나 보(澗)시설이 없는 곳은 맞두레나 용두레를 사용하여 물을 퍼 올렸다. 맞두레는 두 사람이 마주 잡고 푸는 것이고, 용두레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밭보리는 모내기 때에 익어서 모내기가 끝나는 여름에 수확한다. 이때를 ‘보릿가을’ 맥추라고 한다. 낮으로 보리의 그루를 베고 바로 단을 묶거나 건조한 뒤 묶은 뒤에 집마당이나 들마당에서 타작고 아니면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하기도 했다. 보리 타작은 장마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하는 편이 좋아 그러려고 힘썼다. 보리타작할 때는 보릿단을 마당에서 도리깨로 휘둘러서 이삭을 털었다. 또는 개상이나 텃돌에 보릿단을 내리쳐서 낱알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보리타작은 혼자 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품앗이나 일손을 빌려 작업했다. 기계화가 되면서 이러한 작업은 사라졌고, 보리 자체도 최근에는 재배하지 않는다.

한편 콩은 한창 성장할 때 감대기를 해야 한다. 잡초를 제거와 콩포기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석을 한다. 이러한 콩밭 매기도 두 번 정도 하며, 두 번째 할 때는 포기에 흙을 모아 준다. 감자는 논감자와 밭감자가 있는데 연천군의 경우는 밭감자를 재배하였고 그래서 여름철 수확물로 감자가 많았다. 이 밖에도 잡곡과 채소류와 관련된 농사일을 여름 내내 해야 했다.

4. 가을철

가을 수확의 계절로 곡식을 제 때에 가을 거두기 해줘야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을 거두기는 벼농사이다. 기계로 벼를 베 베기와 탈곡을 같이 하는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품앗이해서 일일이 베어야 했다. 이렇게 일일이 벨 때는 벼를 건조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물이 없는 논바닥이나 논 밖에서 벼를 말렸다. 그 이후 사람의 지게나 소의 등에 길마와 밭채(또는 걸채)를

이용해 벼단을 집마당이나 들마당으로 옮겨서 타작했다. 좁답식 탈곡기라는 기계가 보급되기 전에는 개상이나 텃돌에 벼단을 태질해서 터는 과정을 거쳤다. 벼타작을 하고 나서는 풍구를 이용해서 곡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알곡만 고르는데, 풍구가 없는 농가는 키를 가지고 나비질을 하거나 부뚜나 돛자리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서 골랐다. 타작이 끝나면 벼를 뒤주에 넣거나 가마니·섬 등에 담아 처마 밑이나 마루에 쌓아서 보관했다. 그리고 습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벼를 꺼내서 햇볕에 말려 보관했다. 벼를 말릴 때 과거에는 짚으로 엮은 명석에 벼를 널었고, 현재는 합성수지로 된 천막 같은 것을 사용하여 말린다. 이상과 같은 재래식 방법은 동력 자동 탈곡기가 보급되고, 콤바인 같은 고성능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벼 이외의 잡곡 및 채소류도 수확과 저장을 해야 한다. 연천 지역은 콩농사를 많이 했기에 벼 수확 다음으로 큰일이었다. 콩은 수확을 위해 손을 잡아당겨서 뿌리째 뽑거나 낫을 가지고 베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낫으로 베는 경우는 콩그루에 발을 찢릴 수 있기에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뿌리째 뽑는 방법을 주로 했다. 그렇게 뽑은 콩은 단으로 묶어서 콩가리를 해서 도리깨로 타작을 했다. 현재는 도리깨 대신 벼 탈곡기를 이용하여 타작을 한다.

5. 겨울철

과거의 겨울은 농한기로 비닐하우스가 있는 현재와 다르게 쉬는 시간으로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없이 생활하진 않았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온돌방이었으므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다. 특히 젊은 일꾼이 없는 집에서는 땔감 준비가 큰일이었다. 낫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지게로 지거나 수레에 실어서 집으로 운반했다. 또 다른 농한기의 작업이라면 새끼 꼬고 가마니 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곡식을 주로 가마니에 넣어서 보관했고 또 곡식을 수매하는 데에도 가마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마니가 꼭 필요했다. 새끼는 가마니를 지거나 물건을 묶는데 많이 쓰였고 그 외에도 두루 쓰이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산에 가서 땔감을 해 오고, 보다 추울 때는 방에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쳤던 것이다. 이 밖에도 삼태기·등구미·씨앗바구니 등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우리네 전통 농가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이 짚제품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활풍습 때문이었다.

II. 복식과 생활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
의과
학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
과
향토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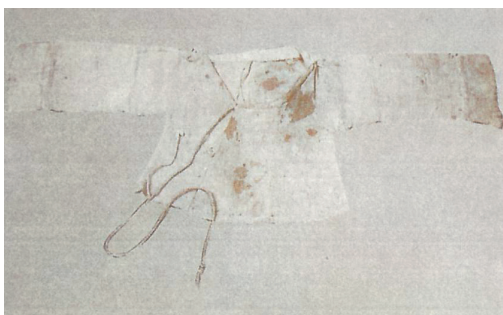
교육, 종교,
문학,
예술, 체육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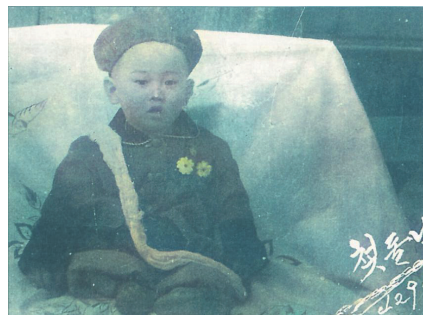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내용²⁾을 요약한 것이며, 본문 속 사진 중 흑백으로 촬영된 것들은 A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컬러로 복원한 것이다. 당시 현지조사는 1999년 5~6월 사이에 60대에서 80대까지의 남자 2명, 여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기에 상·하한이 52년으로 하한의 경우 한국전쟁의 시기도 알 수 있다. 의생활사 연구 자료는 유물이나 참고 문헌 등으로 이 지역에서 선사시대 방추차와 2~3세기 백제 시대 적석층에서 돌목걸이와 청동팔찌 등이 나와서 선사시대부터 직물이 생산되고 장신구의 사용도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의생활에서 극히 일부이며 지역만의 특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연천은 유물과 참고 문헌이 귀하며, 한국전쟁 및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렇기에 민속학적 방법으로 자료 수집이 이뤄졌다. 본 연구는 일생의례와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의생활상을 역점으로 잡았다. 일생의례에서는 출생 혼인 사망에 따른 의생활을, 일상생활 부분에서는 일상복과 의류 생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일생의례복식

조선 시대에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사례(四禮)'라고 하며 사회 관습의 한 법례로 정하였다. 이때 복잡한 의례 절차를 따라 일생의례복이라는 복식을 갖춘다. 이 복식은 표면상 나타나는 것이므로 전시(展示) 효과가 가장 크기에 의례 때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배넛저고리〉



〈남자 아이의 돌사진(1958년)〉

2) 고부자, 「복식과 생활」,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723쪽~740쪽.

1) 출생복

출생복은 크게 출생 직후의 포대기, 3일 때의 배내옷, 그리고 백일 및 돌 때 입는 옷으로 나눌 수 있다. 출생 직후 아기는 남자 어른이 입던 헌 옷이나 새로 만든 포대기로 잘 싸둔다. 그리고 다음 날 배내옷 또는 배냇저고리라는 흰색의 면이나 용으로 만든 옷을 만들었다. 이는 어른 옷처럼 곱게 하지 않으며 깃과 섶도 달지 않고 대충 만든다. 옷고름은 무명실을 쓰는데 겹고름은 가슴을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길게 했다. 배내옷은 다른 옷에 비해 많은 금기와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첫아들이 처음 입은 것은 길하다 여기고, 이슬을 맞은 것이나 여자아이가 입은 것은 재수 없다고 여겼다.

돌 때의 아기 옷은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에 저고리 정도이다. 남자는 주로 흰색으로 하거나 잘하는 경우 분홍색 저고리에 오동색 바지로 하고, 여자는 보통 첫아이에게 해주며 무색옷으로 거나 노랑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가 일반적이었다.

2) 혼례복

혼례는 일생에 단 한 번 호사 치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혼례 양상은 차츰 전통식과 서양식이 혼용되기 시작하다가 서양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호사 치례는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가정 형편에의 한 차이점이며, 둘째는 38선 이북 지역인 데다 혼인 적령기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이므로 물자 부족에서 오는 차이이다.



〈혼례식 모습(1959년, 군남면)〉



〈혼례식 모습(1971년, 전곡읍)〉

(1) 신랑

대부분 구식으로 하였으므로 사모관대 차림이다. 속에 한복으로 바지와 저고리에 두루마기, 혹은 매우 드물게는 도포를 입고 겹에 관복을 입었다. 같은 시기인데 서울에서는 양복을 입었다.

(2) 신부

신부는 '새댁 또는 '시(새)약시'라고 불렀다. 혼례날 신부 치레는 머리와 얼굴 가꾸기, 옷 등이 있다. 구식으로 할 때는 다리(달비)를 여러 개 들어서 크게 쪽진 낭자머리를 하고 비녀(용잠)를 꽂았다. 낭자에 귀이개·빗치개 등을 꽂고, 머리에 족두리를 얹는다. 비녀는 말뚝잠·고리잠 등을 머리에 꽂아 치장하였다. 옷은 일반적으로 속옷 위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겹에 원삼을 입었다. 둔 것을 빌려서 사용했다. 손에는 명지(명주) 수건으로 한삼을 길게 늘여서 다리를 놓았다. 상의는 2~3벌을 입는데, 속에는 대개 속적삼을 입는다. 저고리 두 벌을 입을 경우는 속적삼 위에 노랑색을, 세 벌 입을 경우는 속적삼 위에 분홍색을 입고 다시 위에 노랑색을 입었다. 노랑이나 연두색 저고리에는 깃과 고름, 수구에 빨강색을 단 반호장으로 한다. 하의로 초마(치마)는 두 벌 입는다. 주로 속에는 남(또는 옥색)치마, 옷초마(겉치마)는 홍(꽃분홍 또는 분홍)치마를 입는다. 속에는 속겂, 바지(또는 고쟁이), 단속곳을 입는다.

(3) 혼수용 옷감

북쪽에서는 혼수용 옷감을 소미 조합에서 구입해다가 사용하였다. 혼수품 가운데서 치마는 비로도·유평·명주(경도)·양단·오빠루, 저고리는 호박단·춘 추비로도, 적삼·버선·앞치마는 광당포·옥양목 등으로 하였다.

(4) 혼수품

혼수품이란 신부가 혼례 때 시집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을 말한다. 신혼 부부가 새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 옷·침구류·바느질 용구·옷 보관거리 등이다. 이 중에는 신부의 옷거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혼수는 강제성이 없고 각기 생활 형편에 따라 마련되므로 많은 격차가 난다. 침구류는 '양금침(兩衾枕)'이라 하여 이불·요·베개가 기본인데, 1950년대 이후 젊은 층에서는 방석·히트보·상보·옷걸이·수복(壽福)자 등을 자신이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반진고리 속에는 실·바늘·골무·자·인두 등 여자들이 쓰는 것은 다 넣었다. 주로 평생 입을 옷을 해갔다. 침구류도 아불·요·베개 하고, 장농은 한 바리(두 짝)했다. 침구류 중에서 이부자리는 양금 두 틀에 여름 이불까지 했다. 이불 가운데서도 신랑 것은 빨간 깃에 남색 길, 시양(서양)목 호청, 흰색 동정을 달았다. 여자 것은 빨간 깃에 검정 양나사 길로 하였다.

(5) 전안례

혼례를 올린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은 시부모와 사당에 첫인사를 한다. 시부모에게 하는 것은 '큰절 피박(폐백) 전'이라 하고, 사당에 하는 것은 '사당차례'라 한다. 이 때도 혼례복을 그대로 입는다.

(6) 함

신랑집에서는 혼례날 함 속에 혼서지와 청홍색 치마감 재단을 넣는다. 가끔 저고리감을 넣기도 하는데 많이 넣으면 '쌍놈(상놈)'이라고 했다. 그러나 채단 외에 대부분이 시댁에서 은가락지와 남자머리의 장식거리로 뒤꽂이 등 서너 가지를 받았다.

(7) 첫 푸들이

여자가 시집간 후 처음으로 친정에 나들이 하는 것을 말한다. 첫 푸들이 시기는 시집간 지 한 달이나 반년 등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시댁에서 음식을 마련해 준다.

3) 수의

수의를 단순히 시신에 입히는 것이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의는 윤달에 만들며, 자식들이 부모님께 마련하여 드린다는 점을 알고 있는 정도이다. 재료는 시신에 붙지 않고 잘 썩는다고 해서 삼베를 사용한다. 명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장의사에서 파는 수의는 기본적인 것들로, 외출용 한복 일습 정도이다. 남자는 바지저고리 기본 외에 겹옷으로 후루매(두루마기)를 하는데 좀 더 잘하면 두루마기 대신 도포로 한다. 여자는 치마저고리 외에 반스(팬티)·속곳·바지·단속곳·적삼·두루마기로 한다.

4) 상복(喪服)

상복을 입었던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굴건 제복이며, 여자는 치마저고리에 머리에는 테두래를 했다. 먼저 남자 상복으로 굴관(건)제복을 차린다.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중단을 입고 맨 곁에 제복을 입었다. 여자 상복으로 머리에는 수질에 테두래를 엮고, 치마저고리 위에 중단을 입고, 허리에 요질을 매었다. 결혼 안한 아들은 건을 쓰지 못하므로 머리에 수건을 덮고 테두래를 엮었다. 미혼이라도 '20세가 넘으면 관을 쓸 나이'라 하여 건을 쓰기도 하였다. 촌수로 4~5촌이면 두건에 두루마기를 입고 행전을 쳤다. 사위는 건을 쓰고 중단을 입고 행전을 쳤다. 여자의 상복은 상가에서 만들지 않고 사돈댁에서 준비한다. 친정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댁에서, 시부모가



〈상복을 입은 모습〉

돌아가시면 친정에서 상복을 만들어 온다. 이를 ‘거성’ 이라 한다. 거성은 겹으로 만드는데 이를 ‘겹거성’ 이라 한다. 옷 외에 신과 버선도 곁들이며, 겨울에는 방한용 수건 등도 갖추어 온다. 전에는 삼베로 하였는데, 길쌈을 하지 않으면서 깃광목으로 변하고, 옥양목이 흔해지자 옥양목으로 하였다.

3. 일상복

일상복은 의례복을 제외한 옷들을 말한다. 옷감은 사계절이 있는 만큼 추위와 더위에 알맞는 것으로 하였다. 집에서 입을 옷들은 대개 직접 길쌈한 것으로 만들었다.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로, 겨울에는 명지(명주)·미영(무명)·광목 등으로 만들었고, 솜옷을 많이 입었다.



〈가족사진(1955년 겨울, 대부분 한복)〉



〈가족사진(1955년, 남자는 혼용 복장)〉



〈가족사진(1969년, 대부분 양복)〉



〈중절모를 쓰고 한복에 조끼를 입은 노인〉

1) 남자

기본적인 한복 차림인 바지저고리 외에 나들이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두루마기는 여름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봄과 가을에는 겹으로, 겨울에는 검정색 명주나 무명으로 했다. 농사일을 할 때 농군들은 베로 만든 등걸이에 잠뱅이를 입었다. 비가 오면 머리에 삿갓을 쓰고 미로 만든 우장을 입었다. 신은 짚새기나 나막신을 신었다.

2) 여자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이다. 옷감은 명주·모본단·공단·숙고사·유통·갑사 등이 있었으나, 평소에 입기는 귀한 것 이었다. 이 가운데서 명주는 집에서 길쌈하였으므로 물들여서 반회장 저고리를 해 입기도 하였다. 처녀의 경우 귀 밑에 종종(귀밑)머리를 땀고 뒤에는 길게 땀기머리를 들었다. 명절에는 어른처럼 단속곳·바지 속곳까지 갖추어 입었다. 평소에는 저고리 속에 속옷으로 적삼까지 입는 경우는 드물고, 하의도 속곳과 바지를 모두 입기 보다는 대개 둘 중 하나만 입었다. 기혼 여성은 처녀의 경우와 달랐다. 1954년부터 사진관과 미용실을 경영하였던 함면지는 “파마 머리 처음 시작은 불파마였다. 파마는 읍내 몇 사람이 하기 시작했는데, 가르마를 옆으로 하고 머리카락이 매우 꼬불거렸다. 그리고 노루미끼 머리가 유행하였다.”



〈환갑잔치 모습(1969년)〉



〈부부의 정장 차림〉



〈군남초등학교 졸업사진(1960년)〉

4. 길쌈 및 갈무리

1) 길쌈

이 지역의 길쌈에 대한 근거는 출토된 방추차와 땅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방추차는 물레에 사용하는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길쌈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단서이다. 땅이름으로는 뽕나무거리, 마전(麻田), 삼밭골, 마대울 등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주로 골짜기의 물이 좋은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삼을 심었던 곳이었다. 현재 노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집집마다 길쌈했다. 목화 심어 미영 짜고, 삼 심어 삼베 짜고, 누에 쳐서 명지 짰다”고 하여 이 지역의 길쌈 형태를 알 수 있다. 생산되었던 직물은 특별히 주력하는 것은 없고 대개 삼베·무명·명주였으며, 자급자족 수준이었다. 길쌈한 무명은 중의 적삼 등 허드레 일옷(노동복)이나, 이불·요의 호청 등 침구류에 썼다. 명주는 혼사 때나 겨울옷으로, 삼베는 농군의 잠뱅이와 등걸이 등 여름살이 옷이나 수의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임순을 통해 길쌈 생산과용도의 단면을 살펴본다. “고장리(왕징면)에서는 명지·베·미영 많이 했다. 일정 때는 목화 심으라 해서 무척 많이 심었다. 화약에 쓴다고 했다. 삼 심어서 짜서 여름 베옷하고, 목화 심어서 미영 나서 겨울에 바지 저고리·여자 속옷 해 입었다.”

2) 세탁

세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제로 옛날부터 양젓물이 사용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1950년대까지는 집에서 만든 젓물을 사용하였다. 젓물거리는 메밀짚대·콩대·벼짚·수수깡대·갈잎 등이며, 이것을 태운 재로 만들었다. 1960년대쯤에 등겨비누가 나왔다. 등겨비누는 고운 등겨와 양젓물을 반죽하여 만든 것이다. 빨래는 도랑이나 냇가에서 했다. 방망이질은 해가 지면 못하게 하였다. 풀(푸세)은 쌀이나 밀·보리로 만들어 썼다. 풀 중에는 쌀풀이 가장 좋은데 쌀이 귀하므로 싸래기를 모았다가 이용하였다. 싸래기를 물에 담갔다가 불으면 땃돌에 갈아서 가루를 내어 말렸다가 풀을 쏜다. 명주나 좋은 옷은 쌀 앙금으로 쏜 풀을 사용했다. 홑옷은 숯다리미로 다려 입지만 겹옷이나 솜옷은 다듬이질을 했다. 일반적인 다듬이 거리는 돌다듬이를 사용하지만, 명주나 고급 옷은 홍두깨에 올려서 다듬었다. 옷을 보관할 때는 주로 장이나 고리 짝을 이용하였다. 장은 대부분 이층장이었는데 이것은 혼인 때 마련해 간 것이다.

3) 염색

예전에는 주로 흰 옷을 많이 입었다. 염색 기술이나 경제적인 면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물을



〈석전대제 때의 복식〉



〈염색한 옷감을 건조하는 모습〉

들인 옷인 ‘무색옷’은 여성용으로, 특히 혼사나 명절 등 경축 행사에 여자아이나 처녀·젊은 새댁들 입성에 해당되었다. 아이들은 검정이나 푸른색을 입었다. 아이나 젊은 여자의 설빔에는 분홍·노랑이, 혼수에는 청·홍색이 주로 쓰였다. 평상용으로 가장 많이 썼던 색은 검정이다. 검정은 주로 남자들의 두루마기나 바지로, 여자들의 치마나 이불 겹감으로 썼다.

5. 현대 의생활의 변화

의생활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연천의 경우 한복 입기의 과거와 현재의 추이 변화를 통해 그 단면을 살필 수 있다. 신랑과 신부의 모친이 서로 다른 색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이 약 15여 년간 유행하였다. 신랑 모친은 옥색, 신부 모친은 분홍색으로 상하 같은 색으로 하였다. 요새는 자유롭게 위와 아래를 달리한다. 수의는 중국 베로 하는데 안은 베로, 거죽은 명주나 인조 공단을 넣기도 한다. 두루마기는 소매만 도포식으로 하고, 모자·복건·명목·악수·행전·베개·턱받이도 한다. ‘숫자는 짝을 안 맞춘다.’ 하여 이불은 5폭, 요는 3폭으로, 메 배는 키가 크면 11자, 작으면 9자로 한다. 여자도 200자가 드는데 옷 외에 엽습구는 남녀가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천의 의생활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찾기 힘들다. 이는 행정 구역상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인 점을 간과할 수 없다.

III. 음식과 생활³⁾

1. 전통시대의 식생활

전통시대의 식생활은 구석기시대부터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구석기인들은 주로 동굴에 생활하면서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사냥을 하거나 채집 활동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낚것으로 먹었지만 불에 굽는 조리법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 및 고려시대 연천지역의 식생활은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농경사회 식생활에 준하는 모습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는 삭녕군에서는 오미자(五味子)·별꿀·누치[訥魚]·쏘가리[錦鱗魚]·파·인삼·녹용·자초(紫草)·송이버섯[松栂], 마전군은 누치·쏘가리·게, 연천현은 오미자·자초·순채(蓴菜)·쏘가리·누치 등이 연천지역 특산물로 들 수 있다.⁴⁾

이처럼 연천지역의 식생활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토산물의 품종은 현대에 들어서 콩과 울무, 산나물 등으로 바뀌어 새롭게 명성을 얻고 있다.

2. 특산품

연천의 지형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도토리나 산나물 등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연천의 농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농가 호수가 줄고 논농사보다 밭농사와 축산 및 양봉을 하는 가구 수가 늘었다가 이후 1990년대 들어서 경지면적이 늘고 농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1977년 한탄강 일대가 국민 관광지로 지명되면서 연천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는데, 이 식당들은 특산물인 콩으로 만든 두부와 민물고기 회 또는 매운탕, 한우 등을 팔고 있다.

여기서는 연천의 특산물을 통해 연천 식생활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한복진, 「음식과 생활」, 『漣川郡誌(上)』, 연천군 지편찬위원회, 2000, 741쪽~746쪽).

4)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9, 405-412쪽 ; 조선총독부 편, 朝鮮の物産』, 1927.

1) 콩·쌀

연천지역에서 언제부터 콩을 재배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1800년대에는 연천 콩이 경기 북부 지방에서 가장 알아주는 농산품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종자를 심은 밭, 곧 종자포를 만들어두고 전국에 콩 종자를 배급했다. 1979년에는 전체 밭 면적의 31.8%인 1,527ha까지 확대 재배되었으나, 낙화생을 비롯한 경계 작물로 전환재배되어 1997년 현재는 밭 면적의 11%로 감소되었다.

이곳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도 손님이 오면 그 자리에서 콩으로 순두부를 만들어 대접을 했다고 하며, 현재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두부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 향토 음식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민통선 지역에서는 직접 생산한 콩으로 만든 메주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콩 외에도 연천 쌀은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며, 품질이 우수한 편이다.

2) 산나물

봄에는 주로 아낙네들이 직업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여 이를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 특히 신서면의 고대산에는 버섯과 산나물이 풍부하며, 곰취·도라지·더덕 등이 많이 난다. 그 중에서 흑고사리는 줄기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길고 통통하면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건조, 가공 시 질기지 않고 쫄깃한 맛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3) 도토리묵

가을이면 주민들은 도토리를 이용해서 도토리묵 가루를 만들어 팔거나 또는 도토리묵 자체를 판매하기도 한다. 도토리묵 가루를 만드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고가로 판매할 수 있어서 부업으로 적합하다. 특히 연천읍 차탄 3리 지역 10여 가구에서는 1년 내내 도토리묵을 만들어 서울 등지의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

4) 울무

본군은 무공해 청정 지역으로 기후 풍토가 울무 재배에 적합하여 1994년부터 확대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재배 면적이 500ha로 전국의 75%를 유지하고 있어 울무 집산지로서 명성이 정착되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하여 약용 및 식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차·국수·식혜 등의 다양한 식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5) 임진강 물고기

임진강은 미산·왕징·군남·중면 등 군내 5개 면을 거쳐 흐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강에서 잡은 고기와 게 등으로 쏘가리 매운탕·누치회 등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연천군 구 읍지에는 “쏘가리·누치를 매년 곡우(穀雨) 때 많이 잡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산 쏘가리나 참게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군내 여러 식당들은 민물고기로 만든 회나 매운탕을 팔고 있으며, 임진강에서 직접 잡은 것과 양식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6) 오이

연천에서 생산되는 오이는 수분이 많고 오이 육질이 단단하여 절임으로 만들 때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하여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로 여름(6월~8월)에 재배되는 작물로 연천의 주요 특산물이라 할 수 있다.

7) 느타리버섯

연천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은 연천의 특산품인 울무를 수확한 후 버려지는 울무짚을 이용해 재배한 버섯이다. 연천의 느타리버섯은 색이 좋고 육질이 쫄깃쫄깃하며, 울무의 효능까지 들어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8) 인삼

옛 개성을 중심으로 한 북위 38도 지역은 한반도 내에서 인삼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연천은 위도, 기후, 토질 등 인삼의 생육환경이 가장 뛰어난 생산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명성으로 인해 매년 10월 중에 연천 고려인삼축제를 개최한다.

9) 벌꿀

연천에서 생산되는 벌꿀은 과거 조선시대 삭녕군의 특산물 중 하나이며 현재는 DMZ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피어난 아카시아에서 모은 천연 벌꿀로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이다.

3. 향토음식⁵⁾

1) 주식류

연천군은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즐겼으며, 특히 팔밥·오곡밥·찰밥을 선호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대체로 보리 혼식을 하고 가을 이후에는 밭곡식을 혼식한다. 죽은 콩죽·녹두죽·팥죽·잣죽·호박죽·수수풀떼기·아욱죽 등을 먹는다. 늙은 호박·옥수수·밀가루·팥 등을 섞어 만든 옥수수범벅과 호박범벅 등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제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해먹는 편이다. 메밀이 나는 지역에서는 냉면·막국수·칼짜두기 등을 만들어 먹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산에서 잡은 썩으로 뼈째 다져서 만든 완자를 곁들인 썩냉면과 썩만두가 유명하다.

2) 찬품류

다른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간이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고 중간 정도로 자극이 적은 편이다. 국이나 찌개에 무나 애호박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한 찌개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채소류는 계절에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에서 나는 달래·냉이·원추리·소루쟁이·쑥·무릇·방개·고비·고사리·더덕·두릅·도라지 등과 밭에서 나는 상추·호박·오이·가지·무·배추 등의 채소들을 나물, 국, 찜 등의 재료로 활용하며, 겨울에는 산재와 가지·애호박·늙은 호박·고구마순·무말랭이·무청·고춧잎·피마자잎 등을 말려서 나물이나 국으로 조리하거나 깻잎이나 고추·감자·김·죽순 등은 부각으로 만들어 먹는다.

콩이나 녹두는 짙은 내 콩나물 또는 숙주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녹두·메밀·도토리 등을 녹말을 내어 말려두었다가 묵을 쑤어 먹는다. 메밀묵은 겨울철에 배추김치와 무쳐서, 도토리묵은 양념장에 무쳐서 먹는다. 녹두를 불러 돼지고기·숙주·김치를 섞어 빈대떡을 부친다.

육류는 쇠고기로 국을 끓이거나 구이·적·찜·수육 등을 만들어 먹고, 신선한 불깃살이나 내장을 회로 먹는다. 돼지고기는 편육으로 하거나 구이·찜·순대 등으로, 닭고기는 백숙 또는 찜으로 활용된다.

어물 찬으로는 강에서 잡은 쏘가리·장어·메기 등으로 만든 쏘가리탕·장어구이·메기탕·추어탕·천어탕 등이 별미로 꼽힌다.

5) 한복진,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852~856쪽 ; 황혜성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향토음식 편, 문화재관리국, 1984 ; 윤서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편, 문화재관리국, 1978, 254~277쪽 ; 한복진, 『팔도음식』, 대원사, 1989, 72~77쪽.

3) 병과류와 음청류

쌀과 곡물이 고루 나는 지역이므로 명절이나 잔치, 제사 등에는 떡과 한과를 차린다. 떡은 시루떡·인절미·절편 등을 만들고, 과자류는 약과·유과·강정·정과·다식·옛강정 등을 만든다. 이밖에 군내의 산중 20여 가구에서 토종벌을 키워 품질 좋은 꿀을 생산하고 있다.

4) 저장 발효식품

대표적인 저장 발효식품은 김치, 장, 고추장, 장아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식품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연천군이 속한 경기도의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김치의 경우 경기도 지방에서는 배추 통김치와 나박김치·동치미·깍두기·백김치·알타리 총각김치 등을 일반적으로 담근다. 김치를 담글 때는 새우젓·조기젓·황석어젓을 주로 넣고, 까나리젓·감동젓·밴댕이젓 등도 사용한다.

장은 음력 10월경에 메주를 쑼어 잘 띄워서 음력 2월에서 3월 초에 담근다. 경기 지방의 경우 특별한 장은 별로 없고, 일반적인 간장·된장·고추장·담복장 정도이다.

연중 밑반찬으로 애용되는 장아찌는 채소류를 소금·간장·고추장·식초 등에 재워 두었다가 먹는다. 경기 지방은 간장·식초·소금물 등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배춧잎·열무·무말랭이·오이·산초 등을 많이 이용한다.

IV. 집과 생활⁶⁾

연천군의 마을은 한국전쟁과 홍수로 인해 전통문화 계승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1960년대에 개수된 집이 대다수이며, 집이 개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대의 홍수로 인해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전후 복구로 세워진 집도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양옥으로 개량된 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이 절의 내용은 왕징면 노동리와 전곡읍 간파리를 조사지로 선정하여 전후 복구사업으로 건축된 집을 중심으로 실시한 현지 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왕징면 노동리의 사례는 집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가구원이 이주하기 전후 상황을 조사했으며, 전곡읍 간파리의 사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민간 신앙의 형태인 가정 신앙을 중심으로 집의 생활 문화를 고찰하였다.

1. 집과 문화

집의 형태는 자연환경, 생업 환경, 사람들의 가치관, 사회 제도나 규범상의 차이 등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민(民)이 오래전부터 집을 이해하는 방식, 즉 집에 대한 가치관, 집과 관련된 생활 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 집을 이야기할 때 가택 신앙이라는 민간 신앙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는 민이 집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화 체계이기 때문이다.

2. 집의 공간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건물과 공간의 분화 양상이 다르게 발전되었다. 경제력이 미약한 서민들은 많은 생활 보조시설들을 갖추기 어려웠고, 큰 규모의 건물이나 여러 건물을 건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도 지형적·기후적 요인에 의해 공간이나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건물의 공간은 시대성이나 계층성·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가택신은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을 주관하고 있어 아마도

6)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재필, 「집과 생활」, 『漣川郡誌(上)』,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2000, 746쪽~753쪽).

공간이 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신앙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본군(연천군)은 산촌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집중형(口자형)의 주거 양식이 대부분이다. 현재 전통 가옥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주거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집과 가택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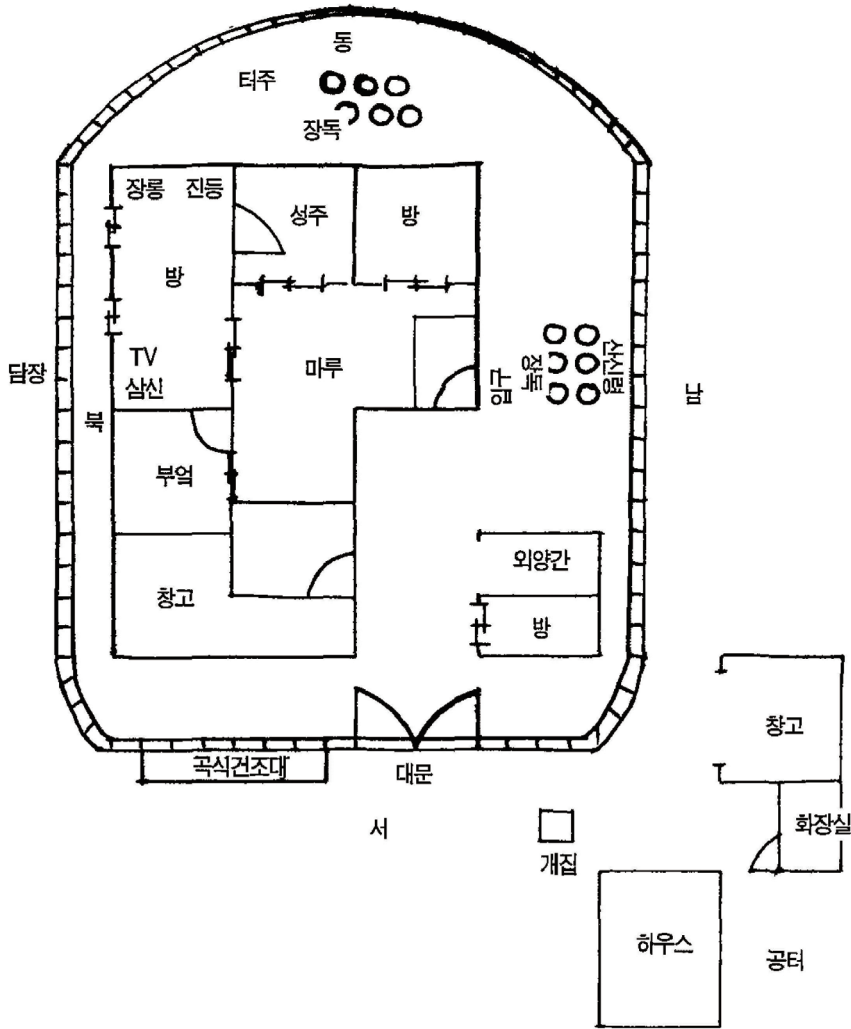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신은 대청마루의 성주를 최고의 가택신으로 모시면서 안방의 삼신, 부엌의 조왕, 대지(垜地)의 터주, 외양간의 마대지신, 도장의 도장지신, 변소의 측신, 대문의 구틀지신, 마당의 노적지신, 장독대의 장독지신, 우물의 용왕지신 등 각각의 공간에 가신들이 있다고 믿어져 의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농촌의 현지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성주, 조왕, 터주, 삼신 정도이다.

간파리의 사례는 가택신이라는 민간 신앙적 공간으로 집을 살펴본 것이다. 이 가구에서 나타난 가택신은 성주, 진등, 삼신, 터주, 산신령이다. 일반적으로 성주는 최고의 가택신으로 '성주대감'·'성주조상'이라고 부르며, 보통 대청마루에 모시는 신이다. 신체는 단지와 한지 형태이고 그 안에 곡식을 넣어 둔다. 제보자(김○○의 처)의 집(도면 참조)은 대청마루가 없으며 집의 중심에 해당하는 가운데방에 성주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집은 개축한 것이므로 처음에 성주를 모시던 곳은 방이 아니고 마루였을 수도 있다. 현재는 성주가 있다는 관념만 있을 뿐이다.

큰방 또는 안방이라 불리는 방에는 삼신과 진등이라는 가택신이 있다. 큰방은 주인 부부가 거처하는 방이자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가족이 함께 기거하는 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큰방은 식사·손님 접대·잠자리·자녀 교육 등 주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간이며, 대청이나 마당이 없는 서민 주택에서 장례·제사·잔치가 이루어지는 의례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안방은 집에서 안주인의 권한과 지위를 상징하는 방이다. 제보자의 큰방은 삼신과 진등이라는 두 개의 신체가 있다. 삼신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방의 맨 좌측 상단에 관념적으로 위치해 있고 진등은 맨 우측 장농에 단지 형태의 신체로 보관되어 있다. 진등이라는 단지에는 가을의 햇곡식을 넣어 두고 이듬해 월에 이 곡식으로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제보자의 집 내부에 가택신으로서 유일하게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월에 가내의 평안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곡령 신앙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터주는 지신으로서 터줏대감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지의 관장신으로, 그 신체는 터줏가리·터주막이다. 터주인 지신을 안치하는 곳은 안뜰 중앙, 장독대, 뒷뜰 담 밑, 축담 뒤꼍, 광,

7) 강영환 「한국의 생활과 풍습」,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3



〈김OO씨의 집〉

다락 등 다양하다. 간파리의 사례는, 뒷뜰 담 밑에 해당하며 동쪽을 향해 있다. 터줏가리와 터주막 같은 신체는 없으며 단지 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원형의 돌받침대가 있다.

진등과 함께 특이한 것은 집 안에 산신을 모셔 놓은 것이다. 산신은 제보자의 집 대대로 전해 온, 장독대 위에 있는 상징화된 신을 말한다. 안주인이 달 밝은 밤을 택하여 맑은 물 한사발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산신령께 가족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산신령의 위치는 남쪽에 해당하며 달이 떠 있을 때 달을 가리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탁 트인 전경이다. 산지가 많은 이 지역의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산신을 가택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생업 활동의 물리적 토대가 논보다는 밭·산이고 오래전에는 산짐승의 피해가 많았음은 이를 뒷받

침해 준다. 구체적인 산신은 알지 못하지만, 간파리의 주거 입지는 동쪽에 있는 마차산(565m)의 줄기를 등지고 서 있어 마차산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집과 가사 활동

왕징면 노동리의 사례는 1남 5녀를 둔 이○○의 집으로, 산촌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일자형 가옥이다. 지금 노동리의 가옥은 1980년대에 거의 양옥으로 개축되었으며, 1960년대에 자연 재해(홍수) 후 개축된 집은 몇 가구 되지 않는다. 이 집은 1960년대 홍수 피해를 입어 기초만 남은 터에 재건한 것이다. 외관은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는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씨 내외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현재 인근 읍내에 거주하면서 농번기 때만 농가에서 생활한다.

집의 입지 방향은 남쪽이다. 안방이나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도 남향으로 되어 있다. 집 중앙의 마당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창고는 가구원이 출가하기 전부터 계속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곡식 및 농기구 등 농사와 관련된 것이 보관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고 쪽의 건물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가구원들이 거주했던 곳은 대문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건물이다. 도시 환경을 기준으로 보면 남녀와 살림하기에는 좁은 공간으로 생각되나 농촌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방은 부모와 아들이, 대문 옆의 방은 5명의 딸이 사용하였다. 대문 좌측의 창고는 소를 키우던 외양간이었다. 소먹이는 맞은편의 화덕에서 끓였는데, 소먹이를 끓이면서 동시에 난방도 되었으며 난방의 열기로 고추를 말리기도 했다고 한다. 물은 오래전부터 집 내부에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은 농기구 창고와 집 밖에 위치하여 항상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는 양옥집의 개량화에 동반하여 안방의 난방을 기름보일러로 바꾸었고, 안방 내부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항상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사정 때문에 건넌방은 나무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고 한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모들도 가까운 면소재지에 집을 마련하여 이주하면서 이 집은 농번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많이 바뀌었다. 안방을 제외한 모든 방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안방도 농번기에만 사용하고 더운 여름날 가족들이 휴가와서 며칠 지내는 오락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3. 주거 문화

왕징면 노동리와 전곡읍 간파리의 사례로 연천군의 주생활을 대략 살펴보았다. 집의 외형적 변화에 따른 주거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전통 마을들은 한국전쟁과 1960년대에 있었던 자연재해로 인해 전통 가옥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전후 복구사업과 새마을운동으로 주택이 개축되어 그 외형도 많이 변화하였다. 현재 농촌의 가옥은 60~70%가 양옥으로 개량되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난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평상시 가사 공간은 인근 아파트나 단독 주택으로 하고, 농사철에 작업 공간으로 현재의 농촌 가옥을 이용하는 가구도 있다. 난방은 거의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을 새로 건축하지 않는 가구는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여 싱크대와 보일러 난방을 설치하기도 한다.

인간이 집을 생각하는 관념적인 측면, 즉 집에 대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가신 신앙의 측면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민속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젊은 세대로 계승되지 않는 점이 한계다. 가신 신앙이 농경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한 민의 관념 체계라면 현대의 도시·산업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가 연구 과제로 남는다.

끝으로, 마을 단위를 넘어서 도시 단위로 집을 생각해 보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정주 기반이 상실되어 집을 중심으로 한 이웃이나 공동체의 개념이 약화되었으며, 농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전통적인 공간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V. 전통의례: 송의전 제향⁸⁾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
의과
학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
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1. 송의전 연혁

송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국왕 및 공신들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으로, 현재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다. 일화에 따르면 조선 건국 초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가 고려 왕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자 이성계의 꿈에 고려 태조(太祖)가 나와 이를 꾸짖었다고 한다. 이에 1392년(태조 원년)에 무학으로 하여금 전각을 세우게 하여 그 혼을 달래었다. 그러다 1399년(정종 원년) 고려 태조와 함께 혜종(惠宗), 정종(定宗), 광종(光宗), 경종(景宗), 성종(成宗), 목종(穆宗), 현종(顯宗)을 추배한다. 이후 1425년(세종 7)에는 주자학적 제례 체계에 의한 4대 봉사(奉祀) 원칙에 근거하여, 태조, 현종, 문종, 원종(元宗) 4위만 모시고 봄·가을에 중사의 규모로 향사(享祀)하였다. 그러다 1451년(문종 원년)에는 고려 충신 정몽주(鄭夢周) 등 16공신들과 함께 배향하게 하고 왕순례(王循禮) 등 고려 왕족의 후손들이 이곳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제례는 1945년 3월 3일까지 연 2회 봉행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송의전의 전각이 멸실된다. 그 후 1959년 개성왕씨종친회에서 훼손된 송의전 터에 장막을 치고 위패만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다가, 1971년 송의전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 터를 사적 223호로 지정하고 다음 해부터 재건한다. 그러나 당시 철저한 고증으로 원형대로 전각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변형된 지형을 따라 설계하여 현재 모습의 전각으로 건립된다. 또한 제례는 1974년부터 음력 3월 3일과 9월 3일에 지내던 것을 2013년에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4월 첫째 일요일과 10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2. 대제 분정기 및 배치

1) 분정기(分定記)

분정은 의례 절차에 수반된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분정기는 이를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분정기에 성명이 적힌 사람은 그 집단의 의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이들도 집단 내에서 서로의 존재와 위계를 간접적으로 인식한다.⁹⁾

8)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장철수, 「송의전 제향」, 『漣川郡誌(上)』, 연천군 지편찬위원회, 2000, 777쪽~7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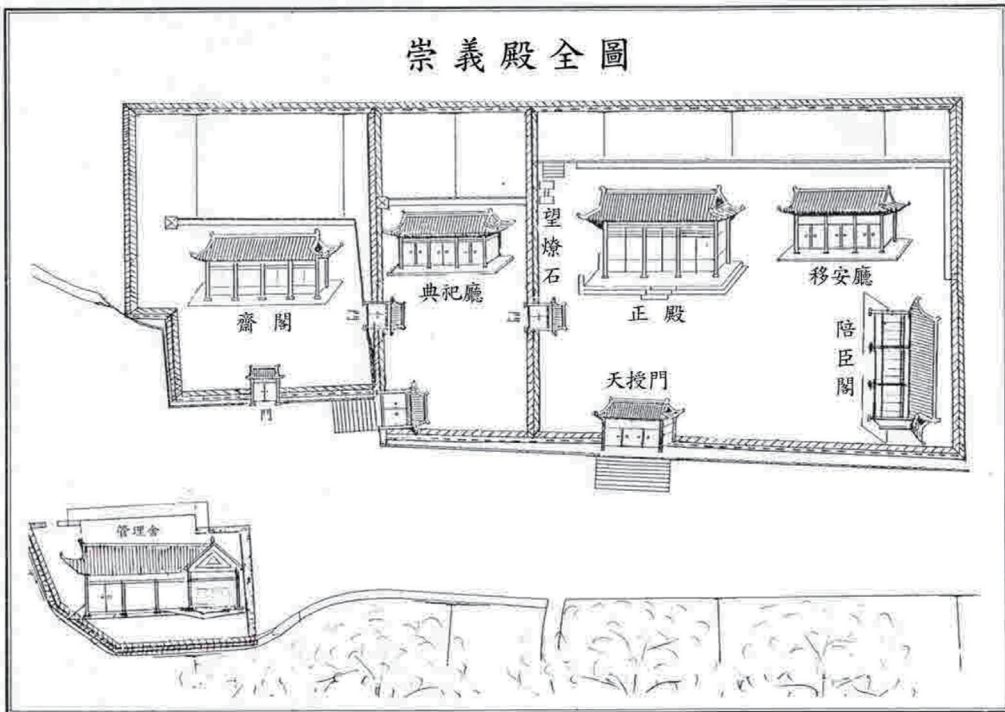
9) 전경목, 2014, 「분정기」, 『일상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pp.213-214.

| 구분 | 헌관 및 제관 | 분정 및 임무 | 배향위 | 비고 | |
|----|----------|-----------------|----------------------------------|--------------|-------------|
| 1 | 초헌관 | 연천군수 | 고려 태조(太祖) 현종(顯宗) 문종(文宗) 원종(元宗) | 정전 | |
| 2 | 아헌관 | 연천군의회의장 | | | |
| 3 | 봉헌관 | 승의전 전감 | | | |
| 4 | 봉조관 | 승의전 전전감 | | | |
| 5 | 분헌관01 | 면천복씨(沔川卜氏) 종중대표 | 태사개국무공공 복지겸 (太師開國武恭公 卜智謙) | 배신청 (陪臣廳) | |
| 6 | 분헌관02 | 의성홍씨(義城洪氏) 종중대표 | 태사충열공 홍유 (太師忠烈公 洪儒) | | |
| 7 | 분헌관03 | 의성홍씨(義城洪氏) 종중대표 | 태사개국장절공 신승겸 (太師開國壯節公 申崇謙) | | |
| 8 | 분헌관04 | 무송유씨(茂松庾氏) 종중대표 | 태사개국충절공 유검필 (太師開國忠節公 庾黔弼) | | |
| 9 | 분헌관05 | 경주배씨(慶州裴氏) 종중대표 | 태사개국무열공 배현경 (太師開國武烈公 裴玄慶) | | |
| 10 | 분헌관06 | 이천서씨(利川徐氏) 종중대표 | 태사내사령장위공 서희 (太師內史令章威公 徐熙) | | |
| 11 | 분헌관07 | 금천강씨(衿川姜氏) 종중대표 | 태사문하시중인헌공 강감찬 (太師門下侍中仁憲公 姜邯贊) | | |
| 12 | 분헌관08 | 파평윤씨(坡平尹氏) 종중대표 | 수태보문하시중문숙공 윤관 (守太保門下侍中文肅公 尹瓘) | | |
| 13 | 분헌관09 | 경주김씨(慶州金氏) 종중대표 | 문하시중문열공 김부식 (門下侍中文烈公 金富軾) | | |
| 14 | 분헌관10 | 언양김씨(彦陽金氏) 종중대표 | 문하시중위열공 김취려 (門下侍中威烈公 金就礪) | | |
| 15 | 분헌관11 | 횡성조씨(橫城趙氏) 종중대표 | 문하평장사문정공 조충 (門下平章事文正公 趙冲) | | |
| 16 | 분헌관12 | 안동김씨(安東金氏) 종중대표 | 첨의령충열공 김방경 (僉議令忠烈公 金方慶) | | |
| 17 | 분헌관13 | 탐진안씨(耽津安氏) 종중대표 | 중서평장사문충공 안우 (中書平章事文忠公 安祐) | | |
| 18 | 분헌관14 | 함안이씨(咸安李氏) 종중대표 | 중서평장정사충열공 이방실 (中書平章政事忠烈公 李芳實) | | |
| 19 | 분헌관15 | 상산김씨(商山金氏) 종중대표 | 정당문학문충공 김득배 (政堂文學文忠公 金得培) | | |
| 20 | 분헌관16 | 영일정씨(迎日鄭氏) 종중대표 | 문하시중문충공 정몽주 (門下侍中文忠公 鄭夢周) | | |
| 21 | 봉례관(奉禮官) | 정전에서 모든 제례를 총괄 | | | 정전 및 배신청 |
| 22 | 집례관(執禮官) | 대제 진행 | | | |

| | | | |
|----|----------|--|----------|
| 23 | 대축관(大祝官) | 신주(神主) 봉출봉납(奉出奉納),幣帛(幣帛) 존소(尊所), 봉조(奉俎) 조찬(俎饌), 독축(讀祝),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 | 정전 및 배신청 |
| 24 | 전사관(典祀官) | 전사청에서 간, 숙을 정전으로 받들 | |
| 25 | 집준관(執奠官) | 작에 술을 따름 | |
| 26 | 알자(謁者) | 헌관(獻官) 인도(引導) | |
| 27 | 찬인(贊引) | 집사자관(執事者官) 인도(引導) | |
| 28 | 좌준관(左奠官) | 헌관이 준 작을 제상에 받든다. | |
| 29 | 우준관(右奠官) | 작을 받들어 헌관에게 받들고 | |
| 30 | 내봉관(內奉官) | 외봉관의 작을 받아 우준관에게 전해 주고 | |
| 31 | 외봉관(外奉官) | 집준관의 작을 받아 내봉관에게 주고 | |

2) 제향시 배치도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에 따르면 송의전의 규모는 18칸 규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송의전 정전은 정면 3칸과 측면 3칸으로 규모가 작다. 이는 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큰 데, 이 때문에 정전(庭前)에서 헌관이 곡배(曲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참사원의 직배(直拜) 공간이 좁은 실정이다. 또한 배신청의 제향 공간에서는 헌관이 뒤를 돌아 직배(直拜)의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현재 격에 맞지 않는 의례이다.



〈송의전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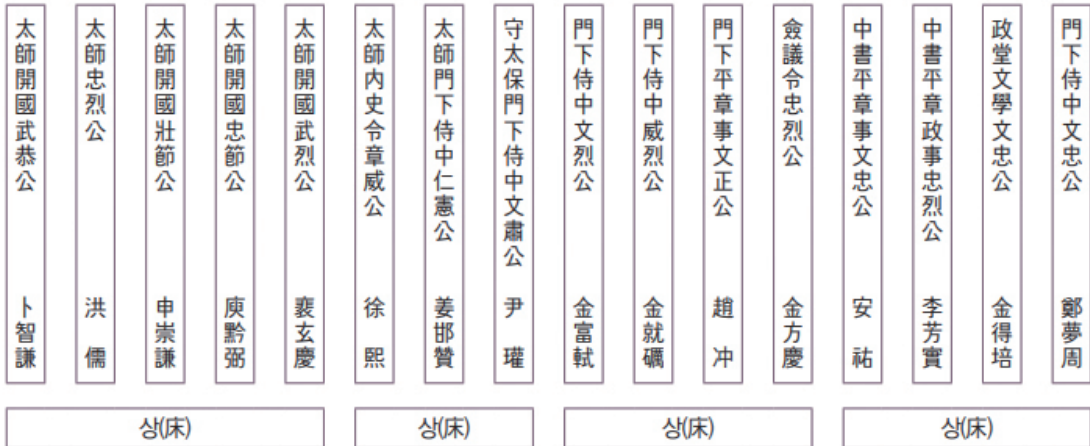
3) 정전 신위 배치

숭의전 정전 위차(位次)는 소목지서(昭穆之序)¹⁰⁾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서위상(以西爲上)¹¹⁾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그러나 4위(位)에 대한 위차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어 역사적 고증을 통해 현재 정전의 위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전 신위 배치도〉

4) 배신청 신위 배치



〈배신청 위패 봉안도〉

10) 소목이란 사당을 지을 때 제주를 기준으로 가장 대수가 먼 조상을 가운데에 모시고 짝수 대의 조상은 왼쪽에 모시는데 이것을 소, 홀수 대의 조상은 오른쪽에 모시는데 이것을 목이라고 한다.

11) 서쪽을 상석으로 음양의 이치에 따라 배석한다.

3. 제사 행사법

승의전 전례는 예전의식(禮前儀式) → 행례(行禮) → 예후의식(禮後儀式)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행례는 헌관이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폐백(幣帛)을 올리는 절차, 술잔을 올리는 헌례(獻禮) 절차, 음복(飮福)을 하고 축(祝)과 폐백(幣帛)을 태우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분향에 쓰일 향(香)과 헌례에 낭독될 축문(祝文)을 전(傳)하는 전향축례(傳香祝禮)는 진행되지 않으며, 제찬의 진설 행사는 행사일 전에 진행된다.

행사 중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먼저 보법(步法)이다. 층계를 오르고 내릴 때는 두 발을 합해서 연보(蓮步)하고, 주선(周旋) 할 때에는 단형(丹形)으로 하고 절선(折旋)할 때는 방형(方形)으로 한다. 사당 안에서는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걸어야 하며 활개를 쳐서는 안 된다. 다음은 배법(拜法)이다. 절을 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한다. 묘(廟)·전(殿)·궁(宮)·능(陵)에서는 사배(四拜)하되, 헌관(獻官)은 곡배(曲拜)를 행하고 제집사(諸執事)는 직배(直拜)를 행한다. 묘(墓)에는 두 번 절하되 헌관과 집사 모두 직배한다.

다음으로 승강계법(昇降階法)이다. 동계(東階) 및 태계(泰階)를 오를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고 내려올 때는 왼발을 먼저 딛는다. 서계(西階)를 오를 때는 왼발을 먼저 내며 내려올 때는 오른발을 먼저 딛는다. 다음은 출입문법(出入門法)이다. 정문(正門)과 동문(東門)을 들어올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며 나갈 때는 왼발을 먼저 딛는다. 서문(西門)을 들어올 때는 왼발을 먼저 내며 나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딛는다. 다음은 포법(抱法)이다. 포(抱)할 때는 오른발을 먼저 굽히고, 일어날 때는 오른쪽을 먼저 편다. 다음은 제물봉헌법이다. 제물의 진설·철퇴(徹退)·전작·존작시에는 머리를 숙이고 가슴 높이까지 하여 봉(奉)한다.

다음으로 국궁법(鞠躬法)이다. 신위(神位)나 신상(神床) 앞에 서거나 지나갈 때는 반드시 몸을 굽힌다. 다음은 전수법(傳授法)이다. 작(爵)·향(香)·노(爐) 등을 전수(傳授)할 때는 입자(立者)에 대해서는 입하고 좌자(坐者)에 대해서는 좌(坐)한다. 다음은 집홀법(執筋法)이다. 오른쪽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밖으로 하여 홀(笏)을 잡은 후 왼쪽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밖으로 하여 오른손을 덮어싸되, 입시(立時)에는 배꼽에 대고 좌시(坐時)에는 가슴에 댄다. 이외에도 봉출신주(捧出神主)에서 대왕위가 선이고 왕후위가 후이며, 납신주(納神主)에서 대왕위가 후이고 왕후위가 선이라는 규칙이 있다.

4. 진설(陳設)·축문(祝文)·망기(望記)

| | | | | | | | | | | |
|--------------|----------------|-------------------|--------------------|-------------------|-------------------|-------------------|-------------------|-------------------|-------------------------|------------|
| | 태조신위 (太祖神位) | | | | | 배 (配 位) | | | | |
| 삼식 (糝食) | 토해 (兔醢)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대갱 (大羹) 甗 | 능인 (菱仁) | 분자 (粉糝) |
| 유택식 (西宅食) | 근저 (芹菹) | | | | | | | | 진자 (榛子) | 구이 (糗餌) |
| 돈박 (豚拍) | 녹해 (鹿醢)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육갱 (肉羹) (鉶) | 울황 (栗黃) | 흑병 (黑餅) |
| 비석 (脾析) | 청저 (菁菹) | | | | | | | | 건조 (乾棗) | 백병 (白餅) |
| 어해 (魚醢) | 담해 (醢醢) | | 도보 (稻籩) | 양보 (梁籩) | 도보 (稻籩) | 양보 (梁籩) | | | 어수 (魚鱸) | 녹포 (鹿脯) |
| 순저 (笋菹) | 구저 (韭菹) | | 서궤 (黍簋) | 직궤 (稷簋) | 서궤 (黍簋) | 직궤 (稷簋) | | | 형염 (形塩) | 검인 (茨仁) |
| 축점 (祝站) | | | 반 육 속 (盤)(肉)(熟) | | | | | | 반 협 좌 생 (盤)(脇)(左)(牲) | |
| 초 (燭) | | | | 향로 (香爐) | 향합 (香盒) | | | | | 초 (燭) |
| | 작(爵) | 작(爵) | 작(爵) | | | 작(爵) | 작(爵) | 작(爵) | | |

〈『숭의전사(崇義殿史)』에 기록된 진설도(태묘)〉

진설은 제수를 제상에 진열하는 절차이다.

축문은 술잔을 올리는 헌례 절차에 전하는 전향축례의 일부이다.

망기는 다음과 같다.

축문

太祖皇帝
維
高麗紀元壹仟八十一年歲次 戊寅九月庚子朔初三日壬寅
漣川郡守李重翼敢昭告于
高麗太祖應運元明光烈大定 睿德章孝威穆仁勇勇烈
神聖皇帝 伏以 順天應仁 再統三韓 東明舊壤 吾家青氈
固己國脈 乘統五百 鴻功偉業 永世不刊 時維仲秋
謹以梁盛牲醴 式陳明薦
尙饗

망기

高麗 原 崇義 望
紀元 壹千 殿
十年 月 日 享
崇義 仰 殿 齋 中 大 祭

5. 제사 절차

1) 취위(就位)·진시(陳視, 點視陳設)·개독(開讀)·헌조(獻組)

초헌관이 집례 및 헌관을 안내하는 알자의 안내로 제수의 진설 상태를 검시(檢視)한다. 그리고 알자, 의식을 진행하는 봉례관, 대축을 안내하는 찬인이 먼저 마당에서 네 번 절하고 관세 위에서 손을 씻는다. 이어서 축관과 제집사들이 찬인의 인도로 마당에서 정렬한 후 네 번 절하고 관세 위에서 손을 씻는다. 이후 집사들이 전(殿)에 입실하여 위패의 함을 여는데 이를 개독(開讀)이라고 한다. 그다음 찬인은 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헌관 위에 자리 잡게 하는데, 이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2) 초헌례(初獻禮)

알자가 초헌관을 준소(술잔에 술을 따르는 곳)로 인도하고 초헌관은 준소를 살피는데, 이를 감작양제(監作盞齊)라고 한다. 그 후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우전관이 술잔을 받들어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이 잔을 받아 높이 들어 헌작한 후 좌전관에게 주면 좌전관이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이어서 헌관이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꿇어앉으면, 축관이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알자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3) 아헌례(亞獻禮)

알자가 아헌관을 관세 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한 후 준소로 인도한다. 그다음 아헌관이 준소를 살핀 후 고려 왕의 신위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우전관이 술잔을 받들어 아헌관에게 준다. 이어서 아헌관이 잔을 받아 높이 들어 헌작한 후 좌전관에게 주면, 좌전관이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아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알자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4) 종헌례(終獻禮)

종헌례는 종헌관이 고려 왕에게 헌례하는 것으로서 순서와 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5) 분헌례(分獻禮)

분헌례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고려 왕에게 제를 지낸 후 16공신들의 신위를 모셔놓은 배신청에서 제를 지내는 절차이다. 알자는 모든 분헌관을 이끌고 배신청에 오른 후 분헌관들은



〈2023년 승의전 춘계제례 (연천군청 제공)〉

손을 씻고 각 신위에 술을 올리고 나면, 알자는 헌관과 집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인도한다.

6) 수조례(受祚禮)·철변두(徹籩豆)

알자가 봉작과 태축관을 인도하여 사당의 동쪽 계단으로 오른다. 이어서 초헌관이 계단 위에서 서향하여 사배하고 꿇어앉으면 봉작은 태축관에게, 태축관은 초헌관에게 술을 준다. 그 다음 초헌관은 제사를 올린 고기와 술을 받아 마신 후 내려와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초헌관까지 수조례가 끝나면 초헌관은 태축관과 봉례관은 다시 올라가 제물을 치우는데 이를 철변두(徹籩豆)라고 한다.

7) 망료례(望燎禮)

알자는 초헌관을 망료 위로 인도한다. 초헌관이 북쪽을 향해 서면 축관이 축판과 폐백을 담아서 서계로 내려가 불사르는 곳으로 가서 구덩이에 넣은 후 불사르고 덮는다. 이때 축문의 네 귀퉁이 중 한쪽만 자른 뒤 태우는데, 멀쩡한 모시를 다 태우는 것이 아까워 조금씩 잘라낸다고 한다. 이후 알자가 초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고 봉례관, 축관, 전사관들은 전(殿)에 들어가 주독을 덮는다. 그다음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필을 하고, 축관과 제집사들은 마당으로 가서 다 같이 사배한다. 이어서 봉례관과 집례는 마당으로 가서 사배한다.

1. 조사개요

세시풍속은 시대와 사회의 변혁에 따라 소멸되거나 생성되면서 변화한다. 특히 6·25전쟁 이후 외지 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각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보편화된다. 동시에 농업 중심 생활에서 도시 및 산업 생활 양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시 풍속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연천군 역시 해방 전만 해도 설날·정월대보름·단오·칠석·추석 등의 명절을 지냈으나, 최근에는 설날과 추석 외에 다른 명절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조사는 이러한 연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38선 이북 수북 지역인 왕징면 노동리와 38선 이남 지역인 전곡읍 간파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조사자가 명절에 직접 참여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열두달의 세시

1) 설날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 최고의 명절이다. 설날 아침이 되면 남자는 제일 먼저 설빔으로 갈아입고서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고 여자는 음식 장만부터 시작하였다. 6·25전쟁 전만 해도 남자는 갓을 쓰고 흰 바지저고리에 물색 있는 조끼와 마고자에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과 대님·행전을 쳤고, 여자는 흰 치마저고리에 버선을 신었으며 아이들도 설빔을 입었다. 그러다 1998년부터는 설빔을 마련하지 않는다. 대신 한복이나 양복 등 정장을 입으면서 한복은 이제 더 이상 일상복이 아닌 명절이나 의례 때 입는 의례복으로 자리 잡는다.

설음식로는 제일 먼저 엿을 고아서 만든 술을 장만한다. 그리고 두부부침, 나물떡(가래떡), 메밀만두, 강정, 식혜, 조차떡, 수수망태기떡 등을 마련한다. 차례상으로는 떡국과 함께 사과, 배, 꽃감, 대추, 누름적 등이 올라갔고, 흥동백서 등의 계상차림에 의해 차려진다. 차례는 웃어른부터 순서대로 무축단잔으로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 후 향렬대로 세배하였다. 세배반은 어른은 설음식으로 내오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며 덕담하였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러 갈 때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다. 먼 곳의 친지나 친척 어른들에게는 3일 안

12)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천진기, 『세시풍속』, 『漣川郡誌(上)』,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2000, 791쪽~802쪽).

에 찾아가 세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럴 수가 없을 때는 보름 안에 찾아가 세배하였다. 세배하지 않는 경우는 어른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등 세배 받기 좋지 않은 상황일 뿐이다.

정초가 되면 모든 액운을 막고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가족의 건강, 그해 농사의 풍흉, 기대하는 일의 성패 등에 대해 점장에게 점을 친다. 특히 노동리에서는 예로부터 삼재배를 하여서 새해 첫날에 집에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삼이 잘 된다고 믿었다.

설날에 하던 놀이는 옷놀이와 널뛰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된다. 예전에는 실내에서 옷놀이를 할 때 종지웃 등 여러 가지 놀이 방식이 있었다. 널뛰기를 할 때 쓰이는 널은 마을의 부유한 집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관으로 쓸 널판을 널뛰기의 널로 쓰다가 관으로 만들어 쓰면 그 사람은 오래 살고 집안이 좋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 정월대보름

선달 그믐부터 정월 보름까지는 복조리를 팔거나 사는 오랜 풍속이 있었다. 정월 열나흘 날 저녁에 달을 보고 들어와 짚을 잘라 매듭을 지었다. 이때 지은 매듭이 딱딱 떨어지면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길게 계속 연결이 되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남자는 나무 열두 짝을 해오고 여자는 삼 열두 바구니를 담으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묵은 나물과 함께 밥을 열두 번 먹었다. 밥을 할 때는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들을 모아 먼저 밥을 다 먹였다. 새벽에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었는데, 이는 손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콩밭을 땀 때 밭이랑이 푹푹 파인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이들은 남의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밥과 나물을 훔쳐 먹기도 했는데, 이때 아이들이 훔쳐 먹는 것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도 모른 척하였다.

정월 보름 아침에 여자들은 남보다 빨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면 복이 많아진다고 하여 새벽에 일찍 나가서 물을 길었다. 또 지난해 말이나 새해 초에 보았던 새해 운수가 액이 끼거나 좋지 않았다고 나왔을 때 이날 아침 일찍 밥을 한 후 창호지에 자기 나이 수만큼 수저로 밥을 조금씩 퍼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 전 물 위에 가져다 띄우면 액이 없어진다고 믿었다. 또한 가족들 각자가 밥그릇에서 나이 수대로 밥을 떠서 창호지에 모아 썬 것을 개울에 띄우면 집안이 한 해 동안 평안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창호지에 썬 밥을 ‘용의 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래는 일어나자마자 ‘귀밝이술’을 먹지만, 대개 아침 반주로 먹었다.

정월 보름에 하던 놀이는 더위팔기와 부럼깨기가 있다. 더위팔기는 불특정한 사람을 부른 후 상대방이 대답하면 “내 더위 사거라”라는 말로써 더위를 파는 놀이이다. 이는 해가 뜨기 전에 해야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부럼깨기는 전날 밤에 부럼을 준비하고 보름 아침에 일어나

이를 이빨로 깨뜨려 마당에 던지는 놀이이다. 이렇게 하면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믿었는데, 보통 더위팔기와 마찬가지로 해뜨기 전에 했다. 또 이날에는 반으로 쪼갠 수수깡 안에 12개의 콩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삼으로 고정하여 우물에 담가 두었다가 보름에 꺼내 점을 치기도 했다. 우물물에 텅텅 불은 것과 불지 않은 것을 살펴서 불은 콩에 해당하는 달에는 가물지 않고 불지 않은 콩에 해당하는 달에는 가물 것이라고 믿었다. 이외에도 지신밧기나 농기싸움도 했다고 하나, 제보자들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현재 정월대보름에 마을에서는 옷놀이를 한다.

정월 보름 저녁에는 달맞이를 한다. 달맞이를 하기 전에 햇불을 준비하는데, 대는 싸리가지기를 모아 자신의 나이 수만큼 짚으로 묶었다. 이렇게 만든 햇불을 들고 달을 보거나 달의 동그란 모양 주위를 햇불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소원을 빌었다. 햇불이 거의 다 타면 그것을 땅바다에 놓고 건너뛰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었다. 이것을 ‘달집태우기’라고도 했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달집을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져갔던 햇불을 나중에 모아 놓고 함께 놀았던 것이 전부였다. 또한 그 햇불에 가져갔던 감자 고구마 오징어 북어 등을 구워 먹기도 했다.

3) 2월 초하루

2월 초하루에는 콩좁떡(좁떡)을 만들어 나이대로 떡을 먹었다. 농가에서는 집마다 콩을 볶았는데, 이때 주걱으로 저으며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 먹으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어지고 집안의 노래기도 없어져 청결해진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없어지라고 콩을 달달 볶아 먹었다고 한다.

장남면 고랑포리에서는 3년 주기로 음력 2월 초 길일을 정해 진좌제(鎭坐祭)를 지낸다. 진좌제는 지진신(地鎭神)을 받드는 사당(부군당)에 모여 무당의 집전으로 무병식재(無病息災)와 다행다상(多幸多祥)을 비는 예제이다. 엄숙하게 제전을 올린 후 지방 인사·취군·무동들이 큰길로 나가 행렬을 짓고, 모여든 군중과 합세하여 춤추고 노래하였다. 진좌제는 상고랑포에서 2일, 중고랑포에서 2일 동안 나눠 모두 4일 동안 진행된다.

4) 3월 삼진날

3월 삼진날은 3의 양이 겹치는 날로 강남을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나비가 날아드는 봄의 시작을 의미하는 명절이다. 그러나 제비를 보고 제비 봤다고 말하면 학질에 걸린다고 하여 제비를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초봄에 나비를 처음 봤을 때 흰 나비를 보면 그 해 상주가 된다고 믿었다.

봄철 민속놀이 가운데 성인 여자들이 하던 부군제가 있다. 부군제는 마을 여자들이 협의하여 제관을 정하여 3일 동안 재계를 한 후 부군제 당일 아침에 수목(樹木)을 제신으로 하는 제단을 차리고 제관 대신에 무녀가 춤을 추면서 축원하는 놀이다. 무녀는 북과 징 등의 반주에 따라 하루 종일 마을 각 집의 식구들 이름을 부르며 복을 기원했고 다른 일반 부녀자들은 이를 구경하고 즐겼다. 이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에 각 집으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거두는 풍습이 있었다.

5)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은 현재처럼 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크게 성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연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썩떡을 해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고 아낙네들은 그네를 탔다. 그네는 보통 단오를 전후하여 매는데 연천은 초파일에 처음으로 그네를 매고 월 단오에 끝낸다.

6) 5월 단오

단오날에 남자들은 씨름, 탈놀이, 광대놀이 등을 했으며, 여자들은 그네를 뛰고 놀았다. 그네는 4월 초파일에 짚을 굵게 꼬아 만들었다가 단오날에 끊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더 이상 그네를 타지 않는다. 또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소담하고 윤기가 있으며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이외에도 창포물이 몸에 이롭다고 믿어 창포 삶은 물을 먹거나 화장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악귀를 쫓는 의미로 창포뿌리를 비녀로 만들어 쫓는 단오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시(午時)는 일 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시각이므로 이를 기해서 익모초와 쑥을 뜯는다. 익모초즙은 식욕을 돋우고 몸을 보하는 약으로 알려져 여름철 식욕이 없을 때 먹었다. 쑥은 뜯어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창포탕에 넣어 함께 삶아 먹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다. 또한 해가 뜨기 전에 약쑥을 캐서 말리기도 했었다.

7) 6월 삼복

그 해 가장 더운 복날을 택해서 ‘복놀이’를 했는데, 대개 중복 때 했다. 이 날은 각 집에서 만두를 빚어 오기도 하고 막걸리를 담가 오기도 하는 등 집마다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놀았다.

8) 7월

농가의 휴일인 백중에는 여름철 풀뽑기가 끝나면서 호미나 씨레를 씻어 농사일을 일단락 짓고 수확을 기다리는 ‘호미씻기’ 풍속이 있었다. 백학면·미산면 등지에서는 마을마다 젊은이를 중심으로 길일을 택하여 마을 마당에 농기를 한곳에 모아 놓고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농악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다. 또 고려시대부터 연천군 중부(미수복 지구)를 중심으로 길놀이와 마당놀이를 했다. 추수 전 농한기에 겨울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공동작업을 벌인 후 잡목과 칩으로 남여(藍輿)를 만들어 연장자를 태우고 양반 행세를 하며 돌아다녔다. 이를 아미산 울어리라 한다. 이외에도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인 칠월 칠석에는 각 가정에서 호박전을 해 먹거나 밀떡을 해서 먹었다.

9) 8월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보름날로 한가위, 가위, 중추절 등이라고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매우 큰 명절로 여겨서 가난한 집일지라도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다. 또 송편 등을 해서 차례를 지내고 일반적으로 성묘를 갔으나, 성묘를 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추석을 큰 명절을 여겼던 까닭은 각종 과일 등이 익고 추수를 하여 풍요로운 달일 뿐만 아니라 달이 최대로 차오르는 보름날을 신성하고 중요한 날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0) 9월 중구

시향을 안 지낸 대 이상의 조상을 이때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더러 행해지고 있다. 이날은 모기가 없어지고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과 개구리도 땅 속에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다.

11) 10월

10월 초사흘날에는 시향(시제)을 지냈는데, 이때 외에 4월 3일에도 지낸다. 시향은 열하루부터 3~4일 동안 지낸다. 가정집에서는 대개 시루떡을 해놓고 만신을 불러 고시를 지냈으며, 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난 후 ‘대동굿’ 또는 ‘동네굿’을 했다. 이 굿을 할 때는 실제 무당과 ‘마부’라고 지정된 마을 사람이 서로 내담 형식의 입씨름을 하는 ‘마구타령’을 하면서 놀기도 했다.

12) 동지

동지는 '아세(亞歲)' 혹은 작은 설이라고도 하며 태양의 부활을 의미한다. 동짓날에 팔죽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의미와 함께 붉은색 팔이 악귀를 쫓고 질병도 없애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팔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헛간 등 집안 곳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 식구들이 모여 먹었다. 또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기도 하면서 음귀를 쫓았다. 이렇게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 먹는 풍속은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동짓날에도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에는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하여 팔죽을 쑤어 먹지 않았다.

13) 설달

설달을 준비하기 위해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겨우내 삼삼기를 하고 베를 짰다고 한다. 설달 열흘부터는 절구질하고 엿을 고르는 등 설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설달 그믐이 되면 '섬떡'을 해서 먹었는데, 이는 다음 해 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그믐에는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난 후 어른들이 주무시기 전에 묵은 세배를 올렸다. 그리고 이 날 밤에는 안개이(야광귀)가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고 맞는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어 두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외에도 설달 그믐에 잠을 자서 새해를 맞이 하면 눈썹이 희게 된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아이에게는 물에게 갠 밀가루를 눈썹에 발라놓기도 하였다.

14) 윤달

윤달에는 이장을 하거나 수의(壽衣)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기도 하였다. 윤달에 동네 초상이 나면 바느질과 빨래를 하지 않았고, 수의에 박음질을 하거나 실의 매듭을 짓지 않았다.

Ⅶ. 민속놀이¹³⁾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
의과학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
과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1. 개설

민속놀이는 민속 오락·민속 경기·민속 유희·민속 예능·전승 놀이·향토 오락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민속놀이에는 유희성·오락성·경쟁성·예술성 등의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겨루기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놀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의존하여 진행함으로써 별도의 재미를 맛보기도 한다. 또 민속놀이를 통해 평소에 발휘할 수 없었던 장기를 보여줘 즐거움이나 소속감과 만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민속놀이는 근·현대에 이르러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등 여러 매체의 등장으로 자취마저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자료가 남아 있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산면 유촌리, 왕징면 노동리, 청산면 대전리 등 몇 개 마을을 직접 현지 조사하여 각 민속놀이의 계승 현황과 변화과정을 함께 알아보았다.

2. 일제강점기의 민속놀이

연천지역의 민속놀이에 관한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6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놀이를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조사 정리한 『朝鮮の郷土娛樂』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참고해 일제강점기 때의 놀이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朝鮮の郷土娛樂』에는 연천의 민속놀이를 시기와 주체자별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민속놀이 종류를 표로 만들어 종합하고 놀이법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적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웃놀이는 두 편을 나누어 네 개의 옷을 던져 나오는 수만큼 정해진 말을 움직여 승패를 정하는 놀이다.

널뛰기는 긴 널판때기 양 끝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교대로 뛰어오르면서 노는 놀이다.

달맞이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른 싸리가지로 화를 만들어 자기의 나이 수만큼 매듭을 지은 후, 달이 떠오를 때 불을 붙여 다 탈 때까지 휘두르는 놀이다. 이 놀이는 중국 당(唐)의

13)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서승우, 「민속놀이」, 『漣川郡誌(上)』,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2000, 803쪽~830쪽).

풍습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가락지 찾기는 여자아이들이 정월에 노는 놀이로 7, 8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고양이와 되어 가운데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면서 반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알아맞히는 놀이로 반지를 숨긴 사람을 찾으면 숨긴 사람이 고양이와 되는 놀이다.

〈1930년대 당시 연천군의 민속놀이〉

| 연번 | 명칭 | 시기 | 주체자 | 비고 |
|----|---------|-------------|--------|------------------------------|
| 1 | 웃놀이 | 정월 | 일반 남자 | 놀이법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과 같다. |
| 2 | 널뛰기 | 정월 | 젊은 여자 | 놀이법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과 같다. |
| 3 | 달맞이 | 정월 보름 | 일반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유래설명 |
| 4 | 가락지 찾기 | 정월 | 여자 어린이 | 놀이법 설명 |
| 5 | 화전놀이 | 봄 | 여자 | 놀이법 설명 |
| 6 | 부군제 | 3월 | 성인 여자 | 놀이법 설명 |
| 7 | 공기 | 봄부터 가을 | 소년·소녀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
| 8 | 비석치기 | 봄부터 가을 | 소년 | 놀이법 설명 |
| 9 | 농악(농상기) | 봄·여름 | 농민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유래설명 |
| 10 | 씨름 | 단오·백중·추석 | 남자 | 놀이법은 경기의 다른 지방과 같다. |
| 11 | 그네 | 4월 초파일부터 단오 | 여자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
| 12 | 천렵 | 여름 | 남자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
| 13 | 복놀이 | 삼복 | 남자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
| 14 | 호미씻이 | 백중 | 농민 |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
| 15 | 종경도놀이 | 겨울 | 상류층 | 놀이법 설명 |
| 16 | 팽이치기 | 겨울 | 남자 어린이 | 놀이법은 경기의 다른 지방과 같다. |
| 17 | 연날리기 | 겨울, 특히 정월 | 남자 어린이 | 놀이법은 경기의 다른 지방과 같다. 유래 설명 |
| 18 | 썰매타기 | 겨울 | 어린이 | 놀이법은 경기의 다른 지방과 같다. |
| 19 | 바둑 | 수시 | 상류층 남자 | 놀이법 설명 |
| 20 | 장기 | 수시 | 일반 남자 | 놀이법 설명 |
| 21 | 활쏘기 | 수시 | 남자 | 놀이법 설명 |
| 22 | 숨바꼭질 | 수시 | 어린이 | 놀이법 설명 |
| 23 | 고누 | 수시 | 어린이 | 놀이법 설명 |

화전놀이는 봄이 시작되는 3월경에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서 참기름으로 전을 부쳐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노는 것이다.

부군제(府君祭)는 성인 여자들의 놀이이다. 먼저 마을 여자들끼리 협의하여 제관을 정하면, 제관은 일간 재계한다. 부군제 당일 아침에 수목(樹木)을 제신으로 하는 제단에 흰 병 한 개와 과일 약간을 차려 놓고 신목을 향하여 절을 한 후, 무녀에게 제관 대신 춤추게 한다. 무녀는 북과 징 등의 반주에 따라 하루종일, 마을 각 집의 식구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올리면서 축원한다. 또한 무녀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하게 한 후 다른 일반 부녀자는 이를 구경하고 즐긴다. 이 제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4, 5월에 마을의 각 집으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거두는 풍습이 있다.(왕징면 노동리)

공기는 다섯 개의 작은 돌맹이를 갖고 하는 놀이로 돌맹이를 손바닥에 쥐고 있다가, 돌을 던져 올린 다음 나머지 돌을 땅바닥에 놓고 떨어지는 돌을 받는다. 이때 던져 올린 돌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바닥의 돌 전부를 주워 손에 쥐는 방식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비석치기 상대방의 돌을 3m 정도의 거리에서 맞혀 쓰러뜨리는 놀이로 그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농악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 놀이이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 식사 후, 저녁에 주로 행해진다. 사용하는 악기는 징·큰북·작은북·장고·피리 등이며, 곡은 행진곡·무도곡(舞蹈曲) 등 5~6종이 있다. 농악은 삼한시대의 유품으로,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작업의 노고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행했다. 또한 모내기를 마친 후 승려를 초청하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경을 읽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여 풍작을 기원했던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옛 삭녕면 지역)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다리에 살바를 맨 상태에서 시작하며, 먼저 무릎을 꿇거나 손으로 땅을 짚는 사람이 진다. 시합 장소를 정해서 겨룬다.

그네는 4월 초파일부터 시작하여 단오날까지 뛰기도 했다. 옛날 남부 지방에 춘향이라는 미인이 자신의 미모로 군수의 아들 이도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네를 탄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천렵은 주로 여름철에 행해진다. 열 명 내외의 유지들이 모여 강변에 자리를 만들고, 더러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승경도 놀이판〉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즐긴다.

복놀이는 초복·중복날 또는 말복날에 콩죽이나 닭고기 요리 등을 만들어 먹고 노는 것을 말한다. 이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추나무는 삼복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에 곁들여 자손 번성의 축복을 겸한 복놀이가 시작되었다는 속전(俗傳)이 있다.

호미씻이는 논이 김매기가 끝나면 농부들이 함께 음식을 차려 놓고 농악을 연주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노는 것이다.

종경도놀이(그림 참조)는 각 면에 1에서 5까지의 점수가 쓰여 있는 길이 10cm 정도의 오각형 막대기를 굴러 점수를 따져 나가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옛날에 과거에 대한 열기가 높았을 때, 학생들의 향학열을 자극함과 동시에 많은 관직명을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팽이치기는 원추형으로 깎은 나무팽이에 줄을 감아 땅바닥이나 얼음판 위에 던져서, 오랫동안 돌기를 겨루며 논다.

연날리기는 대쪽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종이를 발라 만든 장방형 연에 실을 대고 얼레로 실을 조정해서 하늘 높이 날리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고려의 최영 장군이 제주도의 여왕을 공격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썰매타기는 겨울철에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썰매 외에, 철사를 붙인 두 개의 널빤지를 양쪽 신발 아래에 달고 얼음 위를 지치는 사람도 있다.

바둑은 흑백의 바둑돌을 가지고 각자의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적의 진지를 부숴 버릴 궁리를 하는 놀이로 영토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장기는 한군(漢軍)과 초군(楚軍)으로 갈라서 대전하는 것이다.

활쏘기는 약 150m 거리에 있는 표적에 다섯 개의 활을 쏘아 맞히는 경기다.

숨바꼭질은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숨는 놀이이다.

마지막으로 고누는 땅바닥에 줄을 긋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작은 돌을 두 개씩 놓아 차례대로 움직여 상대방 돌의 진로를 방해하는 놀이이다. 샘고누·사선고누·오선고누·육선고누·곤질고누 등의 놀이 방법이 있다.

3. 현대의 민속놀이

1987년도에 발간된 『연천군지』 민속놀이 절에는 총 68종의 놀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별한 놀이라고 수록한 종류 중 진좌굿을 제외한 아미산 울어리, 미산 성주걸이, 호미시세에 대한 것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좌굿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천군지』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인 『朝鮮の郷土娛樂』에도 부군제가 수록되어 있다.

『연천군지』에 수록된 진좌굿은 고랑포(高浪浦, 옛 장단면 고랑포)의 독특한 풍습으로 중고랑포 석벽 위에 지진신(地鎭神), 즉 수호신을 받드는 사당인 부군당(富君堂)에서 지내는 무병식재(無病息災)·다행다복(多幸多福)을 비는 행사다. 항례(恒例)로 3년마다 제를 지내는데, 그해 봄 2월 초에 길일을 택하여 행한다. 이것을 일명 고창(高昌)굿이라 한다. 항례제(恒例祭)를 지내는 해에는 제법 먼 지방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제사 비용은 평균 700~800원(1932년 당시 황소 한마리가 30원이었음)을 웃도는 돈을 거두어 썼다고 한다.

다음 표는 『연천군지』에 수록된 놀이의 명칭만을 적은 것이다.

〈『연천군지』(1987)에 수록된 민속놀이 명칭〉

| 번호 | 놀이 명칭 | 번호 | 놀이 명칭 | 번호 | 놀이 명칭 |
|----|--------------|----|---------|----|--------|
| 1 | 가마타기 | 24 | 바람개비돌리기 | 47 | 팽이치기 |
| 2 | 공기놀이 | 25 | 반지놀이 | 48 | 포수놀이 |
| 3 | 고무줄놀이 | 26 | 방아깨비놀이 | 49 | 풀싸움 |
| 4 | 구슬치기 | 27 | 불싸움놀이 | 50 | 풍뎅이돌리기 |
| 5 | 군사놀이 | 28 | 비석치기 | 51 | 고누놀이 |
| 6 | 그림자놀이 | 29 | 사방치기 | 52 | 마작 |
| 7 | 기마전 | 30 | 소꿉놀이 | 53 | 고패 |
| 8 | 기차놀이 | 31 | 손가락감추기 | 54 | 투전 |
| 9 | 깡통차기 | 32 | 수건돌리기 | 55 | 화투 |
| 10 | 널뛰기 | 33 | 숨바꼭질 | 56 | 낫치기 |
| 11 | 눈싸움 | 34 | 신발뺏기 | 57 | 돈치기 |
| 12 | 다리세기 | 35 | 실뜨기 | 58 | 옛치기 |
| 13 | 달걀굴리기 | 36 | 십자가놀이 | 59 | 종경도놀이 |
| 14 | 닭싸움 | 37 | 췌췌놀이 | 60 | 장기 |
| 15 | 당굴놀이 | 38 | 얇은뱅이놀이 | 61 | 바둑 |
| 16 | 도둑놈잡기 | 39 | 얼음물망초놀이 | 62 | 그네뛰기 |
| 17 | 동대문놀이 | 40 | 여우놀이 | 63 | 비녀돌리기 |
| 18 | 두꺼비집찾기 | 41 | 자치기 | 64 | 두레놀이 |
| 19 | 딱지치기 | 42 | 접시돌리기 | 65 | 공치기 |
| 20 | 땅뺏기 | 43 | 제기차기 | 66 | 지신밟기 |
| 21 | 말뚝박기 | 44 | 줄넘기 | 67 | 웃놀이 |
| 22 | 먹금놀이 | 45 | 씨름 | 68 | 기세배놀이 |
| 23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46 | 팔씨름 | 계 | 68 |

1) 대동놀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다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지 조사는 미산면 유촌리, 왕징면 노동리, 청산면 대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민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놀이와 민요의 발굴과 재현을 위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속의 모습들이 다시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은 실제적인 것보다 과거에 전승되었던 것을 행사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어서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기존의 조사 자료와 연천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원된 자료, 현지 조사에 의한 대동적인 놀이를 우선 기술하고,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대동놀이의 종류로는 두레싸움놀이, 울어리와 남여(藍輿) 행차, 지경다지기와 성주걸이, 쌍겨리소리, 복놀이, 보(洑)박이, 호미시세 등이 있다. 대동놀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천문화도시기억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일반놀이

일반 놀이에는 앞에서 기술한 대동놀이를 제외하고 소규모적인 놀이나 개인 놀이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놀이의 종류로는 옷놀이, 종지찾기, 비녀돌리기, 호박띠기, 반지찾기, 낫치기, 짝계발싸움, 지계작대기싸움, 장치기, 지계상여놀이, 포수놀이, 풀싸움, 풍뎡이돌리기, 먹금놀이, 다리세기, 달걀굴리기, 앓은뱅이놀이, 얼음물망초놀이 등이 있다. 일반놀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천문화도시기억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00년에 발간한 연천군지를 개관 및 요약한 것으로, 당시 제보자는 아래와 같다.

□ 제보자

- 최윤식(남, 75세, 청산면 대전리)
- 이재순(남, 73세, 미산면 유촌리)

1. 마을 신앙¹⁴⁾

1) 조사 개요

경기 북부에 위치한 연천군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며 휴전선 접경 구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마을의 수가 적고 역사가 짧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속의 전승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실생활에서 기능이 미약해지고 대체 가능한 민속은 전승력을 잃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연천 지역 민속 중에서도 마을 공동체 신앙의 전승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격을 살피고자 하였다. 조사는 지금도 마을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그 중 마을의 성격별로 표본 마을을 선정하여 현지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2) 마을 신앙 개관

마을 신앙은 마을이라는 지연으로 결합된 ‘마을 사람들’이라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행하는 신앙 의례를 말한다. 마을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의례라는 종교적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그 전승력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당(堂)의 명칭은 경기·충청 지역에서는 주로 산신당·도당, 강원 지역에서는 서낭당, 영·호남 지역에서는 당산·골매이 등으로 부르며 제주에서는 본향당이라고 하는 곳이 많다. 당의 형태는 큰 바위나 오래된 고목(神木), 장승 등으로 신이 거하는 당이자 신체(神體)로 삼고 있는 예가 많다. 요즘은 당집을 지어 그 안에 위패나 산신도, 방울, 나무신상 등을 두기도 한다. 이 신당 안에 모신 신은 여신이 주를 이룬다. 여신은 원시시대 이래로 풍요와 생산을 위한 기원 대상이었으며, 남신의 경우는 사람이 신격화되는 현상이 강한데, 최영이나 임경업 장군 등이 대표적이다. 제의 일시는 주로 정초나 정월 보름·3월·9월 혹은 시월 상달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유형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무당굿이 따르는 별신굿·도당굿 등과 유교식 성격이 강한 산신제·용왕제·장승제·우물고사 [井祭] 등이 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신앙의 기능으로는 종교적 기능 외에 마을 사람들의 일체감을 조성하

14)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김지옥, 「마을과 가정신앙」,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755쪽~766쪽).

는 통합 기능, 제비(祭費)를 추렴하는 걸림부터 축제 기능, 예술적 기능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기능과 역할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연천에서 전승되는 마을 신앙에 대한 현황이다.

〈연천군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지명 | 제의명칭 | 제의시기 | 제당명칭 | 제당형태 | 제당위치 | 전승여부 | 비고 |
|--------------|---------|--------------|----------------|------|-----------------|----------|-----|
| 연천읍 차탄 2리 | 군자산 산신제 | 음력 4월20일 | 산신당 | 당집신목 | 군자산 중턱 | 현전 | 무당굿 |
| 연천읍 차탄 4리 | 산신제 | 음력10월 | | 당집 | 햇골 마을 | 20년 전 단절 | |
| 전곡읍 늘목리 | 산신제 | 음력3월 | 비플대왕당 /우물당/ 상당 | 굿당 | 감악산 곰채골 | 현전 | 무당굿 |
| 전곡읍 간파리(송산골) | 산신제 | 음력3월 | | | 송산골 | 현전 | |
| 전곡읍 간파리(간패골) | 산신제 | 음력3월 | | 돌무덤 | 간패골 | 10년 전 단절 | |
| 청산면 궁평리(청송) | 장승제 | 음력 정월13일 | 장승고개 | 장승 | 청송 마을 옛 길목 장승고개 | 현전 | 마을제 |
| 청산면 대전리 | 종현산 산신제 | 8월2,3일 | 산신당 | | 종현산 | 현전 | |
| 백학면 백령1·2리 | 산신제 | 8월 | | 제당터 | 마을 뒷산 중턱 | 6년 전 단절 | |
| 백학면 노곡 2리 | 산신제 | 봄 | | 제당터 | 마을 앞산 아래 | 현전 | |
| 백학면 학곡리(들말) | 산신제 | 음력10월 (4-5년) | | | 산봉우리 | 현전 | 무당굿 |
| 신서면 나산리 | 산신제 | 음력 9월9일 | | | 보개산 | 현전 | |

3) 고찰

연천 지역의 마을 신앙은 타지역에 비해 산신 신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함께 갖고 있는 경기도의 마을 신앙은 산신 신앙(52% 이상)과 함께 도당 신앙(10%), 서낭당 신앙(9%)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을 제당의 명칭은 산제당으로 29%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신당, 당, 도당, 서낭당이 1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산신당과 산제당

의 성격이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은 52%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의 마을 신앙은 산신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연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 신앙은 이러한 경기 지역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산신제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산신숭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 의식이다. 더구나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연천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만으로 볼 때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은, 마을이 큰 산과 접해 있고 제당이 그 산에 있는 경우 제의 형태가 무당굿의 산신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신의 모습은 산신상이나 호랑이상이 대부분인데, 이 지역의 경우 단골무당에게 내린 산신은 당할머니로 상정되고 있다. 산신은 주로 여신의 성격이 주도적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조사 지역 마을 신앙의 경우 관련 전설이 있어 제의의 구술상관물로서 전승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장승제를 지내는 나머지 한마을은 역시 그 마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종교적인 신앙 의례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벽사신으로의 장승은 마을의 입구에 서서 잡귀의 침입을 막는 마을 수호신 중에서도 하위신으로, 마을제를 전후로 해서 마을신과 함께 모셔진다. 현재 청산면 궁평리에서 지내고 있는 장승제는 마을의 풍수지리와 관련된 비보장승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승제가 마을 공동 제의의 하위신이 아니라 주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천 지역의 마을 신앙은 다른 경기 지역 마을 신앙보다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휴전선 접경 구역이 군사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제당 등의 신성처가 있는 산정(山頂) 등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묶이고, 북한 지역이었던 수북 지구는 대부분 유이민에 의해 마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민속 신앙이 일찍 사라졌고 현전하는 마을의 경우도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2. 가정 신앙¹⁵⁾

1) 조사개요

마을 신앙이 한 마을을 단위로 한 지연 공동체 의례라고 한다면 가정 신앙은 그 마을에 속한 한 가정을 단위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혈연 공동체의 신앙 의례이다. 그러나 마을과 집이라는 공간 구분은 서로 유기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함께 살펴보아야 그 기능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천 지역에서 마을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마을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2) 가정 신앙 개관

가정 신앙은 공간적으로 집 안에 위치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가정 단위의 신앙으로, 가신 신앙·집안 신앙·집지킴이 등으로 불린다. 제의 담당자는 그 집의 안주인인 주부가 되므로, 무속 신앙처럼 사제자적 기능이나 남성 중심의 유교 제례처럼 논리성이나 이념성·형식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더욱 신앙적이며 소박하고 실제적인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원의 내용도 제의 주관자인 주부 개인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집안과 자식들의 무고와 평안을 기원한다. 이러한 가정 신앙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 집안 내에서 신체가 자리 잡은 공간의 위치에 따라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가옥의 공간별로 자리 잡고 있는 가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안채에 자리 잡은 가신

안채의 중심 공간은 가옥을 지탱하는 상량기둥이 있는 마루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청마루 기둥에 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가택신으로 그 집 대주[大主, 家長]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전국 공통으로 대청마루에 위치하며, 신체는 주로 한지·곡물·실타래·엄나무 가지 등이 쓰이고, 곳에 따라서는 북어를 걸어 두기도 한다. 마루 한 견에는 대감독을 두었다. 평소에는 쌀을 넣어 두며 일년에 한 번 추수 후 햅쌀을 넣고 다음 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내 먹고 다시 추수한 햅쌀을 넣어 둔다. 곳에 따라서는 대청마루 안쪽에 뒤주를 놓아두고 이렇게 쌀을 보관하기도 한다. 물론 집안 고사를 지낼 때 정성을 드리고 제물 떡을 나누어 올려 둔다. 부부의 생활공간인 안방에는 그 가정을 특별히 지켜 주고 있는 조령(祖靈)과 후손

15)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김지옥, 「마을과 가정신앙」,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766쪽~775쪽).

을 지켜준다고 믿는 삼신·제석이 자리하고 있다. 조령 신체의 위치는 전국 공통으로 안방 시렁 위이며,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명칭은 조상단지·조상대감·세존단지(영남)·제석오가리(호남) 등으로 불리며, 대개 장손의 집에 모셔진다. 삼신은 자손의 출산 및 성장을 주관하는 신으로 안방에 단지나 바가지 혹은 쌀주머니 등의 형태로 모시는데, 다른 가신 보다 많이 잔존하고 있다. 제석은 집안 사람들의 수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세존' 이라고도 한다. 방안의 다락 위어나 부엌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단지를 두고 그 속에 쌀이나 조를 넣고 많은 형질 조각을 늘어놓은 형태로 안치되어 있다. 곳에 따라서는 안방의 벽에 주머니를 만들어 쌀 되 가량을 넣어 걸어 놓고 '제석주머니' 라고 한다.

가옥 구조상 주로 안채와 붙어 있는 부엌에는 조왕이 있다. 조왕은 부엌에 모시는 주부의 신으로 불의 신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조왕은주부의 제단이며 정성이기 때문에 신앙형태가 더욱 다양하다. 하지만 주부 자신보다는 집안, 특히 아들의 안녕을 염려하여 출타 중에도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대상이 된다.

(2) 뒤꼍에 자리잡은 가신

뒤꼍은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발길이 뜸한 공간이다. 쉬이 쓰지 않거나 정갈히 보관해야 할 물건들을 두는 곳이기도 하고, 1년 내내 먹거리를 보관하는 장독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 공간에 터주와 업의 벧가리가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터주는 택지신(宅地神)으로 단지에 낱알이나 돈을 넣고 주저리를 덮은 형태이고, 업은 사람 업·구렁이업·족제비업 등이 있어 그 집의 재산을 불러 주고 지켜주는 존재로 믿고 있다. 구렁이업이 일반적이며 그 형태가 전국적으로 유사하나,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솔가지를 덮어 두었거나 터주 짚가리보다 규모가 큰 짚가리 형태가 많다. 특히 뒤꼍에 자리한 장독대는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정갈한 제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주부의 개인적인 비손은 주로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천신, 마을의 산신을 집 안에서 위하는 곳도 이 공간이다.

(3) 마당에 자리잡은 가신

우물에도 우물신이 있어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지켜주는데, 주로 부엌과 가까운 마당이나 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뒷간신(廁神)은 변소에 있는 신으로 가신 중에서도 하위신에 속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문전신(門前神)은 문간의 출입을 단속하는 문지기 신으로, 설날·입춘·단오에 서화(書畵)를 문짝에 붙이는 것도 문전신의 관념을 표상하는 것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문간 옆이나 마루 처마 구석에 걸립이라고 하여 떠도는 잡신을 위하는 가정도 있다.

3) 맺음말

일반적으로 가신 신앙은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신격의 중요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신의 종류는 가옥의 구조상 주로 안채에 자리한 성주·삼신·제석·조왕·(대감독)이 있고, 뒤꼍에 터주·(업)·(칠성)¹⁶⁾, 그리고 마당에 우물신·문간신·측신 등이 있다. 집의 터 지킴이인 터주와 가정의 대주를 지켜주는 성주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의 순서도 성주와 터주에 먼저 행한다. 타지역에 비해 조령신의 관념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마을 공동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산신을 가정 고사 때에도 위하는 예가 보인다.

또한 업신은 경기 지역에서는 터주가리 모양과 같이 짚가리로 된 것이 보편적이며, 다른 형태로 솔가지를 쌓아 놓거나 솔가지를 쌓은 것에 짚가리를 얹어 놓은 형태가 보인다. 그러나 궁평리 김씨 집에서는 업신을 구렁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작은 항아리에 쌀을 담아 안방 장롱 위에 모셔 놓았다. 쌀은 수확한 첫 곡식을 '수지'로 담아 두었다가 매년 갈아 주며 업항아리 속에는 돈도 넣어 두는데 수확한 곡식이나 발작물 중 처음내다 판 수익금에서 약간을 수지로 항아리 속에 넣어 두었다가 고사 비용으로 쓴다. 고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 이 돈을 꺼낸 후 다시 다른 돈을 조금 항아리에 넣어 둔다. 가신의 신체는 쉽게 드러나는 곳에 자리한 신체가 먼저 없어졌음을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집 안에 바로 보이는 성주의 신체가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고 아무나 드나들지 않고 또 쉽게 부정을 타지 않는 곳에 자리한 터주의 신체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16) 칠성은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시는 위치는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방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 장독대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 안방에 모실 때에는 칠성단지나 칠성주머니의 형태를 보인다. 장독대에 모시는 경우에는 큰 항아리 위에 재물을 차리고 하늘에 대고 비손한다. 연천 궁평리 김씨 집에서는 건궁으로 장독대에서 위하고 있다.

3. 무속신앙¹⁷⁾

연천의 무속 양상은 마을민의 대동단결을 모색하고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굿과 가족 성원들의 명복을 기원하거나 병환을 퇴치하고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집안 굿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마을굿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내용이 최소화되거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마을굿과는 달리 집안굿은 아직도 활기를 띠고 있는 편이다.

마을굿이든 집안굿이든 연천굿의 짜임새는 열두 거리 굿으로 되어 있다. 굿을 하는 중간 중간에 무관 서기를 곁들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최소 일은 걸렸으나, 요즘은 당일 굿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천굿에서는 별상거리를 제일 중요하게 치는데 이지역의 무당들이 별상신의 영험력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굿을 하기 전에 마당에서 행하는 행추물림과 불신을 놀리는 부살거리이다.

연천굿의 무악은 일반적으로 타악기인 장구·대징·제금의 삼짍이로 구성된다. 큰굿을 할 때는 관악기와 현악기가 동원되지만 일반적인 굿에서는 삼짍이의 타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연천굿은 원래 전문적으로 장구만 치는 기대짍이 또는 장구할머니가 있어 굿을 할 때 장구를 치면서 만수받이를 주고받는다. 무당은 굿거리마다 기대짍이 또는 장구할머니 앞에서 긴 만수받이와 짧은 만수받이로 청배를 한다. 만신이 만수받이를 주면 기대짍이(장구짍이)가 그 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만수받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한편에서는 ‘주고받이’라고도 한다.

연천굿은 분명히 지역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춤·소리·장단·짜임새 등을 보면 황해도 굿과 서울굿을 버무려 놓은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춤장단은 처음에는 노랑장단이라고 하는 타령장단이 연주되며 이어서 굿거리장단과 잣은 굿거리장단이 연주된다.

2000년 발간 군지에 의하면, 연천 일대에는 많은 만신들이 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지역에서 옛 문서를 가지고 옛날식의 연천굿을 하고 있는 무당은 거의 없어지고, 서울식으로 굿을 하는 무당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옛날식의 연천굿을 하는 무당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굿장단을 치는 짍이도 함께 없어지게 되었다.

17)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양종승, 「연천 무속의 개관」,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925쪽~927쪽.).

IX. 민요와 구비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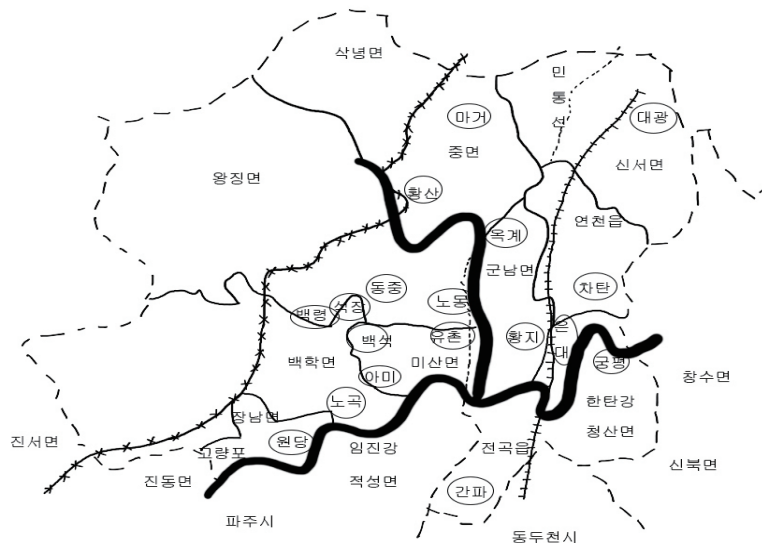
1. 민요¹⁸⁾

1) 조사 개요

이 글에서는 현 연천군 행정 지역의 토민 및 어린 시절부터 1950년대 이전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던 자의 보유 민요를 표준으로 분석한다.

상기 조사 기간에 필자가 방문 녹음한 지역은 연천읍 차탄리, 중면의 마거리와 황산리, 군남면의 황지리와 옥계리, 미산면의 아미리·유촌리·백석리, 왕징면의 노동리와 동중리, 백학면의 노곡리·석장리·백령리, 전곡읍의 간파리와 은대리, 청산면의 궁평1·2리, 신서면 대광리 및 장남면 원당 1~3 리이다.

〈연천군의 민요 녹음지역(○표)〉



18)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소라, 「민요」,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831쪽~924쪽.).

2) 연천군 민요의 종류

현 연천군 출신자(토민 및 1950년대 이전의 거주자)로부터 녹음한 민요의 종별은 크게 노동요, 성인 놀이요, 동요, 흥민요, 상부소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동요

- 모심는 소리(허나기라고나)〈연천 1, 2〉
- 논맴소리(①논김 양산도 ②던지류 ③방아타령 ④방아소리류 ⑤상사 ⑥몬돌 ⑦우야훤훤) 〈연천3~13〉
- 저리소 모는 소리 〈연천 14, 15〉
- 풀나무 깎는 소리 〈연천 16~22〉
- 지경소리 〈연천 25〉
- 길쌈노래 (①물레노래 ②돌궂 돌리는 노래)〈연천 26, 27〉
- 방아 짙는 노래 〈연천 45, 46〉
- 기타(‘배 끌어올릴 때’, ‘흙가래질’ 〈연천 28〉 등)

□ 성인 놀이요

- 남녀소리 〈연천 23〉, 등계타령 〈연천 24〉

□ 동요〈연천 29~32〉

- 다리 헤는 소리(한알대 두알대), 자장가, 굼베타령, 불아, 파랑새, 손가락놀이, 나무타령,
- 기타(연천군지, 1987 수록) : 고무줄노래, 줄넘기노래, 신발 말릴 때 하는 소리, 까막아)

□ 흥민요〈연천 33~44〉

- 마누라, 자란 자식은 밥달라고, 옛 흥타령 청춘가류, 아리랑류, 노랫가락, 창부타령, 한강수타령 해방가, 박연폭포
- 그 밖에 어랑타령, 수심가, 국문뒤풀이, 답방구, 동풍가 등

□ 상부(喪夫)소리〈연천 47~54〉

- 행상(行喪)소리(①어거리님차 ②짚은 행상 ③ 째소리)
- 회다지소리(①긴 달고 ②짚은 달고 ③방아타령 ④우야훤훤)

□ 기타〈연천 55~57〉

현 연천군의 인접 지역 출신 거주자로부터 수집된 노래 중에 ‘짚네’류의 모찌는 소리 〈연천 55〉와 타도(他道) 출신자가 가창한 다리 헤는 소리(① 개똥이네 보리방구 ② 이거리 저거리 ③ 콩하나 팥하나)

각 민요의 악보는 본문 뒤에 별도로 게재했고, 본문 서술 내용 중에 〈연천 번호〉라고 표기한 부분은 악보에 수록된 번호이다. 악보는 연천문화도시지역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노동요

(1) 모심는 소리〈연천1, 2〉

본군은 ‘하나’ 권의 모심는 소리 중에서도 서북부 경기도형인 허나기로그나 류로 일관된다. 토민의 받음구와 음조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연천군 도박이의 허나기로그나 받음구조와 음조직

| 지역〈악보〉 | 가창자 | 받음구 | 음조직 |
|-------------------|------------|--------------------------|--|
| 미산면 유촌리 〈연천 1〉 | 정이만(1911) | 허나 허나 허나기 로그나 | 솔도레미(파~솔)/ 도음(音)에서 요성&종지/ (메) (반)각각 3분박 4박 2마디씩임 |
| 왕징면 노동리 〈연천 2〉 | 이흥구(1914) | 휘나, 휘나, 휘나기 로그나 | 도(레)미솔라도/ 기음과 미음에서 요성/미 음 종지/ 3분박 4박 2마디. (메)는 4마디씩 임. |
| | | 허나 허어나, 허나 기로그나 | |
| 군남면 황지리 | 박용희 (1919) | 허나 허나 허나기 로그나 | (미)라도레미/ 라음과 마음에 요성/라음 종지/ (메) (반) 각각 3분박 4박 2마디임. |
| 군남면 옥계 2리 | 엄선봉(1919) | 허나 허나 하나기 로그후나 | 미솔라도레미/ 라음에서 요성&종지/(메) (반)각각 3분박 4박 2마디 |
| 백학면 백령리 | 정희철(1918) | 휘나 허나, 휘나기 로그나 | |
| 전곡읍 은대 1리 | 천형규(1915) | 허나, 허나, 하나기 로그웃나 | 미솔라도레/ 기음 종지. 기음과 그 4도 윗 음에 약한 요성/ (반)은 3분박 4박 2마디. (메)는 2마디 도는 3마디. |
| 청산면 궁평리 | 이성철(1913) | 하나 하나, 하나기 로그나 | ade(e종지) |
| 장남면 원당리 | 김복동(1910) | 허나 허나, 허나 (하) 기로호 고호나 | 미솔라도레미/ 라음에 요성&종지. 도음과 마음에 약한 요성/ (메) (반) 각각 3분박 4박 2마디씩임 |
| | | 허나 허나 허나이 로그호나 | |

(2) 논맴소리

연천군은 모작지대이며, 예전엔 밭에다 보리를 많이 심었다. 미산면 백석리에서는 양력 5월에 모를 낸 후 15일 후에 호미로 애논을 매었다. 보름 내지 20일 후에 손으로 두벌 논을 매고, 또 보름 내지 20일 뒤에 피사리 겸 세벌을 손으로 맨다. 양력 8월에 벼를 베기 시작하고 10월에 벼타작한다. 보리는 6월에 벤다(이병우 대담).

장남면 원당 1리에서는 망종 전후삼으로 모내기를 하고 보름 있다가 애논을 매고, 열흘만에 두벌을 매며 그 후 20일 있다가 피사리 한다. 백중 때는 농상기를 앞세우고 산등성이 편편한 데로 나가, 밀가루로 편수국 만들고 돼지와 닭을 잡아 호미씻이 했다(김복동 대담).

연천군의 논맴소리에는 던지소리 <연천 7>, 방아타령 <연천 9, 10의 ②>, 방아소리류 <연천 10의 ① 11>, 에넬넬 상사도야 <연천 12의 ①>, 몬돌소리 <연천 12의 ②, 13>, 우야소리 <연천 10의 ③> 등이 있다.

《표3》 연천군 논김 양산도의 받음구와 음조직

| 악보 | 지역 | 가창자 | 받음구 | 음조직 |
|--------|---------|-----------|------------------------------------|---------------------------|
| <연천 3> | 왕징면 노동리 | 이흥구(1914) | (흥)에 - 에해에-해, 에헤이 리-해, 허기나다-다-하, 요 | S(레.단, 되성함) 요성: 솔도레 |
| <연천 4> | 미산면 유촌리 | 정이만(1911) | 에 에해, 에헤이리 어기나-도오 | S(도음종지) 요성: 도 |
| <연천 5> | 백학면 백령리 | 최제관(1904) | 에 - , 에어이 리 - , 어기나 도 — | S줄대(미\음종지) 요성: (솔)도(레) |
| <연천 6> | 백학면 석장리 | 홍명유(1921) | 에 - 헤이리 - , 나기나 - 나 - , 요 - | S(미음 종지) 요성: 라도 |

《표4》 연천군 방아소리의 종별과 음조직》

| 종별<악보> | 지역 | 가창자 | 받음구 | 음조직 |
|-------------------|-----------|--|------------------|---|
| 짚은 방아 〈10의 ①〉 | 청산면 궁평 1리 | 채수암 | 에히 여라 방아하요 | 솔선범, 5도 윗음 중지, 4도 윗음에 요성 |
| 증거리 방아 〈11의 ①〉 | 백학면 백령리 | 최제관(토민) | 에 여라, 방아요 | S. 도 윗음 중지(단, 퇴성 합). 기음과 4도 윗음에 요성. |
| 짚은 방아 〈11의 ②〉 | | | 에이 여라 방아 요 | S. 도 윗음 중지(단, 퇴성 합). 기음요성. |
| 짚은 방아 | 왕징면 노동리 | 이흥구(토민) | 에이 여라 방아 요 | S. 5도 윗음 중지(단, 퇴성 합). 기음과 4도 윗음 및 5도 윗음 요성. |
| 짚은 방아 | 중면 횡산리 | 권태복(1910, 토민) | 에이 여라 방아 요 | 솔도레 (4도 윗음 중지) |
| 짚은 방아 | 청산면 궁평 2리 | 매: 김봉석(1916, 토민) | | Aea (e종지. A요성) |
| | | 받: 이성철(토민) | 에이 여라 방아요 | 미라도레 |
| 증거리 방아 | 미산면 유촌리 | 정이만(토민) | 에이 여라 방아 요 | S. 5도 윗음 중지. |
| 짚은 방아 | | | 에이 여라, 방아요 | |
| 짚은 방아 | 미산면 백석리 | 이병우(1938, 왕징 면 무등리 출생) | 에헤이 여라 방아 요 | S. 5도 윗음 중지. |
| 증거리 방아 | 왕징면 | 이재윤(1916, 전곡읍 거주) | 에 여라 방아 요 | S. 4도 윗음 중지(단. 기음 으로 끝을 내림) 기음과 4 도 윗음 요성 |
| 증거리 방아 | 군남면 황지리 | 박용희(토민) | 에이 여라 방아 요 | S. 5도 윗음 중지. |
| 짚은 방아 | 군남면 | 조용환(1915, 화성군 매송면 거주) | 에이 여라 방아 요 | 솔도레 (5도 윗음 중지) |
| 증거리 방아 | 전곡읍 은대 1리 | 천형규(토민) | 우-여 라-하, 방아 요 | (받) : 도레미솔(도종지. 단, 끝을 레로 올림) (매) : 미솔라도 |
| 짚은 방아 | 신서면 | 하두진(1909, 장 단군 대강면 출생, 1934년에 신서면 이주) | 에 히리 방아 요 | 솔도레 (4도 윗음 중지) |

(3) 저리소 모는 소리(〈연천 14, 15〉)와 소부림말

저리소 모는 소리(소 두 마리로 발갈이를 함)는 강원도가 가장 발달되었지만, 본군과 파주시의 적성면, 장단군 및 동부 경기도의 강원도 영향권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외나’는 왼쪽 소를, ‘마라’는 오른쪽 소를 가리킨다.

〈연천 14〉는 라선법이며, 기음에서 요성하고 종지한다. 〈연천 15〉는 도선법이며, 기음 종지하고 기음과 미음에 요성이 있다. 노랫말은 주로 작업 지시적인 내용이다. 장남면 원당리의 김복동은 저리소 몰 때도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소부림말로 멈추라고 할 때는 “워”,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이러”, 왼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워디 워디”, 돌릴 때는 “도자”라고 외친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말없이 고삐만 잡아당겨도 된다. 원당 3리의 최경성도 저리소를 몰았는데 역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소부림말로 멈추라고 할 때는 “워 워”, 왼쪽으로 돌릴 때는 “외나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괴삐(고삐)만 잡아당긴다. 뒤로 돌릴 때도 그냥 괴삐를 뒤로 잡아당겼다.

(4) 풀나무 깎는 소리 〈연천 16~22〉

본군에서 8월 한가위를 며칠 앞둔 무렵에 겨울용 땔감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산의 풋나무를 낮으로 베는 작업에 부르던 소리는, 백학면 석장리의 토민인 홍명유(〈연천 16〉), 중면 마거리 출신의 장순택(〈연천 17〉), 삭녕면 출신의 신현목(〈연천 18〉), 청산면 궁평리의 토민인 김봉석(〈연천 19〉), 전곡읍 은대리의 토민인 천형규(〈연천 20〉), 중면 황산리의 토민인 권태복(〈연천 21〉) 및 미산면 유촌리 마을의 가창자들(〈연천 22〉)로부터 들었다.

〈연천 16~22〉는 자유리듬 곡이다. ‘무자라리’란 나무가 자라는 자리를 가리키는 바, 〈연천 16〉의 “이삼년 묵은 무자랄이” 대신에 〈연천 19〉에선 “삼년 묵은 아들 맥이”로, 〈연천아에선 “이삼년 묵은 남구”, 〈연천 21〉은 “삼년 묵은 재랄리”로 표현하고 있다. 중면에서는 도토리 가 뾰족하게 내려온 것을 ‘참나무재랄’이라 한다. 〈연천 20〉의 ‘가닥남구’는 참나무를 가리킨다. 선소리꾼이 소리를 주면 다른 풀나무꾼들은 〈연천 18〉의 경우 “어 우겨라_, 어서 베어라_” 등을 외치고, 〈연천 21〉에선 “올라, 올라만 가는구나-”를 받음구로 쓴다. 미산면 유촌리(〈연천 22〉)의 받음구는 “오오- , 오_ 오”이다. 민속경연에서 작품화한 것을 보면, 맥일 동안엔 풀을 깎고, 받음소리 전반부에서는 깎은 풀을 안아 놓으며, 받음소리 후반부에서는 풀무더기를 묶어 돌려 놓는다. 〈연천 16, 18, 19, 22〉는 술선법 계통이고 〈연천 17〉은 라선법 〈연천 20, 21〉은 도선법 계통이다.

(5) 지경소리 〈연천 25〉

집터를 다진다거나 못독을 다지는 소리는 그 받음구에 따라 ①지경류 ②지접류 ③차류 ④

상사류 ⑤지정류 ⑥망개류 ⑦달고류 ⑧기타로 분류된다. 그 밖에 “에 여—라 지경이 요”(권태복), “에_이 해이라— 지경이 요”(천형규), “에_이 열사 지경이요”(조용환), “에-헤이 여—라 지경—아”(김복동)가 있다. 이들 곡은 모두 (떼)와 (받)이 각각 분박 박 또는 내재 박 마디씩이다. 떼 김구의 내용도 “이집 지은 지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 식의 일반적 가사이다. <연천 25>는 술선법에도 종지 또는 례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기도 한다.

(6) 길쌈노래 <연천 26, 27>

길쌈노래란 대마·저마 같은 섬유 식물로부터 삼을 삼아 실을 만들고, 베틀로 베를 짜는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를 일컫는다. 본군에서는 물레노래와 돌궂 돌리는 노래가 수집되었다. <연천 26>은 미산면 유촌리의 정이만 창이다. 수확한 삼의 잎을 추려내고 익힌 다음, 찢어서 짜고 바랜 후에, 삼실의 끊어진 가닥을 연결해 가며 물레질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연천 27>은 이재순(남, 1927년, 중면 중사리 출생, 24세까지 살다 수복 후에 미산면 유촌리 이주) 창 의 돌궂 돌리는 노래이다. 돌궂이란 실을 감고 풀고 하는 데 쓰는 기구이다. 나지막한 굴대예다 나무 두 가닥을 끼워 십자형을 만들고, 그 사방의 각 귀퉁이에 물레로 잦은 삼실을 걸어 돌린다. 양젓물에 담글 때나 물에 씻을 때 형클어지지 않게 가닥을 가지런히 잡아두기 위한작업이다. 이러한 노동에 부르는 노래를 수집하기란 매우 드문 일로서, 보성군에서도 녹음하였지만 가락은 서로 다르다.

<연천 27>은 넓은 마당에다 돌궂을 두고 삼실을 올려 돌리면서, 이것으로 베를 짜서 시부모 옷 해드리려고 실것을 친구 삼아 밤낮으로 일한다는 푸념을 노래로써 표현하고 있다. 술선법이며 기음 종지한다. 요성은 기음과 도 윗음(도) 및 5도 윗음(례)에 있다. “넓으나 넓은 마당에 _”의 ‘에’ 나 “삼삼은_”의 ‘은’ “이 실을_”의 ‘을’처럼 끝자를 길게 뻗고 그 앞은 몰아붙임으로써 진행하는 흐름의 느낌을 자아낸다.

(7) 방아 찧는 노래

가사 중에 예기 열싸 방아야’ 나 예히이 열싸 방아야’ 가 나오는 점이 안순희(여, 1915년 인제군 출신) 창 <연천 45>의 ‘어기여차 방ैया’ 와 통한다. 강정순 창 <연천 46>에서도 ‘보리방아 물부어 놓으니, 구박은 받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살아 계셨으면 힘이 덜 들텐데’ 하고 시어머니 생각을 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후에 연천읍에 이주해 왔다.

(8) 기타

강배 노젓는 소리라도 녹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무장사들이 땀감을 널배(땃목과는 다르

며 큰 배이다)로 실어 날랐는데 고랑포에서 배를 여울턱으로 끌어올릴 때면, 한 사람은 삿대로 질러주고 두 사람은 밧줄을 메고 끌면서 “엉-치기”라고 외친다는 정도로 조사를 마쳐야 했다.

콩타작은 2~3인이 “엇차 엇차!” 하며 도리깨질을 했고, 벼타작은 나무 절구통을 뉘어 놓고 밧줄을 꼬아 읊아멘 벼단을 두 손으로 잡고 내려치면서 “얼차! 어엿쳐라!” 하고 힘쓰는 소리를 낼 따름이다.

미산면 유촌리에서는 이재순을 중심으로 198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 연대회에 ‘성주걸이’라는 작품으로 참가하면서, 흥가래질을 하며 “땡졌나 땡졌지”라는 특이한 받음구의 노래를 불렀다.

4) 울어리놀이 노래<연천 23, 24>

<연천 23>의 남녀소리는 나무로 걸재를 만들어 침당굴로 엮어맨 인용 남녀 위에 동네의 연장자인 영죄를- 남여부사(藍輿府使 ; 머리엔 풀망태와 나뭇잎으로 엮은 두건을 쓴다)로 모셔 태우고 산 밑으로 내려서서는, 길라잡이가 “에라 이놈아 물렸거라 질렸거라” 하고 외치며 맥이는 대로, 다른 나무꾼들은 “에-헤리 끼루 끼루 - 고이 고이 모셔라”로 받으며 마을로 행차하는 소리이다. <연천 23>은 거의 동음연타로 말하듯 읊조리는 가락이다.

<연천 24>의 동계타령은 마당놀이하는 집의 주인과 어울려 풀나무꾼들이 닭을 잡아 놓은 푸짐한 술상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맥이고 받는 흥겨운 노래이다. 받음구는 “동계-야 동계-야/ 울어리 소리에 동계- 야”이다. 아기 어를 때의 동계소리와는 다르다. (떼)와 (반)이 각각 3분박 4박 2마디씩이다. 메김구는 달거리식으로 정월부터 선달까지 차례로 섬긴다. 메김구는 4음보씩이며, 그 1음보가 선율 반마디를 차지하고, 3~5자 구성이다. 음보는 ‘동계- (하)’로 고정된다. 도선법에 기음 중지하며 요성이 도와 미에 있다.

5) 동요 및 흥민요

(1) 동요

동요에는 한알대 두알대 <연천 29>, 굽베타령 <연천 30>, 자장가 <연천 31, 32> 등이 있다.

- 한알대 두알대 <연천 29>

다리 해는 놀이는, 아이들 여럿이 마주 앉아 다리를 뻗어 서로 맞물리게 하고는 노래에 맞추어 다리를 하나씩 헤아리다가 노래가 끝나는 박에 짚인 다리는 오므리는 것을 반복하여, 마지막까지 오무리지 못한 재 남아 있는 다리의 임자가 지게 되는 놀이이다.

- 굽베타령 <연천 30>

굽-베 낫-네 굽-베 낫어-
지 질-질 양-굽 배야

의 짧은 가사인데 3분박 4박 2마디로 가창되었다.

- 자장가 <연천 31, 32>

자장자장/우리 애기/잘두잔다/
학자동이/ 되려는가/ 금자동이/ 되려는가/
불 불/ 불어라/ 석수 얼마/ 갱피 닷되/
불 불/ 불어라/ 나라님겐/ 충성맹이/

부모님겐/ 효자동이/ 동기 간에는/ 우애동이 /
등 등/ 등등아/ 얼짜 등등/ 내 사랑/
얼씨구 좋다/내손주

- 기타

백학면 노곡리 출신의 유병직(남, 1913년생)은, 손가락놀이로 “먼-뿔 두뿔, 니할아비 코뿔” 했다고 하며, 또한 “방구꺾다 뽕나무, 섭리 안에 오리나무, 서른 안에 스무나무”를 말잇기놀이 동요로 읊었다. 장남면 원당 2리의 검귀인(여, 1912년 장단군 진서면 출생, 19세에 원당리로 시집옴)은 애기 어르는 소리인 ‘불아불아’를 가창했다.

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온 것이라는 점이 당대의 유행가와 다르다고 볼 때, 어린이들이 부른다고 해서 모두 민요의 일부분으로서의 동요가 될 수 없다. 또한 미산면 소재의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취재되었다는 것뿐 그 어린이들의 미산면 거주 내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참고될 몇 편을 실는다. 연령은 1979년도 기준이다.

◇ <까막아> : 송기선(남, 12세, 학년)

까막아 까막아/ 니네 엄마 죽였다/ 빨리빨리 가거라

◇ <신발 말릴 때> : 심 임복(남, 12세)

뻘 뻘 말라라/ 장작같이 말라라

◇ <고무줄노래> : 김태원(남, 12세, 학년)

① 고구마 고구다/ 말랐다 말랐다/ 너무 말랐다

② 순이 아버지/ 담배 꾀초에/ 불이 붙어서/ 으아차차 으아차차/ 순이 아버지

◇ <줄넘기 노래> : 고정환(여, 11세, 4학년)

①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불러라 불러라 잘 가거라

(2) 흥민요

마누라(〈연천 33〉)는 전곡읍 은대 1리의 천형규가 7~10세 때 들었던 것을 기억하여 부른 노래이다. 마누라에게 ‘열석 자’나 되는 긴 ‘후왈라 당기’(당기의 일종)를 보았느냐고 문답하는 내용이다. 〈연천 34〉의 행 가사는 “석가래 끝은 영 달래고”인데 ‘영’이 무얼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종이 연의 연(意)이나 석가래 끝에 제비가 집을 짓는 것을 연상하여 연자의 연(燕)으로 해석해 보았다. 금반지 이하의 가사는 발매는 소리에 잘 나오는데, 〈연천 34〉에서는 첫 행의 가사에 덧붙여졌다. 〈연천 35〉는 서울 출신인 강정순의 창이다. 〈연천 36〉은 중면 황산리의 권태복이 ‘옛 흥타령’ 이라고 일컬으면서 가창한 것이다. 구성음은 라도레미이고, 도에서 중지한다. 〈연천 37〉도 권태복이 ‘옛 청춘가’라고 일컬으며 가창한 것이다. 〈연천 37〉에서 앞강에 뜬 배는’ 이하의 선율은 다섯 살 먹어서’ 이하에 맞추어 가창되었다. 술선법이며, 기음 중지한다. 〈연천 38〉도 가창자 권태복의 일컬음을 따라 ‘잡가아리랑’ 이라고 이름하였다.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데서 스스로 ‘잡가’라는 명칭을 덧붙인 듯하다. 강원도아리랑 곡풍이 옛보이긴 하나 같지는 않다. 권태복은, 정선아리랑은 길게 넣고 잡가아리랑은 짧게 넣는다고 말했다. 〈연천 38〉은 미선법과 도선법이 공존하며, 기음 중지한다. 〈연천 39, 40〉의 ‘노랫가락’은 원래 경기 지방의 무가였으나 점차 일반 민요화되어 널리 가창되고 있다.

《표5》 노랫가락의 정형 장단과 〈연천 39, 40〉

| | | | | | | |
|----|---------|-------|---------|-----------|--------|------|
| 초장 | 정형 장단 | 5박 | 8박 | 8박 | 5박 | 5박 |
| | 〈연천 39〉 | 말은 가자 | 굽을 치고호 | 임으흔 날 잡고 | 농지를 앓 | (ㅎ)네 |
| | | 5박 | *10박 | 8박 | 5.25박 | 5박 |
| | 〈연천 40〉 | 말은 가자 | 하고 울고 | 임은 날 잡고 | 농지를 앓 | 네 |
| 5박 | | *6박 | 8박 | 5박 | 4박 | |
| 중장 | 정형 장단 | 5박 | 8박 | 8박 | 5박 | 5박 |
| | 〈연천 39〉 | 석양은 | 재를 너힘고 | 나하의 갈 길이히 | 천리로호 구 | (ㅎ)나 |
| | | *3박 | 8박 | 8박 | 5박 | 5박 |
| | 〈연천 40〉 | 석양은 | 제르홀 넘구요 | 나의 갈길은 | 천리로 구 | 나 |
| 5박 | | 8박 | 8박 | 5박 | 3.5박 | |

| | | | | | | |
|----|---------|---------|----------|----------|-------|-----|
| 종장 | 정형 장단 | 5박 | 8박 | 8박 | 5박 | 5박 |
| | 〈연천 39〉 | 벗님만(날) | 잡지를 말고 | 지는 저 헤르홀 | 머물러 보 | 럼 마 |
| | | 3박+(2박) | 8박 | 8박 | 5박 | 5박 |
| | 〈연천 40〉 | 님 아야 | 날 잡지를 말고 | 지는 저 헤르홀 | 붙잡어 매 | 여 |
| 5박 | | 8박 | *7박 | 5박 | 5박 | |

6) 상부소리

상부소리에는 ①널액막음소리와 ②발인제나 거리제에서의 독축 ③하직인사 ④긴 행상류(어거리넘차) ⑤짚은 행상류 ⑥헛소리 및 달구질 때 부르는 소리 ⑦긴 달고 ⑧짚은 달고류 ⑨방아타령 ⑩해이 리소리 ⑪상사 ⑫우야소리가 있다.

(1) 어거리넘차류 〈연천 48의 1, 49의 1, 51의 1, 52의 1〉

본군 토민의 받음구와 그 음조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메)와 (반)은 3분박 4박 2마디씩인 표준이다. 표준형의 메김구는 음보씩이며, 그 음보는 3~5자 구성이되 4자씩인 것이 많다. 받음구를 표로부터 보면 “어 허 어 허/ 어거리 넘차 어 허” 계통이다. 선법은 가창자에 따라 제각기 솔선법 계통·라선법·도선법·미선법에 속한다. 라선법인 경우는 도 중지하고 그 이외에는 기음 중지한다.

〈표6〉 연천군의 어거리넘차류 행상소리

| 연천 | 지역 | 가창자 | 받음구 | 음조식 |
|----------|----------------------|------------------|----------------------------|----------------------------------|
| 〈48의 1〉 | 미산면 유촌리 | (메)이재순 | 오 호 오 호/ 허거리 남-차 오호 | 솔도레(미): 솔 중지. (메)는 솔선법 또는 도선법 |
| | | (반)정이만 등 | 오 오 오 오/ 어가리 넘-차 오 하 | 솔도레: 솔 중지 |
| 〈49의 1〉 | 전곡읍 간파리 | (메)남경희 (반)남인희 | 어 허 어 허/ 어거리 넘-차 어 화 | 라선법: 도 중지 |
| 〈51의 1〉 | 중면 마거리, 연천읍 차탄 4리 | 장순택 | 어 허 허 허/ 허·리넘 차 오 하 | 도선법: 도 중지 |
| 〈51의 2〉 | 왕징면 무등리, 미산면 백석리 | 이병우 | 어 허 허 어영- 어거리 넘차- 너허- 어 | 라도미: 도 중지 |
| 88-1-28A | 중면 횡산리 | 권태복 | 어 허 어어 허/ 어거리 너무차 어 하 | 미선법: 미 중지 |
| 88-1-26B | 청산면 궁평리 | 김봉석 | 어 허 허허허 허/ 허허- 넘-차 허 하 | 도선법: 도 중지 |

(2) 잣은 행상

본군의 잣은 행상소리에는 ①한마디 행상(〈연천 48의 2, 51의 2〉) ②반마디 행상(〈연천 49의 2〉) ③ 짝소리(〈연천 49의 2, 52의 2〉)가 있다. 이들은 동구 밖을 나서서 하관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길을 재촉하며 갈 때 불리운다. 〈48의 2〉(미산면 유촌리)는 도선법의 도 종지이고, 미라도의 구성음도 보인다. 〈51의 2〉(장순택 창)는 미라도레의 구성음에 도 종지한다.

(3) 회방아소리

본군의 회다지는 소리에는 긴 달고(〈연천 51의 3〉)와 잣은 달고(〈연천 51의 4〉) 및 우야소리가 있다. 우야소리에 대해서는 논맴소리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달고소리만 살펴본다. 긴 달고는 유장하고 구성진 곡이다.

7) 기타

〈연천 55〉는 찢네류의 모찌는 소리로서, 파주시 진동면 출신인 오상원으로부터 제보되었다. 받음구가 “찢 네 찢 네/ 나두-한침- 찢 네”이며 선율은 분박 마디를 차지한다. 찢네류는 황해도 연백소리라고 일컬어지는 모심는 소리 ‘허나기로그나’ 곡에 얹어 부르는 소리이다. 〈연천 56, 57〉은 다리 헤는 놀이 때에 불리우는 동요이다. 〈연천 56〉은 경남 사천시 출신인 윤경자 창인 ‘개똥이네 보리방구’ (〈연천 56의 1〉)와 ‘이거리 저거리’ (〈연천 56의 2〉)이고, 〈연천 57〉은 경북 영덕군 출신인 이은수의 ‘콩 하나 팥 하나’ 이다. 〈연천 57〉은 원래 경기도에는 전파되지 않았던 노래로 보인다. 놀이 방법은 연천의 다리 헤는 놀이 동요인 ‘한알대 두알대’ 류와 같다. 이은수를 비롯하여 본군에 거주하는 타지방 출신의 가창자들이 부른 많은 노래들을 재보해 두었지만, 이 곳에 게재하지 못했다. 본군 토만의 노래들도 다 신지 못하여, 별도의 기회에 모두 실을 예정이다.

8) 고찰

이상에서 연천군 민요의 종류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군 민요의 특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요권에 있어서 ‘하나’ 권(圈)의 ‘허나기로그나’ 지대에 속한다. 전국의 모심는 소리 중에 경기도는 ‘하나’ 류에 속하며, 하나류는 남부 경기의 ‘여기도 하나’ 형, 중부 경기도의 열소리, 서북부 경기도의 ‘허나기로그나’ 형 및 혼합형으로 나뉜다.¹⁹⁾ 허나기로그나형은 황해도 연

19) 모심는 소리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소라의 『파주민요론』(파주문화원, 1997), 108쪽 참조.

백 평야가 본고장이라고 가창자들 간에 일컬어진다.

둘째, 논은 일반적으로 두 번을 매되 애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흙친다.

셋째 헤이리소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풀나무 깎는 소리가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울어리놀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풍속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저리소 모는 지대에 속한다.

일곱째, 매우 드문 '돌궂 돌리는 노래' 가 가창되었다.

여덟째, 집터 다짐 소리로는 경기도 소리인 지경류만 가창된다.

아홉째, 다리헤는놀이 동요로는 '한알대 두알대' 류가 나온다. 애기 어루는 소리엔 '불아' 류가 있다. 드문 소리에 속하는 굼베타령과 손가락놀이를 하면서 하는 소리도 수집되었다.

열번째, 상부소리의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군의 행상소리로는 일반적으로 어거리넘차류(두마디 소리)와 잣은 소리류가 있다. 잣은 소리에는 한마디 소리("오호 오호")인 경우와 반마디 소리("어하")인 경우가 있다. 반마디소리를 상두꾼들이 두 패로 나누어 메김소리 없이 받음소리만으로 양편이 교대로 가창(짹소리)하기도 한다. 회방아소리로는 긴 달고와 잣은 달고가 보편적이고, 우야소리를 부르는 곳도 있다. 맥막음소리(방에서 시신을 모시고 나올 때 방구석 사방에 각각 회썩 널을 들이밀면서 외치는 소리)는 없다.

열한번째, 민요 종별에 있어서 본군 출신자의 보유 민요는 강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찾기 어려웠다. 타작소리 등 수확요가 발견되지 않으며, 모찌는 소리는 원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열두번째, 음조식을 보면, 황해도가 원산인 하나기리고나는 서도소리적인 창법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 술선법에 비해 미선법 계열(도선법 포함)이 우세를 보이며 기음 중지보다는 기음의 4도 윗음 중지가 지배적이다.

이상에서 연천군 민요의 특색을 종합해 보면, 연천군(A)의 민요는 파주시와 함께 서북부 경기민요로서의 특색을 보이면서, 조금 더 황해도 방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연천의 민요가 파주시(B)와 다른 점을 몇 개 나열해 본다.

①순수 하나기리고나 지대이다(파주시는 열소리와 공존 지대). ②방아타령이 파주시만큼 성장되지 않는다. ③헤이리소리가 없다. ④일반적으로 저리소로 받을 간다(B : 본군에 인접한 적성면에서만 저리소 모는 소리가 나왔다). ⑤울어리놀이 풍속과 그 동요가 예전 나오지 않았다. ⑥A는 풀깎는 소리의 본고장에 속한다(B : A로부터 전파되었다). ⑦몬돌소리가 B만큼은 애용되지 않았다.

연천 지역은, 수복 이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민을 형성하고 있어 후대에 가서는 민요에 많은 복합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능한 대로 연천군의 토

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몸에 베어 굳어 있을 민요 현상들을 찾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속담과 수수께끼²⁰⁾

1) 속담

속담은 이러한 새로운 표현 방식 중의 하나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비유성과 언어 현실에서 관용적 표현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연천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속담을 정리한 것이다. 연천 지방의 속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한강 이북 지방에서 쓰이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 그 이유로는 교육의 보편성과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언어적 차별성이 사라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수수께끼

수수께끼는 언어 소통행위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놀이성과 경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 언어와 다르다. 수수께끼의 형식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숨김과 동시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일상의 언어에서 일탈하는 창조적 언어 행위로 놀이성과 경쟁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지닌 기능 중의 하나로 사고력과 창조력을 들기도 한다.

이 글은 연천 지역의 수수께끼를 정리한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선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의사 소통 구조로서 수수께끼 기능을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 정리한 후, 이것을 연천 지역 사람에게 문답 형식을 통해 확인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조사에 참고한 문헌은 김성배의 『한국 수수께끼 사전』(집문당, 1973)이다.

수수께끼의 구체적인 사례는 연천문화도시기억보관소에서 확인가능하다.

20)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근영, 「속담과 수수께끼」,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995쪽~1043쪽).

3. 설화²¹⁾

1) 개관

‘설화’는 한자 ‘설(說)’과 ‘화(話)’가 합쳐져서 된 복합어이다. 오늘날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양의 ‘oral literature’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구전 문학(口傳文學)·구비 문학(口碑文學)·유전 문학(流傳文學)·전승 문학(傳承文學)’ 등으로 번역해 왔다. 여기서 설화 영역만을 떼어 내서 ‘설화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줄여서 ‘설화’라고 흔히 부른다. 설화 문학에는 신화·전설·민담이 한 묶음으로 내포된다. 그리고 이 설화 문학은 곧 한국 고대 서사 문학(敘事文學)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

설화 문학의 발생은 자연적이고 집단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 내용은 민족적이며 평민적이기 때문에 인물·사건·배경·감정·분위기 등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신화가 건국신·민족신에 관한 우주적·천상적(天上的)인 신앙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비성이 있다면, 전설은 조상신·비범인(非凡人)에 관한 지상적(地上的)·인간적인 기념적 표상성(表象性)을 지니고 있어서 역사성이 있다.

설화 문학은 구전 문학의 속성처럼,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입을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변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소재의 이야기가 여러 제목으로 분화된다. 특히 이러한 분화는 설화문학의 발생적 특징인 상상성·공상성이 전파자의 능력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다음에 소개하는 본군의 설화들을 주제별로 개관해 보면, 신화는 거의 없고 민담과 전설뿐이다. 민담에는 경쟁담·교계담(教誡譚)·기자담(祈子譚)·보은담·복수담·치우담(師愚譚)·지혜담 등이 있고, 전설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동물 전설·사찰 전설(寺利傳說)·성곽 전설·지명 전설·지소 전설(池沼傳說)·총묘 전설(塚墓傳說)·천하 전설(泉河傳說) 등이 있다. 그러나 고적(古蹟)들을 소재로 한 지명 유래담은 많이 있지만, 전설로 궁허 전설(宮墟傳說) 등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귀하다. 이상과 같은 민담과 전설 이외에 연천군과 관련이 깊은 고려·조선조의 인물들과 관련된 인물 전설도 함께 수록하였다.

다음에 소개된 설화들은 연천군에서 간행한 『연천군지』(1987)와 연천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사료집』(1995)에 크게 의존하였고, 그밖에 관련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²²⁾

21) 이 절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최강현, 「설화」,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045쪽~1062쪽).

22) 연천군에서 발간된 자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촌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였다.

金光淳 『韓國口碑傳承의 文學』, 營雪出版社, 1983 ; 金烈圭, 『神話·傳說』, 한국일보사, 1975 ; 金烈圭, 『韓國民俗과

2) 민담

(1) 경쟁담

경쟁담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이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바를 다루는 이야기로 연천 지역의 경쟁담에는 열묘 각시꽃봉이 있다.

*경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2) 교계담

교계담이란 가르치고 훈계하는 목적의 이야기로 연천지역의 교계담에는 □구렁이가 된 어머니, □꽃이 된 어머니, □네 아들의 재주, □농부와 금덩이, □명궁이 된 바보, □벼락바위, □부잣집 사위가 된 며슴, □성의 없는 제사, □송장 다리 자른 효자, □예의 바른 재상, □젊어지는 샘물, □친정 아우를 시모로 모신 언니, □콩알아기, □허욕 부린 갑부와 감사, □호랑이 덕으로 급제한 선비, □호랑이 할머니 등이 있다.

*교계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3) 기자담

기자담에는 □쌍바위의 선물이 있다.

*기자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4) 보은담

보은담에는 □은혜 갠 개, □남산골 박 초시(朴 初試), □다람쥐의 보은 등이 있다.

*보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5) 복수담

복수담에는 □두꺼비의 복수, □토끼에게 혼줄 난 호랑이, □아버지의 원수를 갠 포수의 아들 등이 있다.

*복수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6) 치우담

치우담은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연천 지역의

文學研究』, 一潮閣, 1976 ; 김화경, 『한국고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 蘇在英, 『韓國說話文學研究』, 승실대학교 출판부, 1989 ; 張德] 『說話文學概說』, 二友呂版社, 1980 ; 崔雲植, 『韓國說話研究』, 集文堂, 1991.

치우담에는 □똥국을 먹은 할머니, □바보 도깨비, □바보 마을 사람들, □바보 아들의 아버지, □짹짹한 나무 등이 있다.

*치우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7) 지혜담

지혜담에는 □피많은 토끼, □도깨비의 봉변, □방구쟁이 어머니의 아들, □빨개진 원숭이의 똥구멍, □분노의 효과, □불효한 며느리, □서약봉의 부인, □재치 있는 소년,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의 봉변 등이 있다.

*지혜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3) 전설

(1) 동물 전설

동물전설에는 □개무더미[犬墓洞], □군자산(君子山)의 봉어, □군자산과 계, □무학골[舞鶴谷], □병바위, □쇠고개

*동물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2) 사찰전설

□불견이고개

*사찰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3) 성곽전설

□연주성(延州城)

*성곽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4) 지명 전설

지명전설에는 □가사평(袈裟坪), □강승쟁이[降仙亭], □국사봉(國思峰), □고왕산(高旺山), □구네미고개[軍諭峴], □되네미고개, □들근터(붉은 터), □망곡산(望突山), □바래, □밤고개[栗峴], □백명고개[百名峴], □부릉고개와 아마니고개, □삭녕(朔寧)바위와 고층(高層)바위, □선바위, □선녀바위(仙女巖), □선봉(仙峰)바위, □소경고개, □옥녀봉(玉女峰), □용검정, □자작고개, □재인폭포, □종자산(種子山) 등이 있다.

*지명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5) 지소전설

지소전설에는 □가마소, □구미소(龜尾沼), □씩은소[朽沼], □우정리, □이내못 등이 있다.

*지소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6) 천하전설

천하전설에는 □군자산의 우물, □삼형제바위, □수레여울, □온수동(溫水洞) 등이 있다.

*천하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7) 인물 전설

인물전설에는 □강회백(姜淮伯), □기황후(奇皇后), □김양남(金揚南), □김응구(金應九), □남순하(南舜夏), □남업의 처 청풍 김씨(淸風金氏), □원훈(元訓), □이양소(李陽昭), □정발(鄭撥), □허목(許穆), □홍여공(洪汝恭)과 팔효문(八孝門) 등이 있다.

*인물전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문화도시 기억보관소를 참고하기 바람



제 4 장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 I. 연천 지역어의 개관
- II. 연천 지역어의 자음과 모음
- III. 연천 지역어의 문법
- IV. 연천 지역어의 어휘
- V. 결론

I. 연천 지역어의 개관²³⁾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동북쪽 끝에 있는 군으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양주·동두천시, 그리고 파주시와 맞닿아 있다.

연천의 지역어는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어서 중면의 경우 강원 방언(구체적으로 철원 방언)의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또 현재 각 지역에서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과 면회객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방언 전체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들의 혼재 양상이 아닌 고유한 연천 지역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가 보통 국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크게 6개의 방언으로 나뉘어있고, 작게는 수없이 많은 방언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국어의 방언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로 나뉜다. 그것은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 방언, 함경남·북도 지방을 포함하는 동북 방언, 전라남·북도의 서남 방언,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동남 방언, 제주도의 제주 방언, 그리고 황해도·강원도·경기도·충청도를 포함하는 중부 방언이다. 이 6개의 방언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방언은 중부 방언이다.

연천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방언은 현실적으로 국어의 공통어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이다. 주지하듯, 표준어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 서울말'은 대체로 그 토대를 중부방언, 좀더 좁히면 경기도 방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 지역어 역시 공통어를 구성하는 중부방언 가운데서 경기 방언의 한 부분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3) 이 장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광호, 「언어」,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1089쪽~1111쪽).

II. 연천 지역어의 자음과 모음

1. 지역어의 자음

앞서 이야기했듯, 연천 지역어는 공통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실제로 중부 방언 가운데서 경기도 방언의 하위 부류를 이루고 있는 연천 지역어는 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

연천 지역어의 자음은 경기도 방언의 자음과 일치된다. 곧, 전체의 자음은 현행 철자법에 제시된 19개이다. 이 가운데서 어두(語頭)에 실현되는 자음은 ‘ㄱ’과 ‘ㅇ[ŋ]’을 제외한 ㄱ·ㄴ·ㄷ·ㄹ·ㅂ·ㅅ·ㅈ·ㅊ·ㅋ·ㅌ·ㅍ·ㅎ·ㅊ·ㅌ·ㅍ·ㅈ 등 17개이고, 어중(語中)에 실현되는 것은 19개 모두이며, 어말(語末)에 실현되는 것은 ㄱ·ㄴ·ㄷ·ㄹ·ㅂ·ㅅ·ㅇ[ŋ] 등 7개이다.

공통어에서는 소위 두음법칙이라 하여, 어두에 자음 ‘ㄱ’이 올 수 없으며 ‘ㅇ[ŋ]’은 처음부터 어두 위치에 실현되는 예가 없었다. 곧, 역사적으로 어두에 ‘ㄱ’이 실현되었던 것이 현대 국어 공통어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ㅇ’은 역사적으로도 어두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연천 지역어에서도 동일하다. 외래어의 영향 때문에 라면, 라디오, 리본, 리듬 등의 예에서처럼 ‘ㄱ’이 발음되는 경우가 생겼다. 노년층에서는 ‘라면→나면, 라디오→나지오’처럼 ‘ㄱ’이 ‘ㄴ’으로 바뀐다. ‘리듬, 리본’ 등은 농촌지역이나 노년층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어중에서는 이 지역어에서도 공통어에서처럼 19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는데, 공통어와 더불어 연천 지역어에서도 ‘ㅎ’과 ‘ㄱ·ㄷ·ㅂ·ㅈ’등이 직접 연결되면 ‘ㅋ·ㅌ·ㅍ·ㅊ’으로 유기음화(有氣音化)된다. 이것은 순수국어(=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그렇다. 다음 (1)에 그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1) ‘ㅎ’, ‘ㄱ·ㄴ·ㅂ·ㅈ’이 연결될 때의 유기음화 현상

(가) 순수 국어 : 손짓하다→손질하다→손지타다, 노랑다→노라타, 좋다→조타, 곱하고→고파고, 넣더라→너터라, 좋지→조치 등등

(나) 한자어 : 낙하(落下)→나카, 국화(菊花)→구과, 급행(急行)→그팽, 법회(法會)→버피, 버페 등등

1) (나)에서 한자단어에 ‘ㄷ’이나 ‘ㅈ’ 받침은 가지고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ㄷ, ㅈ’이 ‘ㅌ, ㅊ’으로 발음되는 예가 없다.

한편, 어중에서 윗 음절의 받침이 ‘ㄱ·ㄷ·ㄹ·ㅂ’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될 수 있는 ‘ㄱ·ㄷ·ㅂ·ㅅ·ㅈ’ 등이 연결되면 이들은 된소리 ‘ㄱ·ㄷ·ㅂ·ㅅ·ㅈ’으로 실현된다. 이것도 공통어와 함께 이 연천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발음 현상이다. 다음 (2)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2) ‘ㄱ·ㄷ·ㄹ·ㅂ’ 뒤에 ‘ㄱ·ㄷ·ㅂ·ㅅ·ㅈ’은 된소리 현상

- (가) 각자(各自)→각짜, 학교→학꼬, 욕심→욕쌌, 극장→극짱, 삭쟁이→삭쟁이, 죽도록→죽또록, 품값이라구→품갑씨라구, 지계작대기→지계작때기, 똑바로→똑빠로 등등
- (나) 듣지오 그린건→듣쪄 그린건, 뜻대로→뜰대로→뜰때로, 맞장구→만장구→만짱구 곁두리→곁두리→곁뚜리, 돋보이다→돋뽀이다→돋뽀다, 반딧불→반딘불→반딘뽀 등등
- (다) 갑자기→갑짜기, 집주인→집쪄인, 값이 비싸다→갑씨 비싸다, 밥상→밥쌩, 춡고→측꾸, 깊고 높아서→깊꼬 노파서, 높다고?→놉따구?, 집비둘기→집뽀둘기 잡부(雜夫)→잡부 등등
- (라) 갈 사람→갈싸람 일색(一色)→일쌌, 일감→일갑, 우물가→우물까, 즐깃졸깃→졸깃졸깃, 일복→일뽀, 줄장부(拙丈夫)→줄짱부, 발바닥→발빠닥, 길동무→길뽀무, 열달→열뽀, 갈지 말지→갈찌 말찌, 필답(筆答)→필뽀 등등

이 지역어에서는 공통어와 같이 단어의 원형(=기본형)으로 받침 ‘ㅅ·ㅈ·ㅊ·ㅎ·ㅋ·ㄱ·ㅍ·ㅊ’ 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어간으로 끝나거나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나 조사(=공용 어미)가 이어지면 ‘ㄷ·ㄱ·ㅂ’ 등으로 변한다. 곧, ‘짓다·웃다·있다·찾다·꽃·잎·넣다·부엌·박·있다·하얏다’ 등의 단어들은 ‘진다·운다·인다·찬다·꼰·입·넙다·부엌·박·얻다·하얏다’ 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9개의 자음 가운데 말 끝에서 발음되는 것은 ‘ㄱ·ㄷ·ㄷ·ㄹ·ㅂ·ㅅ·ㅈ·ㅊ·ㅇ’ 등 7개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어에 따라서는, 받침이 유기음 ‘ㄷ·ㅊ·ㅍ’ 이나 파찰음 ‘ㅈ’일 경우 그 단어가 ‘ㅅ·ㅂ’ 등으로 변하여 기본형이 바뀌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어휘의 재구조화(再構造化)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단일형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다음 (3)에 제시한다.

3) 연천 지역어의 재구조화된 단어

- (가)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꽃으로→꼬스로, 꽃에→꼬세, 꽃에서→꼬세서 등등
- (나)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무릎으로→무르브로, 무릎에→무르베, 무릅

에서→무르베서 등등

(다) 밭 : 밧이→바시, 밧을→바슬, 밧으로→바스로, 밧에→바세, 밧에서→바세서 등등

(라) 젓 : 젧이→저시, 젧을→저슬, 젧으로→저스로, 젧에서→저세서 등등

3)의 ‘꽃· 무릎·밭’ 등이 부분적으로 어휘 재구조화하여 ‘꽃· 무릅·밧’으로 되었으나 조금만 주의를 환기시키면 모든 제보자들은 곧바로 재구조화되기 이전의 원형인 단어로 되돌아 간다. 이것은 아직도 이 지역어에서 어휘 재구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밭’의 경우는 처격 조사 ‘에’가 연결되면 ‘바테’와 ‘바세’가 자유롭게 교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낫·앞·옆’ 등의 경우는 ‘낫·압·업’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연천 지역어의 자음과, 그것들이 어두·어중·어말에서 몇 개로 실현되는가를 다음 (4)에 정리하고자 한다.

4) 연천 지역어의 실현 자음의 종류

(가) 연천 지역어의 자음 19개 : ㄱ·ㄴ·ㄷ·ㄹ·ㄴ·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ㅊ·ㅌ·ㅍ·ㅈ·ㅈ
·ㅈ

(나) 어두 자음 17개 : ㄱ·ㄴ·ㄷ·ㄹ·ㄴ·ㄹ·ㅁ·ㅂ·ㅅ·ㅈ·ㅊ·ㅋ·ㅌ·ㅍ·ㅎ·ㅊ·ㅌ·ㅍ·ㅈ·ㅈ

(다) 어중 자음 19개 : ㄱ·ㄴ·ㄷ·ㄹ·ㄴ·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ㅊ·ㅌ·ㅍ·ㅈ·ㅈ

(라) 어말 자음 7개 : ㄱ·ㄴ·ㄷ·ㄹ·ㅁ·ㅂ·ㅇ

2. 지역어의 자음변화

국어 공통어에서 자음과 자음이 직접 연결될 때, 그 자음들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것은 연천 지역어에서도 동일한데, 여기서는 어중에서 된소리와 유기음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것은 이미 연천 지역어의 어중에 실현되는 자음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국어 전체에서 일어나는 자음 동화와 함께, 연천 지역어 가운데서 동사 ‘웃다·짓다·씻다’ 등의 어간(語幹)이 ‘ㄴ’과 만날 때, 그 ‘ㄴ’은 먼저 ‘ㄷ’으로 바뀐 뒤에 이것이 다시 ‘ㄴ’을 닮아 ‘ㄴ’으로 발음된다. 또 받침 ‘ㅂ’을 가지는 음절이 그 뒤에 ‘ㄴ·ㄹ’ 등이 오면 ‘ㅂ’이 ‘ㄹ’으로 바뀐다. 또 받침 ‘ㄱ’ 뒤에 ‘ㄴ·ㄹ’ 등이 연결 되면 ‘ㄱ’이 ‘ㅇ’[ŋ]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비음화(鼻音化)라고 한다. 몇 가지 예를 (1)에 제시한다.

1) 연천 지역어의 비음화

- (가) 웃는다→운는다→운는다, 짓는다→진다→진다, 씻는다→씹는다→씬는다 등등
 (나) 개가 짓는다→개가 진는다→개가 진는다, 젓만 먹는다→절만 먹는다→전만 먹는다,
 찾는다→찬는다→찬는다 등등
 (다) 쫓는다→쫘는다→쫘는다, 꽃만→꼇만→꼇만, 몇만원→면만원→면만원 등등
 (라) 밟는다→밑는다→밑는다, 입는다→임는다, 밥만 먹네→밤만 명네, 값만 비싸요→갑만
 비싸요 → 갑만비싸요, 씹는다→씹는다 등등
 (마) 읽는다→익는다→잉는다, 역(驛)만 찾아줘→영만 차자줘, 깎는다→깍는다→깡는다,
 볶는다→복는다→봉는다, 죽는다→중는다 등등

위의 비음화와 더불어 이 지역어의 자음 변화는 대체로 공통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가령, ‘ㄴ+ㄹ’이 ‘ㄹ+ㄹ’이 되는 것(예: 천리 만리→철리 말리, 신라→실라, 한라산→할라산, 진리→질리 등등)과 받침 ‘ㄱ· ㅂ’과 ‘ㄹ’이 연결되면 ‘ㄹ’이 ‘ㄴ’으로 바뀐 뒤 다시 ‘ㄱ→ㅇ[ŋ]’, ‘ㅂ→ㅁ’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 그 예가 ‘독립→독닙→동닙, 녀량→늑량→능량, 격려(激勵)→격녀→경녀’ 등이다.

한편 중부 방언, 곧 경기도 방언에서도 모두 그런 경향이 있듯이, 연천 지역어에서도 두 가지로 결합된 받침 ‘ㄹ· ㅍ’을 가진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활용어미 또는 다른 단어가 연결되면, 노년층에서는 ‘ㄹ’의 경우는 ‘ㄹ’을 탈락시키고 ‘ㄱ’이, ‘ㅍ’의 경우는 ‘ㅂ’을 탈락시키고 ‘ㄹ’이 발음되는 경향이 강하다.

2) 연천 지역어의 자음 탈락

(가) 받침 ‘ㄹ’의 예

- 흙 : 흙과→혹과, 흙보다→혹보다, 흙더미→혹더미, 흙구덩이→혹구덩이 등등
 닭 : 닭과→닥과, 닭보다→닥보다, 닭장→닥짱, 닭도리탕→닥도리탕 등등
 늙다 : 늙고→늑고 늙더니→늑더니 늙지말고→늑지말고, 늙다리[老人]→늑다리등 등

(나) 받침 ‘ㅍ’의 예

- 넓다 : 넓고→널고, 넓지→널지, 그 땅이 넓데→그 땅이 널테 등등
 여덟 : 여덟 개→여덜 개, 여덟 사람→어덜 사람, 여덟과 셋→여덜과 셋 등등
 뚫다 : 뚫고→떨고, 뚫더라→떨더라, 뚫지→떨지, 뚫데→떨떼 등등

다만, (2) (가)의 예 가운데 ‘살[野貓]’은 이 ‘살’에 ‘고양이’가 연결된 ‘살쟁이’의 경우에 오히려 ‘ㄱ’이 탈락되고 ‘ㄹ’이 남아 발음된다. (2)의 예는 아니지만 ‘ㅍ’의 경우는 (2) (나)와 같이 ‘ㅌ’이

탈락되고 ‘ㄹ’이 발음되며(예를들면 훑다: 훑고→훑꼬, 훑지→훑찌, 훑치기→훑치기), ‘ㅍ’의 경우는 ‘ㄹ’이 탈락되고 ‘ㄹ’이 발음된다(예를 들면, 닦다 : 닦고→담고, 닦지→담지, 닦더라→담떠라).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받침 ‘ㄸ’은 1)절 (1)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뒤에 ‘ㄱ·ㄷ·ㅈ’ 등이 연결되면 ‘ㄱ· ㅌ·ㅈ’ 으로 발음된다. 그 예가 ‘맑고→만코, 맑지→만치, 맑더라→만터라’인데 ‘옳다·닦다’ 등도 동일하다.

이 지역어에서도 서북 방언(함경도 방언), 동북 방언(평안도 방언)을 제외한 구개음화가 실현된다. ‘디·티’가 ‘지·치’로 실현되는 것은 국어 공통어와 동일하고 ‘ㅎ’이 ‘ㅅ’으로, ‘ㄱ·ㅋ’이 주로 노년층에서 ‘지·치’로 실현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3) 연천 지역어의 구개음화

(가) ‘ㅎ’ 구개음화

힘이 세다→심이세다, 형님→성님, 혀바닥→세바닥, 헤다[算]→세다 등등

(나) ‘ㄱ·ㅋ’ 구개음화

기름→지름, 길이 넓다→질이 넓다, 김이 나다→짐이 나다, 겨(糠)→저, 겨우→저우, 키(箕)→치, 키가 크다→치가 크다 등등

(3)과 같은 ‘ㅎ’ 및 ‘ㄱ·ㅋ’ 구개음화는 모든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부 단어에서만 실현되는 현상으로, 이것은 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어 공통어에서 이 변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지역어의 모음

연천 지역어의 모음은 대체로 공통어 및 중부 방언의 경기 방언과 일치한다. 우선 다음 (1)에 이 지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목록을 제시한다.

1) 연천 지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가) 단모음

(A) 이·위·으·우·에·외·어·오·애·아

(B) 이·으·우·에·어·오·예·아

(C) 이·으·우·어·오·예/애·아

(나) 이중모음

- (A) 야·여·요·유·애·예
(B) 와·왜·워·웨
(C) 의
(D) 외·위

중부 방언 연구자들이 대체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지역어 최대의 단모음 체계는 (1) (가)의 (A)가 노년 그룹에서 발음되는 단모음이며, 세대가 젊어질수록 (B)에서 (C)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대의 단모음 체계인 (A)는 한자를 해독하는 노년층에서 확대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단모음 ‘위’와 ‘외’는 ‘귀·쥐·늪(未指稱)’ 및 ‘뇌·피·죄·쇠’ 등에서 확인되는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이’로 ‘외→때’로 합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귀·쥐·늪’ 등은 ‘기·지·니’로 ‘뇌·피·죄·쇄’는 ‘네·께·제·세’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이 결국 (B)와 같은 단모음 체계로 굳어지게 되는 동기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향은 주로 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 확인된다.

한편, (1) (가)의 (C)는 공통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이 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곧 청소년층에서 ‘에’와 ‘애’의 구별이 없어져서 동남 방언(경상도 방언) 및 서남방언(전라도 방언)과 같아지는 경향이 분명하다. ‘새[鳥]와 세[三]’, ‘개[犬]와 ‘계[蟹]’를 구별하지 못한다.

(1) (가)와 같은 단모음 체계의 변화는 흥미롭게도 국어 모음의 역사적 변화가 다시 조선시대의 국어 단모음 체계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것은 15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 ‘아래 ㅛ’ 모음이 소실되고 이중 모음 ‘에·애’가 단모음으로 바뀌고, 그 뒤 19세기 말에 이중모음 ‘위·외’가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형성된 (1) (가)의 (A)가 이 지역에서는 ‘위·외’가 소실되어 (B)가 되고 다시 ‘에·애’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C)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연천 지역어의 이중 모음 (1) (나)에서 (A)는 ‘이’ 모음이 ‘아·어·오·우’와 결합된 것이고, (B)는 ‘오/우’가 ‘이·아·애·어·에’와 결합된 것으로 상향 이중모음(上向二重母音)이다. 다만, (C)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1) (나)의 (A)와 (B)는 각각 그 이중모음의 반모음(半母音)이 [j·w] 인 것이 분명하나, (1) (나)의 (C)는 어느 경우에는 ‘이’를 반모음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으’를 반모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비록 한자 단어인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意思)·의견(意見)·의문(疑問)’ 등에서 첫 음절 ‘의’의 실제의 발음은 ‘이’가 탈락된 ‘으사·으견·으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둘째 음절 ‘의’의 발음은 ‘회의(會議)·논의(論議)·사의(謝意)’ 등에서 ‘이’로 발음되어(‘으’가 탈락되어) ‘회이·논이·사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이중모음 ‘의’와 관련하여 속격 조사(또는 소유격 조사, 관형격 조사)로 일컬어지는 ‘철수의 꽃, 나의 살던 고향’의 ‘의’는 실제로 ‘에’로 발음된다 이것은 이중 모음이 변화하여 ‘의’가 ‘에’로 발음된다고 하

기보다는 처격 조사 ‘에’로 합류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듯 하다.

(1) (나)의 (D)는 ‘오·우에 ‘이’ 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하향 이중 모음(下向二重母音)이다. 이 지역어에서 ‘위· 외’는 [uj·oj] 정도로 발음되는데 ‘위(上)·오이’ 등이 실제 발음에서 [oj·uj] 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천 지역어의 모음은, 단모음 체계가 (1) (가)의 (A)에서 10개, (B)에서 8개, 그리고 (C)에서 7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모음은 (1) (나)에서 13개임을 알 수 있다.

4. 지역어의 모음 변화

연천 지역어에서 최대의 단모음 체계인 3)절 (1) (가)의 (A)에서 단모음 10개는 경우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3)절 (1) (가)의 (C)처럼 단모음 ‘에’와 ‘애’가 하나로 합류되는 경향이 짙다. 가령 ‘세 상·세 개·세수(洗手)’ 등 그 첫음절의 ‘에’가 ‘애’로 발음되어도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듯이, 청소년층에서 그렇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이 ‘에’는 그 앞에 ‘스· 즈· 츠’ 이 연결되어 ‘세·제·체’가 될 경우, 이것들이 ‘시·지·치’ 로 발음된다. 구체적으로 ‘세배·제사·제비·체면’ 등이 ‘시배·지사·지비·치면’으로 발음된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시다(계시다)·네 개·메다·베다·페다(피다)’ 등이 ‘기시다·니 개·미다·비다·피다’ 등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모음 변화는 연천 지역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동남 방언이나 서남 방언 등에서도 이 현상은 확인된다.

셋째, 경기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모음 ‘어’가 실제로 ‘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연천 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다음 예에서 이를 유의해 보도록 한다.

1) 장모음 ‘어’의 ‘으’ 모음화

(가) 거머리→그머리, 걸다→글다, 껌→꿈, 너자(四尺)→늑자, 더럽다→드럽다, 벌다→블다, 설달→슬달, 어른→으른, 언다→은다, 적다→즉다, 젓다→줏다, 전나무→즌나무, 천덕꾸러기→즌덕꾸러기, 커다랗다→크다랗다, 퍼렇다→프렇다, 허영다→흐영다 등등

(나) 건설(健設)→근설, 거처(居處)→그처, 서자(庶子)→스자, 어사(御使)→으사, 전기(電氣)→즌기, 전화(電話)→즌화, 처녀→츠녀, 천인(賤人)→즌인, 헌신(獻身)→흔신 험(險)하다→흙하다 등등

(1) (가)는 고유어, (1) (나)는 한자어이다. 이 지역어에서 장모음 ‘어’는 그것이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더 나아가서 외래어인 경우에도 ‘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1) (가)에서 예시한 외

래어 ‘껌(gum)’까지도 ‘끔’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미루어, 이 모음 변화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모음 ‘어’가 ‘으’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3)절 (1) (나)의 이중모음 가운데서 장모음 ‘여’가 ‘이+으’의 결합인 것으로 ‘이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장모음 ‘여’가 ‘이+어’ 구조로 인식되어 ‘이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곧 한자어 ‘여씨(呂氏)·연애(戀愛)·영동(永同)·연설(演說)·영감(令監)’ 등이 ‘이으씨·이은애·이응동·이은설·이응감’ 등으로 발음된다. 물론 이 경우 순수 국어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예 : 여쭈다→이으쭈다, 엮다→이옴다),

넷째, 조사나 활용어미에서 본래 ‘오’ 모음을 가지고 있는 ‘-고·으로’ 등의 ‘-고·로’가 ‘-구·루’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먹고 보자’와 ‘낮으로 풀을 베다’의 경우 ‘-고·로’가 ‘먹구 보자’와 ‘낮으루 풀을 베다’에서 ‘-구·루’로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다.

다섯째, 앞의 모음이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한다. 그 예를 다음 (2)에 제시한다.

2) ‘이’ 모음 역행동화

(가) 동사 : 당긴다→맹긴다, 잠기다→쟁기다, 벗긴다→베낀다

(나) 명사 : 뺨따귀→뺨때기, 아지랑이→아지랭이(아지렁이), 엉덩이→엉텡이, 아비→애비, 어미→에미, 무더기→무데기, 소나기→소내기 등등

연천 지역어의 모음 변화 중에는 이중 모음이 단모음화되는 예들이 있다. 물론 이 변화도 중부 방언, 곧 경기 방언과 같은 현상으로 이 지역 방언의 특성만은 아니다.

첫째, 드물게는 순수 국어에서 그러나 대부분 한자어에서, 표기는 이중 모음 ‘예’로 적으나 실제 발음에서는 ‘에’로 실현된다. ‘계시다’가 ‘게시다’로 실현되고, ‘계산(計算)·계획(計劃)·계수(桂樹)나무·폐(肺)·폐인(廢人)·은혜(恩惠)’ 등이 실제로는 ‘게산·계획·계수나무·폐·폐인·은혜’로 발음된다.

둘째, 이중모음 ‘왜·웨’가 ‘애·에’로 변하는 예가 있다. 연천지역어에서 ‘괘찮다·괘히(쓸데없이)·괘과리’ 등이 ‘괘찮다·괘희·괘가리’로 발음되고 ‘궤(櫃)·궤도(軌度)·궤지다’가 ‘게·게도·데지다’로 발음된다.

셋째, 이 지역어에서 (2)과 같은 ‘이’ 모음 역행동화는 앞에 제시한 연천지역어의 구개음화와 같이 모든 어구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제시된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된 것을 후세대가 그대로 이어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III. 연천 지역어의 문법

1. 지역어의 격조사

학교 문법에서 국어의 격조사는 주격 조사 ‘이/가· 께서·에서’, 보격 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다’, 목적격 조사 ‘을/를’, 관형격 조사 ‘적’, 부사격조사 ‘에·에서·에게·한테·께·더러·보고(처소)·로(도구)’, 호격 조사(呼格助詞) ‘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천 지역어의 격조사는 공통어의 격조사와 별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언어에서 실현되는 격조사의 발음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특색있는 격조사는 공통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이 언제나 ‘얼/렬’로 실현되는 것이다. 의문사 ‘뭐’, 대명사 ‘나/너’의 경우 ‘ㄴ’만이 실현된다. 다음(1)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실제의 예를 몇 개 제시한다.

1) 목적격 조사 ‘얼/렬’의 예

- (가) 옛날에는 산퇴지(맷되지)렬 많이 잡았쥬.
- (나) 그 사람덜얼 모두 잡아 갔어요.
- (다) 이파리렬 뜯어 씹싸먹구 그래요.
- (라) 옛날에는 베렬 절구에 넣고 찌었는데 무척 고생했어.
- (마) 뭘 보구 그러는지 나렬 조사하데요.
- (바) 널 뭘 보구 시집을 왔는지 네 안사람도 딱하다, 이 사람아.

(1)와 같은 ‘으’ 모음의 ‘어’로의 변화는 경기방언의 공통성으로, 부사격 가운데 도구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의 경우 ‘으루/루’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다른방언과 매우 큰 차이를 가지는데, 이 지역어에서 ‘사투리’로 인식되는 단어를 지적하면 곧바로 표준어로 고치는 제보자들이 ‘으루/루’의 경우는 전혀 고치지 않는다. 그 만큼 이 지역어에서 ‘으로/로’는 관념적으로만 인식되고 실제로는 ‘으루/루’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의 예들이 그것이다.

2) 부사격 조사 도구, 방향의 ‘으루/루’의 예

- (가) 낮으루 풀을 베서 거름을 했쥬.
- (나) 그 때는 육안으루 호랭이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어.
- (다) 나무루 울타리를 했지.

(라) 언덜루 갔는지 몰라요.

(마) 큰 나무둥치를 도끼루 잘른단 말예요.

(바) 모두덜 서울루 피란을 갔지만, 아, 강얼 건널 수 있어야지? 그때 이 고장 사람덜이 산
방으루 뽕뿌리 흠어졌쥬.

(사) 아, 남쪽 사람덜언 대나무루 빗자루덜 매지만 여기 대나무가 있나요? 산에서 싸리나
무 베다가 그걸루 빗짜루덜 맨들어서 마당 쓸구 그러쥬.

부사격 조사 가운데 유정 명사(有情名詞)에 붙어 처소를 나타내는 ‘에게·게’ 는 거의 쓰이지 않고 ‘헌테(한테)’가 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테’는 노년층과 중년층에서는 거의 ‘헌테’로 실현되는데, 이 현상은 ‘하다’ 동사의 경우 ‘허다’로 실현되는 것과 같다. 다만, 청소년층에서는 공통어의 ‘한테’가 그대로 실현된다. 청소년층에게 왜 ‘헌테’로 말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노인네 말’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이 ‘헌테’ 격조사는 곧 ‘한테’로 굳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헌테’와 다르게 어떤 명사에도 결합하는 ‘보구·더러’가 실현되기도 한다. ‘보구’ 는 그 만큼 사용 범위가 넓은 격조사이다. ‘헌테’와 ‘보구’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더러’는 ‘헌테’와 그 기능이 거의 같다.

3) 부사격 조사 처소의 ‘헌테/헌테·보구·더러’ 의 예

(가) 아무거뚜 모루는 나헌테 뭘 무르려고 그래요?

(나) 소헌테 여물을 주구, 해가 뜨면 나무 허러 가지.

(다) 에펜네헌테 잘 땡겨왔다고 말했지, 이 사람아.

(라) 호랭이헌테 물러가도 정신만 채리면 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마) 널보구 뭐라고 하더냐?

(바) 손님보구 돈을 내라고 해서 미안해요.

(사) 하늘보구 침뺨기지.

(아) 순사보구 미리 겁이 나서 도망얼 치더라구.

(자) 어머니더러 돈얼 달라구 했으나, 그때 어디 돈이 있나?

(차) 나더러 어디서 왔냐구 묻더군.

(카) 하라버지헌테 인사 드렸냐?

(타) 선생님헌테 그런 말은 못했쥬.

그런데 (3) (카)와 (타)의 예에서 보듯이 이 지역어에서는 존칭의 여격(與格) 조사 ‘-께’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물론 존칭 대상의 인물이 눈 앞에 있을 때는 ‘께’를 쓰기도 하나, 자연스러운 언어 상태에서는 ‘한테(한테)’가 그 기능을 모두 포괄한다. 이것은 이 지역어만의 특성은 아니다. 중부방언(경기 방언)에서 모두 그런 언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잡한 언어의 쓰임이 단순화되어가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어의 조사 가운데 치소를 나타내는 격조사 ‘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털’ 로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 현상은 흔히 대격주제화(對格主題化)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에’에 ‘ㄹ’이 연결된 ‘엘’이 쓰이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보통 ‘집에간다, 학교에 간다’가 ‘집을 간다, 학교를 간다’로 ‘에’가 ‘을/를’로 교체 되는데, ‘에’와 ‘ㄹ’이 결합한 형태인 ‘엘’이 쓰인다. ‘서울엘 갔는데, 집엘 갔는데’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2) 의 도구격조사 ‘으루/루’와 (3) 의 여격조사 ‘한테·보구’에 보조사 ‘는·도’가 연결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엘’의 ‘ㄹ’건을 보조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테는·한테도·보구는·보구도’에서 처럼 ‘서울엘·서울에는·서울에도’ 의 ‘ㄹ·는·도’가 구조적으로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어의 활용 어미

연천 지역어의 활용 어미는 공통어 내지는 경기 방언의 그것들과 그 목록이 일치한다. 다만, 이 지역어에서는 국어의 활용 어미들이 실제 발음으로 실현되는데 음성적인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결 어미 ‘-고’ 와 조건을 뜻하는 ‘-(으)면·-거든’ 등 이다.

실제로 이 어미들은 표준어나 표기에는 그 원형이 ‘-고·-(으)면·-거든’으로 나타나지만, 구어(口語)에서는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연천 지역어에서는 ‘구·-(으)면·-거덩’으로 발음된다. 다음에 그 예를 제시한다.

(1) 연천 지역어의 ‘-고·-(으)면·-거덩’ 발음

(가) 나열의 활용 어미 ‘-고’ : 콩을 매에다 가라가지구 두부ړ 맨들어요. 기름을 바세다 주면 냄새가 고약하구 나쁩니다. 그 사람덜허구는 달라요. 빨갱이들하구 싸와야 한다가구 모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죽은 사람 많아요. 중선이라구 허는 배에다 실쿠 갖어요. 김장밧두 네 고랑이 있구. 마당 쓸구 방 쓸구 하지요. 친구보구 오라네.

(나) 조건의 활용 어미 ‘-면, -거덩’ : 1950년과 같은 사태가 버러지면 큰일나지요. 고 시간 되면은 추운겨라. 그런데 깜짝 놀래주면 병이 떨어진다. 정신없이 떠들다 보면은 실수도 하지요. 아마, 그때 양식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구했을 거요. 그때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은 부자 됐지. 두부구 머구 곱게 갈리면 그 멧돌이 제일이지. 그 마을에 사르셨거덩. 거물게는 노무를 깎아서 만들거덩요. 그 때는 그런 풍습이 있거덩. 서로 다르거덩요. 나 찾거덩 읍다고 그래라.

국어의 종결 어미는 화자(話者)의 태도에 따라 용언 어간에 평서법·의문법·명령법·청유법 어미를 연결시켜 실현된다.

평서법에 쓰이는 종결 어미는 확인·약속·추측·의지 등을 나타내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대체로 ‘-다·-라·-아/어·-지·-구먼·-께·-데·-르쎄·-르새’ 등이 쓰인다. ‘-다’는 ‘-ㄴ다’ 형식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실현되는데, ‘벌써 집에 왔단다, 그 집 아들은 출세 했단다’ 등에서 ‘-ㄴ다’가 그것이며 화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때 ‘나는 이제 집엘 갈란다, 이제 그만 떨어란다’등에서 ‘-르라’를 선행시켜 ‘-ㄴ다’가 쓰이기도 한다. ‘-라’는 화자가 ‘염려·의심·부탁’ 등의 태도를 가지고 청자(聽者)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애, 그렇게 뛰다가 너머질라, 학교에 늦을라, 체할라’ 등의 ‘-라’가 그것이다. 평서법의 종결 어미 ‘-지’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추측할 때 쓰이는데, ‘나 돈 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사람은 부자지’ 등이 그 예이다. 이 ‘-지’의 경우 공통어에서 그러히듯이 이 지역어에서도 2인칭 대명사가 결합하면 의문문이 된다. ‘네가 그 집 아들이지?, 너 돈 있지’ 등이 그 예인데 다만 의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때는 ‘그래 네가 그 집 아들이지, 그래, 너 돈 있지’로 실현되어 긍정문을 나타낸다. 물론 의문문의 ‘-지’는 억양이 상승하고 긍정문의 ‘-지’는 억양이 평등하거나 하향한다.

사실을 확인하거나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구먼(-구만)’은 ‘그거 참 좋구먼. 철따라 꽃이 피니 세상 살만 하구먼, 개가 밥을 다 먹었구먼그라, 5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구먼, 학교에 가는구먼’ 등에서 확인된다. 약속을 나타내는 ‘-께’는 ‘10시에 갈께, 돈을 줄께 이제 고만 잘께’ 등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와는 분명히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르쎄’는 청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때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곧 ‘이것이 서양자두라는 걸쎄, 법이라는 거시 이렇게 무서운 걸쎄’등이 그것이며 ‘-르새’는 화자가 청자에게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10시에 그곳으 르새, 내 그렇게 환새, 자네를 한번 믿어 보새’ 등의 ‘-르새’가 그것인데, 화자에 따라서는 ‘-르세’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 지역어의 의문법 종결 어미는 ‘해라’체의 ‘-까?·-냐?·-나?’를 제외하면 비종결 어미(非終結語尾)와 똑같은 ‘-니·-아·-지’ 등에 억양이 상승하는 것을 덧붙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 ‘평안하십니까?, 어디 댁겨오십니까?, 너 핵교 가냐?’ 등이 그것이고 보통 ‘너 어디 가지?, 밥 먹었

진?, 너 어디서 오니?’ 등과 같이 억양을 높여 의문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어 말할 때는 ‘-까·-냐·-나?’ 등의 종결 어미가 쓰이나, 비형식적 구어에서는 높은 억양이 바로 의문문의 종결 어미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형식은 이 지역어만의 특징이 아니고 공통어 내지 경기 지역어에서도 모두 그러하다.

명령문의 종결 어미는 ‘해라’체에서는 ‘-어라/아라’가 ‘해요제’에서는 ‘-세요’가 쓰인다. 그러나 ‘-아라/어라’에서 ‘-라’가 생략된 ‘-아/어’가 보편적으로 훨씬 더 빈번하게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엘 가서 도끼 가져와라 떠들지 말구 조용히 해라, 어서 집에 간 엄말 찾아 봐, 어서 한잔 드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등이 그 예들이다. 여기서 ‘해요’체의 명령문 내지 평서문의 ‘-요’는 중부방언 가운데 충청도 방언과 경기 방언의 이천 지역어나 여주 지역어와 다르게, ‘-유’나 ‘-주’로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현상은 경기 방언에서 남부 지역이 주로 ‘-유’나 ‘-주’로 실현되는 반면에 북부 지역은 언제나 ‘-요’와 ‘-죠’로 실현되는 일반적인 현상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청유법의 종결 어미는 이 지역에서 ‘해라’체는 ‘-자’로 ‘하께’체는 ‘-세’로, ‘해요’체는 ‘해요’로 ‘합쇼체’는 ‘-지요’로 실현된다. ‘어서 집에 가자, 같이 가 보세. 함께 가 보시지요’ 등의 예가 그것이다.

3. 지역어의 복수 접미사 ‘들’

국어 공통어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들’이다. 명사 뒤에 접미사 ‘들’이 연결되면 그 명사가 여럿임을 나타내는데, 이 접미사는 적어도 경기 방언에서는 언제나 ‘덜’로 발음된다. 물론 연천 지역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먼저 이 접미사가 명사 뒤에 직접 연결되어 복수를 나타내는 예들을 다음 (1)에 보이기로 한다.

1) 복수 접미사 ‘들’

- (가) 너이덜 이루 좀 와봐라.
- (나) 잔챗날 가마는 아랫 사람덜이 메지요.
- (다) 옛날 하라버지덜 말씀이죠, 뭐.
- (라) 그 사람덜 허구는 달라요.
- (마) 노인네덜이 지금은 없어요. 모두 최근에 도라갔죠.
- (바) 하라버지덜이 쓰던 말덜이 지금은 거의 쓰지 않게 됐어요.

1) (가)의 ‘너이덜’에서 이미 ‘너이(너희)’가 복수를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인데, 그것에 다시 ‘-덜’이 연결된 것이고, (1) (마)의 ‘노인네덜’도 이미 ‘노인네’가 복수인데 그것에 다시 ‘덜’이 붙어 복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네’의 ‘네’는 조선시대 존칭 복수 접미사 ‘내’(예: 어마님 내·누의님내)의 잔존형(殘存形)이 현대국어까지 남아서 ‘네’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바)의 ‘말덜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복수접미사 ‘덜’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것에 연결되어 복수를 나타내는데, 대체로는 유정 명사에 연결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국어에서 이 접미사는 명사 뒤만이 아니라 다른 위치로 이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이 지역어에서도 그것은 동일하다. 가령, (1) (가)와 같은 예들에서 ‘너이 이루 줌덜 와봐라, 너이 이루 줌 와덜 봐라, 너이 이루 줌 와 봐라덜’처럼 ‘덜’이 옮겨다녀도 그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IV. 연천 지역어의 어휘

경기 지역어의 일부인 연천 지역어는 대체로 현행 국어의 공통어와 그 어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표준어 내지는 공통어의 어휘가 이 지역어에서 그대로 쓰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모음이 교체되거나, ‘이’ 모음 역행동화, 그리고 일부 모음의 탈락 등의 변화과정을 거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지역어의 어휘는 1980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이하에서는 ‘질문지’로 통칭함)』의 제1편, 제2편, 제3편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물론 표준어 내지 공통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어휘는 제외하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1. 농사 및 음식·의복 관계 어휘

농사 및 음식 관계 어휘, 그리고 의복 관계 어휘는 대체로 표준어와 일치한다. 먼저 다음 (1)에 그 예들을 제시하고 적절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1) 농사및 음식, 의복관계 어휘

(가) 농사관계 어휘

벼:벼/베, 벼이삭 : 벼이삭/베이삭, 볍씨:볍씨/볍씨, 논:일꾼, 곁뚜리: 겹뚜리, 호미씻이:호미
씨세, 팽과리:팽매기/깡가리, 보습:보십, 쇠:세, 극쟁이:극쟁이, 씨래:쓰래, 자루:짚루/짜루/잘루,
쇠스랑:제스랑/세시랑, 벼단:벼단/벼문/벼단, 벼훑이:훑치개, 개상:개성, 새끼:새끼/새꼬랭이, 도
리깨:도루깨, 짚방석:멧방석, 광주리:광우리, 절구공이:절구깡이, 디딜방아:발방아, 방앗공이:방
앗깡이, 겨:게, 왕겨:왕개/왕게, 알레미:알개미, 보리:버리, 감부기:깡부기, 밭:밭/밭, 팔:팔/팓, 옥
수수:옥수수/강냉이, 무우말랭이:무꼬자리, 시래기:씨레기, 채소:푸성귀/푸성구, 파씨:팍씨, 자
주감자:자지감자

(나) 음식 관계 어휘

간장:간장/장 오이소박이:오시소배기, 솔:솔/숯, 누룽지:누룽지/누룽깡이, 튀밥:쌀강냉이, 옛
기름:옛길금, 식혜:식혜, 툇배기:투가리, 고무래:거물개, 화로:화리, 그을음:끄름, 살강:시렁, 껌:
괴짜 열쇠:열세, 베개:베개/벼개/비개, 돌쩌귀:돌쩌기, 귀얄:풀삐, 이엉:이응, 낙숫물:낙싯물, 또
아리:파리, 도랑:또랑

(다) 의복관계 어휘

다듬잇돌:다딤잇돌, 다리미:다리미/대리미, 형겍:홍겍, 두루마기:두루마기/두루매기, 잠방이:잠방이/잠뱅이, 누더기:누데기, 대님:댓님, 가위:가위/가우/가새, 반짚고리:반지꼬리/반지끄룻, 베:삼베, 씨야:짜

1)의 예들은 질문지에 제시된 197개의 어휘 가운데서 이 지역어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대립시킨 것들이다. 공통어 내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모음역행동화에 따라 거의 새로운 단어로 재구조화된 단어들은 (1) (나)의 ‘오이소배기’, (1) (다)의 ‘두루매기·잠뱅이·누데기’ 등이라 할 수 있고, (1) (가)에서는 이중모음 ‘여’가 단모음 ‘에’로 실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벼’가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나, 이것이 ‘베’로 발음되는 것이 그 빈도수에서 훨씬 높다. 그 외에 (1) (가)의 ‘· 켜 뿌리·게·왕게’와 (1) (나)의 ‘식혜’ 등이 그 예들이다.

한편, 1) (가)에서 표준어의 ‘보습·쇠스랑’ 등이 ‘보십·세시랑’으로 발음되는 현상에서 ‘ㅅ’ 밑에서 ‘으’가 ‘이’로 바뀌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예는 한자어 ‘세배(歲拜)·세개 [三箇]·세상(世上)’ 등이 ‘시배·시개·시상’ 등으로 바뀌는 현상과 더불어 ‘ㅅ’의 영향으로 모음 ‘으’나 ‘에’가 ‘이’ 모음화 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1) (가)에서 비교적 이 지역어의 특색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단어로는 ‘놉’이라는 것이 전혀 쓰이지 않고 언제나 ‘일꾼’이며, ‘자루’를 ‘잘루·짜루·잘루’로 발음하는 것, 그리고 ‘시래기’의 ‘시’가 된소리 ‘씨’로 바뀌는 것, ‘자주감자’를 ‘자지감자’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나)에서는 ‘옛기름’이 ‘옛길금’으로, ‘뚝배기’가 ‘투가리’로, ‘열쇠’가 ‘열세’로, ‘도랑’이 ‘포랑’으로 바뀌는 것이 특이하다. 된소리가 유기음으로, 평음(平音)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뚝배기→투가리’, ‘조금→쪄금→쨌끔’, ‘건거니(반찬)→깡거니’, ‘가마귀→까마귀’, ‘세게(強)→세게’ 등에서도 확인된다.

2. 인체·육아·인륜·경제 관계 어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질문지에 수록된 198번 ‘머리’부터 402번 ‘열흘’까지 총205개의 단어 가운데 이 지역어에서 국어 공통어와 다르게 실현되는 어휘만을 다음 (20)에서 제시하고 그것들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인체·육아·인륜·경제 관계 어휘

(가) 인체 관계 어휘

대가리:대가리/두상, 돼지머리:돼지머리/되지머리, 수영:수염/시엄(턱시엄), 구레나룻:구레나루, 뺨:뺨/뺨, 볼거리:볼거리/별거리, 주름살:주름살, 이마주름살:이마주름, 눈썹주름살:눈썹, 흰자위:흰자위(검은자위), 눈두덩:눈두덩/눈두덩이, 눈곱:눈곱/눈껍, 다래끼:다리끼, 입술:입술(웃납술·애랫납술), 혀:혀(혓바닥)/세, 귀에지:귀지개 목욕:목욕/모역, 젓:젓/젓(저술·저세 등), 가부좌:양반다리, 엉덩이:엉덩이/엉덩이, 궁둥이:궁뎅이, 넓적다리:넙적다리/허벅지, 정강이:정강이/정갱이, 뼈:뼈/뼈, 부스럼:흔디, 사마귀:사마기, 기계충:땀뿔, 언챙이:언챙이, 천연두:마마, 홍역:흔녀, 감기:감기/고블, 딸꾹질:딸국질/딸꾹질, 트림:트름, 방귀:방구

(나) 육아관계 어휘

갓난아이:갓난아이/간난애, 여자아이:기집애, 기저귀:기저귀/기저구, 포대기:포대기/천애, 죄암죄암 : 잼잼, 따로따로:따로따로/따루따루, 안기다:안끼다/앵끼다, 업살:엄살/옴살, 새암:셈소꿨질:소꿨장난, 숨바꼭질:숨기잡기/숨기내기, 목말:무등, 쥐불놀이:지불놀이, 옷:웃, 그네:그네/그내, 밀신개:매판, 얼레:연강개이, 굴렁쇠:굴렁세/굴렁새

(다) 인륜관계 어휘

어미:어미/에미, 아버지:아비/애비, 할머니:할머니/할무니, 할아버지:할아버지/할아버지, 형:형/형/성, 결혼:결혼/결혼(결혼반지·결혼식), 며느리:며누리/메누리, 새색시:새색씨/새댁, 사위:사위/사우, 시누이:시누/시누, 매형:매부, 시숙:시아주버니, 할아버:할아버/할애비, 홀어미:홀어미/홀에미(과부), 환갑:항갑(항갑잔치)

(라) 경제 관계 어휘

이웃:이웃/이 웃(이우제), 마을:마을/말/동네, 이야기:이야기/얘기, 대장간:대장간/승냥간, 벼리다:베리다, 바퀴:바퀴/바쿠, 포기:포기/폐기, 자루:자루/짚루/짜루, 무더기:무더기/무데기, 꾸러미:줄

(1) 에서 ‘이’ 모음 역행동화로 ‘어·야’가 ‘에·애’로 되는 예들은, (가)의 ‘뺨·눈두덩이·엉덩이·궁뎅이·정갱이·뼈·언챙이’, (나)의 ‘앵끼다’, (다)의 ‘에미·애비·메누리’, (라)의 ‘얘기·베리다·무데기’ 등을 들 수있고, ‘시엄·별거리·흰자위·사마기·기저구·따루따루·딸꾹질·트름·굴렁새·할무니·할아버지·사우·시누·항갑’ 등은 표준어(공통어)의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바

편 예들이다. 이 예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모음 변화)와 같이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어→우’·‘오→우’·‘외→에’ 등으로 설명된다.

특히 (1) (가)에서 ‘가부좌’에서 ‘양반다리’로 ‘기계총’에서 ‘땀빵’으로 ‘천연두’에서 ‘마마’로 ‘홍역’에서 ‘흔넉’으로 바뀐 것은 ‘한자 단어’를 ‘순수 국어’로 바꾼 예이며 (1) (나)의 ‘웃’의 ‘ㄷ’ 받침은 ‘ㅅ’으로 완전히 바뀌어 언제나 ‘웃’으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웃’에서 재구조화된 ‘웃’은 그 쓰임에 있어 언제나 ‘유시·유세·유슬·유스로’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3. 동물·식물·자연 관계 어휘

질문지 403번 ‘고기[魚]’부터 581번 ‘어디[何處]’까지의 179개의 단어 가운데 이 지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예들을 다음에 제시한다.

1) 동물·식물·자연관계 어휘

(가) 동물관계 어휘

고기:고기/괴기/계기, 민물고기:민물고기/개울고기, 미끼:미끼/낙씨밥, 지느러미:지느러미/지느레미, 창자:창자/내장/내포, 미꾸라지:미꾸라지/미꾸리, 피라미:날삐리, 개구리:개구리, 두꺼비:두꺼비/두께비, 멸치:멸치/메루치, 게:게/그이, 다슬기:달팽이, 우렁이:우렁이/우렁이, 벼룩:벼루기/베루기, 쉬:쉬/시, 구더기:구더기/구데기, 지렁이:지렁이/지렁이, 회충:회/거위/거우, 거머리:그머리, 바구미:바구미/쌀뽀러지, 그리마:그르마, 메뚜기:메뚜기/메뛰기, 여치:여치/찌르레기, 소금쟁이:소금장수, 방개:방개/물장군, 반딧불:반딧불/개똥벌레, 땅벌:땅벌/땡땡, 소입막이:소망, 외양간:외양간/오양간/소막, 두엄:두엄/땨, 구유:여물통, 둥구미:둥구미/둥구리, 노른자위:노란자, 거위:거우/괴사니, 올가미:옥무, 솔개:솔개/솔개미, 삿꾸기:삿꾸기/삿꼭새, 꿩:꿩

(나) 식물관계 어휘

꽃:꽃맛, 꽃봉오리/꽃봉아리, 봉선화:봉선화/봉숭아, 해바라기:해바라기/해바래기, 칩:칩(칙에, 칩으로), 덩굴:덩굴/덩쿨, 질경이:질경이, 썸바귀:썸바귀/썸바구 고들빼기:고들빼기, 개암:개암, 아그배:아그배/팔배, 그루터기:그루터기/그루테기, 삭정:삭정/삭쟁이, 솔가리:솔까리, 갈퀴:갈키

(다) 자연관계 어휘

산마루:산마루/산뽕우리, 벼랑:벼랑/낭떠러지, 흙:흙, 노을:노을/놀, 해거름:해질녘, 선달 그

몸날: 슨달 몸날, 논개:가랑비/이슬비, 소나기:소내기/쏘내기, 벼락:벼락/베락/천둥, 홍수:홍수/큰물, 회오리바람:회오리바람/회리바람, 아지랑이:아지랑이/아지랭이, 윗마을:윗마을/웃마을/웃말, 모퉁이:모퉁이/모퉁이

(1)에서도 국어 공통어와 더불어 ‘이’ 모음 역행동화에 의하여 ‘아· 어’가 ‘애· 에’로 바뀌는, ‘고기→괴기→게기, 지느러미→지느레미, 두꺼비→두께비, 우렁이→우렁이, 구더기→구테기, 지렁이→지랭이, 그루터기→그루테기, 삭정이→삭쟁이, 소나기→소내기’ 등의 예들이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표준어의 ‘이’ 모음 역행동화의 예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으로, 흔히 쓰이는 예(고들빼기→고들빠기)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개구리, 소나기’의 첫소리 ‘개’와 ‘소’가 된소리로 바뀌어 ‘깨구리, 쏘내기’ 로 실현되는 것은 현대 국어에서 말 첫머리에서 된소리가 발달하는 경향의 한 예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모음 ‘위, 외’의 ‘이’ 모음화 표준어에서 ‘여’로 그 기본형이 정해진 단어의 ‘에’ 모음화 등도 이 지역어의 한 특징인데, 후자의 예로는 ‘멸치→멜치/메루치, 벼룩→베루기, 벼락→베락’ 등이며 전자의 예는 ‘쉬→시, 거위→겨우, 외양간→오양간, 썸바귀→썸바구, 갈퀴→갈기, 윗마을→웃말’ 등이다.

4. 형식 명사 ‘것’의 특성

사전(辭典)적 해석에서 ‘사물·현상·사상·존재 등의 이름 대신으로 쓰이는 말’로 형식 명사 ‘것’을 들 수 있다. 표준어에서 언제나 그 기본형이 ‘것’으로 실현되는 이 단어는 현재 국어 공통어에서 ‘거’라는 교체형(交替形)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면 ‘게’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면 ‘걸’로, 주제의 보조사 ‘은’과 결합하면 ‘건’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연천 지역어에서도 동일하다. 다음 (1)에 그 예들을 제시한다.

1) 형식 명사 ‘것’의 용례

- (가) 여기 사람들도 그런 건 잘 알아듣죠.
- (나) 그 때는 공산당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요? 별루 그게 기억이 안나는데.
- (다) 그게 바로 명석이라는 것 아닙니까?
- (라) 이거릴 가지구 어떠케 헐꺼냐?
- (마) 야, 이거 큰일났구나.
- (바) 이거 내 꺼구 저거 네 꺼야.

(사) 그런 거 참 귀한데.

(1)의 (가)(사)의 ‘그런 건·그런 거’는 각각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축약된 것이며, (나)(다)의 ‘그게’는 ‘그것이’에서 ‘시’이 없어지고 ‘이’가 결합된 것이다. (1)(라)의 ‘이거덜’은 ‘이것을’의 축약형이다. 다만 (1) (바)의 ‘내 꺼· 네 꺼’는 ‘내 것· 네 것’에서 역시 ‘시’이 없어지고 그 뒤에 ‘기’ ‘기’이 되어 ‘꺼’로 바뀐 것으로 보통 ‘거’로 실현되는데 소유 대명사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제4권상

연 천 의
행정구역과
변 천 사

연 천 의
인문환경과
교 통

연 천 의
민 속 과
실 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 학 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 화 ,
예술, 체육

V. 결론

서북 방언(평안도 방언), 동북 방언(함경도 방언), 동남 방언(경상도 방언), 서남 방언(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과 다르게 중부 방언(황해도·강원도·경기도·충청도 방언)은 대체로 공통 국어(표준어)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중부 방언은 공통어와 유사하며 그 자체가 ‘사투리(방언)’라는 느낌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중부 방언의 하위 부류인 경기도 방언, 그 가운데서 연천 지역어는 그 느낌의 차이가 훨씬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로, 어두에서는 17개, 어중에서는 19개, 어말에서는 7개만이 쓰이고 있고, 모음은 최대의 단모음 10개, 이중 모음 13개가 쓰인다. 단모음은 노년층에서 10개, 중년층에서 8개, 청소년층에서 7개가 쓰이고 있어 역사적으로 변화된 모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이 짙다. 자음의 변화는 ‘ㄱ·ㄷ·ㅂ·ㅈ’ 등이 ‘ㅎ’과 만나면 ‘ㅋ·ㅌ·ㅍ·ㅊ’으로 바뀌고, 또 이것들이 된소리 ‘ㄱ·ㄷ·ㅂ·ㅈ’ 등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공통국어의 그것처럼 이 지역어에서도 구개음화 및 자음동화가 일어난다.

모음의 변화는 ‘에’ 모음과 ‘애’ 모음의 구별이 청소년층에서 하나로 합류되고 ‘ㅜ·ㅜ·ㅜ’에 연결되는 ‘에’가 ‘이’로 바뀌는 경우와, 장모음 ‘어’가 ‘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있다. 이것은 장모음인 ‘여’의 경우도 동일하여, ‘영등포· 연애’ 등이 ‘이응등포· 이은애’ 등으로 발음된다. 또 이중 모음이 단모음화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는 ‘에’로, ‘외’도 ‘에’로 실현되고 ‘의’는 어느 경우에는 ‘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이’로 실현된다.

연천 지역어의 문법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인데, 전자는 ‘을/를’이 ‘얼/렐’로 부사격 조사는 ‘한테·더러·보구’ 등이 ‘에게/께’ 대신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구의 ‘으로’는 ‘으루’로 발음된다. 활용 어미 중 ‘-고’는 ‘-구’로 ‘-으면’은 ‘-으면’으로, ‘-거든’은 ‘-거덩’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대부분이다. 복수접미사 ‘들’은 ‘덜’로 발음된다.

연천 지역어의 어휘들은 ‘이’ 모음 역행 동화,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모음 ‘오’의 ‘우’ 변화 등을 겪어 어휘 재구조화의 경향이 높아지는 듯하다. 특히 형식 명사 ‘것’은 ‘거’로 완전하게 재구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2000년 군지편찬 당시 제보자 명단 | 송상선(남, 62세, 연천읍 차탄 2리) |
| 임재찬(남, 61세, 연천읍 차탄 2리) | 이현숙(남, 27세, 신서면 내산리) |
| 이윤역(남, 69세, 전곡읍 전곡 2리) | 노영로(남, 53세, 전곡읍 전곡 1리) |
| 황호진(남, 군남면 삼거리) | 이문주(남, 군남면 삼거리) |



제 5 장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 I. 고려시대 연천의 풍광과 제영
- II. 조선 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
- III. 조선 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
- IV. 현대 연천의 문학

I. 고려시대 연천의 풍광과 제영²⁴⁾

연천 지역의 제영(題詠)이 문헌에 나타나는 가장 이른 것은 12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한 김극기(金克己)의 작품이다. 김극기는 그 삶이 자세하지 않아 언제 연천을 찾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연천에서 지은 시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영에 전한다.

| | |
|-----------------------|----------------------|
| 말을 몰아 갈 길을 찾노라니 | 馬首尋前路 |
| 새벽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네. | 晨霜尙未收 |
| 병든 눈에 봄비가 어둑한데 | 病眸春雨暗 |
| 떠도는 발자취에 새벽 별이 흐르네. | 羈迹曉星流 |
| 홀로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있고 | 獨飲能成醉 |
| 외로이 노닐어도 근심을 풀 수 있다네. | 孤遊得瀉憂 |
| 고향에 돌아온지 겨우 며칠, | 還鄉罪幾日 |
| 까마득히 삼년을 보낸 듯하네. | 邈若隔二秋 ²⁵⁾ |

이 작품에서 김극기는 연천이 자신의 고향이라 하였다. 그의 생애에 대한 자료가 워낙 소략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연천이 김극기의 고향이거나, 연천에 그의 별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극기로부터 100여 년 후 안축(安軸, 1287~1348)이 1330년 강릉도존무사로 있다가 이해 10월 왕명에 의하여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연천 일대를 들러, 이 일대의 풍속을 징험하는 시를남겼다.

| | |
|----------------------|----------------------|
| 아전이 개울 따라 난 길로 이끄니 | 吏引緣溪路 |
| 낮은 밭에 뽕나무가 성기구나. | 平田桑柘疏 |
| 숲에는 사나운 개가 나올 듯하고 | 林間逢猛犬 |
| 얼음 아래에는 어린 물고기가 보이네. | 冰底見纖魚 |
| 역원은 밀려드는 수레로 고통을 겪는데 | 門有輪蹄困 |
| 어느 집에도 쌓인 것이 전혀 없구나. | 家無礪石儲 |
| 시절을 슬퍼하며 부질없이 탄식하노니 | 傷時空仰屋 |
| 찬 해가 황량한 땅을 비추네. | 寒日照荒墟 ²⁶⁾ |

24) 이 장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종목, 「고려, 조선시대의 문학」, 『漣川郡誌(下)』,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429쪽~446쪽).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3, 「연천현」.

26) 『謹齋集』, 권1, 「十一日過玉溪驛」.

옥계역은 진명산(眞明山) 아래에 있었으며, 오늘날의 군남면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옥계역은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축은 이곳의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안축은 유학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여 개인의 단순한 정감보다 백성의 풍속을 시로 적는 관풍(觀風)의 시학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 작품 역시 당시 연천 지방 민생의 실상을 시로 전하고 있다.

| | |
|-------------------------|----------------------|
| 오래된 나루의 일편편주, | 古渡舟如葉 |
| 날이 차 물결이 더욱 맑구나. | 天寒波更澄 |
| 무너진 벼랑에 못생긴 바위가 매달렸고 | 崩崖懸醜石 |
| 끊어진 언덕에 층층 얼음이 쌓였네 | 斷岸積層冰 |
| 물새야, 네 감히 샷대 가까이 이르랴? | 浪鳥近堪樵 |
| 물고기야, 미끼 탐내에 그물에 들지 말라, | 游角貪莫罾 |
| 사공을 감히 업신여기랴? | 篙師散輕淺 |
| 제 손에 사람을 건넬 힘이 있는데 | 手有濟人能 ²⁷⁾ |

마전과 연천을 가르며 흐르는 임진강 줄기를 예전에는 징파강(澄波江)이라 하였다. 옥계역 서쪽으로 징파강이 흐르며 징파도(澄波渡)가 있었다. 징파도는 옥계역과 함께 고려시대 문헌에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다. 안축은 이곳을 들러 강을 건너는 마음을 시로 적어내었다.

27) 『謹齋集』, 권1, 「過澄波渡」.

II. 조선 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²⁸⁾

여말 선초 연천의 인물로 이양소(李陽昭)를 먼저 들 수 있다. 『연진읍지』에 따르면 그의 집이 연천의 청화동(淸華洞)에 있었다. 여말에 조선 태종과 같은 때 내과에 합격하였으나 조선이 건국되자 출사하지 않고 물러났으며, 태종도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직접 그 집으로 가서 술을 함께 마시며 즐기다가 술이 거나해져 연구(聯句)를 지었다.

태종이 먼저 “가을비 반쯤 개니 사람도 반쯤 취했네(秋雨半晴人半醉)”라 하자, 이양소는 즉시 “저녁 구름 막 걷히니 달도 막 돋네(暮雲初捲月初生)”라 하였다. 개성의 기생 중에 월초생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태종이 잠저 시절에 좋아하던 여인이었기에 옛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이다. 이에 태종이 크게 웃고 평생의 벗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연천을 찾은 사람들의 제영은 주로 연천이나 마전의 관아, 그리고 징파강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징파강 인근의 옥계역은 고려 이래 교통의 요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김수온(金守溫, 1408~1481)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동으로는 연천 땅,
서로는 삭녕 땅.
두 곳의 관아 반쯤 되는 곳에
또 옥계정이 있구나.

東去漣川縣
西歸卽朔寧
兩官相畔地
又有玉溪亭²⁹⁾

연천과 삭녕 중간 지역에 옥계역이 있고, 옥계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온은 이 작품과 함께 옥계역 남쪽 칠림이라는 곳에서 ‘칠림(漆林) (『식우집』 권4)이라는 시를 지었다.

조선 전기 연천을 소재로 한 한시로는 우선 오늘날 연천의 일부가 된 마전의 동헌에서 쓴 것들이 다수 전한다. 먼저 이원(李原, 1368~1429)이 마전 동헌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문밖에 뽕나무 심고 다시 삼을 심었으니
관가는 쓸쓸하여 시골 마을 같구나.
나그네 흥이 일어 시 지을 곳 찾노라니
비 맞은 장마가 시령에 기울어져 있구나.

門外栽桑復種麻
官家寥落似村家
客中乘興尋詩處
雨後薔薇一架斜³⁰⁾

28) 이 장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종목, 「고려, 조선시대의 문학」, 『漣川郡誌(下)』,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429쪽~446쪽).

29) 『拭疣集』 권4, 「玉溪驛」.

30) 『容軒集』 권2, 「次麻田東軒詩」.

마전은 땅이 좁고, 백성이 적었으며, 관아 역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1498년 (연산군 4) 강귀손(姜龜孫)이 관찰사로 와서 고칠 것을 임금께 청하였으며, 정연경(鄭延慶)이 이를 중수하였다고 하니³¹⁾, 이원이 마전의 동헌에 이르렀을 때는 중수 이전이라 관아가 매우 초라했을 것이다.

그 후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마전 땅에 이르러 지은 「도마전기연천이태수(到麻田寄漣川李太守)」(『사가집(四佳集)』 권419, 「시집(詩集)」)에서 “포뚝빛 푸른 물결 치는 징파나루, 철쭉꽃 붉게 퍼지는 보개산(葡萄綠漲澄波渡, 躑躅紅蒸寶蓋山)”이라 하여 아름다운 마전 일대의 풍광을 노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거정은 연천에도 들러 당시 연천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 | |
|-------------------------|------------------------|
| 미끈미끈 봄 진흙에 말이 겁을 내니 | 滑滑春泥怯馬蹄 |
| 양주에서 오는 길 높았다 낮았다. | 楊州行路互高低 |
| 큰 여울 이미 얼음이 녹을까 두려운데 | 大灘已怕水猶薄 |
| 여러 산마루를 돌아보니 눈이 아직 있구나. | 諸嶺回看雪尚齊 |
| 헤진 모자에 얇은 옷 추위를 더하는데 | 破帽輕裘增料峭 |
| 벼슬살이로 떠도는 회포 더욱 처량하구나. | 宦情羈思轉淒迷 |
| 연천의 객관이 산에 기대 고요하기에 | 漣川客館依山靜 |
| 베개 베고 편히 자니 해가 서로 기울더라. | 欹枕高眠日向西 ³²⁾ |

위 작품이 나온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급 관료 시절이던 15세기 중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서거정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1460년(세조 6) 금강산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천의 대탄(大灘), 곧 오늘날의 한탄강을 건너게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31) 洪貴達, 『虛白亭集』 권2, 「麻田郡館舍重修記」.

32) 『四佳集』 권3, 「詩集補遺」.

한탄 나루에 물결이 맑은데
강물을 보면 물고기를 셀 수 있다네.
강산은 막 비가 개었는데
바람과 달은 가을을 맞았네.
갈대 숲에는 고깃배 대기 편안한데
산성에는 고목이 성기네
내 가야 할 길 어디인가
뽕나무에 마을이 어둑하기만 하네.

渡口波清淺
臨流可數魚
江山初霽後
風月九秋餘
葦岸漁舟穩
山城古木疏
前程何處是
桑柘暗村墟³³⁾

이로부터 50여 년 후 정희량(鄭希良, 1469~1502)도 마전을 지나면서 객관에서 시를 남겼다. 다음에서 두 개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적막한 마전군,
어느 때 관아를 지었나.
무너진 담에 푸른 풀이 더북하고
부서진 벽에 파란 이끼 끼었네.
땅은 오강에서 다하였는데,
산은 감악산에서 뻗어있네.
온 땅에 비가 풍족하니
보리가 천 무더기 푸르게 일렁이네.

寂寞麻田郡
何年館宇開
頽垣青遍草
壞壁綠生苔
地到烏江盡
山從紺岳來
一區煙雨足
麥浪翠千堆

소락한 여지승람이여,
쓸쓸한 철성 이원의 시.
길을 끼고 뽕나무와 삼이 길게 자라고
문 앞에는 수양버들 늘어졌네.
봉우리가 멋대로 휘장이 되고
덩굴풀 에워싸 울타리 삼았네.
태수는 공무가 없어서
거문고 타는 동헌이 대낮에도 한가하다.

蕭條輿地誌
寥落鐵城詩
挾路桑麻長
當門楊柳垂
峯巒橫作障
藤葛擁爲籬
太守無公事
琴軒晝日遲³⁴⁾

정희량이 마전 관아에 이르렀을 때도 관아는 증축되기 전이라 아주 초라하였고 앞에서 본 이원의 작품과 함께 이 일대에 삼과 뽕나무가 많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33) 『梅月堂集』 권10, 「渡大灘」.

34) 두 개의 시 모두는 『虛庵遺集』 권1, 「題麻田郡館」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은 특히 마전땅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마전 관아에서 쓴 시를 보인다.

| | |
|---------------------|------------------------|
| 산이 빙 두르고 물살이 급한 곳에 | 山勢周遭水勢橫 |
| 동헌 하나 우뚝 솟아 눈앞에 흰하네 | 一軒危坐眼分明 |
| 책상머리에는 종일 문서가 적어 | 案頭盡日文書少 |
| 산새가 울며 오니 정이 있는 듯. | 山鳥啼來似有情 ³⁵⁾ |

홍귀달은 마전과 관련한 여러 글³⁶⁾을 남겼고, 이를 통해 마전과 연관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

홍귀달이 지은 「징파루기」에 따르면 징파나루에 세운 징파루는 변씨(卞氏) 성을 가진 인물이 만든 누각으로 매우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변씨가 누각을 세운 뜻을 적은 다음, 홍귀달은 다음과 같이 징파루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 | |
|---------------------------|-------------------------|
| 한칸 작은 누각에 밝은 달빛 담았구나. | 小樓一間兮貯明月 |
| 비단 같은 맑은 강은 물결을 머금었네. | 澄波匹練兮含風漪 |
| 그대 일생 편안히 누워 하는 일 없구나, | 高臥一生兮無所營 |
| 사방 산을 휘장 삼고 푸른 구름 옷을 삼았네. | 四山爲幄兮靑雲衣 |
| 내 벼슬 버리고 귀거래 하리라, | 吾將謝笏兮歸去來 |
| 그대와 영원히 세상사에 욕심을 끊고 살리라. | 與君永息兮漢陰機 ³⁷⁾ |

김주(金澍, 1512~1563)도 마전의 동헌에서 지은 시를 남기고 있다. 한적한 마전의 정취가 여기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를 통해 평화로웠던 당시 마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35) 『虛白亭集』 권1, 「題麻田縣舍」.

36) 「제마전현(題麻田縣)」(『허백정집』 권1), 속집; 「징파루기(澄波樓記)」; 「마전군관사중수기(麻田郡館舍重修記)」

37) 『虛白亭集』 권2, 「澄波樓記」.

땅이 궁벽져 사람이 적은데
 관문은 대낮에도 열리지 않네,
 산에서 부는 바람에 벽려풀 흔들리고
 강의 연기에 이끼가 젖어 있네,
 술 익자 벌이 먼저 알고
 꽃이 향기로워 나비 절로 날아든다.
 멀리서 듣노라니 소 타고 부는 짓대소리가
 푸른 구름 속으로 퍼져 나가네.

境僻人煙少
 官門晝不開
 山風搖薜荔
 江靄濕莓苔
 酒熟蜂先識
 花香蝶自來
 遙聞牛背笛
 吹入碧雲堆³⁸⁾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설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38) 『寓庵遺集』 권3, 「麻田東軒韻」.

III. 조선 후기 연천의 풍광과 제영³⁹⁾

조선 중기의 대학자 허목(許穆, 1595~1682)은 연천 출신 중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이다. 허목은 4대 선영이 이 곳에 있으며 그 자신도 죽어 이곳에 묻혔다. 「임거견흥(林居遣興)」(『기언(記言)』 권14)에 따르면 허목은 20여 년 연천에 살면서 10가지 일로 세월을 보내었다. 허목은 1662년(현종 3) 자신이 사는 곳에 십청원(十靑園)이라는 정원도 꾸몄다. 그리고 「십청원기(十靑園記)」(『기언』 권14)라는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

허목은 징파강 일대, 양암(仰巖), 종담(鐘潭), 웅연(熊淵) 등 여러 명승을 유람하고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 이 글들은 『기언』의 「종담수석기(鐘潭水石記)」, 「해제장로범주유기(偕諸丈老訖舟遊記)」, 「연강조주기(烟江釣舟記)」, 「웅연범주기(熊淵泛舟記)」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웅연범주도(熊淵泛舟圖)와 「웅연범주제명(熊淵泛舟題名)」도 제작하였다.

평소 시를 즐겨 짓지 않았던 허목은 웅연에서 시를 지었는데 다음은 1665년 3월 웅연에 노닐면서 지은 작품이다.

| | |
|--|---|
| 산 아래 봄날의 강물은 깊어서 흐르지 않는 듯, 푸른 물풀 바람에 흔들려 물결꽃이 떠 있네. 저물녘 물가에는 풀이 파랗고 모래가 흰데 낚시대 거두고 배를 옮겨 나루로 오른다. | 山下春江深不流 綠蘋風動浪花浮 草靑沙白汀洲晚 捲釣移舟上渡頭 ⁴⁰⁾ |
|--|---|

이후 허목은 괘암, 미강, 횡산 등에서 풍류를 즐겼고 당시의 풍류는 『기언』의 「괘암제명기(卦巖題名記)」, 「미강범주기(眉江訖舟記)」, 「횡산기(橫山記)」에 기록되어 있다.

삭녕에 있던 우화정(羽化亭)도 허목의 글을 얻어 더욱 명성을 날렸다. 우화정은 1667년 허목의 제자로 삭녕군수로 있던 이산뢰(李山賚)가 지은 정자다. 그후 우화정은 여러차례 중수되었고 우화정의 모습은 정선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 석녹암에 주로 살면서 간간히 벼슬 때문에 한양으로 오가던 허목은 1678년(숙종 4) 그의 나이 84세가 되어 벼슬을 완전히 청산하고 연천에 내려와 살려 하였다. 이에 숙종은 허목에게 연천에 7칸의 집을 내렸다. 허목은 감사의 뜻으로 이 집을 은거당(恩居堂)이라 하고 은

39) 이 장은 기간행된 연천군지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종목, 「고려, 조선시대의 문학」, 『漣川郡誌(下)』,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429쪽~446쪽).

40) 『記言』 권63, 속집, 「熊淵泛舟示永叔」.

거시(恩居詩)를 지어 사은의 뜻을 표하였다.⁴¹⁾ 그 마을은 고려 태조가 병사들을 머물게 했던 곳인지라 군영이라 불렀는데 허목은 이곳을 녹봉(鹿峰)이라 이름을 고쳤고, 그로부터 4년 뒤 이곳에서 임종하였다. 은거당 뒤쪽 100여 보 떨어진 곳에 허목의 묘가 있고, 곁에 자신이 직접 새긴 비갈이 세워져 있었다.⁴²⁾

허목이 연천을 오갈 무렵 정두경(鄭斗卿, 1597~1673)과 조현기(趙顯期 1634~1685)도 연천을 찾고 연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시로 남겼다. 먼저 정두경의 시를 보자.

우화정 높은 누대에서 송별하기 어려워라,
골짜기에 흐르는 물 앞 여울로 내려가네.
외로운 배로 곧바로 징파도를 거슬러 가
한 밤에 청산을 대하니 달빛이 차다.

羽化高臺送別難
峽中流水下前灘
孤舟直泝澄波渡
夜對青山月色寒⁴³⁾

새벽빛 희뿌연데 안개가 깊어
징파 나루에 달이 막 잠기네.
돛을 올리고 샷대 치며 강물 따라 가노라니
강 양쪽에는 아스라한 단풍숲 보이네.

曉色蒼蒼煙霧深
澄波渡口月初沈
掛帆擊汰中流去
兩岸依稀楓樹林⁴⁴⁾

정두경은 이때 개성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화정에서 벗들과 헤어지고 배로 징파 나루에 이르러 하루를 유숙하였다. 새벽에 배를 다시 띄워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본 주변의 풍경을 읊었다.

공관에 머물러 있노라니 세월이 흐르나니
중양절 지난 후에 한양으로 향한다.
외로운 배로 나그네는 새벽녘 맑은 강을 건너는데
십리의 단풍숲은 적벽의 가을에 취해 붉구나.
들 가득 누른 구름처럼 벼 이삭이 익어가는데
산봉우리에 오른 해에 안개가 싹 걷히네.
앞길에 아름다운 기약이 있으리니
한 번 웃고 제월루에서 시를 짓노라.

公館淹留歲序遒
重陽過後向神州
孤舟客渡清江曉
十里楓酣赤壁秋
盈野黃雲禾大熟
上峯初日霧全收
前程最有佳期在
一笑題詩霽月樓⁴⁵⁾

41) 『記言』 권55, 「恩居詩序」.

42) 『靑泉集』 권4, 「觀許相國恩居堂園記」.

43) 『東溟集』 권2, 「泊澄波渡」.

44) 『東溟集』 권2, 「曉發澄波渡」.

45) 『一峯集』 권2, 「自麻田向落道中口占」.

조현기는 그 부친 조시형(趙時馨)이 마전군수를 지냈기에 마전 땅과 연고를 갖게 되었다. 단풍으로 붉게 물든 강을 따라가면서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는 조현기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허목 이후 연천의 이름을 크게 빛낸 이가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다, 신유한은 59세 되던 1739년(영조 15) 연천현감에 임명된다. 「이월이십일부임연천강인관료인음자위(二月二十日赴任漣川強引官膠因吟自慰)」(『청천집(靑泉集)』 권2) 라는 시를 지었다. 그는 여기서 당시 연천에 대한 모습과 불평, 열악한 환경 속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 하였다. 연천으로 온 신유한은 이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신유한이 연천에 이르러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녹봉에 있던 허목의 옛집이었다. 신유한은 미수의 초상을 배알하고 「관허상국은거당원기(觀許相國恩居堂園記)」를 지어 존경의 뜻을 붙였다. 허목의 자손들과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연천 관아에 선비들을 청하여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권장하며 허목의 뜻을 계승하였다.⁴⁶⁾

처음에는 연천이 신유한에게 불만스러운 곳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신유한은 이 곳의 산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는 용연, 징파강 등을 유람하며 시를 지었다.

| | |
|-----------------------|----------------------|
| 떠돌이 나그네 있어 | 客有羈棲者 |
| 노새 타고 관아를 나서노라 | 乘駒出縣衙 |
| 우연히 강가의 바위를 찾고 | 偶尋江畔石 |
| 인하여 나무 그늘 속의 집에 이르렀다. | 因到樹陰家 |
| 포구의 햇살이 신선의 자취에 남았는데 | 浦日留仙跡 |
| 처마의 구름이 갈대꽃을 덮고 있네 | 簷雲繞筆花 |
| 주인의 흥금 옛스럽기도 하여라, | 主人襟韻古 |
| 수레 멈춘 곳이 곧바로 연하구나. | 傾盖卽烟霞 ⁴⁷⁾ |

46) 申維翰, 『靑泉集』 권10 續集, 「年譜」

47) 『靑泉集』 권2, 「題熊淵」.

활짝 갠 한낮에 떠 있는 배 한척,
가을 강에 소요하노라니 병든 몸이 맑아진다.
뚜렷한 단풍나무 소나무 멀리서도 색깔이 선명한데
가물거리는 바위와 개펄은 예전부터 들었노라.
시는 머릿속 시상을 따라 엮어내기 어려운데
졸음은 삐걱삐걱 삿대소리에 쉬 놀라 깨네.
베개에 기대니 가는 곳마다 흥이 일지만
구름 너머로 가는 새가 가장 마음을 끄네.

孤舟解纜午天晴
散髮秋江病骨清
歷歷楓松遙辨色
依依巖溆舊聞名
詩緣腹藁篇難定
睡被鳴橈夢易驚
欹枕所過渾漫興
出雲歸鳥最關情⁴⁸⁾

신유한은 그 이듬해에 「사미정(四美亭)」을 지었다. 처음에는 연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연천현감 벼슬을 사양하였지만 점차 연천에 애정을 갖게 된 것이다. 위의 시에서 보듯이 산천이 아름다워 시흥이 일기에 병든 몸이 다소간 좋아지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관아에서 100여보 떨어진 버린 땅을 구하여 못을 파고 샘물을 대어 조경을 하고 흙을 쌓아 그 위에 기둥 넷짜리 정자를 만들었다.

신유한이 연천에 있을 때 찬취암(攢翠巖)도 찾았고 이곳에서 「유찬취암견민솔회오심운(遊攢翠巖遣悶述懷五十韻)」(『청천집』 권2)를 지었다.

신유한은 연천에서 자주 틈을 내어 주변 일대의 산수를 즐겼다. 1742년(영조 18)에는 적벽강으로도 불리는 징파강에서 노닐었는데, 이때 함께 노닐 벗으로는 양천현감으로 있던 정선과 경기관찰사 홍경보였다. 이들은 우화정에서 배를 띄워 징파강에 이르렀다. 신유한은 부(賦)를 짓고 홍경보는 기(記)를 지었으며 정선을 이를 그림으로 그렸다.⁴⁹⁾ 이 때의 그림이 정선의 「우화등선(羽化登船)」과 「웅연계람(熊淵繫覽)」이다.

신광수(申光洙, 1712~1775)도 연천현감을 역임하였다. 1771년(영조47) 9월에 부임하였다가, 그 이듬해 2월 나라에서 설치한 기로과에 응시하여 천하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가 연천에 있었던 것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뛰어난 시인이기에 연천의 산수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신광수는 대탄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48) 『靑泉集』 권2, 「午發澄波江」.

49) 申維翰, 『靑泉集』 권10 續集, 「年譜」

9월 연천에 이른 객이
 저물녘에 노새를 타노라.
 어느 고을에선가 물이 멀리서 오고
 양 강안의 단풍잎이 많이 지누나.
 가는 새 도성문에서 멀어지는데
 돌아가는 구름 관아에 비어 있네.
 배에서 홀로 아무 말 없는
 쓸쓸한 한 늙은 시인.

九月臨漳客
 騎驢返照中
 遠來何郡水
 多落兩厓楓
 去鳥都門迴
 歸雲縣寺空
 舟中獨無語
 衰寂一詩翁⁵⁰⁾

잠시 벼슬을 살려 연천에 이른 그이지만, 한적한 이곳의 풍광에 정이 끌려 오래도록 이곳에 서 살고 싶다 하였다.

징파강 강물이 맑아 모래바닥 보이는데
 태수가 새로 와서 우연히 성을 나선다.
 십리 아스라한 단풍숲길 뚫고 지나가니
 배 한 척에 가벼운 부절 차고 앉았노라.
 푸른 산은 소 탄 객을 즐겁게 하는데
 흰 새는 말을 모는 소리에 놀란다.
 흥이 일어 때때로 홀로 나서니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도 되겠네.

澄波江水見沙清
 太守新來偶出城
 十里穿行楓樹遠
 孤舟携坐印囊輕
 青山可悅騎牛客
 白鳥渾驚勸馬聲
 乘興有時單騎去
 不妨留與長年盟⁵¹⁾

1794년(정조 18) 겨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엽찰사의 임무를 받들어 적성·삭녕·연천 일대를 둘러보았다. 적성에서 지은 「봉지엽찰도적성촌사작(奉旨廉察到積域村舍作)」이 정약용의 대표작 중 한편이기도 하다. 정약용의 이 작품은 적성 지방 민생의 궁핍상을 사실대로 묘사한 것으로, 인근 마을인 연천도 이와 유사하게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통받는 민생의 구원을 염원하였던 정약용이기에 아름다운 산수 자연도 아름답게만 묘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50) 申光洙, 『석북문집』 권9, 「又大灘舟中」.

51) 申光洙, 『석북문집』 권9, 「又大灘舟中」.

푸른 골짜기 모래톱을 머금었는데
붉은 정자 바위 베고 서 있네.
그저 왕명을 받들어 왔지만
겸하여 즐거운 유람을 하게 되었네.
슬쩍 내린 눈 속 산에 붙은 집,
외로운 연기 속에 골짜기를 내려가는 배.
궁벽한 마을이라 근심 걱정 많으리니,
감히 이곳을 좋아하여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碧澗銜沙觜
紅亭枕石頭
聊因王賀職
兼作謝公游
小雪依山屋
孤煙下峽舟
窮閭有愁歎
不敢戀淹留⁵²⁾

정약용은 그 전에 허목의 우화정에 대한 기록을 읽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우연히 들른 우화정이 무척 반가웠던 듯하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날이 저물도록 풍류를 즐기고, 이때의 일을 「우화정기(羽化亭記)」(『여유당전서』 권4)로 형상화하였다. 이와 함께 쓴 것이 위의 작품이다. 우화정이 아름다워 공무로 온 김에 산천을 유람할 수 있지만, 궁핍한 백성들의 삶이 애처로워 차마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애민의를 보게 한다. 다음은 연천 관아에서 지은 작품이다.

푸른 산속 작은 고을,
거듭 오니 초겨울이로구나.
누각은 새로 동량을 갈았고
전원은 예전에 술을 심어 두었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은 명사가 많은데
아전들은 반이나 농사꾼이구나.
문옹의 남은 교화 있어서
눈물이 옷에 피죄죄 흐른다.

小縣蒼山裏
重游屬淺冬
樓看新改棟
園撫舊栽松
童學多名士
掾曹半老農
文翁有遺化
衣袖涕龍鍾⁵³⁾

위의 시에서 연천 관아의 모습을 담박하게 그렸다.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농사일도 함께 하는 성실한 아전을 보고, 그 아름다운 풍속이 전대의 수령들이 정사를 잘 베푼 결과라 하였다.

이상에서 연천 지역의 명승과 그 곳에서 제작된 문학 작품을 살펴보았다. 흔히 인물은 변화여도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산천조차 변하였다. 불과 100년 전의 아름다운 산천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앞에서 살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예전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2)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 「羽化亭」.

53)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 「漣川縣閣」.

IV. 현대 연천의 문학

손미(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수료, 작가)

1. 연천출신 문인

경기도 연천에서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 다양한 문인이 배출됐다. 연천향토문화발굴위원회에서 연천 문학의 우수성과 문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정, 작품집을 발간한 문인 중 연천 출신 문인은 김상용 시인, 김오남 시조시인, 곽하신 소설가, 윤모춘 수필가, 홍효민 소설가, 박희진 시인이며 연천에 묘소가 있는 문인은 한무숙 소설가이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천출신 문인들도 적지 않은데 문인에 대한 기준은 각기 상이하므로 생존해 활동하는 문인으로는 신춘문에 출신으로 추려 선정했다.

1) 김상용 시인 (1902~1951)

월파(月坡) 김상용 시인은 1902년 경기도 연천군 남면 왕림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김기환과 어머니 나주정씨 사이에서 출생했다. 1912년 연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입학하며 고향을 떠났다. 1919년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향인 연천을 찾았다. 이후 보성고등학교로 전학했고, 1921년 졸업했다. 이후 1922년 일본 릿쿄 대학 영문과에 입학해 1927년 졸업했다. 귀국 후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다음 해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이직한다. 1930년 동아일보에 시 게재, 1938년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인 『망향』 출간했다. 소설 『동경의 루』, 『무궁화』 등도 발표하면서 시인, 소설가, 평론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1948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유학하고 1949년 귀국했다. 1950년 9.28 서울 수복 후에 공보처 고문, 『코리아타임즈』 주필로 지내다가 1951년 부산에서 사망했다.

김상용은 시인보다는 산문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시 보다는 산문을 다작했다. 시집은 『망향』 단 한 권으로 그 중 김상용의 대표작인 「남으로 창을 내겠소」는 전원시, 고향상실의 서정성을 담은 시로 평가받고 있다.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만큼 생활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 시는 교과서에 실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文學』 2호(1934. 2) -

2) 홍효민 소설가, 문학평론가 (1904-1976)

소설가이면서 평론가인 홍효민은 1904년 1월 경기도 연천에서 출생했다. 홍효민은 청년운동가, 아동문학가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는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는데, 홍은성, 은별, 안재좌, 안좌, 안검호, 정복영, 흥훈, 강명, 성북동인, 효민학인이 그가 글을 쓸 때 사용했던 이름들이다.

1924년 동경의 세이소쿠학교(正則學校)를 졸업한 홍효민은 1925년 『조선문단』에 시 「고요한 밤」이 당선되며 문단에 나왔다. 같은 해 『매일신보』에 동화 「당나귀와 올상」이 당선되며 한 번에 시인과 아동문학가의 자격을 얻었다. 그 다음 해인 1926년 『개척』에 문예시평을 발표하면서 평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문학(朝鮮文學)』에 「문학의 사회적 성격」(1936.8), 「노문학(露文學)과 콜옹(翁)의 지위」 등을 발표하여 문학뿐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의 입지도 탄탄하게 굳혔다.

1927년에는 조중곤(趙重滾)·김두용(金斗鎔) 등과 문예동인지 『제3전선』을 발행하였으며, 1928년에는 시천교소년회의 기관지 『무궁화』를 발행했다. 이는 훗날 『신진소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6년에 발표한 역사소설 『인조반정(仁祖反正)』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 아동문학가,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글을 쓰며 사회에 참여했던 홍효민은 광복 후에는 애국주의문학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문학과 자유』, 『순수문학의 비판』 등을 저술했으며 동아일보·매일신보 기자 및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3) 김오남 시인 (1906~1992)

김오남은 김상용 시인의 누이동생으로 시조 시인이다. 1906년 경기도 연천군 남면 왕림리에 서 태어나 1927년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1930년 동경 일본여자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후 1931년 진명여고에 교사로 재직한다.

1930년 최남선, 이광수, 정인보, 이병기, 이은상 등과 함께 시작활동을 시작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1931년 「조선문단」에 시를 발표하며 데뷔한다. 1932년 『신동아』에 시조 13수와 「조선문단」에 시조 6수 등을 발표하며 이후 김오남의 활발한 작품활동은 시작된다.

1944년 진명여고 퇴직 후 1948년 수도여고로 옮겨 다시 교편을 잡는다. 1953년 첫 시조집인 『김오남 시조집』을 출간하고 1956년에는 『심영』을 1960년에는 『여정』을 출간한다. 1981년에 노산문학상을 수상한다.

김오남은 기존의 시조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인생의 무상을 쓰기도 했다. 단시조를 고집하며 자신의 시 세계를 구축했던 김오남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선구적으로 시작 활동을 펼친 시인이다. 김오남의 시는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⁵⁴

부귀(富貴)도 잊으리라 영화(榮華) 또한 바리리라
죽장(竹杖) 짚고 망혜(芒鞋)신고 팔황(八荒)의 객이 되어
부운혜(浮雲兮) 세상사리를 잊어 보면 하노라.
「소망(所望)」, 『시조문학』, 1966.9.

4) 광하신 소설가 (1920-2008)

광하신은 1920년 5월 20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태어났다. 김상용 시인의 외 조카로 어릴 때부터 문학수업을 받았다. 1938년 『동아일보』에 「실락원」이 당선, 1939년 『문장』에 「마냥모」, 「사공」을 추천받아 소설가로 데뷔한다.

1945년 12월 월간 『여성문화』를 발간하고 『조선일보』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공군 종군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6년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하고 1948년에 두통과 신경통 등의 투병으로⁵⁵ 중퇴한다. 그러나 11년만인 1957년 재입학해 이듬해 졸업한다.

소설 「여인의 노래」, 「무화과 그늘」을 연재했고, 「내 마음 바다 건너」, 「풍운의 성」 등의 소년소설을 발표했다. 소설집으로 『신작로』와 장편소설 「무화과 그늘」이 있다.

잡지 『희망』과 『조선일보』 편집자를 역임했다.

54) 이숙례, 『한국여성시조의 변모양상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55) 김양선, 「로컬, 룬펜, 경제적 인간, 광하신 소설의 세 좌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3호, 2020.

곽하신은 반근대 미의식을 구현하며 일제강점기 때 한글로 글을 쓴 세대이다. 또한 전후문학의 새로운 범례를 제공했다⁵⁶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박희진 시인 (1931-2015)

박희진은 1931년 경기도 연천에서 출생했다.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조지훈, 이한직의 추천으로 『문학예술』로 데뷔했다.

당시 삼엄한 계엄령을 뚫고 1961~67년 시동인지 『六十年代詞華集』(육십년대사화집)을 주도했으며 1975년에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계획> 과정을 수료하였다. 월탄문학상, 한국시협상, 상화시인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07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시집으로 『실내악』, 『청동시대』, 『빛과 어둠의 사이』, 『연꽃속의 부처님』, 『북한산 진달래』, 『화랑연가』, 『박희진 세계기행시집』, 『사행시 사백수』, 『소나무만다라』, 『이승에서 영원을 사는 섬들』 등이 있다.

박희진의 시는 자연, 종교, 사회, 연애, 민요 등 다채로운 세계관을 보여준다.⁵⁷ 자연과 역사의 묵직한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와 가락으로 담아낸 박희진 시인은 크고 넓은 붓으로 세계를 성큼성큼 넘나든다. 불교적 깨달음으로 세상의 민낯을 응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희진은 시낭송 운동을 이끌었다. 두 번째 시집 『청동시대』를 발간한 후 서울의 신문회관 대강당에서 '박희진 자작시 낭독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계속해서 시낭송 관련 공연을 하며 시낭송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이어갔다. 끊임없이 시작 활동을 이어가던 박희진은 2015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6) 윤모춘 수필가 (1923-2005)

1923년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에서 출생했다. 1945년 연천공립농업실수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직했다.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오음실주인(梧陰室主人)」 당선되어 문단활동 시작했다. 1984년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 1990년에는 동포문학본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정신과로 가야 할 사람』, 『서울 뿌꾸기』, 『발자국』, 『촌모씨의 하루』가 있고, 수필선집으로는 『서투른 초대』, 『산마을에 오는 비』, 『오음실주인』, 『실락원』이 있다. 수필이론서 『수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펴냈다.

56) 김양선, 위의 논문.

57) 이병현, 「전통서정시의 위상과 1950년대 박희진의 시」, 『大眞論叢』, 1993.

윤모춘은 고향 연천에서부터 고향을 떠난 후까지 개인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수필에 녹아냈다. 그가 쓴 글들은 개인의 기록이면서 동시대의 정확한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의 비극과 대한민국이 통과해 온 역사의 민낯을 고백의 형식을 빌려 집필했다. 윤모춘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쓰면서 내밀한 작가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꾸미지 않는 진실된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7) 원구식 시인 (1955-)

1955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서 출생했고 연천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975년 서울로 유학해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방법적 새로움과 삶에 대한 번득이는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 「탑」 당선되었다. 시집 『먼지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 『마돈나를 위하여』, 『비』 등을 출간했다. 원구식은 월간 『현대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간과 발행인이다.

8) 임영태 소설가 (1958-)

1958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출생으로 1991년 『한길문학』에 「바도마을의 저녁」을 발표, 1992년 『문화일보』에 「추운나라의 사람들」이 당선되어 문학활동 시작했다. 1994년 장편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문 밖의 신화』, 『비디오를 보는 남자』, 『달빛이 있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 『무서운 밤』, 『여기부터 천국입니다』, 『호생관 최복』 등을 집필했다. 『아홉 번째 집 두 번째 대문』으로 제1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했다.

2. 연천관련 문인

1) 한무숙 소설가

한무숙은 1918년 서울출생으로 부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무숙은 1942년 『신세대』에 『등불 드는 여인』 장편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43년에 조선연극회 현상모집에 희곡 〈마음〉, 1944년 희곡 〈서리꽃〉이 당선되면서 희곡작가로서의 길도 함께 걷는다. 1948년 『국제신보』에 『역사는 흐른다』 장편이 당선되었다. 장편소설 『빛의 계단』, 『석류나무집 이야기』, 『만남』 등을 썼다. 1956년 첫 창작집 『월운』 이후, 『감정이 있는 심연』(1957), 『축제와 운명의 장소』(1963), 『우리 사이 모든 것이』(1987) 등을 출간했다. 장편소설로는 『벗의 계단』(1959~1960), 『만남』(1984~1985) 등이 있다. 1992년 『한무숙문학전집』이 출간되었다. 수필집으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이 외로운 만남의 축복』, 『내 마음에 뜬 달』 등을 출간했다.

1957년에 단편 「감정이 있는 심연」으로 자유문학상을 수상했고, 신사임당상과 3·1문화상 예술대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한무숙은 몸소 겪어온 전쟁과 피난, 그리고 시대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인간과 여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소설로 담아냈다. 한무숙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작품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남편 김진홍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으로 부임했을 때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집필활동을 했다. 1993년 향년 7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현재 한무숙은 경기도 연천군에 묘가 있다.

3.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크게 다섯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쟁 후 접경지로서의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1962년 『최고회의보』에 발표한 안수길의 「불고기 냄새」와 1968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이범선의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접경지인 연천을 남과 북을 최접점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연천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고통의 공간으로 그려내거나(「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38선을 넘어 월남 혹은 월북하는 접경지로 그려냈다(「불고기 냄새」).

두 번째 특징은 군사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연천이다. 군사시설이나 군부대가 집중된 연천에는 그와 관련된 인물과 배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눈에 띈다. 2008년 『오마니별』에 수록된 김원일의 단편소설 「임진강」과 최수철의 「거절당한 죽음」은 군인의 신분으로 연천에서 경험한 것들을 회상하는 주인공이나 현재 연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이는 연천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연천에서의 경험 중 군복무, 군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특징은 연천의 치열했던 상처를 기억하는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다. 윤모춘의 「내 고향 소묘:무인지대로 변한 내고향 연천」, 고정현, 『진상리』, 임영태의 「전곡에서 술을 마셨다」, 류인복, 『민통선의 전설』는 진상리, 전곡읍 등 실재하는 연천군의 지명을 거론하며 작가들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러한 연천 출신 작가들은 연천을 통해 고향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고, 고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사건과 또 고향이 주는 직접적인 정서를 작품으로 남겼다. 마을 곳곳에 묻혀 있던 지뢰와 그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 확장기로 울려 퍼지던 대남방송, 수복지역의 사람들 등 연천에 살면서 경험했던 생생한 기억들을 작품 속에 그려 놓았다.

네 번째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홍명희의 『임꺽정』, 황석영의 『장길산』 등과 같이 연천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구월산, 금강산 등 북한과 경기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작품 속에는 철원, 강화,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이 등장한다. 넘나든다.

마지막으로 장소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은유적 상징 등이 있다. 연천 출신 작가 정소성의 『설향』에도 연천군이 등장하는데 연천군은 제목 그대로 설향(雪香), 눈의 고향으로 은유한다. 연천군에 집을 짓는 주인공과 연천군이 고향인 또 다른 인물,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연천군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기서 연천군은 멀고도 아득한 곳이자 물, 안개, 눈의 도시로 묘사된다. 또한 연천에 대한 각자의 감정과 지명을 은유한 시편들도 눈에 띈다.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접경지로서의 연천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가진 독특한 배경이며, 이러한 특징은 문학작품 속에서 시대적 무게를 제공하면서 시대적, 지리적 아픔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

1) 접경지

(1) 안수길, 「불고기 냄새」

안수길의 「불고기 냄새」⁵⁸⁾에 등장하는 연천은 38선을 넘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금주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북에서 38선을 넘을 궁리를 한다. 경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 남북의 왕래가 가능한 시기였다. 금주의 남편은 허약했고 불치의 병자라 군 소집에서 자유로웠다. 남편은 몸이 회복하자마자 열 살 된 아들과 함께 먼저 서울로 갔다. 금주는 남아있던 남편의 책을 정리한 후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평양에 있는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인사를 하고 연천역까지만 가면 비교적 수월하게 38선을 넘을 수 있다는 연속엄마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꾼인 척 연천역으로 간다. 연천 여관에서 만난 등짐장수들과 어린 딸을 데리고 한탄강을 건넌다. 한탄강을 건너고 산을 넘자 불고기 냄새가 밀려오고, 일행은 비로소 38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러는 동안에 차는 연천역에 닿았다. 삼팔선의 첫 관문(關門)이었다. 금주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았다.

연천에는 월남하는 사람과 등짐장수를 상대로 하는 여관이 있었다.

등짐장수들은 연천에서 여럿이 모여 일단(一團)을 만들었다.

58) 안수길, 「불고기 냄새」, 『최고회의보』 통권 7호, 1962.

(2) 이범선,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⁵⁹⁾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천 마을은 자탄리이다. 이 소설은 자탄리 탱크 사격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천은 전쟁이 휩쓸고 간 상처의 공간이자 좌절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연천읍에서 한 십리 떨어진 곳, 산기슭에 있는 그 마을은 자탄리-정작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그 마을은 스스로 탄식하는 자탄(自歎)임에 틀림없었다.” 정확하게 연천읍이라는 실제 명칭은 등장했으나 자탄리는 현재 연천군에는 없는 명칭이다. 장탄리, 차탄리 등은 현재도 사용하는 지명이었지만 자탄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배경이 연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작가가 밝힌 이 소설의 집필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범선은 연천의 탱크사격장에 방문했다가 파편을 줍고 있는 소년-소녀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데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 신망리 경찰서까지 연행된 경험을 썼다. 그때 취재 내용이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⁶⁰⁾

소설은 산기슭에 미군 부대 탱크 사격장에서 녹슨 쇠를 먹으며 폭탄파편을 주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연천은 분단의 접경지역이자 치열한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거기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쇠와 폭탄 등을 주워 생활한다. 희망 없는 주인공, 박동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돈을 모아 복순이를 데리고 신망리에 가게를 차려 사는 것이다. 신망리는 현재 연천군에 실재하는 곳으로 전쟁 이후 폭격으로 초토화되었던 곳을 미군의 원조로 가옥과 행정시설이 들어서면서 활성화되었다. 신망리는 ‘새로운 희망’⁶¹⁾이라는 뜻으로 당시 모든 것을 잃었던 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연천은 전쟁이 할퀴고 간 폐허이자 그 폐허 속에서도 삶을 연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하고도 암담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그런 그들은 어떤 날 서울을 떠났다. 일선지구로 가서 무엇이건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들어온 곳이 바로 지금의 그 탱크사격장. 산기슭에 토굴을 파고 살며, 동생은 한 오리 떨어진 정거장 거리 신망리(新望理)에 나가 여전히 구두를 닦았고, 동래는 고철상을 상대로 파편을 주워 팔기 삼년, 이제는 이 자탄리 사격장에서 몇 명 가운데 드는 멧팅구리군이 되었다.

59) 이범선,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현대문학』, 1968.2.

60) 이범선, 『숙제로 이뤄진 작품들』, 『현대문학』, 1971.8.

61) 『타운, 호프, 뉴 연천 신망리』, 2017 경기북부마을아카이브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2018.

2) 군사적 배경지

(1) 김원일, 「임진강」

1966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1961년 알제리아」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김원일의 소설 「임진강」⁶²⁾에 연천이 등장한다. 이 소설은 HID 북파공작원에 대한 이야기다. HID는 대한민국의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이다. 소설은 HID에서 공작원으로 같이 일했던 홍영규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내가 북한 출신 전사 김종호(김순영)에게 연락을 하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시작한다. 전쟁고아 출신에 호적도 없는 나와 홍영규는 무국적자였는데 첩보부대에 입대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입대 후 영화 '실미도'와 같은 훈련을 받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시간이 지나 복지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작원들은 홍영규의 장례식장에서 재회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연천군은 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북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으로 등장한다. “군사분계선이 임진강에 걸쳐진 지점”이 “연천군”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작전을 수행하려 이동하는 장면이나 북파를 위해 “지뢰밭을 피해 군사분계선 철책선 너머까지” 안내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 등은 연천이 육로나 강을 건너 북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긴장감 넘치는 초접경지로서의 연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홍민철을 만나기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초겨울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임진강변의 고랑포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연방사단 산하 호주부대에서였다.

우리 조의 일차 북파는 그해 6월 중순, 녹음기가 시작될 무렵에 이루어졌다. 우리 조는 인천대 선생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향리 쪽으로 이동했다. 하우스보이 시절 영규와 내가 있었던 고랑포 호주부대가 고향산에서 서남방향 아래쪽에 있어 그 부근 지방은 지리를 대충 알고 있었다. 셋은 그곳 대대본부에 대기 중이던 민간인 한 분을 소개받았다. 지뢰밭을 피해 군사분계선 철책선 너머까지 우리 조를 안내해줄 분이였다.

뒤에 안 일이지만 한반도 일대를 강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힌 태풍이 그때 마침 한반도 중부지방을 덮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강물이 불기 시작하는 임진강변에 도착했다. 군사분계선이 임진강에 걸쳐진 지점은 155마일 휴전선을 통틀어 연천군 황등면 호계리 부근뿐이었기에 우리 셋은 고무보트에 장비를 싣고 칠흙 같은 어둠과 빗발을 가르고 너울 센 강을 건넜다.

62) 김원일, 「임진강」, 『현대문학』, 2008. 1.

(2) 최수철, 「거절당한 죽음」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최수철의 소설 「거절당한 죽음」⁶³⁾에는 1980년대 말 경기도 연천 육군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는 최정우가 주인공이다. 사관후보생의 신분으로 그는 연천 포병대 막사에서 배치를 기다리는 중 외박이 허락되자 대학 후배인 최수영에게 연락을 한다. 연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녀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상기된다. 최수영은 인민군 포로로 월북하려다 사살된 아버지가 있다. 어린 최수영은 아버지 시체 옆에서 발견됐다.

이 소설 속 연천군은 김원일의 「임진강」에서 보여주는 밀도 있는 긴장감의 장소는 아니다. 주인공 최정우의 신분이 사관후보생이라는 점, 그가 기다리는 최수영의 아버지가 인민군 포로였다는 점 정도가 연천이라는 배경에 설득력을 더한다. 최정우가 최수영을 만나 “여긴 아직 전쟁 중인 것 같지 않아?”라고 묻는 장면 등은 작가가 소설 속 공간을 연천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듯하다. “아니 전쟁터라기보다 포로수용소 같아. 어디를 보아도 온통 철조망이야.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도 하나 같이 전쟁포로들 같고.”라고 답하는 최수영의 말에도 연천을 공간으로 선택한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작가에게 연천은 전쟁 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의 흔적을 안고 사는 “포로수용소” 같은 지역이다. 묘한 긴장감이 돌고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인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의 어느 가을날, 토요일 오후 5시경, 나는 경기도 연천군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앞의 삼거리에서 있었다.

뒤쪽 건물에는 ‘연천여관’이라고 세로로 쓰인 간판이 오른쪽 벽을 수직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이미 빈방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는 일단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3) 고향

(1) 윤모춘, 「내 고향 소묘:무인지대로 변한 내고향 연천」

연천 출신 윤모춘의 수필, 「내 고향 소묘:무인지대로 변한 내고향 연천」⁶⁴⁾은 세월이 지나 돌아본 연천에 대한 단상을 썼다. 여느 고향에 대한 단상들이 그렇겠지만 시간이 흘러 옛 모습을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다. 윤모춘은 고향을 한산한 지역이라 기억하고, 어머니의 품 같은 지역이라 평생 잊지 못할 곳이라 적었다.

63) 최수철, 「거절당한 죽음」,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2015. 12.

64) 윤모춘, 「내 고향 소묘:무인지대로 변한 내고향 연천」, 『北韓』, 북한연구소, 1989.

여하간에 내세울 자랑거리는 없어 灘江(탄강)이 限嘆江(한탄강)이 되었던 삼팔도선의 현장을 확인해 보는 일도 뜻이 있을 것이고, 叡谷(전곡)을 지나 전설이 얽혀 있는 才人瀑布(재인폭포)도 제법 알려진 곳이다. 나는 초등학교 소풍 때 가본 일밖에 없지만, 어디를 가나 산수가 맑은 곳이어서 그 시절에는 고작 아이들의 소풍 장소 구실 밖에 못하였던 곳이다.

중략-

고향 얘기를 하려면 누군들 자랑이 없고 끝이 있을까마는 인적이 드물던 漣川(연천읍)과 叡谷(전곡읍)도 지금은 옛모습이 아니다. 도회자화되어가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라고들 하나, 내 머리에는 어릴 때의 모습이 남아 그리워지게 할 뿐이다. 지난날 경원선 철도가 맥이 끊겨 漣川(연천)에서 얼마 안가서 막힌 일도 感傷(감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의 하나다. 판도가 달라진 행정구역도를 보게 되는 일은 그래서 나에게겐 더 마음 편한 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首丘初心(수구초심) 풀숲에 묻혀 있을 고향집 주춧돌과 더불어 나의 고향 漣川(연천)에 대한 생각의 뿌리는 그곳에 영원히 박혀 있을 것이다.

臨津江(임진강) 푸른 물굽이와 漢灘江(한탄강) 맑은 물줄기, 골마다 오염을 모르는 냇물이 흐르는 곳, 공기만 마셔도 살 것 같은 곳, 완충지대 속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恨(한)이 해를 거듭할수록 짙어져만 간다.

(2) 고정현, 『진상리』

연천 출신 작가 고정현의 소설 『진상리』⁶⁵⁾는 연천군의 수복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6.25전쟁 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는 북쪽 땅이었다. 전쟁 후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진상리는 남한 땅이 되었다. 북한이었다가 남한이 된 수복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마을만큼이나 기구하고 아픈 기억을 안고 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목격하고 경험한 지뢰사건으로 많은 지인들이 불구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점, 군남면 진상리와 왕징면 무등리를 왕래하던 통로로 이용된 화이트교에 대한 기억까지. 진상리에서 나고 자라며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소설의 형식으로 적어 나갔다.

예전 다리, 화이트교라고 불렀던 그 다리의 교각은 영화 콰이강의 다리를 연상하게 하는 목조다리였다. 그리고 북에서 내려오는 위험물질이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H빔 철 구조물을 삼각형으로 앞에 세웠던 다리였는데, 6.25전쟁 시절에 유엔군 장교가 다리 건설의 책임자로 있었기에 그 장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 전해 오는 다리였다.

65) 고정현, 『진상리』, 현자, 2022.

수복지구,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다. 해방이 되면서 미·소의 결정으로 삼팔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갈라졌고, 그 후 북한의 도발로 치른 전쟁에서 이북 땅이었던 이곳을 전쟁 후에 되찾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았다. 온통 군인들이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군인들이 많았던 것이다. 내가 자란 진상리에도 군인 가족들이 많았다. 세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군인 가족이었다고 해야 옳을 정도였다.

그 시절에는 진상리에서 학교가 있는 마을로 건너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했고, 그래도 낮에는 심하지 않을 정도의 검문이 있었으나 통금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만다. 내 후배의 아버지는 전곡에서 술을 드시고 늦은 시간에 다리를 건너다가 초병이 쏜 총을 맞고 다리를 다치셨으나 그 초병은 포상 휴가를 갔을 정도로 경계도 삼엄했으며 다리 이쪽과 저쪽에는 군인들 외에도 방첩대라 불리는 특수부대 군인들이 경계를 하는 곳이었다.

연천은 연천군의 중심이었지만 오히려 전곡이 더 큰 마을이었다. 극장도 군인극장과 일반극장 둘이나 있었고 시장도 더 넓고 가게도 많았으며, 인구도 더 많던 곳이었다. 연천은 전곡으로 나오는 길을 제외하면 북으로 올라가는 길 밖에 없는 지역인 반면, 전곡은 서울로 가는 중심도로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포천시로 가는 길과 문산을 지나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전곡이 더 중심이라할 만했던 곳이다.

수복지구, 육십 년대의 수복지구에는 고철이 많이 있었다. 밭을 갈다가도 고철이 튀어나왔고 산등선만 올라가도 전쟁 때 버려진 고철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전쟁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던 탱크도 버림받은 채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기도 했다.

(3) 류인복, 『민통선의 전설』

경기도 연천 출신 류인복 수필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수필집 『민통선의 전설』⁶⁶⁾에서 연천에서의 기억을 집필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울려 퍼지던 대남방송에 대한 기억, 대남방송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시계가 없는 마을에서는 시계 역할을 할 정도로 제시간에 방송됐다. 1부는 어릴 적 고향에 대한 추억, 2부에서는 젊은 시절의 초상 등 연천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개인의 기억을 담은 수필은 그 시절, 연천의 모습과 연천 사람들의 생활까지 엿볼 수 있어 개인의 기록이자 지역, 그리고 시대의 기록이라 볼 수 있다.

66) 류인복, 『민통선의 전설』, 부크크, 2020.

(4) 임영태, 「전곡에서 술을 마셨다」

「전곡에서 술을 마셨다」⁶⁷⁾는 연천 출신 임영태의 단편소설이며, 철저하게 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는 임영태의 자전적 소설로 주인공인 ‘나’는 글이 안 써질 때마다 고향인 전곡을 찾는다. 그곳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석’을 만난다. 소설에서는 화자가 가진 전곡에 대한 기억, 그곳에서 불러오는 문학적 감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화자는 전곡에 가 옛집을 둘러보고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그리고 한탄강에 가 새로운 다리가 놓인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오랜 기억 속에 남았던 전곡과 지금 다시 찾은 전곡 사이의 달라진 풍경을 낯설게 경험하고, 묵혀두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한탄강에 있었던 검문초소까지 걸어갔다 오면서 가슴이 저릿해지는 경험을 한다.

“작가에게 유년 시절, 유년의 땅이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흔히들 말한다. 생의 최초의 떨림, 욕망, 상처, 동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원색의 빛깔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당연히 전곡이 그런 땅이다. “독점”이라고 부르던 가마터 쪽대기에서의 연날리기, 군인극장의 단체 영화관람, 철길 아래 유곽의 화장 질은 누나들, 한탄강에서의 물놀이, 그 강물에 빠져죽은 아이의 집에서 진오귀 굿판이 벌어지던 날의 서글프고 무서웠던 기분… 전곡의 이런 모든 기억들이야말로 내 정서의 심연이며 내 실존 의식의 근원일 것이 분명하다.”

“사실 전곡에서 내 하는 일이란 게 늘 그런 식이었다.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방을 잡아 놓고는 낮시간 내내 무슨 성지 순례자처럼 전곡의 곳곳을 살살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어둑해지면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잔뜩 취기를 채워 넣고는 설익은 건달처럼 휘우청거리며 여인숙으로 귀가하는 게 내 전곡 여정의 전부였다.”

(5) 원구식, 「연천으로의 몰입을 위해선 낯은 경원선이 필요하다」

연천 출신 시인 원구식의 시, 「연천으로의 몰입을 위해선 낯은 경원선이 필요하다」는 연천에 시인의 기억을 담아낸 작품이다. 시인은 학창시절, 경원선을 타고 연천에서 서울을 오가며 경원선 화물칸에서 인생을 배운다. 그즈음 경원선은 시인의 유일한 창구였다고 쓴다. “시인에게 연천은 나고 자란 고향이지만 그만큼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다. 낯은 경원선을 매개로 고향 연천으로 이어지는 기억의 접합술은 덜컹거리는

67) 임영태, 「전곡에서 술을 마셨다」, 『무서운 밤』, 2003.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다.”⁶⁸⁾

나는 가끔
낮은 경원선처럼 덜거덕거린다.
이미 퇴출당한 이 열차는
경원선보다 후진 노선에서
아직도 덜거덕거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갑자기 말을 더듬고
행동이 어눌해지며 덜거덕거리는 것은
순전히 이 열차 때문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이 열차의 화물칸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
처음으로 연애를 했고
담배를 피웠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병적으로 싸움에 몰두했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연애는
순식간에 끝났지만
나는 꽤나 진지했었다.
열차 안에는 많은 아주머니들이
단속원들의 눈길을 피해
과일 행상을 했는데
그네들은 한결같이 친구들의 어머니였다.
<절망에 기초하지 않는 삶은 없다>
이것은 그때 어머니들이
내게 일러준 삶의 교훈이다.

어리석게도 나는
덜거덕거리는 이 열차가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비상구였음을
깨닫지 못했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68) 이재훈,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자유인」, 『현대시』, 2016.3.

꿀떡거리며
 싹싹이처럼 열차를 주름잡았지만
 어머니들의 불쌍한 눈길이 없었던들
 내 삶은 일찍이 끝났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내리는
 늦은 저녁의 연천이 싫었다.
 노모가 기다리는
 왜소한 내 정체가 순식간에 드러나는
 연천이 나는 무조건 싫었다.
 머리 속은 온통
 익명으로 존재하는 경원선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낡은 경원선처럼 덜거덕거린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본능적으로 몰입하는 연천엔
 물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직도 살아 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특별한 밤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던 눈물의 정거장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눈을 뜨고 있다.

『열린시학』, 2010.06.

4. 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배경

(1) 홍명희 『임꺽정』, 황석영, 『장길산』

『명종실록』 27권에 남은 임꺽정 기록을 보면 임꺽정과 장길산의 배경이 되는 곳은 황해남도 구월산 줄기, 황해북도 언진산 줄기다. 한탄강의 고석과 감악산은 임꺽정이 머물고 활동했던 곳이다.⁶⁹⁾ 홍명희의 『임꺽정』과 황석영의 『장길산』은 의적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경기북부지역이 주 무대가 되고 있다. 『임꺽정』은 1928년 11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조선일보에 발표된 작품으로 채 완성되지 못한 미완이다. 『장길산』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10년 간 『한국일보』

69) 김석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이 거닐던 북녘땅」,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

에 연재된 대하소설이다. 장길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구월산, 금강산 및 경기지역 일대로 연천군은 작품 속에 일부 배경으로 등장한다.

강이 바라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니 임진강의 지류로 흘러들어가는 제법 너른 시내가 나왔다. 밝은 햇살을 받아 바닥에 깔린 자갈이 탐스럽게 비치는데 물 흘러내려 가는 소리가 귓전을 말갭게 씻는 듯하였다, 마을의 이름은 그대로 옥계(玉溪)였으니 물소리가 사방에 배어있는 듯하였다. -『장길산』 6권

강은 연천 영평을 지나 서남쪽으로 굽이쳐서 파주 문산포에서부터 조수와 만나면서 임진강 하류를 형성하였다. 대탄은 영근산(嶺斤山) 일대와 산내(山內)를 좌우에 두고 남쪽으로 거의 읍에 이르기까지 뻗어간 초촌내(哨村川)에 닿아 있었다.

- 『장길산』 9권

연천 삭녕이 임진강 북로 징파강을 통하여 지척이니 장포 사람들은 모두가 삭녕계에 속합니다 마침 그곳 법회의 상좌 되는 이가 여기 전거사로 오늘 출행의 귀로에 송우에 들르게 되었으니 인연이 든든합니다. - 『장길산』 10권

감악산은 풍수로 살피도 그 조종(祖宗)이 귀하고, 그를 둘러싸고 호종하는 산이 두텁고, 앞뒤가 상응(相應)하고, 봉우리가 단정하며, 한탄강의 푸른 물을 굽어 보니 징파와 합수(合水)되어 복룡(福龍)이 되는 셈이라, 예로부터 송도의 덕물산과 더불어 성산(聖山)으로 알려져왔다. - 『장길산』 10권

그들은 연천에 살았다.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미륵도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시내비골의 이용남 임기동 방승남 방의천 등등은 연로한 신도들의 모임을 끌어내었다.

- 『장길산』 11권

(2) 이태준 「촌뜨기」

강원도 철원군 출신 작가 이태준의 「촌뜨기」에는 안악골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안악골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첫 동네라는 뜻으로 하늘과 가까운 높은 동네이다. 그곳에서 사는 장군이는 화전과 숲 굽기로 연명하는데 그것이 불법이 되면서 범죄자가 된다. 장군이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나오면서 안악골을 벗어나고자 한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안악골은 현 연천군 신서면이다.⁷⁰⁾ 현재 철원에는 촌뜨기 길이 조성되어 있다. 「촌뜨기」는 1934년 3월 『농민순보』에 발표하며 세상에 나왔다.

70) 박덕규, 이은주, 「분단 접경지역 문학공간의 의미」, 『우리文學研究』, 2014.

요즘 와서 안악골 동네는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봄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 먹고, 가을엔 멸구 다래나 하고 도토리나 주워다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5) 그 밖의 연천배경

(1) 정소성 『설향』⁷¹⁾

『설향』은 임진강 상류와 한탄강이 교차하면서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경기도 연천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현우는 친구 태현을 위해 연천에 집을 짓는다. 소설에서 연천은 접경지로서의 긴장감은 그려지지 않는다. 소설 속 연천은 작가의 은유적 공간으로 “겨울에는 지독한 눈구덩이 속에 파묻” 히고 “물과 안개와 눈의 고장이다.”

화암사지를 떠나 약 3,4십 분을 북상하니, 연천군 경계 표지판이 나타났다.

나에게 연천군은 가보고 싶었던 미지의 땅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친구 태현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태현과 같은 기이하고 신비스럽고 특출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까 나는 늘상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 나도 모르게 믿고 있었다. 나의 이러한 선입관 탓이었을까, 군 경계의 초입부터 심상치 않았다.

동쪽 철원지역에서 흘러온 한탄강이 서북쪽에서 흘러온 임진강과 합수하고 있었다. 거기에 질펀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방갈로들이 들어서 있었고, 가끔 가다가는 좋은 시설의 관광호텔과 식당이 즐비하고 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탄강 유원지인 것 같았다.

이 깊은 내륙지방에 2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 지방의 지형과 지질을 잘 관찰하면 이해할만한 일이다.

38선이 지척인 곳에 국립관광단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기야 연천군 전체가 남쪽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6.25 전에는 전부 북한 땅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수복된 것이 아니고, 북서쪽 3분의 1정도는 북한에게 먹혀 있다.

임진강의 발원지가 북한 땅이라 자주 말썬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천군에는 두 개의 읍이 있는데, 남쪽 군 경계선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전곡읍이고 한 30리 정도 북상하면 연천읍이 있다.

연천읍에는 군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철원용암대지에서 발원한 차탄천과 아미천이 흘러내려온다. 이 두 강들은 연천에서 한탄강에 유입되어 임진강으로 흘러든다.

71) 정소성, 『설향』, 시와 에세이, 2012.

이 용암대지 북쪽에는 광주산맥과 마식령산맥의 지류가 흐르고 있어서, 산세가 험하고 고대산 지장봉, 보개산 향로봉 등 해발 800미터 이상의 험준한 산들이 버티고 있다.

남한과 북한을 지형적으로 이분하는 지질상의 특징이 이 지역을 남류하는 추가령지구대인데, 길고 낮은 골짜기가 달리고 있어 옛날에는 경원가도로 불리던 곳이다.

산이 높은가 하면 지구대가 달리고 있고, 강들이 높은 산악에서 발원하여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고, 강변에는 그런대로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려 시대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통해 수로가 발달하여 수도 개경에서 궁예의 왕국이 있는 철원까지 배가 떠다녔다고 한다. 개경이 본거지였던 왕건은 이 수로를 이용해서 철원으로 내왕했다. 이것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의 원찰이 임진강 연천 북안에 자리 잡은 이유이다. 그것을 계기로 고려의 신하였던 조선 태조가 여기에 고려 왕실의 7왕을 모신 제전인 승의전을 지었다. 지금도 승의전은 많은 세월의 풍상을 이기고 서 있고, 왕씨 종친회에서 일 년에 두 차례 제의가 치러지고 있다.

나는 떠들거리는 영어로 미라 역시 떠들거리는 불어로 이 지역의 역사적 지질적인 특징을 손으로 가르쳐가며 알랭에게 설명하였다. 말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명사만 늘어놓아도 알랭은 금방 알아차렸다.

승의전 가까이 위치한 목은 이색의 영정을 모신 목은영당에 잠시 들렀다.

연천을 향해 다시 북상하면서 앞으로 시선을 던지나 저 멀리 높은 험산들이 시야를 막았다. 거기에서부터 추가령지구대가 남으로 이어지고,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차탄천과 아미천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들은 군의 남역에서 합수하여 서남쪽으로 방향을 튼다.

저 산들의 연봉과 강들이 뿜어내는 정기가 나의 머리와 가슴 속으로 밀물처럼 흘러들었다.

“현우야, 보통지역이 아니야. 어느 지역이나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여기 연천 전곡은 좀 대단한 것 같아. 오죽하면 이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 주먹도끼가 나왔을라구. 아시아 처음이래.”

나는 눈구덩이를 헤치고 철원 포천을 거쳐 연천으로 왔다. 연천 지방에도 폭설이 내려 거의 모든 도로가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다.

연천군은 지독한 산악의 지역이지만, 임진강과 한탄강이 시내 한복판에서 합수하고 동북방 산악에서 연원하는 아미천과 차탄천도 시내에서 합수하는 물의 도시이다. 그 탓으로 이 도시는 여름에는 안개에, 겨울에는 지독한 눈구덩이 속에 파묻힌다. 물과 안개와 눈의 고장이다.

6) 연천 배경 시들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시 작품 중 일부를 발췌했다. 지금까지 한국문단에서 출판된 시집을 모두 찾는다면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은 더 많을 것이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일부의 시편만 신는다. 이후 연천 배경의 문학작품은 더 추가되고 발췌되어야 한다.

연천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은 대체로 연천의 지명을 차용한다. 초성리역, 연천역, 신탄리역, 도감포 등과 같은 지명이 대부분 등장하고 거기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서정시와 지명과 특징을 은유해 감정을 이입한 작품 등이 특징이다.

이태순, 「초성리역」

아주 작은 간이역, 기차가 지나간다
대합실 나무의자 위 익숙히 앉은 고요
늦가을 초성리역엔 사람냄새 그림다

바람은 심심풀이로 문틈을 들락거리고
산 너머 낡은 외딴 집 안부가 궁금한 날
담장 안 키 작은 꽃이 묵묵히 지고 있다

갈잎 걸친 계절은 철로를 밟고 가고
나 또한 축축이 젖어 갈 길을 서두를 때
손잡은 계집아이들 단풍처럼 불이 붉다

이채민, 「연천역」

여섯 살
최초의 이별이 펄럭이고
여섯 살
최초의 그리움이 고여 있는

꿈속까지 흘러든
따개비 같은 슬픔이
아직도 곳곳하게 심겨져 있는

무엇도 걱정할 수 없고
무엇도 뿌리칠 수 없었던
여섯 살

천 번의 울음으로 짜여진
엄마, 그리운
구절초 문살이다

-『까마득한 연인들』, 현대시학, 2022.

김석, 「12. 한탄강 그리고 여자」

논과 발이 △△랑가
논과 발이 △△랑가

우리는 가을이 절정으로 내리는 길을 따라
가끔 사람들의 정체되는 길을 따라
한탄강 돌밭까지 흘러갔었지
내 본래 이름 끝자가 씹어볼수록
맛깔나겠다는 한 여자와
내 친구 囊中에서 솟아나는 듯한
노래를(?) 좋아하는 또 한 여자
예전에는 맑고도 급한 여율이
탕탕하게 흘러갔다는, 지금쯤은
한탄강 가을맛이 물에 젖어 잘 익었으리라는
靑山 자살바위 아래다가 닳을 내렸지

그날 우리가 정박한 한탄강은 물이 없었지
가을 가뭄으로 질척거릴 정도의 강바닥
흐름도 멈춰버린 강물은 검푸른 이끼만
무성하고, 위에 드리운

우람하고도 검붉은 자살바위는
그림자마저 마르고 없었지

예전에는 맑고도 굵이치는 물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흘러갔었다는, 그래서
우뚝 버틴 바위의 황홀한 그림자에
사람들은 億章이 무너지는 슬픔을 품고
뛰어내렸다는, 그런 뒷날 아침이면
물살은 더욱 빠르게 흐르며 울었다는, 전설의
진주 남강 축석루가 물길이 막히듯, 이곳도
큰 물줄 잡아 댐을 막고부터
자살했다는 소문이 가뭄에 콩 나듯도
하지 않는다는
이끼에 절어 음산한 자살바위 밑에서
우리는 뗏을 확인하면서 술을 마셨지

내 본이름 끝자를 안주삼아
술을 입에도 댄 줄 모르는 한 여자와
친구의 불알(火卵) 속에서 솟아나는 듯한
노래에 잠 못 이룬다는 또 한 여자와
그날은 바람이 불고 물은 더욱 메말라
강바닥까지 흙모래만 일으켜 지나갔지
바람 속에서 검붉은 청산의 자살바위만
덩그렇게, 내 이름자
끝날 꽃대궁처럼 하늘 향해 솟아 있었지

내 짝이 될 뻔했던(?) 여자는 얘기했지
井邑의 허연 허벅지 같은
달이 떠오르는 밤길, 걷기가
조금은 외진 곳이 고향이라 했었지
몰라도 井邑詞 속의 여인도 이 길을 걸었으리라는
남자를 마중 가는 밤길 여자의 속가슴을
한번 헤아려 맞춰보라는 듯이
나에게 웃음을 던지며 얘기했지

얘기 속의 여자의 남편은 낫농사나
밤짓 또한 그럴듯했다 했지
건장했던 남편은 앓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버렸다 했지
 손윗동서의 잠시 눈물 섞어 위로하는 말은
 논과 밭이 그래도 많으니
 논과 밭을 보면서 살라는
 손윗동서 지나가듯 위로하는 말을 받아
 사십 초반 아랫동서는 목을 놓았다 했지
 논과 밭이 ▽▽랑가
 논과 밭이 ▽▽랑가
 논과 밭이 ……………

남자 조문객들이 듣거나 말거나 꺼억꺼억
 눈물과 콧물을 버물러, 그녀는
 남편의 관을 끌어안고
 냇을 놓고 울었다 했지

그녀의 남편이 땅에 묻히고, 가을걷이가
 끝났는데도 노래는, 마을에서 마을을 따라
 처녀시절 그녀들의 귓속까지
 흘러들었다 했지, 겨울이 가고
 봄달이 잘 익은 어느 밤인가 여자는
 핏덩이 하나만 달랑 업고서
 훌쩍 어디론가 흘러갔다고 했지
 친구와 나는
 마른 바람 지나가는 강가에 앉아
 거나해진 술김으로 웃었지만
 물씬거리는 그리움 섞어 읊어가듯 얘기하는
 혼자서 살아가는 몇 번인가 뻥(!)했던
 여자의 설움 깃든 말의 뒷맛과
 한탄강 언덕의 마른 잎들이
 하나둘 시나브로 내리고 있었지

그날 친구와 나는 한탄강
 마른 돌밭 거닐다가
 친구는 이곳 특유의 거칠은 듯 바탕에
 이끼 말라붙는 검고 붉은 골짜기
 끝부분 가서 구멍 있는 溼石을 한점

나는 잘 磨耗된 검고 윤기 넘치는
그곳에 꼭 들았은 男根石 한점

애기 뭉이라며 여자의 두 손에 안겨주었지
내가 건네는
매끄러운 돌 하나를 감아주는 여자
같은 그만큼 웅긱하고
넘치는 눈빛 열어 돌을 받는 여자
그녀는, 없음 그대로 들내지 않고
같함 그대로를 조금은 목말라하면서도
마음 걸어 살피면서도 넉넉했던 여자였지
우리가 만난 두 여자는
피나지 았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지만
외로움으로 더욱 넉넉했던 여자들이었지

돌아오는 길까지 마른 밤바람 하늘 오르고
서북 서울 하늘의 어둠 속에서
붉고 푸른 가로등이 흘러가고 있었지
聖之淸의 사나이 柳下惠*는
끼있는 과부와 밤을 나면서
천장 향한 배꼽 한번도
구겨짐 았었다는데
 눈과 발이 ×× 량가
 눈과 발이 ×× 량가
井邑의 밤길 걸어오는 두 남자, 우리는
몸이나들 한번 우리
풀어버리고 가자고들
붉고 푸른 등이 한마당 가득한 곳

그날 두 여자의 대답은 한결 같았지
웬일인지 우리가 건넨 하나의 陽石과
이끼 마른 淫石을 받은 뒤부터
오랜만에 한 여자의 계곡에 불이 오르더니
달이 비쳐오기 시작했다고
확인 한번 해보겠느냐고

잠시 가을 밤길 하늘에는
달이 없어서
두 남자는 길을 한번 헛돌고
정지했던 우리들의 차는, 천연스레
사람들의 뒤를 따라 서울로
흘러들고 있었지

* 중국 상고시대 성인으로 여자에 초연했던 사람

- 『현대문학』, 1994.1.

오령, 「눈 오는 날의 신탄리역」

하늘이
세상의 온갖 남루한 것 모두 덮어버리자고
흰눈을 쏟아붓는 날이면
우리는 무작정 신탄리역으로 간다.

분분한 눈발 속에
작은 대합실의 희미한 불빛하나
너울너울 흔들려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경원선 꽃기차가
예나제나

눈 오는날의 정취에
흠뻑 빠지고 실은 사람들 가득태우고
눈길은 들녘을 휘이휘이 달려오고 있다 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신탄리역은
단박에 터져버릴지 모른다고
걱정걱정하며
우리는 무작정 신탄리역에 서 있다.

이재성, 「신망리에 가면」

도시를 떠나
통일호에 몸을 싣는다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는
도원경

향기로운 산나물은
손길을 유혹하고
산새들은
풍류를 즐기잔다

무언의 교감으로
보이지 않는 행복
그 누가 알랴.

- 『월간문학』, 2004.12.

이돈희, 「도감포에선」

삼각주 모래톱에 앉아
낮선 두 물이 웃으며 만나는
정겨움을 봅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우리 서로 지나온 길은 달라도
“서편으로 가야 큰물이 된다”는
어미들의 말을 되새기며
이제 한 몸이 될 반가운 인연이라는
상견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현무암 수직 절벽에 걸린
계절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지평선 같은 마포리 꽃답벌
갈대들에게 눈인사하고
서편 창해로 가는 큰물에게
손 인사를 해줍니다.

강 건너 동이리 백사장에
기도하듯 서 있는
하얀 새들은 자유를 먹고 살아 갑니다

크고 넓은 독안 같은 도감포都監浦에선
수면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보다 낮은 몸짓만이
참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래톱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낮별이 내려와 가슴에 안기는
꿈도 꿈니다

* 도감포 : 한탄강과 임진강 합수점. 옛 포구 전곡읍 마포리에서 미산면 동이리 앞의 강폭이 좁아
지는 지점까지의 지형이 항아리를 닮았다고 함.

이돈희, 「불탄소」

옛날부터 전해오는
강물의 이야기
여기
명주실 한 꾸리를 다 풀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수굴이 있다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세찬 소용돌이
음험한 수굴에서
용이 도지 못한 한을 품고 사는 이무기
어느 날 허기를 느껴

강 건너 풀밭에 소 한 마리
고삐만 남기고 삼켜버렸다는
무시무시한 설화8월 햇살에도 속내를 보이지 않으려
검푸른 수평 장막을 치는
“불탄소” 섬뜩하네
이방 나그네의 전신에 소름이 돋네
이 깊은 수굴에 승천의 날을 기다리며
한 마리 이무기 지금도 은둔하고 있을까

* 불탄소 : 연천군 고문리 농업용 양수장 부근에 있는 깊은 소.

- 『한탄강의 노래』, 한국문연, 2011.

신광순, 「통현국민학교 그네」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한 구석
내 유년의 꿈을 그리도 어지럽게 흔들던 그네
더 이상 흔들 어린 꿈이 없어 줄고 있네. 주인 잃고
꿈도 잃고
미래도 없이
알 수 없는 바람이 가끔 그를 흔들 뿐이다.

*통현국민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해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 그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은 모두가 병어리였고, 주민은 장님이었다. 문화란 그것이 아니다. 꿈이란 그것이 아니다. 교문에 못질은 할지언정 졸업생의 가슴에 못까지 박지는 말아야 했다.

- 『땅을 위하여』, 088Y, 1993.

신광순, 「호미」

연천읍내 장터 대장간
짚막한 쇧덩어리 하나
플무불속 들락거리며
작은 몸 시뻘겁게 달구어지면
역센 팔뚝 대장장이에게

늘씬나게 두들겨 맞고
 탁한 물속에 들어가 몸서리치다
 적당한 모양새 만들어지면
 부지런한 농부 손에 쥐어진다. 보가산 기슭 흙을 긁어, 자갈밭을 긁어
 역센 풀포기 끌어올리며
 뽕족한 날 뭉그러질 때까지
 닳고
 닳아야만 한다.

- 『땅을 위하여』, 088Y, 1993.

김재석, 「연천- 序詩」

한국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물장구치고
 마음대로 물수제비뜨도록
 3개 사단이 지키고 있다

물장구치고
 물수제비뜨도록
 3개 사단이 지키는 곳은
 연천이 유일하다

물장구와
 물수제비를
 마음대로 치고 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물장구와
 물수제비를
 마음대로 치고 뜨지 못하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물장구치고

마음대로 물수제비뜨도록
3개 사단이 지키고 있다

-『연천 - 태풍전망대』, 사의재, 2019.



제 6 장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I. 교육

II. 종교

III. 체육생활

IV. 지역 문화예술 및 활동

집필

이우형(한강역사문화연구소 소장)

I. 교육

1. 연천 교육의 시작과 변천⁷²⁾

1) 삼국·고려시대의 교육

전통시대 연천 지역의 교육은 향교나 서원·서당 등 옛 교육 기관의 모습과 문헌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물론 교육 행위는 정식 교육 기관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문자 사용과 함께 교육 형태도 제도화되어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비록 그 구체적 실상을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이는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교육제도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연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삼국시대는 국가 제제가 정비되면서 교육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인 시기였다. 삼국시대 교육 목적은 중앙 집권적 관료 정치 체제의 확립 및 지배 계급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과,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용맹한 장군 및 병사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이 시기 교육에는 불교와 유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이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특히 372년(소수림왕2) 고구려에서 설립한 태학(太學)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교육 기관으로 지배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학이었다. 귀족자제가 입학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경학(經學)과 문학 및 무예로 지배자로서의 지식과 무용을 가르쳤다. 지방에는 지방 호족이 설립한 사학 기관인 경당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지방 평민의 미혼 자제가 입학하여 경전(經典)과 궁술(弓術)을 중심으로 심신을 연마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중국과 교섭이 빈번하였으므로 직접 그 문화를 받아들여 자체 문화를 발전시켰다. 비록 문헌에 나타난 교육기관은 없으나, 374년(근초고왕29) 박사 고흥(高興)이 백제의 역사책인 『서기(書記)』를 편찬한 사실, 그리고 역박사(歷專士)·의박사(醫博士)·오경박사(五經博士) 등의 제도가 있어 항상 일본에 초빙되어 갔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백제에도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문화 발전이 뒤쳐진 나라였다. 북쪽 고구려의 위협과 서쪽 백제

72) 본장 교육편은 지난 2000년에 발간된 『연천군지』의 내용 가운데 당시 해당분야 집필자인 홍순석(강남대 교수), 성기욱(전곡초등학교 교장)의 개괄적인 본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오류와 변동사항, 추가해야 할 내용을 선별하여 윤문, 보완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의 침략 상황에서 방어와 공략에 필요한 단결과 인재 양성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 결과 화랑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화랑도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라에서 정식으로 교육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로, 682년(신문왕2)에 국학(國學)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651년(진덕왕5) 박사·조교 약간 명과 대사(大舍) 2명으로 교육을 맡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학과 비슷한 교육기관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학은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환원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는 주로 화랑도 교육을 통하여 인재 양성과 등용이 이루어졌으며, 통일신라에 와서는 당의 학제·교과목 등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유학 보급에 따라 정치·사상적으로 유학의 비중이 커진 반면, 골품제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유학 교육의 위치는 더욱 공고한 기반을 다져갔다.

고려는 삼국 이래의 교육 전통을 계승하면서, 초기의 집권 정책과 결부된 정치·사회적 변혁에 따라 교육 정책 역시 변모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비되었다. 개국과 함께 일관되어 온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유교식 교육이 학교 설립으로 구체화하였다. 광종 때에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배질서 확립 일환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국초 이래 유교 이념이 현실적 교육 정책으로 정착되어 제도화된 것은 성종 때이다. 성종 때에 설립된 국자감(國子監)은 고려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국가의 유교적 이념과 결부하여 교육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였다. 또한 986년(성종5)에는 유경학생(留京學生)들을 귀향시켜 공부하게 하였으며, 전국의 12목(牧)에 경학박사·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을 육성하였다. 이는 향호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 독자적 학교 교육을 중앙 통제하고 흡수하는 동시에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교육 제도는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학으로는 중앙에 국자감과 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으며, 사학으로는 십이도(十二徒)와 서당이 있었다. 그중 십이도는 사학이면서 국가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비서원(祕書院)·수서원(修書院)과 같은 일종의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립 최고 학부인 국자감은 992년 개경에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종합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 등 6학이 있는데 각각의 입학 자격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규정하였다. 교육 내용은 『주역』·『상서』·『주례』·『예기』·『모시(毛詩)』·『춘추』·『좌씨전(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을 각각 1경(一經)으로 하고, 효경과 논어는 필수 과목으로 한 것으로 보아 국자감의 교육 목적은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한 관리 양성인 동시에 유교적 학문연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鄉學)의 시초이다. 1127년(인종5) 여러 주(州)에 학교 설립 조서를 반포하고, 각 군현에 학교를 설립한 사례로 보아 이 시기 향교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에는 공자와 선성(先聖) 선현(先賢)을 제례하는 문묘와 교육을 실시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있어 선현배향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였다. 고려 때 향교 교육은 지방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의종 이후 극도로 쇠퇴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지방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는 학당이 있었다. 학당은 교육 정도에서 향교와 유사하나, 향교가 교육 기관인 동시에 문묘제례 기능을 가진 데 비해 학당은 문묘가 없이 교육만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한편 사학인 십이도(十二徒)는 중앙관학인 국자감과 비슷한 비중을 갖는 교육 기관으로 12개의 사학으로 되어 있다. 교과목은 국자감의 범주에 따라 삼사오경 및 제술을 주로 하였고 실천 윤리를 앞세웠다. 이에 과거에 응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고려 교육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1391년(공양왕3)에 폐지되었다.

지방 서민 교육 기관으로 존재했던 서당(書堂)에 관한 기록은 송대 서경(徐競)이 저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찾을 수 있다. 인종 때 길거리에는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두세 집 건너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 자제가 무리로 경(經)을 배우고 아래로 졸병이나 어린아이 까지도 향(鄉)의 선생에게 배운다는 기록에서 고려시대 서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시대는 유교가 정신적인 지표와 교육 이념의 중추를 이루었다. 이에 기초한 유교 교육은 일반 서민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것으로 주 대상은 사대부층인 양반 계급으로서, 관직 진출이나 개인적 수양을 위한 교육에 치중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경전 중심의 인문 교육을 숭상하고 실업 교육을 천시하여,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배타성이 깊이 내재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유학 교육은 그 자체가 생활규범화되어 전 국민에게 도덕적 윤리관을 심어주었으며, 유학자들의 깊이 있는 학문 체계는 우리나라 교육 사상 및 정신문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근거로 한 조선시대의 교육 제도는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고등기관으로 성균관(成均館)이 있어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 수준으로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으며,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書院)과 초등 시설 교육기관인 서당(書堂)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지방 교육 담당 기관이었던 향교·서원·서당을 중심으로 연천 지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향교

향교(鄕校)는 지방의 양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관립 교육 기관이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지방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중등 정도의 교육 기관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부터 크게 장려되었다. 이후 부·목·군·현에 각각 향교 하나씩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교수 혹은 훈도를 파견하게 되었다.

향교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 대성전과 동서 양무, 명륜당과 동서 양재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기능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성현에 대한 향례와 유생 교육 및 지방민 교화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양로연(養老宴)·향음주례(鄕飲酒禮)·향사례(鄕射禮) 등을 행하기도 하였다.

향교 교육은 양반 신분만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16세기 이후로는 평민 교생도 상당수를 접하였고, 일단 교생이 되면 사회 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교생들의 신분구성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직업 선택에서 생원·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역학 생도(譯學生徒)와 각사(各司)의 이서직(吏書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였다.

국초에는 교생 정원이 부·대도호부·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각각 90명, 70명, 50명, 30명으로 재조정되어 조선왕조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교생들의 교육 연한은 일정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군액(軍額)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 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향교는 시문을 짓는 사장학(詞章學)과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교과 내용으로 한다. 경학은 경전뿐만 아니라 사서(史書)를 함께 공부하였다. 이렇게 관인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향교 교육의 내용은 제도적으로 과거제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교생들이 강습한 교재는 『소학』, 사서오경을 비롯한 제사와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 등으로 성균관이나 서원과 큰 차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학』·『가례』는 조선 초기부터 교생들에게 권장된 책으로서, 각종의 고강이나 과거의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었다.

향교는 조선 중기 이후로 과거 준비장으로 기능하였으나, 각 지방에 서원이 설립되면서 점차 쇠미하여 1894년(고종31) 과거제도 폐지와 함께 이름만 남아 문묘(文廟)를 향사(享祀)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연도별 향교수의 변화는 알 수 없으나 1918년 조사에 의하면 당시까지 전국에 남아있던 향교는 335개였다. 그중 경기도 내에 있었던 향교는 39개였으며, 본군에도 연천향교(漣川鄕校)·마전향교(麻田鄕校)·삭녕향교(朔寧鄕校) 등 3개가 있었다.

본군에 향교가 언제 설립되었고,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확실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만 고려시대 향교가 쇠미했다가 조선 건국 후 건립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연천향교 외에 미산면 마전리에 마전향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건물의 자취는 물론 문헌이나 다른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수복되지 않은 삭녕면에도 삭녕향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한다.

1918년 당시 경기도 내 39개 향교 가운데 본군에 3개 향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조선시대 본군의 지방 교육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천군 향교는 일제 말기에 와서 ‘1개군 1개 향교’ 조치에 따라 연천향교 하나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연천향교

조선시대부터 유현(儒賢)에 대한 제향과 연천 지방 관학(官學)의 중심기능을 담당해 왔던 연천향교는 1397년(태조6) 연천현 관아에서 동쪽으로 1리 지점(현 연천읍 읍내리)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의 건물로는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신문(神門)·창고(倉庫)·수복실(守僕室) 등 5동이 있었다. 1658년(효종9) 관아 북쪽 2리 지점인 현재의 윗샘골로 이전하여⁷³⁾ 계속 존속하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문헌 자료의 미비로 상세하지 않다.

1910년 일제강점 전후 연천향교는 통감부의 교유정책에 의해 흥립학교로 변모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제향의 기능만을 유지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었고, 수복 이후 3번의 이건을 통하여 지금의 자리인 차탄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천향교 대성전 전경〉

73) 『光武邑志』(1899), “移建: 鄉校舊在縣東一里 孝宗九年戊戌移建于縣北二里漆田洞”.

- 마전향교

조선시대 마전군(麻田郡)의 관립(官立) 교육기관이었던 마전향교는 미산면 마전리 향교말에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마전향교에 대해서는 조선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문헌 기록이 전해 오지 않아 일제강점 전까지의 연혁은 자세하지 않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병합되면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일환으로 마전향교 역시 탄압을 받아 오다가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다. 현재 옛 향교 터는 농경지로 변해 있다.

연천향교 명륜당에 「마전군학생김공득성사적기(麻田郡學生金公得聖事蹟記)」가 있는데, 이 현판은 본래 마전향교에 있었던 것을 연천향교와 병합하면서 옮겨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마전향교 터 전경〉

- 삭녕향교

삭녕향교는 삭녕면 읍내에 소재하는 향교로, 조선시대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으나 당시 경내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무(東廡)·서무(西廡)·내삼문(內三門) 등이 있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고 현재 북한 지역이므로 1950년대 이후 사항은 알 수 없다.

(2) 서원

서원(書院)은 조선중기에 보급된 사학기관으로 현유를 모시고 유림들의 학문을 장려한 기관이다. 1543년(중종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경북 영주에 고려 때 학자 안향(安珦)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여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서원이었다. 그 후 전국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명종5)에는 이황(李滉)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을 하사하고 책·노비·전토를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사액서원이며, 이후 황폐화되어 가던 향교를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설치되었다.

서원이 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16세기 사화(士禍) 이후이다. 향촌에서 나름대로 공부하던 선비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 참여를 시도했으나,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고, 되풀이되는 사화 속에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선비들은 정치를 포기하고 학문에 힘쓰는 한편, 뜻이 맞는 동료들과 교류하며 후진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서원은 점차 선비들 스스로 학문을 익히기 위한 곳에서 향촌의 유생들을 가르치는 체계적인 교육 시설로 자리잡혀 갔다.

서원 교육은 원장(院長)·강장(講長)·훈장(訓長) 등 원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장은 산장(山長)·동주(洞主)로 지칭되며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유림의 사표였다. 대체로 퇴관한 관료나 당대 명유석학(名儒碩學)이 원장을 맡았다. 강장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강문을 담당하고, 훈장은 학문 근면과 훈도를 책임졌다. 그밖에 서원 관리를 위하여 재장(齋長)·집강(執綱)·도유사(都有司)·부유사(副有司)·직월(直月)·직일(直日)·장의(掌議)·색장(色掌) 등의 직책을 두었다.

서원의 입학 자격은 시대별·지역별·서원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으며, 생원·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정원은 처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서원남설이 문제화된 1710년(숙종36) 사액 서원 20인, 문묘종사유현(文廟宗徒儒賢) 서원 30인, 미사액 서원 15인으로 원생 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규칙도 신분제가 문란하고 서원이 남설되자 와해되어, 서원이 양정(良丁)의 도피처로 변하였다.

관학의 교육이 과거와 법령의 규제에 얽매인 것과 비교할 때, 서원 교육은 사학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다. 대개 사서오경(四書五經)으로 본원(本源)을 삼고 여러 가지 경사자집(經史子集) 속에서 서원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도학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과거 응시에 필요한 사장학(詞章學)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학(佛學)·서학(西學) 등 이른바 이단과 관련된 서책이나 음사(淫邪), 벽사(辟邪)에 관련되는 내용은 철저히 금하였다.

강학 활동 이외에 서원의 제향(祭享) 기능도 교육적 의미가 높다. 향사 시의 출입·승강 절차와 제반 제례 의식 등 유자들이 평소 지녀야 할 기본적인 법도와 몸가짐(敬身)을 익히게 하였다. 서원에서 행하는 춘추향사(春秋享祀)는 엄격한 의례 절차를 수반하는 것으로 원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인 선현(先賢)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향교가 국립 교육 기관으로 문묘를 배향하는 곳이라면, 서원은 사설 교육 기관으로서 한 사람 이상의 명유·공신을 제사하는 곳이었다. 산수 좋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여 수양 및 자유로운 학문 탐구가 가능하였으며, 지방의 청년·자제들이 학문과 덕행을 연마하는 도량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남설되면서 유생의 학문 태도가 나태해지고 향교의 학생이 서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았으며, 군역을 도피하기 위한 청년들이 서원의 원복(院僕)으로 되는 등 폐단이 잇따랐고, 후기에는 서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당파를 형성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1745년(영조21) 서원과 사우 300개를 철폐했음에도, 정조 때에는 전국의 원우(院宇)가 65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 뒤 1868년(고종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연천군에 소재했던 서원으로는 미강서원·임강서원·임강서원과 현재 북한지역인 삭녕의 표절사가 있다.

- 미강서원(미강단소)

연천군에서 최초로 건립, 사액된 미강서원(峴江書院)은 미산면 동이리 737-2에 위치하며, 임진강에 있는 썩은소 북쪽, 강안대지에 있었던 옛 마전군을 대표했던 서원이다. 현재 서원은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어 구체적인 면모는 살필 길이 없는 빈 유지로 남아 있다.

『미수선생연보(眉叟先生年譜)』에 실려 있는 「미강서원사액문(峴江書院賜額文)」·「미강서원 봉안고문(峴江書院奉安告文)」·「미강서원상향축문(峴江書院常享祝文)」과 마전군수(麻田郡守) 신현록(申顯錄)이 지은 「미강서원중수기(峴江書院重修記)」를 통해 그 연혁의 대략을 살필 수 있다.

미강서원은 1691년(숙종17)에 연천 출신의 대사상가이며 정치가인 문정공(文正公)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사우를 건립하고 허목의 영정 및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올린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규모가 거지면서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이 상소를 올려 1693년 미강서원(峴江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마전읍지(麻田邑誌)』 또한 「肅廟朝庚午建宇 癸酉賜額」이라 하여 1690년에 사우를 건립하고, 1693년에 사액을 받아 사액 서원으로 승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814년(순조14) 6월 최헌중(崔獻重)·이상서(李尙書)의 회사로 윤동즙(尹東楫)·허윤보(許允

甫) 등이 주선하여 중수하였다. 마전군수 신현록의 「미강서원중수기」에 의하면 사우에는 허목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고, 중수계(重修契)·흥학계(興學契)를 맺어 서원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 그 후 연천, 적성, 삭녕 등지의 유림을 중심으로 미수학파의 학문계승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1인 1사의 원칙도 무시한 채 1870년(고종7) 허목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해 오던 사우(정면 3칸, 측면 2칸)가 훼손되었으며, 위패는 사우터에 매안(埋安)하였다. 사우가 철폐된 이후에도 유림들은 그 자리에 설단(設壇)하여 향사를 계속 이어왔으나 서원 철폐 당시 남아 있던 담장을 비롯한 홍살문·정문·강당·동재·서재·고직사 등의 건축물들은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다.

수복 이후에도 서원 터가 미군 훈련장 내에 위치하게 된 이유로 인하여 한동안 향사가 중단되었다가 1970년에 연천군 유림의 주선으로 「미강단소유림회(岬江壇所儒林會)」가 조직되고 다시 사우 터 단소를 정비하고 단비(壇碑)를 세워 매년 봄 한식일 다음 일요일에 향사를 올리며 연천지역 근기 납인계 미수학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미강서원지는 여러 차례 복원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미군 공여지와 군 훈련장에 속한 관계로 복원이 어려워 미강단소로만 명맥을 잇고 있으며, 현재 미강단소유림회 회장은 일제강점기 미강단소의 유지관리에 공적이 많았던 미좌(岬左) 정기(鄭炆)의 후예인 미산면 백석리 출신 정장이 역임하고 있다.

미강서원 터는 지난 2014년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미강서원 터 단소 근경〉

- 입장서원

입장서원(臨潭書院)은 연천읍 동막리 490 부무이촌(復武夷村)에 소재한 서원으로, 연천 출신 만절당 임계중(任繼重, 1418~1544)이 1519년 기묘사화 이후 현재 서원이 있던 곳에 정사(精舍)를 지어 주자학을 연마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임계중의 행장과 묘갈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임계중은 조선 중종조의 학자로,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절당(晩節堂)이다. 본관은 곡성(谷城)이다. 1507년(중종2)에 김정국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김안국과도 교류하며 학문과 도의를 연마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김식 등 여러 명현들이 화를 당하자 더이상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고향인 연천의 무이촌에 은거하였다. 이 때 무이촌에 정사를 지어 살면서 주자의 학문을 탐구하고 한편으로 농사일하며 노부모를 봉양하였다.⁷⁴⁾

위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이촌의 정사(精舍)가 서원의 모체가 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주자서원'의 전신으로 보여지며 이 주자서원은 『숙종실록』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⁵⁾

또한 여러 문헌자료에 의하면, 1700년(숙종26) 연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주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주자서원을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연천 지방 유림들이 주자를 제향한 이유는 그가 중국에서 공자·맹자의 뒤를 이어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대학자라는 점도 있지만, 임계중이 특히 주자학에 정통하였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주자의 생애와 관련한 고사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사실에 기인했을 개연성도 짙다. 서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무이촌이며, 앞에 흐르는 애미내[峨眉川]와 뒤의 양금령이 모두 구곡(九曲)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 살았던 중국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부합하고 주자에 대한 흥미를 그대로 전사한 까닭이 이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유로 주자의 영정을 봉안하였을 것이다.⁷⁶⁾

주자서원은 1713년 다시 입장(臨漳)이라는 사액을 받아 입장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입장서

74) 『谷城任營氏世稿』, 「司成公遺狀」, “自經己卯諸賢罹禍之後 不欲就進 韜跡湖山 營立精舍 奉兩老”; 「墓碣銘」, 申錫愚撰, “晦跡湖山 立精舍 明農以養二老”

75) 『肅宗實錄』 권3, 숙종39년 4월 임자, “漣川縣 號朱子書院 賜號臨漳 遺禮官致祭”.

76) 『正祖實錄』 권 6, 정조 2년 7월 기해, “漣川之臨漳書院 卽朱夫子右享之所也 川號漳州 水名九曲 又有所謂後武夷者 故漣之士 購得朱夫子真像 設院而奉安之”.

원으로 사액된 연대가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⁷⁷⁾ 『속중실록』에 제시된 1713년이 분명하다.⁷⁸⁾ 사액을 임장(臨漳)이라 한 것은 고려 때 연천의 명칭이 바로 ‘장주(漳州)’이기 때문이다.

이후 1778년(정조2) 경기도 유생 정선술(鄭善述) 등이 송시열(宋時烈)을 종배(從配)하고자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801년(순조1)에 연천현 유생 김성락(金聖樂) 등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추가 배향되었다. 순조 때 송시열을 추가 배향하게 된 것은 신유정난 이후의 정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주자와 송시열의 저술 가운데 심법(心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선하여 정조가 저술한 『양현전심록』 책판본을 제작하여 이 서원에 전각을 건립해 봉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장서원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단지 송시열을 추가 배향하던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사우(祠宇)·강당(講堂)·동재(東齋)·서재(西齋)·전사청(典祠廳) 등이 있었다. 이밖에 “전각을 세워 그 책판을 보관하였다(建閣以奉之)”는 기록에서 『양현전심록』의 책판을 보관하는 전각인 장판각이 별도로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은 임계중의 후손 임석준의 1990년대 중반의 고증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기 전까지도 사우터 우측 곁에 작은 집이 있었으며, 여기에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과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바로 이 건물이 정조 때 건립한 장판각이었다. 1868년(고종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사우가 훼철되었지만 장판각과 부속 건물들만은 존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마을에 거주하던 곡성 임씨 사성공파 후손들에 의하면 이 건물도 한국전쟁 때 안타깝게 불탔다고 한다.

서원 철폐 이후 일제 때 사우가 없는 단소와 당시 규모는 살필 길 없다. 현지 상황이나 경기도 내 다른 서원의 사례를 비취보면, 곡장(曲墻)을 두르고 사우터에 설단(設壇)하여 향사만 모셨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각의 건물로는 고직사(庫直舍)가 한국전쟁 때까지 있었다. 고직사는 ‘ㄷ’자 형태의 기와집에 마루 3칸, 부엌 3칸, 방 2칸, 영당 3.5칸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서원 주변에 80여 가구가 살았으며, 이 중 절반이 곡성임씨 사성공파 후손들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향사가 끊긴 채 빈 터로 방치해 오다가 1996년 2월 「임장서원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비와 유림의 찬조금, 임장서원 자체 확보액 등을 모금하여 1998년 9월 15일에 사우를 복원하였다. 같은 해 11월 준공과 함께 만절당 임계중을 추가로 배향하였

77) 『증보문헌비고』 「조선의 취락」 등에는 1716년으로, 『연천군지』에는 1710년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연천의 맥박』에는 1713년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각 문헌에는 전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한 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78)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4월 임자. “漣川縣 號朱子書院 賜號臨漳 遣禮官致祭 祝文頭辭 書以國王遣臣某云云 禮官既發行 禮曹參判閔鎭遠 筵白 請依啓聖廟 宣武祠之例 稱以朝鮮國王謹遣臣云云 以此定式 上許之 改寫以送”.

다. 복원된 사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목조 와가이며 맞배지붕에 양박공면 방풍판을 달았다. 사우 앞면에 새로 제작한 임강서원(臨江書院) 현액과 「임강서원중수기」 현판을 걸었다. 사우 안쪽에는 중앙 주벽에 주자(朱子), 양쪽 벽에 우암 송시열·만절당 임계중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였다. 외삼문은 정면 3칸이며 곡담 200m를 둘러 외부로부터 보호하였다. 삼문 좌측에 「임강서원준공기념비」를 세웠다.

임강서원은 조선 후기 연천 지역의 주자,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근기 노론계의 교유와 학맥이 계승된 상징성을 가지며, 현재 만절당의 후손인 임상준이 임강서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연천 유림들에 의해 향사가 받들어지고 있다.

임강서원은 지난 2001년 연천 향토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임강서원 사우 근경〉

- 임강서원

임강서원(臨江書院)은 장남면 고랑포리 봉잠산(鳳岑山) 기슭 서원말에 있었던 서원이다. 조선 후기에는 장단도호부를 대표했던 서원이었으나 지금은 구체적인 창건 연대나 본래의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다행히 1849년(헌종15) 간행된 『장단지(長湍誌)』에 이식(李植)의 「봉잠서원상량문(鳳岑書院上梁文)」, 김수항(金壽恒)의 「봉잠서원중수상량문(鳳岑書院重修上梁文)」, 성덕조(成德朝)의 「봉잠서원중수기(鳳岑書院重修記)」, 성호 이익의 「임강서원강당중

수기(臨江書院講堂重修記) 그리고 「사액시치제문(賜額時致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어 대략적인 연혁을 가늠할 수 있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이 서원의 창건은 조선 인조 때 지방 유림의 공의로 안유(安裕, 1243~1306), 이색(李穡 1328~1396), 김안국(金安國, 1478~1543), 김정국(金正國, 1485~1541)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던 사현사(四賢祠)에서 비롯한다. 처음에는 사우(祀宇) 역할만 하였다가 점차 발전하여 1650년(효종1) 비로소 봉잠산(鳳岑山) 기슭으로 이건(移建)하여 봉잠서원(鳳岑書院)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694년(숙종 20)에 '임강(臨江)'이라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임강서원은 서울 근역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해 지방 사학의 명문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그러나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안유·이색의 유상(遺像)과 4현의 위패를 봉안했던 사우가 훼손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강당과 기타 부속 건물이 완전히 퇴락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위패는 사우 터에 매안(埋安)하였다. 1932년 2월에 간행한 『장단군 장남면 향토조사부』에 서원말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을 뿐 자취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훼손 후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여 복원되지 못했던 것 같다.⁷⁹⁾ 지금은 그 유지(遺址)마저 출입이 어려운 민통선 내에 위치해 있다.

우리 유학사에 큰 위치를 점하는 사현을 제향했던 이 서원은 임진강 유역 근기남인계 학맥이 전승되는 중심에 있었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서원이었다.



〈적성 장좌리에서 바라본 임진강과 봉잠산 원경〉

79) 참고로 『장단군 장남면 향토조사부』에는 1864년에 훼손되었다고 기록하였으나 잘못이다.

(3) 서당

서당(書堂)은 향촌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동·리를 기본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 기관이다. 서당의 발전은 16세기 사림파의 향약 보급 운동과 일련의 연관성을 지닌다. 16세기 서당 설립 주도 세력은 대부분 당시 향촌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명문 사족 출신인 대토지 소유자였다. 설립 명분은 대체로 반상(班常) 구별을 비롯한 유학적 질서를 향촌사회에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

서당은 사립 초등 교육 기관으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이나 법적 인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존폐가 자유로웠으며, 뜻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당을 유지, 경영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서당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숙 또는 독서당(讀書堂) 유형으로 대개 문벌가나 유력가가 그들의 자제 교육을 위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② 동계서당(洞契書堂) 유형으로 양반 계층이나 유력 자산가의 문중에서 학계(學契) 또는 학전(學田)을 조직 경영하면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그들 자제들을 교육하는 문중 서당이다. ③ 훈장의 자영서당(自營書堂)으로 훈장 자신이 집에서 생계유지나 소일을 위하여 개설한 서당이다. ④ 문중 연립서당(門中聯立書堂)으로 문중(동계) 서당의 확대형으로서 지체가 비슷한 마을끼리 향촌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각 마을의 청년 자제를 선택하여 교육하는 고급 서당이다.

서당의 인적 구성은 훈장(訓長)·접장(接長)·학도(學徒)로 이루어진다. 훈장은 자격이 천차 만별이었으며, 학식의 표준도 일정하지 않았다. 접장은 오늘날의 조교와 같은 성격을 지닌 일종의 보조교사이다. 학도는 7~8세에 입학하여 15~16세에 마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20세가 넘는 경우도 많았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강독(講讀)·제술(製述)·습자(習字) 세 가지였다. 강독 교재는 기초적인 동몽교재(童蒙教材)인 『천자문』·『동몽선습(童蒙先習)』·『통감通鑑』 및 사서(四書) 삼경(三經)과 부교재격인 『사기(史記)』·『당송문(唐宋文)』·『당률(唐律)』 등이었는데, 대개는 『통감』 정도에서 그쳤다. 교수 방법은 강(講)이 주된 것이었다. ‘강’이란 이미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의 및 응답하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다.

서당 교육의 목적은 수학하는 생도들을 상급 학교 즉 향교나 사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유지 자제에게 한문 독해력을 부여하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연천의 서당도 조선 조 후기의 학맥의 영향에 따라 운영되면서 사숙 또는 독서당(讀書堂)의 유형, 동계서당(洞契書堂)의 유형, 문중연립서당(門中聯立書堂)의 유형으로 존속되었을 서당도 적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훈장의 자영 서당(自營書堂) 형태로 남았을 것이다.

연천지역 서당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없어서 자세하지 않다. 연천문화원 부설 '연천군향토사연구회'에서 현지 조사한 일제강점기 말로 보이는 연천군 내 서당 현황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전, 후 연천군에 소재했던 서당 현황〉

(단위 : 명)

| 번호 | 읍·면 | 마을명 | 훈장명 | 학생수 | 존속기간 |
|----|-----|-------------|-----|-----|------|
| 1 | 군남면 | 옥계리 | 남우진 | 20 | 15년 |
| 2 | 군남면 | 진상2리 | 이응연 | 15 | 15년 |
| 3 | 군남면 | 황지리(대양동웃댁골) | 박승규 | 20 | 20년 |
| 4 | 미산면 | 마전리 | 정선생 | 10 | 7년 |
| 5 | 백학면 | 학곡리 | 최선생 | 10 | 8년 |
| 6 | 백학면 | 노곡리 | 유세영 | 10 | 10년 |
| 7 | 백학면 | 백령리 | 정해수 | 10 | 10년 |
| 8 | 백학면 | 두일1리(높은골) | 왕영성 | 10 | 10년 |
| 9 | 연천읍 | 차탄 리(비석거리) | 김태선 | 15 | 10년 |
| 10 | 연천읍 | 차탄1리 | 임상윤 | 15 | 10년 |
| 11 | 연천읍 | 차탄4리(지골) | 박선생 | 15 | 10년 |
| 12 | 연천읍 | 통현1리(통재) | 이성채 | 10 | 10년 |
| 13 | 왕징면 | 무등리 | 이선생 | 10 | 7년 |
| 14 | 장남면 | 원당2리 | 유만수 | 10 | 10년 |
| 15 | 전곡읍 | 간파리(간패) | 이범승 | 10 | 5년 |
| 16 | 전곡읍 | 늘목2리(늘목동) | 채기오 | 10 | 15년 |
| 17 | 전곡읍 | 늘목1리 | 원춘식 | 10 | 7년 |
| 18 | 전곡읍 | 양원리(웃양원) | 이현영 | 7 | 7년 |
| 19 | 전곡읍 | 늘목2리(작은노두골) | 이범승 | 15 | 50년 |
| 20 | 청산면 | 초성리(학담) | 최승도 | 10 | 8년 |
| 21 | 청산면 | 궁평2리 | 윤억 | 15 | 10년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천지역에는 21개소의 서당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군남면 3개소, 미산면 1개소, 백학면 4개소, 연천읍 4개소, 왕징면 1개소, 장남면 1개소, 전곡읍 5개소, 청산면 2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서당은 전곡읍 늘목2리에 있던 서당이다. 50년간 존속되었다고 하니, 배출된 학동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서당은 10년에

서 20년 사이에 존속했던 곳이다.

연천지역에서도 서당은 훈장·접장(接長)·학도로 이루어졌으나, 접장을 두었던 곳은 흔치 않았다. 훈장은 주로 한학에 조예가 있는 노인들이었다. 학도는 7~8세에 입학하여 15~16세에 마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세기 말 근대적 교육이 전개되면서 서당은 재래식 서당과 새로운 시대 조류에 적응한 개량 서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천지역에서는 개량 서당이 크게 호응받지 못하였다. 이후 1911년 연천보통학교가 개교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서당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탄압과 시련의 대상이 되었으나, 미산면 백석리 독쟁이서당의 예에서와 같이 미수학과와 맥을 이었던 미좌(睞左) 정기(鄭炆, 1885~1945)에 의해 서당의 기능과 함께 민족의식을 함양했던 곳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3) 한말~일제강점기의 교육

(1) 한말의 교육

1876년(고종13)은 우리 근대사의 첫 장이 열리는 개항의 해로, 오랫동안의 쇠국에서 눈을 뜨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를 계기로 차츰 세계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고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위협은 민족적 자각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고 기울어 가는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진흥시켜 새로운 지식을 가진 인재를 기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관리 양성만을 목적으로 삼던 구교육을 지양하고 종래의 유학적 사회 체제를 변혁시킬 신교육 제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교육 개혁론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절단과 시찰단, 유학생들에 의해 근대적 사고가 도입되고, 기독교 및 서양 학문의 전래로 정치·경제·사회가 급격히 변화하자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의 긴박한 국제정세는 외국어 교육이 무엇보다 요긴했으며,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업 교육의 필요에 따라 주로 이러한 학문을 교수하는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교는 개화 이후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의 종교계 사학(私學), 선각자들의 만족주의적 사학, 그리고 국가의 노력에 의한 관학(官學)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 신학제에 의한 관·공립학교

정부가 1876년(고종13)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

고 통상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했던 일은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아는 외교관이나 통역관 양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통상아문(通商衙門)의 부속기관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동문학(통변학교, 1883)과 육영공원(1886)을 설립하였다. 1894년 6월에는 학사를 관장할 학무아문을 설치하고, 동년 7월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학무아문에서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구교육의 폐단인 계급 의식을 불식할 것과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설립을 계획하였다.

소학교는 1895년 1월 19일에 공포된 「소학교령」을 비롯해서 동년 8월 11일에 공포된 「학부령」 제3호 ‘소학교 규칙대강’에 의해 근대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896년 2월 20일에는 「초등공립소학교규칙」을 공포하여 공립 소학교에 대한 국고금 보조를 법적으로 강화했다. 「소학교령」은 소학교를 관립·공립·사립의 세 종류로 나누고, 관립은 국고에서, 공립은 부(府), 혹은 군에서 사립은 개인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소학교의 편제는 심상과 고등 두 과로 나누었으며, 수업 연한을 심상과가 3년, 고등과가 2년 또는 3년이었다. 그리고 만 8세로부터 15세까지 8년간을 학령으로 정했으며, 각 부와 군은 관내 학령 아동을 취학시킬 사립 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을 보면 심상과는 수신(修身)·독서·작문·습자(習字)·산술 및 체조로 하되 학부대신의 인가에 따라 체조를 뺄 수도 있었으며, 지리·역사·도서·외국어 중 한 과목 혹은 여러 과목을 참가할 수 있었고 또한 여학생을 위해서는 재봉을 참가할 수도 있었다. 또한 고등과는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지리·역사·외국지리·이과·도서·체조를 정과목으로 하고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외국어를 참가하거나 외국 지리·외국 역사·도서 중에 몇 과를 뺄 수 있었으며, 여학생을 위해서 재봉을 참가할 수 있었다.

중학교는 1899년 4월 4일 칙령 제11호로 제정 공포된 「중학교관제」와 다음 해 9월에 「학부령」 제12호로 공포된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즉 중학교는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의 길을 열어주고 중등교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수업 연한을 7년으로 하여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나누었던바, 상공학교가 1899년 5월에 세워져 여기에 속성과 본과를 두었고 농·상·공업을 가르쳤다.

고등학교는 남자에게 필요한 고등 보통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편제와 수업 연한은 본과와 예과,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고, 본과는 4년, 예과와 보습과는 각각 1년 이내로 하였는데(옛 법령), 새 법령에서는 예과를 폐지하고 본과 4년도 토지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보습과 1년은 종전대로 두도록 하였다. 과목은 옛 법령에는 법제 및 경제·음악이 빠지고 실업과 외국어가 없었던 데 비해, 새 법령에서는 실업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법제 및 경제·음악·외국어를 수의 과목으로 하였다.

- 통감부 교육정책과 사립학교 설립운동

통감부의 교육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학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관학의 체제와 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 8월 31일 칙령 제41호 「사범학교령」, 제43호 「외국어학교령」, 칙령 제42호 「고등학교령」 등 새로운 교육령을 반포하여 종래의 교육관제 및 규칙을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학제를 개편하였다.

제2단계는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통하여 민족사학을 통제 억압하며 애국적인 교육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봉쇄하는 것이었다. 1908년 8월 26일자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한 통감부는 신규 사립학교는 물론 기존의 모든 사립학교까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8월 28일 「사립학교령시행에관한훈령」을 발표하여 각 지방관들에게 「사립학교령」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1908년 9월 1일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9월 17일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대규정」을 공포하는 한편, 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학회령」을 9월 1일자로 발표하여 학회 설립도 통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적 교육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화라는 현실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 의해 '사립학교설립운동'은 계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시기 설립된 사립학교 수는 1908년 현재 관공립학교를 포함하여 5,000여 개 교, 학생수 20만 명에 달하였으며, 「사립학교령」 발표 이후 그 수가 감소했음에도 1910년 7월 1일 학부에서 조사한 사립학교 수가 총 2,082개교에 달해 전국 각지로 확대된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7월 당시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각종 학교 139개, 종교 학교 44개로 총 183개교에 달했다.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 설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897년 1개, 1898년 1개, 1899년 6개, 1900년 5개, 1901년 4개, 1903년 4개, 1905년 13개, 1906년 21개, 1907년 33개, 1908년 84개, 1909년 38개, 누계 210개교로 나타나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경기도 지역 각 군으로 확대되어 1910년 현재 총 37개 군 가운데 30개 군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연천군은 1910년 경술국치와 1914년 일제의 지방 행정구역개편으로 통폐합되기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연천·마전·삭녕·적성 등 4개의 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경기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이 4개 군에서도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신문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기

사를 통해 경술국치 이전의 연천군 지역 사립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1906년 4월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를 효시로 하여, 1910년 6월까지의 근대교육의 중요 내용을 선별하여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⁸⁰⁾

- 1906. 04. 12 : 연천군 유생 허숙이 학부에 청원, 연천군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니 인허하고 교과서적을 발하해 달라고 요청하다. 「황성신문」
- 1906. 04. 16 : 학부에서 연천군 유생에게 훈련을 내린 것으로, 사풍이 나태하여 청년들이 학령을 넘겨 학식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학교를 향교에 세우고 영재를 교양하라 하다. 「황성신문」
- 1907. 05. 04 : 장단군 고랑포에 보창학교를 세우고 교장 이동휘가 교육에 전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학생이 50명으로 불어났는데, 학교 경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군수 윤종규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의 급무를 연설하고 50원을 내놓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찬성하여 장차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 1907. 06. 15. : 연천군 사립 소학교(홍립학교)가 마을의 빈집을 교사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신임군수 윤발영이 세무주사 장문환, 군주사 임기면과 함께 돈을 모아 교사를 증수하고 열심히 교육을 권장하므로 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 1907. 08. 09. : 연천군 사립학교 학기시험을 치르고 1~3학년 학생 가운데 21명의 우등생들에게 시상한 후 부형들이 모여 교무위원회를 시행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 1907. 08. 11. : 연천군 세무주사 장문환은 일하고 남는 시간이면 학교교육에 열심이어서 얼마 되지 않는 박봉으로 학비에 보충하여 학교가 크게 흥왕한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 1909. 04. 20. : 장단군 고랑포 사립 보창학교는 이동휘가 설립하였는데 이씨가 귀북한 이후로 교황이 어려워진 것을 최광호, 김계영 등이 어용선을 교장을 추천하고 부근 유지 및 주민들과 의연하여 고명한 교사를 초빙하고 학도를 모집하여 점차 흥왕해지고 있어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 1906. 06. 01 : 장단군 고랑포보창학교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다가 교장 어용선과 명망가 김계영, 최광호, 조동로 등이 교무에 열심하고 군수 이석재가 권면하여 학도 73명이 일제 단발하고 교사도 날로 새로워 지고 있다 하다. 「대한매일신보」

80) 근대 신문기사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기준으로 하였다.

- 1910. 03. 01. : 연천군수 정용한이 부임 이래 치적에 힘써 학교를 설립하고 열심히 교육하며 금화 200원을 보조하는가 하면 마을 인민 중 생활 곤란자를 구휼하여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 1910. 03. 25. : 마전군 주사 정장한씨는 청년 유지인데 교육에 열심하여 군수 및 홍창섭, 윤영진 양씨와 협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자금을 모아 유지방침을 확정함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송한다고 하다. 「황성신문」
- 1910. 06. 09 : 지난 5일에 장단군 고랑포 사립 보창학교에서 진급식을 거행할 때에 군수 이석재가 연설에서 학도에게 대하여 시국에 관한 취지를 역설하였다고 하는데 그지역 경찰서에서 연설문을 내부에 보냈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 1910. 06. 23. : 마전군 강신면 고왕산동에 사는 윤상려, 윤우병 등 여러 사람이 발기하여 왕산소학교를 세웠는데 교실은 윤상려씨의 집으로 정하고 유지들이 각각 연조하여 교세를 확장함으로 몇 달 만에 학도가 백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위에 소개된 당시 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1907년 4월 연천군 사립소학교인 흥립학교가 연천향교와 마을의 빈집을 교사(校舍)로 사용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주인에게 쫓겨날 지경에 이르고, 이어 군수 등의 도움으로 여건이 안정되는 등 당시 격변기 교육환경의 일면과 교육열에 일조했던 지역 인사의 동정을 읽을 수 있으며, 1908년 7월에는 마전군수 백낙균(白樂均)이 부임하여 군내 면장·집강과 유지신사들을 명륜당에 불러 학교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사 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통감부의 교육령 하에 군수 이하 지역 유지들의 주도하에 사립학교가 설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기사 가운데 장단의 고랑포 보창학교를 설립한 당시 강화진위대 참령을 역임하고 1907년 군대해산 후 대일 의병 무장항쟁에 투신한 독립운동가이며 후일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성재 이동휘(李東輝, 1873~1935)의 애국계몽과 의병항쟁의 병행노선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러한 양상은 임진강 일원의 정미의병 무장항쟁이 매우 조직적이고 극렬하게 대일 항쟁을 지속할 때에 고랑포에 민족교육의 장을 열었다는 상징성은 향후 면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연천과 마전에 통감부 법령체제 하의 불안한 과도기적 근대교육과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당시 연천지역의 반일성향의 민족주의 세력이 위와 같은 근대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당시 민심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일면으로 보인다.

(2)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강점으로 한국의 교육은 일본 황국신민화 정책의 도구가 되었으며, 일제는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보통학교 4년제, 고등 보통학교 4년제(여자는 3년)의 단기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교수 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다.

- 초등교육

1911년 5월 15일 연천읍 읍내리에 있는 향교 명륜당 건물에서 연천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향교는 전통시대 지방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충·효·예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 시기에 들어 일제 식민지하 무단정치의 근대식 교육을 담당하던 곳으로 변모하였다. 연천공립보통학교는 이곳에서 2년 동안 연천 주민의 초등 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1913년 연천군청의 이전과 같은 시기에 현 연천초등학교 자리(연천읍 차탄리)에 교실 3동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1916년 6년제 학교로 인가받아 교사를 증축하였고, 192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후 마전공립보통학교가 4년제에서 6년제 학교로 인가받아 1937년 6월 5일 마전리에 개교하였다.

한편 1938년 4월 1일, 공립보통학교로 되어 있던 학교 명칭을 공립심상소학교로 변경하면서 연천중앙공립보통학교 등 12개 학교가 개교하였다. 당시 연천군 내 공립심상소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38년 4월 1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개칭된 학교〉

| | |
|-------------|-----------|
| 연천중앙공립심상소학교 | 전곡공립심상소학교 |
| 적성공립심상소학교 | 백학공립심상소학교 |
| 마전공립심상소학교 | 관인공립심상소학교 |
| 삭녕공립심상소학교 | 서남공립심상소학교 |
| 남면공립심상소학교 | 삼곶공립심상소학교 |
| 왕징공립심상소학교 | 군남공립심상소학교 |

한편 1912년 말에는 전국에 걸쳐 야학회나 강습소가 있어 신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1912년 12월 조사된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20개소가 있었는데, 연천군에는 '국어야학회(國語夜學會)'가 있었다. 12월 1일에 문을 연 이 야학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4월에 생도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던 임시 교육강습소였다. 교과목은 국어·산술·농업이었으며, 생도 수는 30명이었

다. 경비는 공립보통학교비로 충당하였다. 운영은 관내 금융조합과 학교의 공동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 중등교육

1926년 무렵 경기도에는 실업학교 9개교가 설립되었다. 그 중 연천군에는 연천읍 상1리의 상리초등학교 자리에 장동강습소(설립자 허일)가 설립되었다가, 연천농업실업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가(家:당시는 학급을 '가로 호칭함)에서 8가까지 이어왔으며 학생수는 40명 정도였다.

이 시기 실업 교육은 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을 전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수업 연한은 3~5년으로 6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이 입학하였다. 상황에 따라 직업학교, 실업보습학교와 상업학교 학과를 한 학교에 병설할 수 있었고, 공업학교에는 많은 학과 중에서 한 학과만 택하여 설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규 실업기관 이외에 1935년 이후부터는 단기 농업 훈련을 통해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실업보습학교제가 창설·운영되었다. 수업 연한은 2~3년을 표준으로 하되 농업을 교수하는 곳에서는 입학 자격 등에 따라 1년 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1937년 지금의 연천읍 상1리 경기도종자관리소 연천분소 자리에 현창동(玄昌東)이 설립한 연천농업실수학교는 초대 교장이 일본인인 조원(鳥源)이었다. 기숙형이 이 학교의 수업 연한은 1년이었으며, 졸업생은 1기생 현명환, 2기생 김종명·강성갑·허은 등이었다. 이후 연천의 학교와 중등교육의 자세한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하 관내 학교별 교직원 임명 현황을 통하여 자세하게 접할 수 있다.⁸¹⁾ 해당 내용은 연천문화도시지역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해방 이후의 교육

① 해방~1950년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해방의 환희가 재 가시기도 전에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도 군정하에서 실시되었다.

미군정 학무 당국은 1945년 9월 24일을 기해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사립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 9월 28일에는 각 도에 보낸 통첩에서

81) 일제강점기 연천군 내 학교현황과 교원임명 현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고하였다.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 64호로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하였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23일 조직한 교육심의회에서 교육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종래 이원제 대신 일원제를 채택하고, 수업 연한을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6년(고등중학교 전기 3년을 중등과, 후기 3년을 고등과라 함), 실업고등학교 6년, 사범학교 3년, 대학 4년, 의과대학 6년으로 하고, 의대를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두었다. 그리고 3학기제를 폐지하고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1학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정해 1946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1945년 해방 당시 연천군에는 연천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전국·백학국민학교가 있었다. 당시 연천국민학교는 21학급으로 교사 4개 동에 15개 교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80평의 넓은 강당이 건립되어 지방 학교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다. 해방 직후 약 1년간 극도의 사회 혼란 와중에서도 주민들은 학교를 잘 이끌어 갔으나 소련군의 진주로 주민 대다수가 월남하자 학교명도 공산치하에서 인민학교로 바뀌고 학년제도 6학년에서 5학년제로 단축되어 1947년에는 5년제 졸업생(27회)과 6학년(26회)이 동시에 졸업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중등교육을 보면 현재 연천종합고등학교가 ‘연천잠업기술학교’로 일제강점기 양잠지도원 양성소 역할을 이어받아 양잠기술을 가르친 적도 있다.

한국전쟁으로 연천군의 교육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연천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전국·백학·대광국민학교가 불에 타버렸다. 1953년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천군은 수복지구에 속한 유엔군 통제에 의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 속해 있어서 모든 학교가 전소되고 폐교된 상태였다. 3·8선 이북에 속해 있다가 휴전과 함께 수복된 연천군은 접적 지역의 민통선이 대폭 북상함에 따라 이 지역 의무 교육이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1954년 11월 17일을 기해 이 지역 행정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자 문교사회국에서는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먼저 국고 보조에 의한 교실 30개 신축을 서둘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국고 보조에서 충당시켰다. 그리고 학생 전원에게 사친회비를 면제하는 한편, 교과서 무상 공급과 극빈 학생 무료 급식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기본 여건 조성과 학령 아동의 전원 수용을 목표로 취학을 장려한 결과 의무 교육 실시 첫해인 1954년 수복지구인 연천군에서 1,080명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았다. 1955년 4월 30일 설립인가를 받고, 5월 8일 면(面)과 교육구(教育區)의 협조를 얻어 같은 달 14일 정식 개교한 연천국민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학교가 문을 열었다. 1956년 6월 30일 현재 연천군 관내 국민학교현황을 보면, 연천·연천통현분교·전곡·전곡은대분교·상리·군남·백학·관인(현 포천시 소속)·관인증리분교(현 포천시 소속) 등 9개 학교, 학급수 82학급에 총 학생수는

3,917명이었다.

한편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민 교육의 최대 과제였던 문맹자 일소 정책에 따라 1955년 3월 12일 ~ 4월 30일, 1956년 1월 20일 ~ 3월 31일에 걸쳐 문맹자 퇴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천군에는 1956년 4월 말 현재 남자 839명, 여자 1,039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문맹 퇴치 비율이 91%에 달하였다.

(2) 1960~1970년대

국가적 변혁기였던 1960년대에는 연천군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교육 행정면을 살펴보면, 1962년 1월 6일 연천군청 내 교육 행정을 전담할 교육구청이 개청하였고, 도 단위 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라 1964년 1월 1일부터 군청으로부터 교육 행정이 분리되면서 연천군교육청이 설립되어 같은 해 2월 17일 협소하나마 연천읍 차탄리 34번지에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66년 11월 좀 더 넓은 청사로 이전하였다.

1960년대 연천군은 전쟁의 상처에서 차차 안정을 되찾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생 수도 증가하여 이들을 교육할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에 분교장이 설립되고, 기존 분교장들이 정규 초등학교로 승격하였다. 당시 설립된 분교장으로는 1963년 중리국민학교 판거분교장, 1964년과 1966년 대광국민학교 신탄분교장과 내산분교장, 1968년 군남국민학교 옥계분교장과 왕림분교장, 관인국민학교 냉정분교장, 1969년 왕산국민학교 유촌분교장 등이 있다. 반면 분교장에서 초등학교로 승격한 학교는 1961년 은대초등학교와 연천노곡초등학교, 1965년 장남초등학교, 1966년 고문초등학교, 1969년 내산초등학교 등이다.

중등학교를 보면, 1965년 3월 연천중학교 백학분교가 설립되어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에게 상급학교로의 진학 기회를 제공하였고, 1969년 11월에는 전곡중학교가 설립 인가되어 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연천고등학교는 농촌을 짊어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연천농업고등학교로 탈바꿈하여 농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1969년에는 상업과가 신설되면서 연천실업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잘사는 농촌 건설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고, 아직 산업화·도시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이라 농업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연천군은 농업 중심 경제 구조이면서 군사 지역이라 군인 가족의 유입이 많아져 국민학교 학령 아동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왕산국민학교 동중분교장, 적동국민학교 양원분교장, 군남국민학교 북삼분교장이 개교하였고, 마전·유촌·신탄·옥계국민학교가 분교장에서 국민학교로 승격, 개교하였다.

한편 1960년대 개교한 많은 국민학교 졸업생을 교육해야 할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중학교가 연천중학교 하나밖에 없어 많은 학생들이 동두천이나 의정부·서울 등으로 유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중학교 설립이 붐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1970년 전곡중학교 개교를 필두로 청산·백학·군남·대광중학교가 각각 개교하였고 1974년에는 전곡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3) 1980~1990년대

1980년대는 국가적으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이농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가족계획의 정착에 따라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연천군에서도 학교 규모가 축소되고 학급 수가 줄어들어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내산초등학교가 대광국민학교 내산분교장으로, 적동초등학교가 전곡국민학교 적동분교장으로, 통현초등학교가 연천국민학교 통현분교장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통현분교장·왕림분교장·내산분교장이 각각 폐교되었다. 또한 1983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천교육청 관내 관인면의 6개 학교가 포천군으로 편입되고, 포천군 청산면의 4개 학교가 연천군으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컴퓨터 교육이 현장에 도입되면서 교육청 과학자료실은 물론 각급 학교에도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복사기, 마스터 인쇄기 등 사무 보조기구의 확충으로 사무의 과학화가 향상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대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아교육이었다. 연천군에서도 1981년 3월 연천초등학교를 비롯한 20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취학 전 농촌 어린이들에게 도시 어린이 못지않은 유치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1985년에는 전곡중학교에 특수 학급 1학급이 편성되어 중학교 특수교육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실시를 위한 각급 학교별, 군 단위별 교원 연수를 마무리하고 초·중학교는 1995년부터, 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5년 교육개혁 조치가 발표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교육과 열린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인성교육의 내실화로 교육개혁 실천을 교실 안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에도 이농과 인구 감소가 계속되어 면 단위 국민학교는 분교화와 폐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면 단위 중학교도 학급 수 감축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하여 군남중학교와 군남초등학교, 대광중학교와 대광초등학교가 불가피하게 통합되었다. 이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신탄국민학교 자리에 경기도 학생연천야영장이 1991년 개장하였고, 내산분교장 자리에는 경기도 교직원수덕원을 1993년에 개장하여 경기도 교직원 및 가족들의 휴양소로 연중 개방하고 있다.

2. 유아교육

1) 유아교육개관

유아교육은 인간발달단계의 유아기인 출생에서부터 만6세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유아기가 인간의 발달 단계 중 지적·정서적·신체적인 모든 분야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교육학·심리학에서 연구,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근래에 와서는 국가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이 어떤 형태로든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유아교육은 크게 나누어 가정 교육, 사회 교육 등 비형식적 교육과 유아원·유치원 등 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에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취학 전 교육으로 유치원과 같은 제도적 교육만을 주로 일컬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비형식적 교육인 가정 교육·사회 교육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유치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반포된 「소학교령」에 유치원 규정이 포함되면서부터이다. 1921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유치원이 있었지만, 이들 유치원은 사립학교 감독만 받았을 뿐 법적근거나 규제는 없었던 것이다. 유치원에 대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 것은 해방 이후 1952년 「교육법시행령」 공포 때이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유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문교부령 제106호 「유치원시설기준령」이 시행되고 1967년 「유치원교육과정령」이 공포되면서 유치원 교육정비와 실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 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3단계 유아교육 확충 계획안’을 발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당시 유치원 수는 7,792개소이고 원아는 39만 7,020명을 수용하였다.

한편 4세 이하 유아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는 유아원이 있다. 이는 1920년대 취업 여성의 자녀를 일정 기간 맡아 돌보는 탁아소 형태로 시작되어 1968년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종전 탁아기능에서 교육적 기능까지 맡게 되어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었다. 그 뒤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어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706개소 어린이집과 1981년 내무부가 설립, 운영해온 새마을 협동유아원 263개소, 1966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운영해 온 농번기유아원 382개소를 모두 합병하여 새마을 유아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그동안 일부 부유층의 유아들만이 누렸던 유아교육의 기회를 저소득층 지역의 유아들에게도 주게 할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 중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유아원은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기관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유아

교육에 필요한 자료 개발 및 전국 단위의 보급·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1981년 취원율 16%가 1993년에는 50%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에는 지역 교육청에 유아교육계를 설치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였다. 나아가 1992년 「교육법」 제155조 1항에 의거하여 제5차 유치원 교육 과정 영역을 건강 생활, 사회 생활, 표현 생활, 언어 생활, 탐구 생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급격히 증가·발전하면서 유아교육은 오늘에 이르렀다.

2) 유아교육기관 현황

연천군에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1981년 초등학교 병설로 14곳에 유치원이 개원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인 전곡유치원이 1966년 설립되었으며, 이는 연천 관내 유치원 설립의 효시가 되었다.

1981년 이후에는 공·사립 등 많은 유아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현재 공립병설유치원 11개 원, 사립유치원 2개 원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연천군의 유치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공립유치원

(2022년 12월 30일 기준)

| 유치원명 | 학급수 | 원아수 | 교사수 | 개교일 |
|-------------|-----|-----|-----|-------------|
| 온골유치원(공립단설) | 10 | 72 | 11 | 2010. 9.17. |
| 연천초병설유치원 | 2 | 18 | 2 | 1981. 3. 1 |
| 상리초병설유치원 | 1 | 23 | 1 | 1981. 3. 9 |
| 군남초병설유치원 | 2 | 47 | 2 | 1981. 3. 9 |
| 궁평초병설유치원 | 1 | 18 | 1 | 1981. 3. 9 |
| 백의초병설유치원 | 1 | 10 | 1 | 1981. 3. 1 |
| 초성초병설유치원 | 1 | 20 | 1 | 1983. 3. 2 |
| 백학초병설유치원 | 1 | 14 | 1 | 1981. 3. 5 |
| 연천노곡초병설유치원 | 1 | 12 | 1 | 1981. 3. 9 |
| 연천왕산초병설유치원 | 1 | 28 | 1 | 1981. 3. 9 |
| 대광초병설유치원 | 1 | 16 | 1 | 1981. 3. 1 |
| 계 | 20 | 389 | 20 | |

(2) 사립유치원

| 유치원명 | 소재지 | 설립자 | 원장 | 설립일 | 학급수 | 원아수 |
|--------|-----------------|-----|-----|------------|-----|-----|
| 본원유치원 | 전곡읍 선사로 398번길 5 | 윤자현 | 문성엽 | 1992. 2. 1 | 6 | 88 |
| 한여울유치원 | 전곡읍 전은길 14 | 최순호 | 최순호 | 1994. 1. 1 | 5 | 95 |
| 합계 | | | | | 11 | 183 |

(3) 기타 보육시설

(2022년 12월 30일 기준)

| 시설명칭 | 소재지 | 설립일자 | 설립유형 | 대표 | 종사자 | 보육정원 (현원) |
|---------------|--------------------------|--------------|------------|-----|-----|--------------|
| 왕징어린이집 | 왕징면 왕산로 48 | 2013. 12. 9 | 국공립 | 구민경 | 6 | 35(11) |
| 미룡이어린이집 | 연천읍 차현로 58 | 2012. 12. 21 | 국공립 | 김은숙 | 9 | 49(32) |
| 백학꿈나무 어린이집 | 백학면 두일로 113 | 2019. 3. 1 | 국공립 | 조해선 | 14 | 64(48) |
| 전곡주공 어린이집 | 전곡읍 밤골로 6 104동 1층 | 2012. 6. 28 | 국공립 | 양미자 | 11 | 29(24) |
| 연천어린이집 | 연천읍 문화로 173 | 2004. 3. 16 | 국공립 | 박장숙 | 18 | 77(75) |
| 전곡어린이집 | 전곡읍 은전로 47 | 2012. 1. 2 | 국공립 | 현미경 | 12 | 49(49) |
| 청산어린이집 | 청산면 학담로 143 | 2018. 2. 19 | 국공립 | 한미라 | 11 | 49(49) |
| 임진어린이집 | 군남면 진상17길 104-1 | 2018. 7. 1 | 사회복지 법인 | 이혜원 | 13 | 85(33) |
| 예쁜꿈어린이집 | 전곡읍 전곡로 24 102동 101호 | 2019. 9. 27 | 가정 | 최주훈 | 7 | 20(20) |
| 석미어린이집 | 전곡읍 선사로 415 102동 108호 | 2015. 3. 12 | 가정 | 김은미 | 7 | 20(14) |
| 명정어린이집 | 전곡읍 전은길 24 102동 108호 | 2012. 3. 5 | 가정 | 이지은 | 7 | 18(17) |
| 예일어린이집 | 전곡읍 전곡로 24 103동 103호 | 2008. 3. 11 | 가정 | 김수연 | 7 | 20(20) |
| 꿈별어린이집 | 전곡읍 전은길 24 101동 103호 | 2012. 6. 29 | 가정 | 김미향 | 7 | 20(14) |
| 아기사랑어린이 | 연천읍 연천로 366 | 2015. 1. 9 | 가정 | 이민수 | 6 | 19(12) |
| 한우리어린이집 | 전곡읍 전곡로75번길 12 | 2010. 9. 6 | 민간 | 양희례 | 5 | 39(9) |
| 홍익어린이집 | 전곡읍 밤골로 13 | 2020. 2. 17 | 민간 | 김민정 | 6 | 33(13) |
| 신나는어린이집 | 전곡읍 전영로 35 | 2019. 3. 5 | 민간 | 이상엽 | 8 | 35(19) |

| | | | | | | |
|-------------|----------------------------|-------------|----|--------------|----|--------|
| 예빛어린이집 | 전곡로161번길 13 | 2014. 1. 20 | 민간 | 곽현숙 | 10 | 38(12) |
| 예쁜어린이집 | 전곡읍 평화로698번길 12-11 | | 민간 | 이미란 | 8 | 62(18) |
| 조이기쁨어린이집 | 전곡읍 전곡로75번길 39 -3 | 2012. 3. 23 | 민간 | 최미화 | 9 | 45(30) |
| 푸르미어린이집 | 전곡읍 평화로673번길 61 | 2023. 1. 17 | 직장 | 육군 제2136 부대장 | 13 | 60(53) |
| 한아름어린이집 | 전곡읍 평화로673번길 61 13동 106호 | 2018. 6. 27 | 직장 | 육군 제2136 부대장 | 10 | 21(20) |
| 태풍어린이집 | 전곡읍 평화로699번길 22 5102동 104호 | 2017. 12. 1 | 직장 | 육군 제1575 부대장 | 7 | 15(14) |
| 연천아이파크 어린이집 | 연천읍 평화로 1239 | 2017. 12. 1 | 직장 | 육군 제2136 부대장 | 13 | 60(53) |

3. 학교 교육

2023년 현재 연천군 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는 각 교육기관별 기본 현황과 연천군 소재 각 학교의 변천, 특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 대한 자세한 연혁 및 현황은 연천문화도시지역보관소에소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내 교육기관 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학교별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행정직 |
|------|-----|-----|-------|-----|-----|
| 계 | 19 | 210 | 3,236 | 441 | 17 |
| 초등학교 | 11 | 109 | 1,572 | 181 | 27 |
| 초중학교 | 2 | 19 | 182 | 54 | 7 |
| 중학교 | 4 | 36 | 749 | 94 | 9 |
| 고등학교 | 2 | 46 | 733 | 112 | 8 |

〈자료출처 : 학교정보공시〉

1) 초등학교

「교육법」 제93조를 보면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초등학교 교육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 교육이란 전문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 특수 교육이 아닌 공통 교육이란 뜻으로 초등학교는 이러한 보통 교육의 기초적인 면을 담당하는 곳이다.

초등 교육의 특징으로는 먼저 국민 누구나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의무 교육이란 교육을 상층 계층의 전유물이나 계층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전개하고, 사회적 국가적 체제를 존속·발전해 나가기 위한 법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 교육은 민주 국가 국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다. 다시 말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개인·사회·국가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및 가치관을 신장하고 나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교육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 교육은 후속하는 모든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교육이다. 학교 제도는 국가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 교육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교육의 목적과 기간,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후속하는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며, 중·고등학교의 학교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능·태도 등을 길러줌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 근대 교육의 출발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설립된 연천소학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연천보통학교로 개칭한 이 학교는 연천군에 하나밖에 없는 6년제 학교로 군민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은 1955년 4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은 연천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학교에서 시작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군인 가족 등 이주 인구 증가로 학교 수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잠시뿐 1980년대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2년 말 연천군에는 11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2)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법」 제100조와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 제104조는 각각 중·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 조항이다.

「교육법」 관계 규명으로 볼 때 중등교육은 청소년기의 전기에서 중기에 걸친 연령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받은 초등 보통교육을 기초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중등 보통교육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은 이러한 중학교 교육을 더욱 발전, 증대시켜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판단력 육성,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장래 진로를 결정하며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에서 처음 중등교육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연천중앙국민학교(현 연천초등학교) 내에 연천실업보습학교가 개교하여 농촌을 짊어질 중견 청년을 양성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학교가 1933년 폐교되자 양잠지도원양성소가 해방 전까지 농촌의 지도급 청소년을 육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 이후인 1950년 6월, 공산치하에서 연천중잠업기술학교가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든 자료가 소실되어 자세한 변천 과정은 알 수 없다.

연천군에서 본격적인 중·고등교육의 시작은 미군의 원조로 1955년 지어진 관인중학교, 1956년 연천중학교, 1958년 연천고등학교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로 청산중학교·전곡중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70년대에 대광중학교와 군남중학교가, 1974년에 전곡고등학교가 각각 개교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교육 기관이 형성되었다. 1998년 말 현재 연천군에는 중학교 6개와 고등학교 2개가 있다.

3) 타시·군에 편입되거나 통폐합된 학교

- 관인초등학교

1930년 4월 1일에 관인공립보통학교로 설립하여 1937년 3월 1일 관인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다. 1954년 3월 1일 관인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가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개편으로 포천군에 편입되었다.

- 중리초등학교

1955년 8월 1일 관인국민학교 중리분교장으로 개교하여 1960년 3월 25일 중리국민학교로 승격, 인가되었으며, 1983년 행정구역개편으로 포천군 중리국민학교가 되었다.

- 냉정초등학교

1968년 3월 1일 관인국민학교 냉정분교장으로 설립을 인가받았다가 1971년 냉정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83년 행정구역개편으로 포천군에 편입되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0년 2월 28일 폐교되어 관인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관인국민학교 사정분교장

1961년 4월 11일 관인국민학교 사정분실로 개교하여 1962년 관인국민학교 사정분교장으로 인가되었고, 1971년 사정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82년 학생수 감소로 사정분교장으로 격하되어 관인국민학교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포천군에 편입되었다. 1992년 폐교되어 관인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중리국민학교 판거분교장

1963년 6월 25일 중리국민학교 판거분실로 개교하여 1971년 판거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82년 판거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중리국민학교에 편입되었으며 1983년 포천군에 편입되었다. 1994년 폐교 조치로 중리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관인중·고등학교

1955년 4월 27일 관인중학교로 설립되었다가 1971년 고등학교 3학급 설립을 인가받아 중·고 병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포천군으로 편입되었다.

- 대광국민학교 내산분교장

1963년 12월 27일 대광국민학교 내산분실로 인가받았다가 1966년 12월 6일에 대광국민학교 내산분교장으로 승격하였고, 1969년 3월 1일에 다시 내산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89년 2월 28일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조치로 대광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고, 학생은 연천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폐교된 내산분교장 터에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경기도 교직원의 연수와 휴양을 위한 경기도교직원 연천수덕원으로 이용된다.

- 신탄초등학교

1963년 1월 1일 대광국민학교 신탄분실로 개교하여 1965년 4월 1일에 대광국민학교 신탄분교장으로 승격하였다. 1971년 3월 1일에 신탄국민학교로 승격하였으나, 1990년 3월 1일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대광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 현재는 폐교된 건물을 개·보수하여 경기도 학생 연천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연천국민학교 통현분교장

1954년 11월 8일에 전국국민학교 통현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55년 5월 14일 연천국민학교로 관리권이 인수되었다가, 1959년 3월 1일 통현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82년 9월 1일 연천국민학교 통현분교장으로 격하된 후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1988년 2월 28일 폐교되고 학생은 은대국민학교에 통합되었으며, 학적 서류는 연천국민학교로 이관되었다.

- 전국국민학교 양원분교장

1971년 3월 2일 적동국민학교 양원분교장으로 개교하여 1980년 2월 29일 양원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83년 3월 1일에 전국국민학교 양원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1991년 3월 1일 학

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전국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

- 왕산국민학교 동중분교장

1970년 3월 1일에 왕산국민학교 동중분교장으로 개교하여 1972년 5월 24일 마전국민학교 동중분교장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2월 28일 학생수 감소로 폐교, 왕산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

- 왕산국민학교 마전분교장

1980년 3월 1일에 왕산국민학교 마전분교장으로 인가되어 1980년 3월 12일에 개교하였다가, 1991년 3월 1일에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왕산국민학교에 이관되었다.

- 군남국민학교 왕림분교장

1968년 3월 2일에 군남국민학교 왕림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가 1988년 3월 1일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학생은 은대국민학교에 통합되고 학적 서류는 군남국민학교에 이관되었다.

- 군남국민학교 북삼분교장

1972년 10월 14일 군남국민학교 북삼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가 1991년 3월 1일에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어 군남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

4)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1) 경기도연천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연천읍 연천로 356-1에 자리 잡고 있다. 1953년 3월 문교부에서 「교육법」(1951. 4. 23) 제62조와 제24조에 의하여 시·군 교육구 교육자치제 설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교육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1월 17일, 행정수복으로 군수가 교육 행정을 관장하였는데, 교육 자치제는 군민 직접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이들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천군은 정전협정 조인 후 미수복되어 교육자치가 보류됨에 따라 행정수복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연천군수가 교육감 직무 대리를 하면서 연천군청 내에 학무과를 두고 교육 행정을 담당하였다.

연천교육지원청이라는 교육행정기관의 출발은 연천교육구청이 개칭하는 1962년 1월 6일부



〈연천교육지원청 전경〉

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교육 자치제 시행이 보류되면서 교육 행정은 다시 군청으로 통합되었다가, 1964년 1월 1일, 도 단위 교육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군청에서 분리되었다. 1966년 11월에 연천읍 차탄리에 독립청사를 준공하였고, 1988년 4월 연천읍 현가리 소재 현재의 위치에 대지 8,932㎡의 규모로 현 청사로 이전, 준공하였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서면 1개 학교가 강원도 철원군 교육청 관할에서 연천군으로 편입하였으며, 1983년에는 청산면 4개 학교가 포천군에서 연천군으로, 관인면 6개 학교가 연천군에서 포천군으로 맞교환 편입, 조정되었다. 또한 1964년에는 국민학교 20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에서, 1998년 12월에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 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7개 원으로 변천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천군의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11개 교, 통합 초·중학교 2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이다.

1991년 3월 26일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47호에 의거하여 광역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청 명칭도 경기도연천교육청으로 개칭되었다가 2010년 9월 1일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는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1990년 설립한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과 경기도 교직원연수 및 여가 선용을 위해 1993년 건립한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이 있다.

현재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2년 9월 1일 자로 취임한 제30대 안선근 교육장이 연천 교육을 총괄하여 이끌고 있다.

본 교육청의 기구 조직과 직급별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⁸²⁾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조직도〉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설화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82) 연천군 교육현황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련 자료는 연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s://www.goeyc.kr>)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근경〉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은 신서면 동내로 1384에 위치하고 있다. 수덕원은 대·소단위 교직원 연수와 교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1991년 10월 23일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1992년 8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음해 6월 30일 대지 6,466㎡(1,959평)에 건평 1,119㎡(363평)의 규모로 준공하여 같은 해 11월 18일 개원하였다.

2022년 기준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객실 19실), 강당(세미나실 1실), 소회의실, 탁구장 1실이 있다. 객실은 8인실과 4인실로 침구 및 취사 용구를 완비하고 있으며, 세미나실은 171.6㎡(52평)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탁구장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수원의 관리직원은 교육행정실장 외 3명이다.

③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은 신서면 평화로 2985에 자리 잡고 있다. 본 야영장은 1988년 2월 15일 폐쇄 학교 야영장 전용 승인을 받아 연천초등학교 통현분교장에 같은 해 7월 20일 개장하였다. 초대 관리소장은 이석근 교육장이 겸임하였다. 이후 1989년 3월에 개정 승인된 「연천군립학생야영장설치조례」에 따라 다음 해 6월 14일 현위치인 신탄초등학교 자리로 이전 개장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23일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여 이듬해인 9월 4일 준공하였고, 2015년 3월

1일 경기도학생교육원 연천학생야영장으로 명칭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 목적은 미래 인재가 될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창의적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한 자아성찰 및 심성계발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극기력 신장, 호연지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점진적인 행동변화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간부수련, 1박 2일형과 2박 3일형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설현황으로는 본관동, 학생숙소(10동 20실), 인솔교사 숙소 1동, 실내식당 2동, 강당 1동, 샤워장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현황은 2022년 기준 분원장, 교수부장, 교수요원, 행정실장, 주무관 등 5명이며, 2023년 3월 1일 취임한 이현철 원장이 야영장 업무를 대표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 근경〉



2. 종교⁸³⁾

1. 유교

1) 유교의 역사

유(儒)라는 명칭이 최초로 기록된 문헌은 『논어』 「옹야」에 자만심 가득한 그의 제자 자하(子夏)와의 대화에 ‘군자 같은 유가 되어야지 절대로 ‘소인 같은 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기사에서 그 유래가 비롯한다. 이는 공자 이전에 이미 유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유의 관념이 출현한 이유는 중국인들의 관념에 죽음과 장례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롯되었으며, 이 장례의식을 관장하는 제사장을 『설문해자』에서는 유자(儒者) 또는 술사(術士)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은나라 때에 이르러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각종 의례를 주관하는 식자계층으로 상승하며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특수한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어 주공에 의해 예악이 제정되고 춘추시대 말기 사(士) 계층이 성장하며 전국시대에는 제자백가 중 하나였던 공자를 비롯한 현실정치의 비판세력을 형성하며 최대의 학파를 이루게 됐다.

진나라 이후 한(漢) 무제(武帝) 때인 기원전 136년, 유교는 원시유학의 경전인 오경을 기본으로 하여 국교가 된 이래 청(淸)이 망할 때까지 역대 조정의 지지를 얻으며 정교일치(政教一致)의 학문으로 중국의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한자 문화권인 한국·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었다.

춘추시대 말기 노(魯) 나라에서 태어난 공자는 밖으로 예를 실행하여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고, 안으로는 인(仁)으로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고대적·미신적인 하늘의 중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폈다. 이러한 그의 사상에 공명한 인사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들었고 여기서 유교 교단(儒敎敎團)이 발생하였다. 유가는 가장 유력한 학파로서 백가에 대항하면서 또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동안에 나타난 사람이 맹자와 순자이다.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통하여 공자의 윤리설을 내면적으로 심화시켰고, 왕도정치를 주창하여 공자가 말하는 덕치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순자는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는 선(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禮), 즉 사회적 규

83) 이편의 원고는 기존 2000년에 발간된 『연천군지』의 원고를 기준으로 윤문, 보완하였으며, 오류를 바로 잡았음을 밝힌다.

범을 통한 검속(檢束)을 중시했고, 아울러 객관적인 교학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서경』·『시경』을 비롯한 오경은 순자를 전후한 무렵에 모두 갖추어졌는데, 경서의 학습을 필수로 교학의 지침으로 삼은 것은 순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유교의 국교화는 기원전 136년, 오경박사제도(五經博士制度)가 설치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원래 유교는 선왕(先王)의 도(道)를 찬양하고 중국 문명의 상징 인물인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왕(武王)을 성왕으로 양모하여, 공자 가르침의 연원이 이들 성왕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오경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선왕의 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보다도 오경을 더 중시하였다. 이후의 유교는 난해한 오경을 앞세우고 훈고학, 즉 유교 경서의 뜻을 해석하거나 천술(闡述)하는 경학(經學)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위진남북조시대와 당나라를 지나면서 노장사상과 외래 불교가 성행하자 유교는 쇠퇴하였고, 경전의 주석에도 노장적 색채가 가미되었다.

송대에 들어서면서 유교의 현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혁신적인 기운이 움텄다. 북송에서 시작되어 남송의 주희(朱熹 : 朱子)에 의하여 완성된 송학(宋學 : 朱子學)이 그것인데, 오경을 대신하여 사서(四書)를 존중하고, 윤리학으로서의 본래성을 되찾는 한편 그것을 우주론적인 체계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천지만물의 근원은 이(理)로 순수지선(純粹至善)이며 사람은 본성으로서 이를 가지고 있지만(性卽理) 동시에 육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기(氣)를 섞게 된다. 사람은 기에 의해 가지게 되는 자기 욕망(欲望, 人慾)을 억제하고 본성(本性, 天理)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거경(居敬 : 몸과 마음을 삼가서 바르게 가지는 일)과 궁리(窮理 :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는 일)라고 하였다. 주자학은 처음에 이단시되었으나 뒤에 사대부의 지지를 얻어 융성하게 되었으며, 원(元) 때에는 전통적 유교를 대신하여 국교로 자리 잡아 청 말기까지 이어졌다.

명말 청초에는 양명학을 비판과 송·명의 신유교를 공소한다 하여 배척하고 훈고학으로 복귀하려는 기운이 고조되었다. 이것은 후한 때의 고문경학을 기초로 문자학(文字學)·음운학(音韻學)·역사학·지리학 등 여러 학문을 구사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고증학이라고 한다.

유교는 한마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이다. 수기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쌓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윤리의 학이다. 그러나 그 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치인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의 학이다. 지덕이 뛰어난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하는데, 군자는 치자(治者)를 뜻하기도 하였다. 그 반대는 소인(小人)으로 피치자(被治者)인 소인에게는 스스로 수양하는 능력이 없고, 치

자의 교화를 받아야 비로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고의 지덕을 갖춘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 성인은 제왕으로서 천하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 성인이 곧 왕자(王者)라는 성왕(聖王) 개념이 성립된다. 여기서 윤리와 정치의 일체화를 찾아볼 수 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은 인(仁)이다. 인은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을 말하며 사랑에 가깝고 그 실천에는 특히 충서(忠恕)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인은 먼저 부모·형제 등에서부터 점차 다른 사람에게로 미쳐야 하며 효(孝)를 다하는 것이 인의 첫째이고, 형제에 대한 제가 그다음이라고 한다. 그런 뜻에서 유교의 인은 이른바 인류애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인이 확대되어 서민 대중에게 미치면 인정(仁政)이 되고, 다시 그 인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성왕이라 칭하게 된다. 그런데 인은 원래 사람의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情)으로 흘러서 발로(發露)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그것을 억제하여 적절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의(義)이다. 인의(仁義)를 병칭하는 것은 맹자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그 뒤 유교의 덕목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에 예(禮)·지(智)를 추가해서 사덕(四德)이라 부르며 여기에 신(信)을 추가해서 오상(五常)이라고 한다. 유교에는 또한 오륜(五倫)이 있다. 오륜은 기본적인 대인 관계를 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는 인과 효의 미덕을 갖추므로써 도덕적 지각을 완성하고 이상적 인격을 갖춘 성실한 군자에서 최고의 지고한 상징인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하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며, 국가를 보살피 천하를 평정하는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루는 인재가 되는 동시에 세상을 구제하는 실천적 학문의 주체자로서 2500년간 동아시아 정치와 인간관계를 지배해 온 중심사상이요 종교이다.

2) 한국의 유교

한국에 유교사상이 전래된 시기는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기원전 3세기 무렵 위만조선으로부터 한사군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유교 사상이 부분적으로 전래되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공자의 경학사상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 가운데 고구려는 중기 이후 불교가 수입되었고 후기에는 종교로서 도교를 수업함으로써 유·불·도교가 병립하였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소수림왕2) 국립대학인 태학을 세워 상류 계급의 자제를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교과 내용은 오경과 삼사(三史), 『문선(文選)』 등이 중심이었다. 이것은 국가 체제와 문물의 정비, 유학의 정치 원리인 예(禮) 입각한 통치, 유교 경전의 학습을 통한 인재의 배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국 초부터 역사 기록을 중시하여

『유기(留記)』·『선집(選集)』 등을 편찬하였으며. 경전을 통해 왕도정치·덕치주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백제는 중국에서 수입한 경학·의학 등을 일본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서 일본 문화의 개창자적 역할을 하였다. 유교의 법식은 백제인의 의례와 윤리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쳐 제사나 묘제 등에도 유교적인 의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적인 신관(神觀)·사생관·윤리의식이 점차 유교화되었다. 한편 일찍부터 한문을 사용하여 『백제본기(百濟本紀)』·『백제신찬(百濟新撰)』·『서기(書記)』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며, 유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여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아직기(阿直岐)와 왕인(王仁), 무령왕 때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고안무(高安茂) 등을 들 수 있다.

신라는 지리적 영향으로 유교의 전래가 가장 늦었다. 그러나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사회질서와 정치이념에 유효적절하게 토착화하였다. 지증왕 때 유교의 뜻에 따라 순장을 금지하고, 상복법을 제정·공포하고 율령의 반포, 공복을 제정하는 일 등은 모두 넓은 뜻에서 유교사상이 국가 현실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임신서기석(壬申書記石)」에 화랑들이 『시경』·『상서』 『예기』 등을 배울 것을 하늘에 맹세한 것을 볼 때 유교가 화랑도와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문무왕의 뒤를 이어 위민(爲民)·보민(保民)·안민(安民)의 유교적 정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의 유학은 당으로부터 문화를 도입하여 교육사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유학자라고 할 만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데 특색이 있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강수(強首)·설총(薛聰)·최지원(崔致遠) 등이 있다.

고려 초기에는 태조 왕건이 불교를 숭상한 영향을 받아 유교적 정치사상과 이념의 현실적용이란 특성 아래 유교적인 교양이 지식인 사이에 일반화된 상태였지만 주로 수기치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유학 사상이 아직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사장(詞章)에 치중하던 초기 단계와는 달리 점차 통경명사(通經明史)에 힘써 경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었다. 또 정치에 실제적인 적용이 증대한 것 이외에도 한당유학(漢唐儒學)의 내용이 다른 학문이나 사회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고려 초기 수사사업(修史事業)의 흐름 속에서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는데, 유학적인 역사 의식과 역사 서술의 체계를 갖춘 역사서로 평가된다. 고려 말엽에 이르러 침체된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반성적 기풍이 조성되었고 원으로부터 주자학이 도입되었다. 안향에 의해 전래된 주자학은 백이정·우탁(禹悼)·권부(權博) 등에 의한 수용단계를 지나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에 이르러 학문적으로 심화, 정착되었다. 주자학자들은 송대 성리학 벽불론(關佛論)과 도통론(道統論)에 근거, 송유역불을 국가정책과 이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고려 초기 이래 경세론적 특성을 가졌던 유학은 철학적 논리와 체계를 갖춘 성리학의 수용

으로 인해 그 학풍이 일변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조선의 유교 입국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유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고, 세종 때 유교문화가 꽃을 피운 이래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문물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영남의 사림파(士林派)가 정계에 진출한 이래 훈구파와 대립하여 사대사화(四大士禍)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로는 사림들이 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향촌으로 내려가 학문에 주력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학문의 경향도 사색과 이론 탐구에 치중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서경덕(徐敬德)과 이언적(李彦迪)은 조선 성리학의 선구였다. 그리고 서경덕과 이언적의 뒤를 이어 명종·선조 때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고, 성리학은 일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이황(李滉)과 이이(李珥)가 대표적인 학자로, 그 학풍이 후세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의 성리학은 이황과 기대승(奇大升), 이이와 성혼(成渾) 간의 사단칠정이기론변(四端七情理氣論辨)을 거쳐 학문적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후 이황 계열의 영남학파에서는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이이 계열의 기호학파에서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는 등 학파에 따라 학설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황·이이 등 여러 학자들이 성리학을 연찬한 후 조선의 유교 철학은 고도로 발달하여 국내적으로 전성시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국외로도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 특히 이황의 학설은 일본 주자학파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일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국가 체제와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예학이 성립되어 17세기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이어 17세기 후반부터는 지리(支離)·변쇄하고 공소(空疏)한 학설로 전락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과 예론(禮論)의 대립을 지양하고 원시 유교의 근본정신에 입각, 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실사구시 등을 부르짖는 실학사상이 대두하여 영·정조시대를 전후로 세력을 떨쳤다. 그 뒤 서학(西學)의 세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이 대두하여 외국사상과 외국 문물에 대한 배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이른바 문화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친일적인 유학자류들을 이용,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격하시켜 한국 유교의 맥을 단절시키고자 하였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부설하여 황도유교(皇道儒教)를 선전하는 등 기형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방 이후 전국 유림(儒林)의 총의에 의하여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시키고, 1946년 전국 유림의 결합체인 유도회(儒道會)를 결성함과 동시에 성균관대학교를 창설하여 유학 정신에 바탕을 둔 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연천군 향교와 유도회

(1) 연천향교(漣川鄕校)

향교는 지방 행정단위에 있는 문묘와 이에 속한 학교로 공자를 제사하는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유학 경전을 강학하는 명륜당 등이 있다. 1983년 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31개 향교가 있어 이에 소속된 교직자가 만 2,013명, 신자가 78만 6,955명이라고 한다.

조선시대부터 유현(儒賢)에 대한 제향과 연천지방 관학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 왔던 연천향교는 1397년(태조6) 연천현 관아에서 동쪽으로 1리 지점인 현 연천읍 읍내리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당시 건물로는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신문(神門)·창고(倉庫)·수복실(守僕室) 등 5동이 있었다. 1658년(효종9)에 관아 북쪽으로 2리 지점인 현재의 윗샘골로 이전하여 존속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학술강습소로 이용되다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식민지 시기 명륜당은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해방 후 향교 건물은 공산치하의 탄압과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1960년 연천유림의 공의에 의해서 증건을 결의하고, 1965년에 이르러 현재 향교 위치의 아래쪽인 연천읍 차탄리 253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신축하였다. 그 후 향교 전면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연차적인 공사를 통해 현재 위치인 연천읍 지혜로 117번길 20으로 대성전



〈연천향교에서 행해지는 연천군수의 향교 고유례 헌폐례 광경(사진제공 : 연천군청)〉

을 이전하고, 명륜당, 동재(東齋)·서재(西齋) 및 내·외 삼문(三門) 등의 건물을 새로 건립하였다. 1998년 준공과 함께 매년 가을 공자탄강일(孔子誕降日)에 관내 유림에 의해 제향을 받들고 있다.

현재 연천향교의 배치 양식은 높은 곳에 대성전인 배향 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 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양식이다. 진입로에 위치한 홍살문을 따라 언덕길을 오르다가 동쪽을 향해 조성된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면 비석 여러 기가 동향으로 건립되어 있다. 이것은 연천향교를 이전하고 현재까지의 공로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기념비다. 향교 건물 전체의 중심축 선상 남쪽 제일 앞쪽으로 외삼문이 있고, 이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명륜당이 있고 그 양쪽에 학생들이 숙식하는 동재와 서재가 자리 잡고 있다. 명륜당은 익공양식으로, 중앙에 큰 대청을 두고 좌우로 온돌방이 하나씩 있다. 동재와 서재는 민도릿집 양식으로 되어있다.

명륜당 뒤쪽 높은 곳에는 내삼문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제향의 중심 전각인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은 주심포양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내부는 통간(通間)으로 되어있다. 대성전에는 주벽인 공자를 비롯하여 사성(四聖)인 안자·증자·자사·맹자와 송대 이현(二賢)인 정호(程顥)·주희(朱熹), 우리나라 십팔현(十八賢)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에서는 대성전 앞 동서 양쪽에 공자 제자들과 현인(賢人)들의 위패를 모시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어야 하나, 현재 연천군에서는 대성전 안에 함께 위패를 모시고 있다.

(2) 연천군유도회

유교와 유림 단체의 기구로는 1945년 한국 유림대표 200여 명이 성균관에 모여 결성한 유도회총본부가 있다. 설립목적은 유교를 중심으로 도의정신·윤리부식·수제치평(修齊治平)·사회질서 순화이다. 여기에서는 성균관대학 설립, 성균관 직제개편, 지방조직 강화 등을 결의하였고 성균관대학의 설립 유지, 지방 향교의 육성 발전, 경전 번역 및 학술연구 발표, 정치·경제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교화 및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확정하였다. 조직으로는 중앙에 총본부가 있고, 각 시·도에 본부와 그 밑에 230여 지부가 있다. 성균관 직제로는 관장·부관장·전의(典儀)·전학(典學)·사의(司儀) 등을 두었으며, 지방 향교에는 전교(典校)와 장의(掌議)를 두었다. 산하에는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림회를 두고 교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충효교실을 설치하여 이와 관련된 순회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에는 사단법인 성균관유도회 연천군지부가 있다.

연천향교와 성균관유도회 연천군지부 역대 전교 및 지부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천향교 역대 전교 및 유도회지부 회장 명단〉

〈2023년 3월 1일 기준〉

| 역대 전교 명단 | | | 역대 유도회장 명단 | | |
|----------|----|----------|------------|----|----------|
| | 본관 | 성명 | | 본관 | 성명 |
| 초대 | 원주 | 원홍식(元弘植) | 초대 | 진주 | 강기원(姜棋遠) |
| 2대 | 남양 | 홍대윤(洪大允) | 2대 | 파평 | 윤종현(尹宗鉉) |
| 3대 | 진주 | 강기원(姜棋遠) | 3대 | 여흥 | 민영렬(閔永烈) |
| 4대 | 여흥 | 민영렬(閔永烈) | 4대 | 파평 | 윤방혁(尹邦赫) |
| 5대 | 진천 | 송순무(宋淳武) | 5대 | 수원 | 백필현(白弼鉉) |
| 6대 | 개성 | 왕영철(王永哲) | 6대 | 경주 | 최종태(崔鍾泰) |
| 7대 | 곡성 | 임용준(任龍準) | 7대 | 경주 | 이만덕(李萬德) |
| 8~9대 | 파평 | 윤종현(尹宗鉉) | 8~9대 | 파평 | 윤경보(尹慶普) |
| 10대 | 곡성 | 임영준(任英準) | 10대 | 함중 | 어광문(魚光汶) |
| 11~13대 | 전주 | 이보의(李輔義) | 11대 | 안동 | 권윤근(權潤根) |
| 14~15대 | 전주 | 이영철(李永哲) | | | |
| 16대 | 수원 | 백필현(白弼鉉) | | | |
| 17대 | 청풍 | 김명준(金明濬) | | | |
| 18대 | 경주 | 최종태(崔鍾泰) | | | |
| 19대 | 한양 | 조기창(趙基昌) | | | |
| 20~21대 | 경주 | 이만덕(李萬德) | | | |
| 22~23대 | 파평 | 윤경보(尹慶普) | | | |
| 24대 | 함중 | 어광문(魚光汶) | | | |

〈자료제공 : 연천향교〉

2. 불교

1) 한국 불교의 전래와 발전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372년(고구려 소수림왕2) 6월 진(秦)나라의 순도(順道)와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 초문사(肖門寺)·이불란사(伊弗蘭寺) 등을 창건하고 설법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들의 설법과 전도를 공식으로 인정한 고구려에서는 그 후 평양(平壤) 아홉 개의 사찰과 반룡사영탑(盤龍寺靈塔) 등을 짓는 한편 불교 전파에도 힘써 많은 고승이 배출되었고, 열반종(涅槃宗)·삼론종(三

論宗)·천태종(天台宗)·살바다종(薩婆多宗) 등의 종파가 이루어졌다.

의연(義淵)은 불교 역사연구를 통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혜자(惠慈)·운충(雲聰)·혜편법사(惠便法師)·담징(曇徵)·법정(法定) 등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으며, 도림(道琳)·덕창(德昌)·혜량(惠亮)·신성(信誠) 등은 호국불교를 위한 실력배양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백제는 384년(침류왕1)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을 경유하여 입국, 왕의 우대를 받고 궁중에 머물다가 이듬해 남한산(南漢山)에 절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그 후 왕흥사(王興寺)·미륵사(彌勒寺)·한산불사(漢山佛寺)·경복사(景福寺)·수덕사(修德寺) 등 많은 사찰이 건립되고 교파도 삼론종·계율종·성실종(成實宗)의 세 종파가 성립되었다. 백제불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많은 고승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 전파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일본 성실종의 개조가 된 도장(道藏)을 비롯하여 일본 불교를 이끄는 승려들을 배출하였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가 가장 늦게 전파된 나라로 527년(법흥왕14) 이차돈(異次頓)의 순교 후 비로소 공인되었는데, 그 후 급속히 발전하여 국가적 종교로 존숭되고 승려와 사원이 국가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었다. 많은 구법승(求法僧)이 인도와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당나라의 13종(十三宗)이 도입되어 발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선종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이른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분파를 이루었다. 국가 안태(安泰)와 왕실의 번영을 비는 호국불교로서의 신라불교는 사상·정치·문화·외교·국민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예 방면에도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웠다.

이때 황룡사(皇龍寺)·사천왕사(四天王寺)·봉성사(奉聖寺)·감은사(感恩寺)·봉덕사(奉德寺)·망덕사(望德寺)·법주사(法住寺)·통도사(通度寺)·화엄사(華嚴寺)·월정사(月精寺)·부석사(浮石寺)·불국사(佛國寺)·장안사(長安寺)·해인사(海印寺)·보현사(普賢寺)·범어사(梵魚寺)·쌍계사(雙溪寺) 등 명찰을 창건하였고, 탑·종·불상 등의 공예가 발달하여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정혜사(淨惠寺)의 13층탑, 화엄사 쌍탑, 감은사 쌍탑, 무량사탑(無量寺塔), 동화사(桐華寺) 쌍탑, 금산사(金山寺)의 석탑 및 6각다보탑, 화엄사 사리탑 등을 비롯하여 석굴암 석불, 황룡사 장륙금상(丈六金像), 봉덕사종, 금산사 부도(浮屠), 감산사(甘山寺)의 2불상, 백률사(栢栗寺)의 약사상(藥師像), 사천왕사의 사천왕상, 화엄사 석등 등은 귀중한 문화재로서 전승된다. 한편 수많은 고승이 배출되어, 원광(圓光)과 같은 대학승(大學僧)은 세속 5계(世俗五戒)로 국민 도의를 확립하였고, 자장(慈藏)은 문물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의상(義湘)은 실천적인 수행(修行)과 사찰의 건립을 통하여 화엄의 교리를 널리 퍼는 한편 많은 학승을 양성하였고, 원효(元曉)는 80여 부의 화엄 논소(論疏)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는 한편 통일 불교 창조에 정력을 쏟았다.

특히 의상과 원효는 그 학통이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원측(圓測)은 유식설(唯識

說)에 통달하여 독특한 견해를 가졌고, 그 때문에 중국의 법상종 정통파에게는 비난을 받았으나 그의 저술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는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전한다. 혜초(慧超)는 인도에 건너가 불적(佛蹟)을 순례하고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귀국한 다음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저술하여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그 밖에 신라시대의 고승들로는 도증(道證)·경흥(憬興)·지통(智通)·표훈(表訓)·명랑(明朗)·승전(勝詮)·대현(大賢)·도의(道義)·신행(信行)·체징(體澄)·지증(智證)·혜소(慧昭)·현욱(玄昱)·개칭(開淸)·낭공(朗空)·범일(梵日)·무염(無染)·원랑(圓郎)·진경(眞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당나라와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고려의 불교는 신라불교를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송(宋)나라의 영향 아래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태조 왕건(王建)은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새로 승과(僧科)를 제정하여 승려를 우대하였다.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을 연중행사로 개최하는 등 태조의 숭불정책은 고려 전반에 걸쳐 계승되면서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당시에 건립된 사찰로는 개성의 왕륜사(王輪寺)·법왕사(法王寺)를 비롯한 16사(寺)와 봉은사(奉恩寺)·진관사(津寬寺)·부석사(浮石寺)·관음사(觀音寺)·승교사(崇敎寺)·석왕사(釋王寺)·영명사(永明寺) 등이 있으며, 공예품으로는 관촉사(灌燭寺) 석등, 부석사 조사전벽화(祖師殿壁畵), 대흥사(大興寺)의 종 등 우수한 예술품을 낳았다.

특히 문종(文宗) 대에는 고려판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간행하여 한국불교문화의 대표작을 남겼다. 체관(諦觀)은 천태종을 재흥시켰고,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문종의 아들로 일찍이 11세 때 승려가 되어 송나라에 유학한 후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 교장(敎藏) 4,740여 권을 간행한 것은 특기할 만하며, 또 문하생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밖에 중기에 이르러 지눌(知訥)·수기(守其)·균여(均如), 말기의 나옹(懶翁)·보우(普愚)·보조(普照)·백운(白雲) 등은 이름을 떨친 고승들이 있었다. 고려의 불교종파는 신라의 종파가 계승되었다가 말기에 다소 분화되어 조계종(曹溪宗)·천태법사종(天台法師宗)·천태소자종(天台疏子宗)·화엄종·총남종(攄南宗)·자은종(慈恩宗)·신인종(神印宗)·남산종(南山宗)·도문종(道門宗)·중신종(中神宗)·시흥종(始興宗)의 11종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 화엄·자은·총남·중신·시흥의 5종을 5교(敎), 조계·천태의 2종을 양종(兩宗)이라 하여 5교 양종의 종파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정의 승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는 미증유의 수난기(受難期)를 맞이하였으니,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는 한편 함부로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사전(寺田)에도 과세를 하였으며 승려의 궁중출입과 도성(都城) 내 출입을 금하였다. 또한 연산군 때는 승과(僧科)를 폐지하고, 삼각산의 여러 절의 승려를 몰아내어 그곳을 놀이터로 삼았으며 원각사(圓覺寺)의 불상을 옮기고 그곳을 기관(妓館)으로 삼는가 하면 선종(禪宗)의 본산인 흥

덕(興德)·흥천(興天) 두 절을 없애고 여승은 궁중의 노비(奴婢)로 삼고 승려들도 모두 환속(還俗)시켰다. 중종(中宗)은 경주(慶州)의 동불상(銅佛像)을 녹여 병기(兵器)를 만들고 원각사를 헐어 그 재목은 민가를 짓는 데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에도 불구하고 불교신앙 자체를 말살하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상류층 여성과 민간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신앙을 저지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역대왕 중에는 호법왕(護法王)도 있었으니, 태조는 석왕사·태고사·해인사 등에 비판(婢板)을 하사하였고, 세종·세조 때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 불경을 간행하였다. 특히 세종은 불교종파의 정비를 단행하여 조계·천태·총남의 3종을 선종(禪宗)으로, 화엄·자은·시흥·중신의 4종을 교종(敎宗)으로 통합하여 선·교 양종을 성립시켰다. 이름 높은 명승도 많이 배출되어 무학(無學)·함허(涵虛)·보우(普雨) 등과 임진왜란 때의 승장 서산(西山)·사명(四溟)·처영(處英)·영규(靈圭) 등은 특히 유명하다.

그 후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편입되었다. 1911년 제정된 총독부 「사찰령」에 의하여 한반도 내 교단을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 칭하고 중앙에 31본사를 설치하는 한편, 120개의 말사를 두었다. 3·1운동 때는 많은 승려가 가담하였으며, 한용운(韓龍雲)·백용성(白龍成) 등은 33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에는 태고사(太古寺) 현 조계사를 세워 총본산으로 삼고 종단 이름을 '조계종(曹溪宗)'으로 결정하였다. 이 조선불교 조계종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불교조계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해방 직후 불교계는 전국불교대회를 열어 교구제를 정하고 중앙에는 총무원, 각도에는 교무원을 설치하여 종헌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였다. 조계종은 25개 교구본사가 있다. 한편 해방 이후 한동안 종권 다툼으로 비구와 대처승 간의 분열 등으로 수난을 겪던 불교계는, 1962년 4월 12일 통일종단을 구성하면서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사찰령(寺刹令)에 따라 31개 본사와 1,200개의 말사(末寺)로 구분되었고, 8·15광복 후 전국불교대회를 열어 교구제(敎區制)를 정하고 중앙에는 총무원, 각 도에는 교무원을 설치, 종헌(宗憲)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였다.

6·25 한국전쟁 후에는 파괴된 100여 개의 사찰을 수축하는 한편 불교의 대중화운동을 전개하였고, 고아원의 설립, 동국대학·해인대학·경기대학과 해동(海東)·용인(龍仁) 등 10여 고등학교 및 20여 개의 중학교를 운영, 문화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1954년 이래 비구(比丘)·대처(帶妻) 두 파의 분쟁으로 분열된 후 여러 개의 종단으로 갈라졌다.

2022년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종파는 조계종을 비롯하여 태고종(太古宗) 등 27개 종파가 있으며 사찰의 수는 5,700여 개소이며, 승려가 2만여 명, 신도 수 1,300만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2) 연천군의 불교 현황

현재 연천군 관내에는 조계종·태고종 등 10개 종단 이외에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종단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으로 천태종·진각종 등 22개의 종단이 있다.

이 가운데 연천군의 전통사찰은 8·15해방 전까지 보개산 내의 최대 거찰이었던 심원사지에 2004년에 복원된 조계종 원심원사(元深源寺)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공산치하에 들어 탄압을 받았던 어둠의 시기를 지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중심 공간에 있던 연천군의 특성상 과거 국보급 명찰이었던 보개산(寶盖山) 내의 심원사(深源寺), 성주암(聖住庵), 남암(南庵), 지장암(地藏庵), 석대암(石臺庵), 오봉사(五峰寺) 등이 전쟁의 와중에 모두 전소되면서 소중한 불교문화 자산들이 사라지는 법란을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647년에 창건된 심원사와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최대 성지인 석대암(720년 창건)은 과거 연천지역의 불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중심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수복이 된 후에 세워진 연천군 내의 사찰은 모두 신흥사찰로 그 교세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사찰의 면모 또한 사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연천군 내에 군 법당을 제외하고 비교적 사격을 갖춘 사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천군 내 사찰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종파 | 사찰명 | 소재지 | 대표자 | 비고 |
|-----|-------------|---------------------|-------|----------|
| 조계종 | 원심원사 | 신서면 동내로970번길 32-268 | 세민 | 2004년 복원 |
| 조계종 | 지장사 | 미산면 청정로1653번길 66 | 수법 | |
| 조계종 | 본원사 | 전곡읍 선사로398번길 5 | 윤자현 | 1981 |
| 조계종 | 진각선원 | 연천읍 지혜로117번길 10 | 김병세 | 1978 |
| 태고종 | 수불사 | 청산면 전영로215번길 153-28 | 법경 | |
| 태고종 | 법성사 | 전곡읍 선바위길 43 | 청담 | |
| 태고종 | 대화사 | 미산면 청정로1255번길 117 | 현성 | |
| 태고종 | 능혜사 | 전곡읍 양연로1162번길 80 | 법조 | |
| 법화종 | 백련사 | 전곡읍 늘목리 산90 | 유원열 | 1981 |
| 법화종 | 보국사 | 전곡읍 선사로 35 | 박보현 | 1972 |
| 법상종 | 신중사 | 백학면 백학로60번길 13-8 | 신동기 | 1988 |
| 조동종 | 태흥사 | 전곡읍 청정로 2491 | 정재순 | 1994 |
| 참종 | 태황사 (구 오봉사) |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 군맹 서진 | |



〈보개산 원심원사 근경〉

3. 카톨릭교

(1) 가톨릭교 역사와 한국 전래

(1) 가톨릭교 역사

가톨릭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10년경에 순교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그나티오스가 스미르나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였다. 1984년 현재 가톨릭교는 전 세계 그리스도교도 약 10억 6,000만 명 가운데 약 6억 2,0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최대 종교이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즉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선교한 12사도와 바울의 활동으로 로마에 전파되었으며, 무서운 박해 뒤에 콘스탄티누스대제의 그리스도교 개종과 313년 「밀라노칙령」에 의해 로마제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뒤 가톨릭교는 동·서로마제국 안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발전을 이룩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전례나 언어에 따른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4세기경까지는 똑같은 가톨릭교회로서 일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325년 니케아공의회(公義會) 및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교의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성화상파괴논쟁,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포시우스의 임면(任免)을 중심으로 한 논쟁, 삼위일체의 교의에서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온다는 단수발생론의 동방교회를 무시한, 서방교회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양쪽에서 나온다는 복수발생론의 논쟁 등이 겹쳐 1054년 동서의 교회는 분열되었다. 로마교

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는 스스로를 정교회(正教會)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신학·전례·신앙 생활·교회 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었으며, 특히 직접적인 계기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제기한 면죄부논쟁이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여러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가톨릭교회는 1545~1563년 트리엔트공의회를 개최하여 교의와 조직 및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반종교개혁이라 불린 것이며 근대가톨릭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통일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탄생하자 가톨릭교회는 이들 국가와 정교조약(政敎條約)을 체결하였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라테란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시국(市國)이 탄생되었다.

그리스도교의 근본 개념인 죄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에 대하여 가톨릭에서는 성사의 하나인 세례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프로테스탄트가 신앙의 원천으로 성서를 유일시하는 데 비해, 가톨릭은 성서와 더불어 사도 이래의 성스러운 전통을 신앙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교회 교도직(敎導職)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를 갖고 해석한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는 가지 성사를 중시한다. 즉 세례·견진(堅振)·성체(聖體)·고백(告白)·혼인(婚姻)·신품(神品)·병자(病者) 성사가 그것으로, 이러한 성사는 인생의 고백에 필요한 은총의 효과적인 표시가 되며, 특히 성체성사는 가톨릭 신도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어있다. 성체성사가 행하여지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의 2부분으로 되어있다.

(2) 한국의 가톨릭교 수용과 발전

16세기 중엽 가톨릭은 중국과 일본에 전파되어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1593년 12월 일본에 진출해 있던 예수회는 임진왜란 때 동원되었던 왜군을 교화하기 위해 에스파냐의 세스페데스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여 경상도 웅천성에 왔으나 별로 전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1595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임진왜란 7년 후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인 만여 명 가운데 나가사키지방 근처에서 7,000명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나, 1611~1720년 100여 년 동안 계속된 도쿠가와 막부의 가톨릭교 말살 정책으로 조선인 신자 7,000명도 모두 순교하였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의 선교사들도 북경에 내왕하는 조선 사신들과 볼모로 잡혀 왔던 소현세자(昭顯世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선 전도를 시도하였다. 이때 소현세자가 신부 아담 살과 교류를 나누었고, 조선인 2~3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중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저술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가 조선에 도입되어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 등이 조선 사신들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그 뒤 실학(實學)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남인 학자

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성호 이익(李瀼)과 그의 제자 안정복(安鼎福) 윤동규(尹東奎) 등은 천주교를 깊이 연구하였다. 이 실학자들은 천주교를 천학(天學) 또는 서학(西學)이라고 불려 다만 학문적으로 연구될 뿐이었으나 안정복의 문인이던 권철신(權哲身)·정약전(丁若銓)·이벽(李穰) 등에 이르러서는 교리를 연구하는 종교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은 주어사(走魚寺)·천진암(天真庵) 등지에서 강학회를 열고 서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여, 기도와 재계 등으로 천주교 계명의 일부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약전의 맏부 이승훈(李承薰)은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에 건너가 1784년(정조8) 봄 북천주당(北天主堂)의 신부 그라몽[梁棟材]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 최초의 세례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모여 주일행사를 지냄으로써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창설되었다. 이와같이 밖으로부터 성직자가 들어와 전교(傳教)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창설한 것은 세계 교회사상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의 천주교는 수용 직후부터 조정의 탄압 대상이 되어 교회 창설 이듬해인 1785년부터 「한불수호통상조약」이 비준된 1887년(고종24)까지 100여 년에 걸쳐 크고 작은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1785년에는 1784년에 창설한 조선교회가 발각되어 김범우가 유배당하였고, 1791년에는 모친상을 당하고도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나 윤지충·권상연이 처형당하였다. 1801년 순조 즉위 뒤부터는 조직적이고 전반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권력으로 득세한 노론벽파(老論僻派)가 종교를 빙자하여 남인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산유박해(辛酉迫害)이다. 이로 인해 주문모와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거의 순교하고 성서도 대부분 압수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비참한 상황에서도 신도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10년 만에 재기하였고, 이에 로마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가 1831년 9월 북경교구에서 독립된 조선교구를 설정하는 동시에 초대 교구장에 브뤼기에르를 임명하였으나, 그는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중국에서 병사하였다. 1836년(헌종2)에는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은 토착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 최양업(崔良業)·최(崔)프란체스코, 김대건(金大建) 등을 마카오로 유학하게 하였다. 1837년 조선교구의 대교구장으로 임명된 주교 앙베르가 입국함으로써 조선교구는 독립 교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천주교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1839년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기해박해(己亥迫害)이다. 이로 인해 당시 입국해 있던 명의 선교사와 유진길(劉進吉)·정하상(丁夏祥) 등이 모두 순교하였다. 1845년 마카오로 유학했던 김대건이 신부가 되어 귀국하여 교우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해 그의 체포를 발단으로 병오박해(丙午迫害)가 일어나 김대건과 교우 79명이 순교하였다. 철종 때에 이르러 천주교는 조정의 탄압이 완화되어 교세를 크게 떨쳤으며 베르뇌 신부를 비롯한 10여

명의 신부가 입국하였고 최양업도 신부가 되어 귀국하였다. 1856년(철종7)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배론신학교가 충청북도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1866년(고종3) 병인박해(丙寅迫害)가 시작되었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당시 조선에서 선교 중이던 선교사 12명 중 9명과 교회의 지도급 신도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살아남은 선교사 중 리델 신부는 탈출에 성공, 천진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병인양요(丙寅洋憂)를 초래하였다. 이때의 박해는 그 규모나 기간 등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박해로 이기간 동안 8,000~2만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는 불완전하나마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 종현(鐘峴)성당(현 명동성당)·약현(藥峴)성당 등의 건축, 용산신학교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창씨개명·신사참배 등의 강요, 미국인 선교사 추방, 외국인 선교사 구금 등의 종교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발전을 계속하여 여러 교구가 창설되었고 서울교구장직이 노기남(盧基南) 신부에게 넘겨짐으로써 처음으로 한국인 교구장이 탄생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천주교는 개신교와 함께 우대를 받으며 교세를 더욱 확장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성당·학교 등의 파괴, 성직자·수도자 납치 등의 시련 속에서도 발전을 계속하였다.

1962년 한국천주교회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자립 교회로 승격함으로써 많은 교구가 증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바티칸공의회가 개최되어 한국 교회의 발전과 쇄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9년 서울대교구 김수환(金壽煥) 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을 맞이하였고, 1984년에는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세가 내한하여 순교자 103인에 대한 시성식(諡聖式)을 집전하였다.

1989년에는 10월 4~8일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22년 기준 한국천주교회는 290만여 명의 신자가 있으며, 교구수는 서울·대구·광주 대교구를 포함하여 16개 교구이다.

2) 연천군 가톨릭교와 교회 현황

연천군의 천주교 역사는 현재까지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실학자들에 의한 초기 천주교의 포교와 종교활동은 남인계의 학맥의 중심지였음에도 지금까지 서학 또는 세례, 집회 관련 기록과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연천군 내에 산재한 조선 후기 옹기요지들에서 신유박해 이후 산간벽지로 숨어들어와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흔적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보개산 내에 해당하는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의 접말에 있는 부곡리 옹기요지를

들 수 있다. 해방 당시까지도 이 옹기 요지는 큰 규모로 운영되었는데, 천주교도이며 옹기장인 심씨에 의해 예배와 신앙생활을 했다는 목격과 증언이 있다.

이 외에도 연천군 내에 산재한 조선 후기 옹기요지인 연천읍 옥산리, 신서면 대광리 점말, 중면 삼곶리 점말, 왕징면 강내리 동이점, 전곡읍 은대리의 고탄동 등의 요지를 꼽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초기 천주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하여 종교적 관점의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한국전쟁 이후 수복이 되면서 정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1959년 1월 12일, 미 제8군단 포병사령부 군중 카우스키 신부의 지원으로 전곡읍 은대리에 전곡성당이 축성되었는데, 1960년 3월 카우스기 신부의 출국으로 동두천성당 전곡공소로 편입되었었다. 그 후 1979년 5월 3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곡성당으로 다시 승격하여 대광리·신망리·연천공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92년 10월 8일에는 연천읍 현가리에 있는 연천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하면서 전곡성당에서 관할하던 대광리·신망리공소를 연천성당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현재 연천군 내에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성당은 의정부교구 소속의 전곡성당이며, 2023년 1월 기준 자세한 관내 천주교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천군 내 천주교회 현황〉

〈2023년 3월 1일 기준〉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연천성당 | 연천로308번길 19 | 신부 | 장광훈 |
| 전곡성당 | 평화로673번길 5 | 신부 | 금기중 |
| 상리성당 | 상리로34번길 19-1 | 신부 | 최종운 |
| 상리성당공소 | 연신로 1186-1 | 신부 | 최종운 |



〈천주교도에 의해 운영되었던 부곡리 옹기요지 근경〉



〈천주교 전곡성당 본당 전경〉

4. 기독교

1) 기독교 역사와 한국 전래

(1) 기독교의 역사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교훈은 사랑, 즉 아가페(agape)이다. 예수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는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중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까지 나왔다.

그러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활동을 계속했을 때,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는 예수를 정치적인 반(反)로마의 메시아운동가로 몰아 로마 관헌에게 고발하고, 민중을 선동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다. 그러나 곧 예수 부활의 신앙이 일어났으며, 예수는 참된 메시아라는 신앙이 전개되었다. 이 메시아란 민족적인 유대의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 생명의 구세주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중세 봉건사회의 획일적인 로마 가톨릭교에 대해 근세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주적 성격이 저마다 스스로 신앙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외적 권위로서의 가톨릭적 그리스도교가 내적인 개인의 신앙 문제로서 개별화되었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발단은 가톨릭 수도사 출신 마르틴 루터의 면죄부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루터 종교개혁의 기본은 가톨릭의 세 가지 본질인 전승주의, 성사에 의한 구원, 사제제도(司祭制度)에 대립하는 것이다. 그 후 16세기 후반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칼뱅의 활동으로 프로테스탄트운동은 큰 세력이 되었다. 이 운동의 특색은 가톨릭의 교회주의에 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적 신앙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복음주의이고, 모든 생활의 성화(聖化)를 목표로 하는 사회실천운동이다. 칼뱅파 교회는 유럽 각지에 퍼져서 개혁파교회라고 하여 루터파 교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의 두 주류를 이루었다.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교회 제도나 의례(儀禮)와 사회의 관계에서는 가톨릭교회를 일변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주의이며, 신조나 신학(神學)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사상이 큰 전환을 보인 것은 종교개혁시대가 아니라 근대에 와서 자유주의와 과학의 진보에 의한 것이다. 이후 근대적인 그리스도교의 흐름은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이성적·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감에 의한 종교적 체험으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을 개인의 금욕 생활 방법의 엄격함을 요구

하여 메터디즘(감리교)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 보급되어 감리교회를 일으켰고, 나아가 미국에도 크게 세력을 뻗쳐 침례교회와 함께 미국 초대 복음주의교회로 신대륙 프론티어 세계에 교세를 폈다. 또 하나의 흐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가 새로 한 교파가 되었으며, 크롬웰의 청교도혁명에서 회중파(會衆派)가 생겨났는데,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정통파의 근대 교파가 되었다. 광교회파(廣教會派)는 이러한 사회 운동을 영국에 전개시킨 대표적인 교파이다.

(2)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발전

한국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보통 천주교로 알려져 있고,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신교 또는 기독교로 불리고 있는데, 기독교는 가톨릭교에 비해 100여 년 뒤에 수용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1832년(순조32) 그츠라프가 충청도에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884년(고종21) 7월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클레이(Rev. Dr. R. Maclay)가 처음으로 왕에게 교육과 의료 선교 사업 유히를 받아 돌아갔고, 이어 한국에 파견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 N. Allen) 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입국하였다. 북감리교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이듬해인 1885년 아펜젤라(Rev. H. G. Appenzella) 목사 부부와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H. G. Underwood) 목사가 입국하였다. 안수받은 개신교 목사로서는 첫 선교사들이었다. 그해 6월에는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Rev. W. B. Scranton) 박사 가족이 입국하여 정동시병원을 설립하였고, 아펜젤라는 배제학당과 정동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스크랜턴의 어머니(Mrs. M. F. Scranton)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광혜원에서는 의학 교육이 시작되었고, 1886년에는 언더우드 학당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가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신교 복음 전도에 착수할 수 없었다.

1885년 윤치호는 중국 상해 남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증서서원대학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1887년 세례를 받고 남감리교인이 되었으며, 1895년 김홍집 내각의 학무협판에 취임해서는 남감리교회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를 청원하였다. 그의 요청으로 1896년 헨드릭스(Bishop E. Hendrix) 감독과 중국에서 선교하던 리드(Dr. C. Reid) 박사 가족이 남감리교회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전도사업과 교육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얼마 뒤 캠벨(Mrs. Josephine Cambell) 이 중국에서 건너와 여선교회 사업을 시작하였다. 1887년 9월 언더우드 장로, 교인 14명과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로 바로 새문안교회였다. 1887년 12월에는 언더우드 목사 집례로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언더우드는 1887년 감리교 선교회와 함께 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하였다. 1900

년 신약성경이 번역 출판되었고, 1910년에 구약이 완역되어 이듬해에 신, 구약 성경이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1937년 다시 전면 개정되어 개역 한글판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1901년 평양에서는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되어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감리교도 미북감리교회는 1908년 한국연회를 창설하였고, 미남감리교회는 1914년에 한국연회를 조직하였다. 남·북 감리교회는 1930년 12월 하나로 통합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1907년 1월, 전국적인 대회 및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운동으로 기독교 진리를 새롭게 터득하게 하였고, 교회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새벽기도회와 통성기도, 사경회라는 토착적이고 독특한 한국 교회의 특징이 확립되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연합을 추진하여, 1918년 3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가 발전하여 1924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되었으며, 1928년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주도하는 예루살렘선교대회에 대표 6명을 파견하고 INC에 가입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 세계 교회의 무대에 독자적으로 서게 된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절대통제를 위해 신사참배 강요에 나서 교회의 굴복을 강요했다. 교회는 신사참배 거부의 자세를 굳혔는데, 이 문제로 신학교가 폐쇄되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000여 신도가 투옥되고, 50여 교역자가 순교하였다. 태평양 전쟁의 말기가 되자 일본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져 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선교사들은 1940년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1938년 YMCA와 YWCA를 해산하여 일본 YMCA에 종속시켰고, 조선 예수교연합공의회 또한 해산되어 조선기독교연합회로 변질되었으며, 1942년 오순절교회를, 1945년에는 장로교·감리교·구세군 등 모든 교파를 해산하여 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합하였다.

해방과 함께 1947년 4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재건되어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개칭하고, 장로회신학교도 복구하였다. 1949년에는 대한오순절교회가 재건되어 1953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교단을 창립하였다. 1984년 한국 교회는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고, 오늘날에는 국제선교운동(선교사파견운동)을 결의하여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량강화와 인류의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1월,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 신도수는 1,030만으로 집계되었다.

2) 연천군 내 기독교의 전파와 현황

(1) 연천군 내의 기독교의 전파

초기 개신교는 한국에 온 남·북감리교 두 선교부가 선교 구역을 서로 조정하여 선교하였는데, 남감리교회는 개성에 본부를 두고 고양·파주·포천 등 서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펴 나갔지만, 일제 강점 전후 연천군 지역은 강원도 영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의 공간에 속하게 되며, 그 중심에 셔라우스(C.F.Shearouse: 史羅時) 선교사와 한사연(韓士淵, 1879~1950) 목사가 중심에 자리한다.

연천 일원에서의 초기 기독교 선교는 1905년 미국 북장로교회 웰번선교사에 의해 철원읍 장로교회로 출발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후 1907년 선교지 분할협정에 따라 미국 남감리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강원도 철원과 바로 인접한 연천군은 그 선교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한사연 목사는 1880년 강원도 김화 출신으로 25세에 감리교 신자가 되었고, 2년 후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어 김화, 철원, 평강, 회양, 이천 등지에서 전도에 종사하는 매우 중요한 중심 인물이다.

1916년에 이르러 셔라우스 선교사와 한사연 목사, 허성범 전도사에 의해 연천군에 편입된 삭녕 읍내의 삭녕감리교회가 건립된 사실로 보아 연천의 감리교회 설립은 그와 동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정확한 건립 문헌기록이 발굴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황의 근거로는, 1914년 경원선 개통 이전에 연천 읍내리에 있던 연천군청이 일제의 신도시 건설의 계획 아래 191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는데, 한국전쟁 이전에 위치했던 연천감리교회가 연천군청과 읍내리의 사이인 경원선 철도 건널목 서쪽의 차탄리 도로변에 있었다는 원주민과 원로 신도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연천감리교회 역시 1915년~1920년경에 설립되었다고 추정된다.

이후 연천감리교회는 연천 출신으로 알려진 한사연 목사에게 의해 입교한 김성유(金聖有) 전도사에 의해 교세가 확장되고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중심인물 가운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강종근(姜琮根, 1901~1942) 목사가 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되어 순교한 강종근 목사가 전도사로 연천감리교회에 시무했던 시기는 1936년~1938년으로, 이 시기에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중점적으로 펼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설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⁸⁴⁾

84) 이 인용자료의 출처는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독립운동사자료집 12. 문화투쟁자료 집에 실린 1941년(소화16년) 형공 제1587호 강종근 목사 판결문 번역문을 부분 인용하였다.

(1) 소화 12년(1938년) 3월 일, 불상 전기 연천교회에서 신교 약 5, 60명에 대해 ‘바울의 커다란 걱정’ 이라 제목하고 바울은 계급을 묻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선조했으나,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큰 걱정이 있다. 그것은 즉 우리 조선 동포의 구원이라고 암암리에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뜻을 설교하고 위 교도들에게 민족의식을 주입 양양하는데 노력하고,

(2) 동년 월일 미상 전기 연천교회에서 신도 약 4, 50명에게 ‘손을 뺐으라’는 제목으로 능력은 펼친 손에 있다. 조선 2천만 동포에게는 4천 만의 손이 있는데, 이 손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뺐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두 손 중의 한 손을 약자에게, 또 한 손은 신에게 뺐으라고 설교하여 위 교도들에게 대해 민족주의 의식을 주입 양양시키고.....,



위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연천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지역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종교적 거점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곡감리교회는 1926년 전곡리 최창호 집에서 첫 예배를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1927년에는 전곡리 295-1번지 일대에 있던 논 856평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후

〈강종근 목사 수감 당시의 사진(사진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연천감리교회 전경〉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수복이 되면서 전곡리 333-32번지에 천막교회로 다시 시작하여 1955년 목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가장 먼저 수복이 된 연천읍 상리의 경우 UN과 미군의 원조하에 상리감리교회가 천막의 형태로 세워지며 전후 연천지역 교회 재건의 매우 중요한 시대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23년 1월 기준 연천군 내 개신교회의 숫자는 86개로 집계되었다.

3) 읍·면별 기독교 교회 현황⁸⁵⁾

연천군의 기독교 교회 현황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천읍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고포리장로교회 | 통현길 13 | 목사 | 박동수 |
| 상리감리교회 | 상리로34번길 59 | 목사 | 김승돈 |
| 새마음장로교회 | 현문로 409 | 목사 | 김성호 |
| 새소망감리교회 | 현문로 19 | 목사 | 최형남 |
| 신망리제일교회 | 연신로466번길 3 | 목사 | 이창호 |
| 아름다운교회 | 현문로26번길 163-27 | 목사 | 유종길 |
| 연천감리교회 | 연천로 298 | 목사 | 김대성 |
| 연천순복음교회 | 연천로 236 | 목사 | 임영광 |
| 연천장로교회 | 연천로270번길 31 | 목사 | 박성춘 |
| 연천제일교회 | 문화로 23 | 목사 | 심동성 |
| 옥산교회 | 합내로854번길 498-50 | 목사 | 송수목 |
| 와초리장로교회 | 와초길 68-17 | 목사 | 강원식 |
| 재현교회 | 현문로 552 | 목사 | 공병옥 |
| 주광교회 | 신망로12번길 30 | 목사 | 송우성 |
| 통현교회 | 현문로 10-6 | 목사 | 채승주 |
| 하나님의 교회 세계순복음교회 | 연천역로 32 | 목사 | 김순성 |

85) 개신교의 교회 현황자료는 2023년 3월 1일 기준이며, 연천군청에서 제공하였음을 밝힌다.

(2) 전곡읍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간파리교회 | 양연로 462 | 목사 | 최용재 |
| 고능장로교회 | 전은길 64-3 | 목사 | 김달호 |
| 구세군전곡교회 | 전곡로106번길 26-2 | 사관 | 박종섭 |
| 금촌교회 | 청연로276번길 45 | 목사 | 이상용 |
| 본향장로교회 | 선사로 459-1 | 목사 | 김승진 |
| 성화장로교회 | 전곡역로93번길 40 | 목사 | 백관선 |
| 세계로교회 | 선사로361번길 78 | 목사 | 최영학 |
| 열방하이교회 | 전영로 21 | 목사 | 김정로 |
| 십대지기 | 전영로 21 | 목사 | 김학성 |
| 열린교회 | 은대로 10 | 목사 | 양상숙 |
| 영일감리교회 | 평화로698번길 12-9 | 목사 | 민복기 |
| 예수뉘은교회 | 은전로103번길 20 | 목사 | 최 충 |
| 온골(모자이크)교회 | 온골로 25 | 목사 | 김태훈 |
| 은대감리교회 | 평화로940번길 11 | 목사 | 이병일 |
| 전곡감리교회 | 양연로 1591-15 | 목사 | 박진구 |
| 전곡사랑교회 | 선사로383번길 5-1 | 목사 | 박종호 |
| 전곡사랑의교회 | 은전로 94 | 목사 | 김태수 |
| 전곡생명교회 | 온골로 11 | 목사 | 조영민 |
| 전곡성결교회 | 전영로11번길 46-41 | 목사 | 이도행 |
| 전곡소망교회 | 전영로11번길 2-14 | 목사 | 한계문 |
| 전곡제일교회 | 은대성로 62 | 목사 | 김철희 |
| 전곡조흥교회 | 전곡로114번길 5 | 목사 | 이승주 |
| 전곡중앙감리교회 | 양연로 1562 | 목사 | 김창경 |
| 전곡중앙장로교회 | 전곡로40번길 1 | 목사 | 백성국 |
| 전곡창대한교회 | 밤골로 7 | 목사 | 최성훈 |
| 전곡충현교회 | 전은길 27 | 목사 | 육수복 |
| 주사랑엠마오교회 | 양연로 1073 | 목사 | 손성숙 |
| 주은총교회 | 전은길 58 | 목사 | 조성기 |
| 평강감리교회 | 은전로86번길 54 | 전도사 | 권덕상 |

| | | | |
|--------------|-------------|-----|-----|
| 행복한교회 | 전은길 15 | 전도사 | 김선택 |
| 행복한우리교회 | 전영로73번길 30 | 목사 | 박양순 |
| 대한예수교침례회연천교회 | 평화로848번길 37 | 목사 | 정해수 |

(3) 군남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군남감리교회 | 청정로 2281 | 목사 | 이재은 |
| 군남제일교회 | 삼거4길 24 | 목사 | 임재용 |
| 군남중앙교회 | 군남로 442 | 목사 | 최형화 |
| 선곡교회 | 군남로 596 | 목사 | 김동욱 |
| 옥계광명교회 | 군남로 890 | 목사 | 유동일 |
| 옥계장로교회 | 옥계안길 30 | 목사 | 박명원 |
| 왕림제일교회 | 진은로 434 | 목사 | 윤현 |
| 진상장로교회 | 진상4길 62 | 목사 | 강효열 |

(4) 미산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동이마을 감리교회 | 마동로 222-12 | 목사 | 김부린 |
| 마전순복음교회 | 청정로 1317-1 | 목사 | 이성기 |
| 미산장로교회 | 마유로 253 | 목사 | 박성환 |
| 아미성도교회 | 청정로 733번길 48 | 목사 | 정종운 |
| 아미교회 | 노아로 711-1 | 목사 | 김광현 |
| 우정리교회 | 청정로 1715 | 목사 | 윤광모 |
| 찬양선교교회 | 청정로 1671번길163 | 목사 | 김영진 |
| 왕산감리교회 | 왕산로 27번길 41 | 목사 | 김석수 |

(5) 백학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노곡제일교회 | 진목로 12 | 목사 | 김종환 |
| 백학교회 | 두일리 산131 | 목사 | 심규영 |
| 백학성심감리교회 | 두일로 123 | 목사 | 박호엽 |

(6) 신서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대광감리교회 | 도대로 8 | 목사 | 이락재 |
| 대광중앙교회 | 도대로11번길 48-8 | 목사 | 정인영 |
| 대신장로교회 | 연신로1103번길 13 | 목사 | 이진천 |
| 도신교회 | 연신로766번길 15 | 목사 | 권유철 |
| 신탄리햇순감리교회 | 연신로1615번길 56 | 목사 | 윤은희 |
| 신탄중앙장로교회 | 연신로1615번길 26-2 | 목사 | 이동선 |

(7) 왕징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동중리교회 | 왕산로 852-5 | 전도사 | 박홍수 |
| 영광감리교회 | 노동로 36 | 목사 | 권능 |
| 반석장로교회 | 북삼로100번길 32-7 | 목사 | 허용준 |

(8) 장남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원당장로교회 | 장백로 24 | 목사 | 김광철 |

(9) 증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선한이웃교회 | 군중로 889-8 | 목사 | 은금홍 |
| 한사랑감리교회 | 군중로 371-21 | 목사 | 강성은 |
| 횡산교회 | 군중로902번길 16-1 | 목사 | 조준호 |

(10) 청산면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 | 직위 | 성명 |
| 다운교회 | 초대로 221 | 목사 | 장병철 |
| 대전리장로교회 | 청창로200번길 9 | 목사 | 류윤화 |
| 대전리제일교회 | 청창로 177 | 목사 | 양종환 |
| 백의감리교회 | 백의로19번길 28 | 목사 | 박상우 |
| 백의장로교회 | 백의로13번길 21 | 목사 | 이상열 |
| 청산교회(통합) | 청신로58번길 22-13 | 목사 | 김영태 |
| 청산교회(합동) | 궁평로 73 | 목사 | 김용성 |
| 초성감리교회 | 학담로 92 | 목사 | 최 호 |
| 평화로교회 | 학담로89번길 46 | 목사 | 조무선 |

5. 원불교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 박종빈이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하여 창교한 한국의 새로운 생활 불교이다. 우리나라 4개 종단의 하나인 원불교의 종지는 법신불 일원상 'O'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일원상의 진리가 실현되는 원만 평등한 낙원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원불교의 이상이다. 일 원상은 법신불이니 우주만류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일원상의 진리는 인과보응의 신앙문과 진공모유의 수행문이 있다. 신앙문은 사은과 사요로 되어 있다. 사은은 천지는·부모은·동포은·법륜은을 말한다. 사요는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말한다. 이것은 '본은즉불공'의 생활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한 사회 개혁의 가지 실천 요목이니, 자신과 사회의 복락을 다련하는 이상의 사은과 사요를 실천하면 결국은 "곳곳마다 부처요 일일마다 불공이다"라는 진리를 깨쳐서 일원상의 체성에 합하게 된다.



〈원불교 전교교당 전경〉

수행문은 삼학과 팔조로 되어 있다. 삼학은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를 말한다. 팔조는 삼학을 수행할 때 추진해야 할 요소와 버려야 할 요소를 이르는 것으로 ‘진·분·의·성’ 4가지를 진행사조라 하고 ‘불신·탐욕·나·우’ 가치를 사연사조라 한다. 삼학과 팔조는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는 방법이므로 사람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부요도’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신앙과 수행을 조화하여 병진해야만 원만 구축하고 지공무사한 법신불 일원상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어 스스로 부처를 이루고 나아가 중생을 제도하여 제생의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교리는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이라는 4대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 거관으로 교화·교육·자선·산업·문화 부분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인 종교 활동은 국제연합비정부단체(N.G.O.S)·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세계연방종교자협의회의(W.A.W.F)·세계불교도회(W.F.B)·국제종교자유연맹(LA.RF)·국제종교연합기구협의회(I.I.O.C.C)·이해의 성당(T.O.U) 등에 정식 회원으로 참가하여 국제간 종교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사업은 원광대학교·영신원불교대학교·원불교대학원대학교·원광보건전문대학교·원광고등학교 등의 7개 중·고등학교와 151개의 유아 교육 기관을 두고 있다. 자선 사업으로는 무의탁자들의 수용 시설과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과 개별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종합병원·한방병원·보화당한의원 등 의료 사업과 은혜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이웃 사랑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법당을 통하여 포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에는 전곡읍 전은길 184-38에 원불교 연천교당이 포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

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은혜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연혁은 아래와 같다.

□ 연천군 원불교의 연혁

1997년(원기82년) 도봉교당 앙타원 박지은, 운산 최운전 교도가 희사한 현 위치 9천평의 부지에 개척교화를 시작으로 1998년(원기83년) 초대 최정풍 교무가 발령받아 현 위치에 은혜마을과 전곡읍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2006년(원기91년)에는 제5보병사단 군중교화를 시작하였다. 원기 94년 2대 교무 월산 강문성이 부임하였고, 그 이듬해 현 3대 교무인 연타원 사연명이 부임하여 은혜마을을 확장하고, 원기 100년부터 교당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승인과 제반 허가를 득하여 2022년(원기 107년) 9월 25일 교당신축 준공 봉불식을 거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일제강점기 백백교(百百教)의 만행과 연천

백백교의 전신은 백도교로, 1899년경 동학의 이파의 교도인 전정운(全庭芸)의 차남인 용해(龍海, 후에 백백교 교주)에 의해 1919년에 창설되었다. 전용해는 자신은 천부님의 아들이고 세상은 멀지 않아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15계명을 지키고 피난소를 찾아야 한다며 전국에 53개소의 피난소를 만들며 우매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꺾어 허무맹랑한 교리와 선전으로 현혹하여 신도 수가 1만 명 이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게 된다.

절대복종과 맹신의 신도들은 재산을 착취당하며 만행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데, 전용해는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모든 여신도들과 신도들의 딸은 천주인 자신에게 성단의 예물로 몸을 받쳐야 영생불사한다고 현혹하게 해서 많은 여신도를 농락하였다. 자기 뜻대로 재물과 성착취가 이루어지자 이제는 신도 외에 바깥세상에까지 그는 손을 뻗쳐 많은 어린 소녀와 여자를 납치하여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강간, 살인을 자행했다.

사이비 종교인 백백교가 경기도 동북부 일대와 강원 영서 황해남부 등지로 퍼져 나가면서 그 폐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연천 관내에서도 백백교로 인한 피해의 광란은 비껴가지 않았는데 그 장소가 전곡읍 간파리(干坡里) 세곡동과 신서면 대광골이다.

간파리의 만행현장인 한가지골은 인접한 동두천 상봉암동의 천원금광에서 사기 살인극을 연출하던 간부들의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주로 천원금광에서 넘어온 부녀자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외부에서 찾아와 소원 성취를 비는 여신도들의 안식처로도 사용하는 행태를 넘어, 여신도 및 부녀자들을 현혹하여 능욕하고, 약제술을 먹인 뒤 살해 암매장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만행이 계속 이어지던 중 간파리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여신도가 동두천주재소에 신고함으로써 1937년 수배에 쫓기며 도주하던 전용해는 고향에서 자살하고, 백백교 일당은 동대문경찰서 수사대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백백교의 만행으로 살해되어 당시 밝혀진 사체의 수만 346구에 이르렀고, 그 만행의 현장은 연천의 간파리 대광리, 철원, 평강, 안변 등의 경원선축과 황해도 봉산과 사리원, 양평 등지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다.



〈백백교 만행의 현장인 간파리 한가지골 전경〉



〈백백교 만행의 현장인 대광리 셋대광골 전경〉

III. 체육생활

1. 체육시설

연천 관내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체육 시설물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제일 적은 인구수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대 들어 주민들의 체육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문화육구와 함께 다양한 종목으로 퍼져가는 추세이다.

다음에서 군 체육 시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연천 공설운동장 현황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체육 시설을 알아보겠다.

1) 공설운동장

연천군내 공설운동장은 연천읍 문화로 150에 1991년 11월 2일부터 1994년 7월 30일까지 총 69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되었다.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운동장의 현대화를 통해 외부의 체육대회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 체육의 기반 조성은 물론, 국내 프로축구 경기와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도 가능하다.

2022년 기준 현재 공설운동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설운동장 현황〉

| | |
|------|---|
| 착공일 | 1991년 11월 2일 |
| 준공일 | 1994년 7월 30일 |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외 1필 |
| 면적 | 부지면적 98,898㎡, 건축면적 5,831㎡, 연면적 2,368㎡ |
| 관람석 | 7,633석(최대 9,000석) |
| 주요시설 | 육상트랙(400m, 3000m), 농구장(2코트), 축구경기장(6,930㎡), 테니스장(12면) 등 |

2) 연천파크골프장

2022년에는 군남면 진상리 610번지 일원에 연천파크골프장을 개장하였다. 총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되어 36홀 38,478㎡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갖추었다. 연천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식 구장으로 인증 받아 지역 대표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연천군 주요 체육 시설

〈연천군 주요 체육 시설 현황〉

| 읍면 | 체육 시설 | | | | | | | | | | | | |
|-----|-------|-------|-------|-----|-------|-----|-----|-----|-----|-----|------|-----|-----|
| | 게이트볼장 | 골프연습장 | 공설운동장 | 궁도장 | 배드민턴장 | 수영장 | 야구장 | 체육관 | 축구장 | 탁구장 | 테니스장 | 풋살장 | 족구장 |
| 연천읍 | 3 | - | 1 | - | - | 1 | - | 1 | 1 | - | 1 | 2 | - |
| 전곡읍 | 3 | - | - | 1 | 1 | - | - | 1 | 1 | 1 | 1 | - | 1 |
| 군남면 | 2 | - | - | - | 1 | - | 1 | - | 1 | 1 | - | 1 | - |
| 청산면 | 5 | 1 | - | - | 2 | - | - | - | - | - | - | - | - |
| 백학면 | 2 | - | - | - | 1 | - | - | - | - | - | - | 1 | - |
| 미산면 | 1 | - | - | - | 1 | - | - | - | - | - | - | - | - |
| 왕징면 | 3 | - | - | - | 1 | - | - | - | - | - | - | - | - |
| 신서면 | 1 | - | - | 1 | 1 | - | 1 | - | - | 1 | 1 | 1 | - |
| 중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남면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계 | 20 | 1 | 1 | 2 | 9 | 1 | 2 | 2 | 3 | 3 | 3 | 5 | 1 |

출전. 공공데이터포털(경기도 연천군 체육시설 현황, 2022.11.26)

군내 체육 시설은 대체로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군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형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육단체

1) 연천군체육회·연천군장애인체육회

(1) 창립 배경

연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5조 항에 의거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목적을 두고 1990년 2월에 창립되었다. 연천군장애인체육회는 2018년에 발족하여 장애인의 체육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창립된 이래로 연천읍 문화로 150에 소재한 연천군 공설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연천군체육회·연천군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2기 민선 체육회장으로 최용만과 연천군수 김덕현이 역임하고 있다.

(2) 조직 및 구성

연천군체육회는 의결 기구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직원 4인, 지도자 9인을 두고 있다. 연천군장애인체육회는 의결 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집행 기구로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6명, 감사 2인을 두고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 사무직원 2인, 지도자 1인을 두고 있다.

체육 관련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연천군체육회의 경우 10개 읍면에서 체육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연천군종목별협회는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109개 클럽에는 3,0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천군체육회는 군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현황

연천군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연천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격년제)
-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중고 축구대회 개최
- 연천군수기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 육상, 테니스, 궁도 등 도단위 대회 개최
-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 종목별 도지사기(배) 대회 출전
- 초등스포츠클럽, 경기스포츠빌리지 운영
- G-스포츠 테니스, 사이클 교실 운영
- 군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교실 운영
-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운영

3. 체육활동

1) 주요 체육 활동

연천군내 체육단체는 연천군육상연맹, 연천군축구협회, 연천군테니스협회, 연천군탁구협회 등 20여 개의 체육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운동 종목 중에서 연천군내 학교 운동경기부로 조직된 운동으로 테니스, 육상, 사이클 종목이 있으며, 이들 종목에 대한 연천군민

의 관심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테니스와 축구는 1990년대부터 한탄강배 오픈테니스 대회나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등이 매년 개최가 된 바, 군민들 사이에서 각광 받는 체육 종목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 개최된 주요 체육 대회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연천군체육회·연천군테니스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경기도 시·군 단위의 동호인 500인과 250팀이 참여한 2022 연천DMZ OPEN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2017년에는 K7 리그가 개막하면서 연천에서 6개의 선수단이 발족되었다. 2022년에는 K리그 아마추어 차상위 축구 리그인 K6 리그에서 연천 왕산 FC가 전국 순위에 오르는 우수한 기록을 자랑하며 체육 종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 초·중·고 운동경기부 및 체육활동

다음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종목과 그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학교에서 체육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는 체육 종목은 테니스, 육상, 사이클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군남초등학교, 백의초등학교, 초성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 고랑포초등학교 등에서 축구, 육상, 배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대회를 치렀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일부 학교가 통·폐합 되어 현재는 전곡초등학교, 전곡중학교, 연천중학교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에서 학내 운동경기부가 조직되어 있다.

연천군내 학교 운동경기부의 주요 체육활동을 살펴보겠다. 연천군은 매년 경기도 육상대회를 유치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내 초·중·고 등 20명 정도의 육상팀 선수들이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22년은 각 운동경기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로 기록된다. 육상팀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전곡고등학교 선수 7명 가운데 5명이 경기도대표로 참가하여 연천군 육상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테니스팀은 경기도협회장배 학생테니스 대회에서 남녀 중등부가 나란히 우승을 거두었다.

한편 사이클 종목은 연천중·고등학교에 창설되어 있다. 연천중학교에서 먼저 사이클팀이 1987년에 창단되었고, 뒤이어 연천고등학교에서 1989년에 여학생 사이클부가 창단되어 2021년에는 남녀 사이클부로 개편된 바 있다. 연천군의 사이클 종목은 연천중-연천고-연천군청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한편 30년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사이클 종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연천군 학교 운동경기부 현황〉

| 종목 | 학교 운동경기부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테니스 | 전곡초등학교 | 전곡중학교 | 전곡고등학교 |
| 육상 | 전곡초등학교 | 전곡중학교 | 전곡고등학교 |
| 싸이클 | | 연천중학교 | 연천고등학교 |

출전. 연천군체육회 홈페이지(2023.03.27)

제4권상

연천의
행정구역과
변천사

연천의
인문환경과
교통

연천의
민속과
생활

연천지역의
언어생활

연천 관련
문학과
향토문학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체육

IV. 지역 문화예술 및 활동

1. 연천문화원

1) 창립 배경 및 목적

연천문화원은 법률 1706 (1965. 7. 1) 「지방문화조성법」과 「시행령」 및 「대통령령」 2335 (1965. 12. 24) 로 시행, 공포된 법률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홍보활동은 물론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전승과 지역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한 인사들이 모여 1986년 12월 1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연천문화원이 1986년 12월 12일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하였다. 2002년에는 향토사료관을 완공하여 DMZ 및 민통선내의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를 수집 및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연천문화원은 원래 연천읍 옥산리 449번지에 소재하였으나 1999년 11월에 현재의 위치한 연천읍 문화로 143에 독립된 사옥을 갖추어 이전하였다. 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두고, 정치 및 종교 분야를 간섭하지 않는 순수한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연천문화원 주요 사업 현황〉

| 사업명 | 사업시기 | 사업내용 |
|------------------|--------|--|
| 연천문화원 문화학교 교실 | 상시 | • 연천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 증진 • 문화 예술 향유 |
| | 장소 | • 연천문화원 강좌실 |
| 3.1운동 기념식 | 연 1회 | • 독립 만세운동 정신 추모 및 군민 화합 |
| | 장소 | • 연천 수레울 아트홀 |
| 미수문화제 | 매년 10월 | • 미수 허목선생의 서예를 기림 • 미수 허목선생의 삶과 서예 작품을 군민에게 널리 알림 |
| | 장소 | • 연천 미수허목묘역 |
| 문화유적지 답사 | 연 2회 | • 역사문화유적 답사 후 연천 소재 유적의 유지 발전방 향 모색 |
| | 장소 | • 국내, 국외 |
| 연천문화지 발간 | 매년 11월 | • 향토사 연구 등을 정리하여 군민에게 연천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전달 |

출전. 연천문화원 홈페이지(2023.3) 일부 수정

2) 기구 및 주요업무

연천문화원의 조직은 원장 1인, 부원장 2인, 자문위원장 1인, 감사 2인, 이사 18인, 여성위원장 1인, 사무국 5인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천문화원의 주요 업무는 ①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②지역문화행사의 개최(미수문화제 등) ③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④지역전통민속놀이의 연구 및 계승 ⑤문화 교육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⑥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문화아카데미) ⑦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주관 ⑧민통선 지역 내의 유적발굴사업 등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업무 중에서 연천문화원이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화 행사와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시설

연천군내의 문화 예술 활동은 주로 미술·문학·음악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시 및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연천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 시설로 연천읍에 소재한 연천수레울아트홀이 있다. 연천수레울아트홀은 2011년에 개관한 이래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을 군민 직접 누리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가수, 뮤지컬, 연극, 연주회, 콘서트 공연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영화관을 2013년부터 개관하여 군민들과 대중문화와의 거리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은 2017년에 출범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연천관내 중·고

〈연천군내 문화시설〉

| 연도 | 공연시설 | | | 전시실 | | 지역문화복지시설 | | | 기타시설 | | |
|------|-------|-------|-------|-----|----|----------|--------|-------|------|-----|------|
| | 공공공연장 | 민간공연장 | 영화상영관 | 미술관 | 화랑 | 군민회관 | 종합복지회관 | 청소년회관 | 문화원 | 국악원 | 전수회관 |
| 2019 | 3 | - | 1 | - | - | 1 | 2 | 1 | 1 | - | - |

출전. 문화체육과 제6회 연천통계연보 일부 수정

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동아리지원 사업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3D펜 공예, 댄스 프로그램, 보드게임, 보컬트레이닝, 드럼 등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 언론 기관

연천군에 소재한 언론 기관으로는 지역신문사를 꼽을 수 있다. 관내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전곡읍과 연천읍을 중심으로 지역신문사가 창간되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정보와 소식을 취재하여 상세히 보도하는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힘쓰고 있다. 관내 신문사의 취재대상 지역은 크게 연천, 포천, 동두천 등을 포함하여 보도하거나 작게는 연천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는 연천군에 소재한 주요 지역신문사이다.

(1) 연천신문

연천읍 연천로 254-1에 소재하고 있다. 1996년 9월 20일 창간하여 지역 내의 각종 사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부터는 인터넷등록을 하여 수시로 지역사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 경기북부타임즈

전곡읍 선사로 387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북부타임즈는 1997년 10월 26일에 '연천복지신문'으로 창간하여 '연천저널'로 제호를 변경하였다가 '포천타임즈'와 통합하여 '경기북부타임즈'가 되었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동두천·연천신문

전곡읍 전은길 67에 소재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에 창간한 지역신문으로 동두천 및 연천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4) 연천군민신문

전곡읍 전은길 67에 소재하고 있다. 2011년 9월 9일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며, 지역 내의 각종 사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4. 도서관 및 출판단체

출판단체의 증감은 지역사회를 이루는 주민들의 독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량 감소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독서인구 수가 감소한 원인은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대중미디어의 사용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근래에는 종이책을 비롯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및 기타 디지털 형식으로 도서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도서관에서도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군민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생활화 및 지역문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서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중앙도서관을 개관한 이래로 2010년 이후에는 학마을작은도서관, 상리작은도서관, 무등실작은도서관, 신서작은도서관 등 읍·면·리 단위의 행정구역에도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독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연천군에 소재한 출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2023.3)’에 따르면 영업 중인 출판사는 18개소, 폐업한 출판사는 3개소로 집계된다. 현재 영업 중인 출판사의 과반 이상이 2010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는 연천군에 소재한 출판사이다.

〈연천군내 출판단체 현황〉

| 연번 | 출판단체명 | 설립연도 | 연번 | 출판단체명 | 설립연도 |
|----|-------------|------|----|-------------------|------|
| 1 | 도서출판 사라의 딸들 | 2023 | 10 | 디엠지 미디어 | 2014 |
| 2 | 도서출판 전은 | 2023 | 11 | 포토에듀 | 2013 |
| 3 | 뜻밖의 행운 | 2021 | 12 | 쪽704 | 2013 |
| 4 | 고래북스 | 2002 | 13 | 이팝나무 | 2012 |
| 5 | 모여숲 | 2021 | 14 | (재)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 2011 |
| 6 | 즐거운발견 | 2018 | 15 | 도서출판 하늘별꿈 | 2009 |
| 7 | 천궁출판사 | 2006 | 16 | 아래아 | 2006 |
| 8 | 미산사진연구소 | 2004 | 17 | 한글샘 | 2006 |
| 9 | 북톡톡 | 2015 | 18 | 주식회사 현암 | 2003 |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2023.3) 일부 수정

5. 축제

연천군에서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매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여 이색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연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문화유적지에서 열리는 축제와 지역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직판매하는 축제로 구분된다.

연천군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는 10개 정도가 있으며, 축제 기간은 연중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매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에서 진행되는 연천 구석기 축제, 고구려 성곽 유적인 호로그루(사적 제467호)에서 해바라기를 만나볼 수 있는 통일바라기 축제, 연천 고려인삼축제 등이 있다. 다음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현황이다.

〈연천군 주요 축제 및 행사〉

| 축제 및 행사명 | 기간 | 장소 | 개요 |
|---------------------------|---------|---------------|---|
| 연천 구석기 축제 | 5월 초 | 연천 전곡리 유적 |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곳으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체험 중심의 선사문화축제 |
| 연천울무축제 (농특산물큰장터) | 10월 중 | 연천 전곡리 유적 | 연천의 청정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 |
| 연천 국화 전시회 | 10월 중 | 연천 전곡리 유적 | 연천 전곡리 유적 입구 30,000㎡ 면적에 오색 국화로 가을 분위기 연출 |
| 통일바라기 축제 | 8~9월 중 | 장남면 호로그루 일원 | 2014년 1월 ‘명품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
| 청산 오이 축제 | 6월 중 | 청산면 청산복지관 | 청산면 특산품인 오이의 맛과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이벤트 마련 |
| 연천 고려인삼축제 | 10월 중 | 연천 전곡리 유적 | 연천에서 생산하는 개성인삼이 원조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직거래하는 축제의 장 |
| 당포성 별빛 축제 | 10월 중 | 미산면 동이리 당포성 | 별보기 좋은 명소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체험 중심의 축제 |
| 입진강 댐싸리 공원 개장 | 8~10월 중 | 중면 삼곡리 422 일원 | 8월의 초록으로 물든 댐싸리부터 10월 붉게 물든 댐싸리까지 자연을 품은 힐링 축제 |
| 연천 거리문화축제 “연천, 그때 그랬소” | 5월 초 | 전곡 전통시장 일원 | 전곡의 7080을 재현한 레트로거리 축제 |
| 연천 DMZ 국제음악제 | 7월 중 | 경기도 연천군 일원 | 평화와 화합의 주제로 2011년에 시작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

漣川郡誌 (4권(상))

| 연천의 삶과 문화

| | |
|------|---|
| 발행일 | 2023년 7월 30일 |
| 발행처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 편 집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문화유산융합연구소 |
| 제 작 | 네오이크(02-3143-6092) |
| ISBN | 979-11-979960-1-6(05090) 979-11-951975-9-0(세트)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 031-839-2114(대표번호)

비매품

05090



9 791197 996016

ISBN 979-11-979960-1-6

ISBN 979-11-951975-9-0(세트)